

인천의 문화사적과 역사 터 **하**

인천광역시사 9

인천의 문화사적과 역사 터하

인천광역시사편찬위원회

❖ 일러두기 ❖

1. 편찬 기본 방침

- 2018년《인천광역시사(⑨호)》는 ‘새로운 인천’을 지향하면서 인천만의 고유한 역사 문화유산을 찾아 재정리한 『인천의 문화사적과 역사 터』를 발간함으로써, 1973년부터 진행된 5차례의 시사편찬 경험을 바탕으로 향토 인천의 『市史』가 될 수 있도록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2018년 ‘인천특별시대’를 여는 바탕으로써 ‘미추홀2030년 인천정명600년’의 유구한 인천 역사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인천 시민들의 애향심과 자긍심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인천 역사가 담긴 ‘문화사적’과 ‘역사 터’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인천광역시사를 발간하고자 하였다.
- 서술체제 및 방법에서, 현재 인천광역시 행정관할 10개 군구의 역사와 변천 과정이 드러날 수 있도록 포괄하되, 기사본말체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통시대적으로 정리하였다. 아울러 시민의 입장에서 보다 흥미롭게 문화유산과 인천의 오랜 역사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규격과 판형에서도 시민들에게 보다 친숙한 형태로 전환함으로써 시민들의 공감과 가독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 2013년 제5차 편찬작업을 계기로 2018년에 이르기까지 매년 『인천 체육의 발자취』, 『인천의 지명』, 『인천의 지리와 지도』, 『인천의 건축』, 『인천의 섬과 역사문화유산』, 『인천의 섬과 역사문화유산』 등 주제를 달리해서 1~2권의 『시사』를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편찬하는 중장기 계획을 통해 시대적 변화를 보다 효율적으로 반영하고자 했다.

2. 집필 원칙

- 그간의 연구성과를 반영하되 중복되는 내용은 지양하고, 앞으로의 과제와 최근의 변화 발전상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 서술 시기는 전근대부터 2017년 12월까지로 하였으나, 편찬과정에서 수렴된 상황도 부분적으로 포함하였다.
- 문장은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고등학교 교재 수준으로 하였고, 한자나 외국어가 필요한 경우는 괄호 안에 병기하였으나, 인용문과 각주는 원문을 그대로 반영하였다.

- 연대는 서기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괄호 안에 왕력 등을 부기하였다.
- 용어는 국정교과서의 용례에 따랐고,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은 항목의 명칭은 학계에서 널리 통용되는 것으로 하였다.
- 자주 사용되는 기호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사용하였다.
 - 『 』: 문헌이나 저서명 「 』: 논문명
 - 《 》: 총서명이나 관보, 신문 < >: 신문, 잡지 기사
 - []: 한글과 음이 다른 한자 표기

3. 내용

- 『인천의 문화사적과 역사 터』는 강화와 옹진을 포함한 인천 10개 구군의 오랜 문화유적과 터로만 남은 역사의 흔적을 집적하고 특히, 점차 사라져 가는 인천 각 지역의 오랜 역사성이 담긴 사실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 『인천의 문화사적과 역사 터』는 상·하 2권으로 구성되었다. 각 권은 내용의 과다를 편집상 조절하여 상권은 중구, 동구, 남구, 남동구, 연수구 등 5개구를 편제하였고, 하권은 서구, 부평, 계양, 강화군으로 편제하였다. 각 권에는 각 구군의 역사와 사적 현황 등이 상세히 소개되고 있다.
- 『인천의 문화사적과 역사 터』상권의 주요 내용으로는 중구에 소재한 법정동을 포괄한 행정동을 중심으로 신포동, 연안동, 동원동, 신흥동, 율목동, 북성동, 송월동, 영종동, 용유동 등에서의 문화사적과 역사 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동구는 조선시대 묘도 포대 터로부터 일제강점기 산업화의 거점 역할을 하면서 현재까지 남아 있는 산업유산과 역사 터를 기록하였다. 남동구, 연수구, 미추홀구의 경우에는 옛 선조들의 묘역과 옛 읍치로서의 흔적들, 인천도호부 관아 터, 인천향교, 사직단, 학산서원 터 등을 새롭게 정리하였다.
- 『인천의 문화사적과 역사 터』하권의 주요 내용으로는 부평구, 서구, 계양구의 전 근대 문화유산과 근대 산업 유산을 터와 함께 정리하였다. 강화군은 선사시대 분묘로부터 고대, 고려, 조선시대 문화유산을 체계화 해보고, 근현대 문화유산에 이르기까지 정리하였다. 옹진군의 경우도 백령면, 대청면, 연평면, 북도면, 덕적면, 자월면, 영흥면 등 각 면별로 남아 있는 문화유산과 역사 터를 찾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일러두기

부평구 · 서구 · 계양구

13

부평구 역사 문화 유적 15

인천 일본육군조병창 | 경인기업주식회사 주택 | 미쓰비시제강 인천제작소 공장 터 (히로나카 상공 부평공장) | 미쓰비시제강(주)사택 | 한하운 시인 가옥터 | 청천동 한센인 자활농장 터 | 십정동 우물 | 천일제염 시험 터 | 십정동 창녕성씨 묘역 | 경인선 부평역 | 부평동 철도 관사 | 국산자동차 사택 및 디젤자동차주식회사 사택 | 청천동 검정사택 | 인천북부교육지원청 인근 일본식 가옥군 | 부평문화의 거리 인근 일본식 가옥군 | 성현 옛길 터 | 미8군 군수지원사령부 터 | 6·25전쟁 부평지구 전투 터 | 한국지엠 부평공장 | 인천 일본육군조병창 지하공장 건설 터 |

서구 역사 문화 유적 63

연희진 터 | 연희포대 터 | 가정포대 터 | 축곶봉수 터 | 중심성 터 | 공촌동 청송심씨 묘역 | 대곡동 전주류씨 묘역 | 대곡동 전주이씨 묘역 | 백석동 광산김씨 묘역 | 검암동 진천송씨 묘역 | 경서동 김해김씨 묘역 | 심곡동 전주이씨 숙의문씨 묘역 | 당하동 고성이씨 묘역 | 마전동 청도김씨 묘역 | 사천동 전주이씨 묘역 | 원창동 밀성박씨 묘역 | 대곡동 밀양당씨 정열비 | 가정 터 | 한들방죽

서구의 유물산포지 80

두밀 유물산포지 | 마전동 유물산포지 | 대곡동 유물산포지 1 | 대곡동 유물산포지 2 | 대곡동 유물산포지 3 | 대곡동 유물산포지 4 | 대곡동 유물산포지 5 | 대곡동 유물산포지 6 | 대곡동 유적추정지 1 | 대곡동 유적추정지 2 | 대곡동 유적추정지 3

| 검단 유적 | 불로동 유적 | 불로동 유물산포지 | 백석동 유물산포지 1 | 백석동 유물산포지 2 | 백석동 유물산포지 3 | 당하동 유적 | 원당동 유적 | 당하동 유물산포지 | 경서동 유물산포지 1 | 경서동 유물산포지 2 | 경서동 유물산포지 3 | 경서동 유물산포지 4 | 경서동 유물산포지 5 | 시천동 유물산포지 2 | 검암동 유물산포지 1 | 검암동 유물산포지 2 | 청라도 유물산포지 | 이도 유물산포지 | 소문침도 유물산포지 | 연희동 유물산포지 | 가정동 유물산포지 1 | 가정동 유물산포지 2 | 장금도 유물산포지 | 한자곶 유물산포지 | 원창동 유물산포지 1 | 원창동 유물산포지 2 | 서구 유물산포지 |

계양구 역사 문화 유적 99

독실동 청송심씨 묘역 | 이명달 묘 | 황어장 터 | 명월사 터 | 금륜역 터 | 사직단 터 | 초정 터 | 자오당 터 | 백룡사 미륵불 | 봉일사 터 3층석탑 | 봉일사 터 | 부평초등학교 내 선정비군 | 중심성 터 |

강화군

119

강화군 역사 문화 유적 121

선사분묘 121

고천리 고인돌군2 | 교산리 덕고개 고인돌 | 교산리 덕응 고인돌군 | 교산리 목골

고인돌군 | 교산리 증산 고인돌군 | 북성리 말미 고인돌군 | 창후리 별립산 고인돌 | 창후리 사촌 고인돌군 | 창후리 뒷물 고인돌 | 창후리 구동 미보고 고인돌 | 이강리 성경 고인돌 | 덕하리 고인돌군 | 양오리 관돌산 고인돌 | 망월리 고인돌군 | 오상리 고상골 고인돌 | 삼거리 천촌1 고인돌군 | 삼거리 천촌2 고인돌군 | 신삼리 고인돌 | 하도리 고인돌 | 하도리 아랫말 고인돌군 | 하도리 오류내 고인돌군 | 삼거리 소동 고인돌군 | 도장리 어두부락 고인돌

선사유적 및 패총..... 138

건평리 대화촌 선사유적 | 도장리 선사유적 | 동막리 선사유적 | 사기리 선사유적 | 삼거리 선사유적 | 여차리 선사유적 | 주문도리 선사유적 | 석모리 규리란 패총 | 창후리 패총 | 교동 읍내리 사신당 패총

분묘, 고분군..... 146

고천리 고분군 | 길정리 석릉 주변 고분군 | 양오리 고분군 | 장정리 수월하 고분군 | 고천리 연촌 지물재 고분군 | 냉정리 개골동 고려 왕릉지 | 연리 능골 고려 가왕릉지 | 외포리 고분군 | 능내리 돌방무덤(石室墓) | 건평리 화촌 고분 | 조산리 예천군 이천 묘 | 조산리 정오대부고양정 이공 묘 | 하일리 권개 묘 | 하일리 송세영 묘 | 하일리 정근, 정유성 묘 | 정상징 묘 | 인산리 호박골 전경례, 전창길 묘 | 인산리 황골 고분 | 하일리 고분군 1 | 하일리 고분군 2 | 삼흥리 고분군 | 고능리 능촌 구유홍 묘 | 고능리 아침가리 고분 | 념성리 구원일 묘 | 덕성리 광성보 순절묘단 | 두운리 고경신 묘 | 사기리 작은사골 이시원 묘 | 문산리 방식 묘 | 대산리 황선신 묘 | 월곡리 대묘동 고분 1 | 월곡리 대묘동 고분 2 | 월곡리 대묘동 황예현 묘 | 월곡리 대묘동 황예현 경주 김씨 부인 묘 | 월곡리 대묘동 황침 묘 | 월곡리 대묘동 황유 묘 | 월곡리 대묘동 황찬 묘 | 월곡리 유일충 묘 | 냉정리 물우리 조요룡 묘 | 철종 외가 묘 | 장정리 긴우물 하음백 봉우 묘 | 고천리 연촌 고려산 고분군 | 금월리 고분군 | 양오리 김지곡 고분군 | 장정리 긴우물 고분군 | 창후리 고분군 | 하도리 고분군 |

교동 상룡리 남대우동 김봉상 묘 및 묘갈 | 교동 상룡리 남대우동 김구상 묘 | 교동 상룡리 남대우동 김현 묘 | 교동 읍내리 고분

국방 유적 181

염주돈대(念珠墩臺) | 석우돈대(石隅墩臺) | 소우돈대(疎雨墩臺) | 광성돈대(廣城墩臺) | 손석항돈대(孫石項墩臺) | 용두돈대(龍頭墩臺) | 동검북돈대(東檢北墩臺) | 송곳돈대(松串墩臺) | 구등곳돈대(龜登串墩臺) | 불장돈대(佛藏墩臺) | 작성돈대(鵲城墩臺) | 초루돈대(譙樓墩臺) | 갈곳돈대(葛串墩臺) | 양암돈대(陽堂墩臺) | 숙룡돈대(宿龍墩臺) | 가리산돈대(加里山墩臺) | 용당돈대(龍堂墩臺) | 오두돈대(鰲頭墩臺) | 옥창돈대(玉倉墩臺) | 망해돈대(望海墩臺) | 제승돈대(制勝墩臺) | 월곶돈대(月串墩臺) | 광암돈대(廣巖墩臺) | 섬암돈대(蟾巖墩臺) | 좌강돈대(左岡墩臺) | 의두돈대(蟻頭墩臺) | 천진돈대(天津墩臺) | 철북돈대(鐵北墩臺) | 석각돈대(石角墩臺) | 택지돈대(宅只墩臺) | 빙현돈대지(氷峴墩臺址) | 낙성돈대지(樂城墩臺址) | 적북돈대지(赤北墩臺址) | 휴암돈대지(鵠巖墩臺址) | 인화돈대지(寅火墩臺址) | 장자평돈대지(長者坪墩臺址) | 남장포대(南障砲臺) | 북성리 포대지(北省里 砲臺址) | 사망금포대지(四網金砲臺址) | 인화포대지(寅火砲臺址) | 진남포대지(鎭南砲臺址) | 황산포대지(黃山砲臺址) | 제물진지(濟物鎭址) | 월곶진지(月串鎭址) | 주문진지(注文鎭址) | 선두포 선두보지(船頭浦 船頭堡址) | 인화보지(寅火堡址) | 장곶보지(長串堡址) | 갑창성지(甲倉城址) | 고목근현 고읍성(古邑城) | 연촌 석축유구(石築遺構) | 정창성지(井倉城址) | 하음산성지(河陰山城址) | 혈구진성(穴口鎭城) | 고려산성(高麗山城) | 말도요망대(柵島要望臺) | 어유정 요망대(魚遊井 要望臺) | 불음도요망대(佛音島要望臺) | 수정산 봉수대(水晶山 烽燧臺) | 진강산 봉수대(鎭江山 烽燧臺) | 남장대 남산봉수대(南將臺 南山烽燧臺) | 남산 봉수대(南山 烽燧臺) | 대모산 봉수지(大母山 烽燧址) | 봉구산 봉수지(烽丘山 烽燧址) | 선두포구(船頭浦口) | 길상장(吉祥場) | 북일장 | 진강장

금석문 219

이안눌 선정비(李安訥 善政碑) | 황원우천씨 기념비(黃原祐天氏 紀念碑) | 황선신
정문(黃善身 旌門) | 차명세 정문(車命世 旌門) | 황경례공 정려(黃景禮公 旌閭) |
청해이씨 효자문(淸海李氏 孝子門) | 한산이씨 효자문(韓山李氏 孝子門) | 버드러
지 주동량 효자문(朱東良 孝子門) | 밀양박씨 효부문(密陽朴氏 孝婦門) | 평해황씨
효부정문(平海黃氏 孝婦旌門) | 열녀각(烈女閣) | 참성단 금표(塹城壇 禁表) | 함허
동천 각자(涵虛洞天 刻字) | 강화전쟁박물관 비석군 | 선두포 비석군(船頭浦 碑石
群) | 화도초교 앞 비석군(華道初校 碑石群) | 석포항 비석군(石浦港 碑石群) | 대
정 비석군(대정 碑石群) | 읍내리 비석군(邑內里 碑石群)

근현대 유적 235

교동교회 | 교동 상룡리 박두성 생가 터 | 신문리 황국헌 가옥 | 신문리 조양방직 사
무소 건물 및 공장건물 | 관청리 심도직물 터

기타 유적 245

갑곶지 이섭정(利涉亭) | 애련당(愛蓮堂) | 갑곶나루 선착장 석축로 | 선원보각지(璫
源寶閣址) | 신봉리 요지 | 양오리 관골 요지 | 사기리 분청사기 요지

건물지 249

진해사지(鎭海寺址) | 갈공사지(葛公寺址) | 용장사지(龍藏寺址) | 홍릉사지(洪陵寺
址) | 황련사지(黃蓮寺址) | 병풍암사지(屏風岩寺址) | 송악사지(松岳寺址) | 왕림사
지(汪林寺址) | 범머리사지 | 묵왕사지(墨王寺址) | 망고도사지(望古島寺址) | 묘지
사지(妙智寺址) | 묘통사지(妙通寺址) | 왕륜사지(王輪寺址) | 흥왕사지(興旺寺址) |
덕장사지(德藏寺址) | 흥천사지(興天寺址) | 금사골사지 | 안양사지(安養寺址) | 임
해사지(臨海寺址) | 혈구산무명절터(穴口山無名寺址) | 혈구사지(穴口寺址) | 용당

사지(龍堂寺址) | 구주사지(九州寺址) | 대정사지(大井寺址) | 봉은사지(奉恩寺址) |
수월사지(水月寺址) | 월명사지(月明寺址) | 안양사지(安養寺址) | 화양사지(華陽寺
址) | 오두정지(鰲頭亭址) | 솔정리 송정지(松亭址) | 대흥정지(大興亭址) | 해운정지
(海雲亭址) | 금위영지(禁衛營址) | 복파루지(伏波樓址) | 광화문지(廣化門址) | 중영
지(中營址) | 진무영지(鎭撫營址) | 형방지(刑房址) | 연무당지(鍊武堂址) | 선두포
수문지(船頭浦 水門址) | 훈련도감지(訓鍊都監址) | 덕진별관지(德津別館址) | 고읍
형옥지(古邑刑獄址) | 삼도수군통어영지(三道水軍統禦營址) | 추정 경원전지(推定
慶源殿址)

종교와 제의 289

백련사(白蓮寺) | 청련사(淸蓮寺) | 청련사 부도군(淸蓮寺 浮屠群) | 적석사(積石寺)
| 보문사(普門寺) | 정수사(淨水寺) | 함허대사 부도(涵虛大師 浮屠) | 동관제묘(東關
帝廟) | 남관운묘(南關雲廟) | 북관운묘(北關雲廟) | 황대근사당(黃大坤 祠堂) | 차명
세 정려(車命世 旌閭) | 평해황씨 효부 정려(平海黃氏 孝婦 旌閭) | 황형사당(黃衡
祠堂) | 문응규 사당(文應奎 祠堂) | 황효원 사당(黃孝源 祠堂) | 영모사(永慕祠) |
능내리 능안 당집 | 매음리 어유정 당집 | 불음도리 당집 | 상리 창말 당집 | 석모리
당집 | 읍내리 부근당(邑內里 扶芹堂) | 읍내리 사신당(邑內里 使臣堂) | 인산리 인
화성 당집

웅진군

327

웅진군 역사 문화 유적 329

백령면 329

백령도 가을리 고분군 | 첨사 박희덕 청백선정비(僉使 朴熙德 清白善政碑) | 중화동 교회 | 선창 대감막(船倉大監幕) | 화동염전(華洞鹽田) | 당개 서낭당 | 용기포 서낭당(龍機浦 城隍堂) | 백령도 사곳 사빈 천연비행장 | 진촌리 첨사선정비군(鎭村里 僉使善政碑群)

대청면 340

원 순제 궁궐터 | 원 순제 신황당 | 대청도 대청리 고려 고분군 | 대청초등학교 가마터(大靑初等學校 窯址) | 대청진 터 | 옥죽동 서낭당(玉竹洞 城隍堂) | 동네동 서낭당(東內洞 城隍堂) | 사탄동 장군당(沙灘洞 將軍堂) | 사탄동 서낭당(沙灘洞 城隍堂) | 선진동 서낭당(先津洞 城隍堂) | 소청도 영감당(小靑島 靈鑑堂) | 소청도 큰당(小靑島 大堂) | 소청도 등대 | 선진항 포경회사 터 | 김학선 송덕비

연평면 367

충민사(忠愍祠) | 연평 파시촌

북도면 370

장봉도 봉화산 봉수 터(長峰島 烽火山 烽燧址) | 장봉진 터(長峰鎭址) | 장봉도 형옥 터(長峰島 刑獄址) | 최준창 묘갈 및 묘역(崔俊昌 墓碣 및 墓域) | 장봉목장 마성

터(長峰牧場 馬城址) | 암행어사 이건창 영세불망비(暗行御史 李建昌 永世不忘碑) | 신도목장 마성 터(信島牧場 馬城址) | 장봉주민 구황비(長峰住民救荒碑)

덕적면 380

덕적도 진리 석비군(德積島 鎭里 石碑群) | 덕적진 터(德積鎭址) | 복리 파시촌 | 덕적도 서낭당 터

자월면 383

자월도 국사봉 봉수 터(紫月島 國思峰 烽燧址) | 대이작도 부아산 봉수 터(大伊作島 負兒山 烽燧址)

영흥면 385

영흥진 터 | 임현규 효자 정문 | 임세재 묘(林世載 墓 | 내리 큰우물 | 통일사 석불(通一寺 石佛) | 평택 임씨 묘역(平澤 林氏 墓域) | 삼신우물



인천의 문화사적과 역사 터

부평구·서구 계양구

부평구 역사 문화 유적

부평구

인천 일본육군조병창

■시대 : 일제강점기 ■유형 : 군사시설 ■소재지 : 산곡동 산20 일대



일본육군조병창(닉네임 Norb-Faye 소장사진), 사진 중앙 흰색 건물이 조병창 본부이다.

육군조병창은 일본 육군에서 사용되는 각종 병기를 생산하던 기관으로 1869년에 오사카(大阪)에 설치되었던 '총포화약제조국(銃砲火藥製造局)' 및 '조병사(造兵司)'가 전신이다. 이후 1887년에 조병사는 포병본창(砲兵本廠)과 支廠(오사카)으로 분류되었다가 1879년에 본창이 폐지되고 각각 포병공창으로 불려졌다. 도쿄(東京)의 포병공창은 분(分)공장을 순차적으로 건설해 현재 도쿄돔 일대를 군수공장지대로 만들었다. 1923년 4월 분공장의 규모가 확대해지자 공장의 일괄관리와 병기생산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도쿄포병공창과 오사카포병공창이 통합되어 육군조병창이 설립되었다. 이 때 조병창은 생산을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라 관리조직이었다. 병기의 생산은 조병창 산하에 조직된 각종 공창(도쿄공창, 화공창, 나고야공창, 오사카공창)과 제조소(고쿠라병기제조소, 평양병기제조소)가 담당했다. 중일 전쟁 이후인 1938년에 조병창 산하의 공창과 제조소는 급격히 증설되었고, 1940년에 육군조병창은 육군병기창과 함께 육군병기행정본부로 통합되었다. 이 때 생산을 담당하던 각 공창들이 조병창으로 불리게 되면서 각각 독립적으로 병기제조에 임하였고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없는 경우는 육군관리공장인 민간군수공장에 하청생산을 하도록 했다. 이 시기 구성된 일본 육군성 조직도에 의하면 인천조병창은 육군조병창 관할로 자리하고 있다.¹⁾

그러므로 인천조병창(정리번호-다6399)도 일본 육군성 규정에 따라 조선 군관구 부대 육군병기행정본부 소속으로 편성되었다. 1940년 12월 2일에 편성된 인천육군조병창은 부평에 제 1제조소와 평양에 병기제조소 등 2개소의 제조소를 운영했다. 일본 육군의 군인군속명부인 유수(留守)명부나 전

사총서에 의하면, 제조소의 소속 인원은 13,740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부평이 9,704명이었고 평양이 4,036명으로 부평의 규모가 컸음을 알 수 있다.²⁾

중일전쟁 발발 후 일제는 1939년에 조선에 조병창을 건설하기로 하고, 적당한 부지를 모색하던 중 인천 부평을 적임지로 지목한다. 당시 부평은 인천항과 경인철도를 이용한 물자의 수송이 용이하였고, 서울과 가까운 지리적 특성에 따라 인력 모집도 수월할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분지의 지형으로서 연합군의 공습을 피할 수 있다는 것도 매력적인 조건이었다. 조병창 건설에 따른 부지는 당시 일본군 제 20사단이 관할하던 부평연습장 70만평을 우선 이관받았으며, 이후 주변 토지 약 33만평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군 시설물의 공사였으나 공사는 민간이 담당했다. 다다구미(多田組), 시미즈구미(清水組), 간토구미(關東組), 하자마구미(間組), 다마보구미(玉操組) 등 대규모 건설회사가 투입된 큰 공사였고, 근로보국대를 하청업체에 배치해 공사에 동원했다. 공사가 일단 마무리되면서 1941년 5월 5일 개창식을 가졌는데, 이 때 완성된 공장은 총검공장과 '견습공 연습공장'이었다.

인천육군조병창 제1제조소에는 총 3개의 공장이 있었는데, 초기 생산목표는 소총 2만 정, 경기관총과 중기관총 각 100정, 총검 2만개, 군도 1천 자루 제조로 설정하였다. 실제 월간 생산한 무기는 30년식 총검 1만개(1944년 3월), 소총 9천정(1945년 3월), 30kg 이하 소형 폭탄 2,800개(1943년 3월), 50~100kg 중형 폭탄 2천개(1943년 3월)에 달했다. 1945년에는 6척의 잠수정을 생산해 4척을 군에 인계하기도 했다.³⁾

2. 정혜경, 『부평역사박물관 10주년 기념도록』, 『부평의 아시아태평양전쟁유적』, 부평역사박물관, 2017.

3. 김재근, 『등잔불-牛岩隨想集』, 정우사, 1985, 322쪽(배석만, 『한국조선산업사 - 일제시기 편』, 선인, 2014, 186쪽 재인용).

1. 심재욱, 「일본 정부 인계자료를 통해 본 전시체제기 육군조병창의 조선인 군속 동원」, 『강제동원을 말한다 - 명부편(1) : 이름만 남은 절규』, 선인출판사, 2011, 51-53쪽.

대규모의 조병창 공장 운영은 일제강점기 한반도의 슬픈 운명을 고스란히 받아내야 했다. 조병창 건설을 위해 많은 인력이 동원되어야 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는 인천과 서울 지역의 학생들이 학습권을 박탈당한 채 노동력 착취를 당하였다.

1944년 5월, 경성공업·인천중학·인천상업·인천공업·인천고녀·소화고녀 등 6개 학교 총 360여명이 동원되었으며, 그 해 9월에는 경성중학, 용산중학, 인천상업학교의 학생들이 일 년간 동원되었다. 이 외에도 연희전문학교 등 11개교 소속 학생들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⁴⁾ 이처럼 인천과 서울, 김포 등지의 많은 학생과 일반인들이 인천조병창에 동원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동원된 조선인의 수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다. 유수명 부나 임시군인군속계 등 군무원 관련 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군무원도 있고, 군무원이 아닌 민간 노무자의 수는 가늠할 수 없기 때문이다.⁵⁾

1941년 5월 5일 개창식을 가진 인천육군조병창은 1945년 광복과 함께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일본군이 떠난 조병창은 인천항을 통해 들어온 미군이 차지하게 되었고, 애스컴에서 캠프마켓으로 이름이 바뀌는 등 여러 변화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경인기업주식회사 주택

■시대 : 일제강점기 ■유형 : 주택시설 ■소재지 : 산곡동 87, 90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87, 90 일대에 건설된 집단거주주택을 오늘날 ‘영단주택’이라 통칭하여 부르고 있다.

1930년대 후반 일제의 ‘경인일체화’ 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부평은 공업화 시대로의 전환을 맞이하게 된다. 1938년 히로나카상공을 시작으로 크고 작은 공장들이 들어서기 시작했고, 1941년에는 대규모 군수공장인 ‘일본육군 조병창’이 개창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맞물려 1940년대 초반 부평의 땅 값 상승과 함께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발 빠르게 움직인 이가 전 상공회의 소장이었던 하전즉치(賀田直治)와 경성부 의원 조병상(曹秉相)이었다. 1940년, 이들이 중심이 되어 조선인 직공을 수용하는 주택 4,500호와 일반주택 240호 건설을 위한 경인기업주식회사를 세웠다.

경인기업주식회사는 자본금 200만원으로 출발해 경기도로부터 부평 공업지구 내 토지 2만평을 분양받아 이곳에 근로자 주택 500호를 1940년도 안에 완공하고 경영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매년 주택 건설을 이어가 1943년도까지 4,500호의 주택을 세우는 것을 계획하였다.⁶⁾ 회사 설립과 동시에 200만원이라는 거금의 후원금을 모을 수 있었다는 것과 대규모 부지를 경기도로부터 분양받은 것은 그 당시 포퓰러한 상황이 아니었다. 이들이 이렇게 특혜에 가까운 사업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경인기업주식회사 사장인 조병상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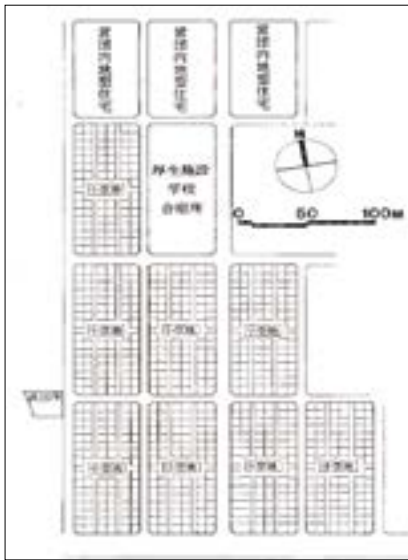
경인기업주식회사의 주택은 조선주택영단에 수탁하여 건설하였으며, 설계와 감리는 영단의 젊은 한국인 기술자 2명에 의해 이루어졌다. 경인기업주식회사의 당시 건설 계획에 따르면 13,013.8평의 부지에 총 8개의 블록을

6. 부평역사박물관, 『산곡동 근로자 주택』, 2014.

7. 경인기업주식회사 사장을 맡은 조병상(1891~1978)은 일제가 한국인에 대한 징병제를 시행하자 <매일신보>에 환영의 뜻을 밝히는 글을 썼다. 매일신보사가 경성부 소재 반도호텔에서 주최한 「지나사변과 대동아건설」이라는 제목의 좌담회에도 참석하거나, 경성부 육군지원자 후원회가 경성부민관 강당에서 주최한 제 1회 강연회에서 ‘반도청년의 진로’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치기도 하는 등 적극적 친일의 길을 걸었던 인물이다.

4. 한만송, 『캠프마켓』, 봉구네책방, 2013, 78쪽.

5. 이상의의 연구에서 동원자수의 추정치를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아시아·태평양전쟁기 일제의 인천조병창 운영과 조선인 학생동원」, 『인천학연구』25, 2016년 8월.



산곡동 영단주택지 구성도



영단주택 표준설계도 무형

구성한 후, 한 블록에 6동 88호를 배치하는 것이었다. 전체 48동 704호의 규모였다. 1호당 크기는 6.25평으로 영단표준규격주택의 ‘무형(戊型)’에 해당한다고 보았다.⁸⁾

1943년 11월, 경인기업주식회사가 건설한 주택과 토지가 조선주택영단에 넘어지게 되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는 조병상의 반민족특별위원회 신문기록을 통해 추측할 수 있다.

‘내가 윤치호, 이승우와 동반하여 남총독에게 차별철폐문제 담판 후로 총독 부 내 특히 경무국장 방면은 상당한 반감이 있어서 내가 경영하던 경인기업이라 하는 건축회사가 경인시까지 계획지에 조선인용 소형주택 1,000호를 신축 공사 중인데 회사는 정부 저리자금을 융자할 권리가 부여된 자이다. 공사가

70% 가량 성공 중 자금이 부족하여 저자(低資) 융통을 청구하여도 불허하고 자금적정법에 의하여 2회 불입을 신청하여도 불허하므로 공사는 실패에 직면하였다. 이것은 나의 사업을 방해하려는 고의적 행동이다. 마침 기시(基時) 소위 주택영단이 성립되어 나의 공사 중인 주택을 투자액 8월에 매수하였다. 그러므로 나는 사업까지 피탈되었다. 이 사실은 당시 회사 중역 급(及) 간부급 사원이 잘 알 것이다. 그 후 小磯총독과 田中 정무총감이 부임하였다. 나는 이전 田中이를 잘 아나 부임 후 4, 5삭에 1차 방문치 아니함은 총독부에 반감이 심각한 까닭이었다. 그 당시 나는 사업견탈실직(事業見奪失職)으로 생활난까지 봉착하였다.’⁹⁾

경인기업주식회사의 근로자 주택과는 별도로 이 무렵 조선주택영단¹⁰⁾도 산곡동 일대에 근로자 주택 건설을 진행한다. 일반적으로 영단주택의 유형은 규모와 형태에 따라 ‘갑(甲, 건평 20평)’, ‘을(乙, 15평)’, ‘병(丙, 10평)’, ‘정(丁) 8평’, ‘무(戊, 6평)’ 등 5종류로 구분되며, 대지는 건평의 3배 이상이 되도록 하고 병(丙), 정(丁), 무(戊) 형은 2호 연립으로 지어 블록을 구성하였다. 갑형은 주로 중상층 시민을 위한 주택이었고, 을형은 중층, 병형은 중하류층, 정형과 무형은 하층 서민과 노동자들을 위한 주택으로 규정하였다. 불하방법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갑형은 분양을 원칙으로 삼았고, 을형은 희망자에 따라 분양하고 병형 이하는 모두 임대주택으로 하였다.¹¹⁾ 욕실은 갑

9. 손장원, 「국제도시로의 변화(7)-인천의 영단주택」, 기호일보, 2008.17일자, (정연학, 「일제강점기 조선주택영단과 부평의 주택」, 『2013년도 인하대학교 학술회의 자료집』 86쪽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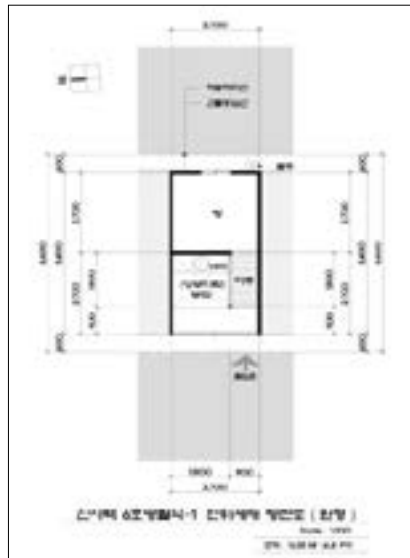
10. 조선주택영단이 건설한 집단 주택을 조선영단주택 혹은 영단주택이라고 부른다. 조선주택영단은 광복 후 대한주택영단으로 이름을 고쳤으며 지금의 대한주택공사가 되었다.

11. 손장원, 「국제도시로의 변화(7)-인천의 영단주택」, 기호일보, 2008.17일자, (정연학, 「일제강점기 조선주택영단과 부평의 주택」, 『2013년도 인하대학교 학술회의 자료집』 86쪽에서 재인용)

8. 『부평 산곡동 근로자 주택』, 부평역사박물관 2014년도 학술총서, 부평역사박물관, 2014. 45쪽.



구사택 단위세대 평면도 원형



신사택 단위세대평면도 원형

형, 을형, 병형에는 가옥 내 설치하였으며, 정형과 무형의 경우 욕실은 없고 화장실만 가옥 내 설치하였다. 경인기업주식회사 별도로 조선주택영단이 건설한 집단주택지는 현재 ‘신사택’이라 불리고 있는데 이곳은 무(戊)형에 해당되지만, 부엌-방의 단순한 구조와 화장실이 집 밖에 설치되어 있는 점 등 보편적인 영단주택의 구조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인기업주식회사가 건설한 근로자 주택과 조선주택영단의 근로자 주택은 이후 인근의 일본육군조병창에 근무하는 조선인들의 숙소로 활용되었다. 당초 산곡동 근로자 주택의 건설 목적은 인구증가에 따른 부족한 주택 문제의 해소와 안정적인 주거 공간 제공에 목적을 둔다고 하였으나,¹²⁾ 실질



경인기업주식회사가 건설한 주택지 현지 주민들은 구사택으로 부르고 있다.



조선주택영단이 건설한 주택지 현지 주민들은 신사택으로 부르고 있다.

적인 목적은 주택 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통해 ‘시국산업지대’로의 안정적인 노동자 공급이었다.

조병창 노동자의 숙소로 역할을 하던 산곡동 근로자 주택은 광복 후 주택공사가 관리하다가 1960년 개인에게 불하되었다. 현재 현지 주민들은 경인기업주식회사가 건설한 주택지는 ‘구사택’으로, ‘조선주택영단’이 건설한 주택지는 ‘신사택’으로 불리며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미쓰비시제강 인천제작소 공장 터(히로나카 상공 부평공장)

■시대 : 일제강점기 ■유형 : 공장시설 ■소재지 : 부평동 299, 299-4일대

현재 부평공원(부평동 299) 자리는 일제강점기 미쓰비시 제강이 위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전에 히로나카상공(주) 부평공장이 있었다. 히로나카상공(주)은 일본인 사업가 히로나카 료이치가 설립한 기계회사로서 1916년 부산에서 일본산 기계를 소규모로 판매하는 히로나카 상회로 시작하였

12. 멸적증산에 정신 감투하고 있는 산업전사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무엇보다 요청되는 주택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조선주택영단 사업으로 부평 백마정에 명년도까지 5백호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이미 정치 공사를 끝내고 우선 금년도 내로 214호를 준공시키고자 건축공사를 촉진시키고 있는데 늦어도 오는 10월 말일까지는 준공되리라 한다. <매일신보>, 1944년 8월 25일.

다. 1924년에는 자본금 25,000원의 합자회사가 되었으며, 부산에서 경성으로 본점을 이전하였다. 이 무렵 기계판매와 수리를 겸영하는 경성공장의 신설도 이루어졌다.

소규모 기계판매업체에 불과하였던 히로나카 상회가 가시적인 성장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1930년 주식회사로 전환한 이후부터다. 이후 세 차례의 증자를 통해 1936년에는 자본금 30만원의 대규모 회사가 되었다. 거침없는 사업영역의 확장도 이루어졌다. 기계 및 전기기구 부품의 매매·임대·중개·판매 대리업뿐만 아니라 설계와 감독까지 담당하였다. 1936년에는 기계의 제작과 수리업을 추가하면서 단순한 중개판매상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기계제조회사로 영역을 공고히 했다. 1937년 6월, 히로나카 상회와 별도로 히로나카 상공을 설립하고 9월에 양사 합병을 추진했다. 이 합병은 자회사인 히로나카 상공이 모회사인 히로나카 상회를 매수하는 형식이었다.¹³⁾ 당시 히로나카 상공의 주력사업은 광산과 토목기계류의 대리판매와 설계청부업이었고, 경성공장은 제품판매와 단순한 수리서비스를 하는 소규모 공장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1937년 이후 조선지역의 동시다발적인 광공업 개발의 붐과 기계류 시장의 급격한 팽창이 일어남에 따라 자체 생산한 기계류의 판매를 위하여 경성공장의 확장과 함께 제2공장 부평공장 건설을 서두르게 되었다.¹⁴⁾

부평공장의 건설은 당시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었다. “종래 내지 메이커의 브로커에 불과하였던 기계공작상이 특정 내지 메이커와의 자본 제휴와 자체의 제작공장 설치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바로 히로나카 상공의 부

평공장”이라는 기사를 내보내며 큰 관심을 보였다.¹⁵⁾ 실제로 설립 직후에는 발주량의 폭발적인 증가에 따라 오히려 주문을 거절하는 사례도 빈번하였다. 이처럼 고수익이 예상되었던 히로나카 상공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는 당연한 것이었으며, 이러한 시장의 분위기를 반영하듯 1938년부터 1940년까지 히로나카 상공은 대표적인 우량주로서 주목받았다.

1937년부터 공장 건설이 추진된 부평공장은 경인선 부평역 앞 부지 4만 7천평의 대규모 기계공장으로 건설되었다. 건설 계획 수립 당시 부평공장을 광산 기계류의 생산을 전담하는 곳으로 구상함에 따라 광궤용(廣軌用) 차량을 제작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조선총독부 철도국의 중용으로 객화차 생산이 추가되면서 협궤용(狹軌用) 차량으로 제작 품목이 변경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38년 9월 당초의 건설계획을 변경하고 공사비도 초기 예산의 세 배에 달하는 500만원으로 증액하게 되었다.

당초 예산계획보다 상회하는 자금이 필요했던 히로나카 상공은 대출과 증자(增資)를 통해 자금 확보의 활로를 찾고자 하였다. 그러나 1940년 2월, 동양척식으로부터 향후 히로나카 료이치 및 히로나카 상공에 대한 대출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증자 역시 실패로 돌아갔다. 거기에 더해 독일에 발주한 고급 공작기계의 도착이 지연됨과 함께 철강을 비롯한 원자재의 수입 곤란, 숙련공 부족 등의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공장 운영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 결국 자금의 압박과 경영악화로 인해 1942년 6월 말 히로나카 상공 부평공장은 미쓰비시중공업에 600만원에 매각되었다. 히로나카 상공을 인수한 미쓰비시중공업(주)은 같은 해 8월 미쓰비시 제강(주) 인천제작소로 변모한다.

미쓰비시가 히로나카 상공 부평공장을 인수한 가장 큰 목적은 평양공장

13. 부평역사박물관, 『미쓰비시를 품은 여백, 사택마을 부평삼릉』, 2016.

14. 정안기, 「전시기 弘中商工(주)의 성장 전략과 경영역량-성장·위기·재건을 중심으로」, 『경제사학』 53호, 2012.

15. 『부산일보』, 1938.4.10.

의 공사 촉진을 위해 일부 건설 부품 제작을 분담하고, 육군 당국의 방탄강판(BK) 증산 요구를 이행하기 위한 추가 공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¹⁶⁾ 1942년 7월 기준 부평공장의 주요 자산은 토지 86,622평(공장용지 31,958평, 사택용지 54,644평) 공장규모 6,451,60평, 사택건물 164동 연 3,807평(직원사택 88동 1,389평, 공원사택 26동 1,197평, 합숙소와 공동목욕탕 등 50동 1,221평), 기계기구 305대 등이다.

1943년 11월에 인천제작소는 조선총독부에 제철사업 설비확장허가를 받았다. 인천제작소가 설비확장허가를 받은 첫 번째 이유는 ‘특수강판을 생산하라는 육군병기행정본부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발조(發條: 스프링 장치)제품의 생산을 위해서였다. 설비확장허가를 받아 실행에 옮겼으나 자재부족 문제 등으로 인해 1944년 말에서야 완공을 이룰 수 있었다. 이후 인천제작소에서는 광복이 되기 전까지 BK(방탄용 강판) 가공품 외에 주강(鑄鋼), 형단조(型鍛造), 박격포 등을 제조하는 등 병기창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1944년 1월 17일 군수회사법 제 2조에 의해 미쓰비시제강(주)은 군수회사로 지정되었다. 나가사키와 도쿄에 있는 일본 본토의 사업장은 물론이고 10월에는 인천제작소와 평양제강소도 군수회사로 지정됨에 따라 군수성의 관리를 받게 된 것이다. 군수회사지정기업은 당시 극심한 원료부족의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원료를 확보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졌고, 생산 물품에 대해서도 정부가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였기 때문에 기업 이윤을 극대화시킬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공장 소속 구성원들이 ‘피징용자’로 전환되어 기업의 입장에서는 임금지급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었다.

일본의 전황이 어려워지고 연합군의 본토 공습도 격화되면서 미쓰비시제

강(주)의 군수품 생산과 수송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당시 나가사키제강소가 공습의 목표물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1945년 4월에 나가사키 제강의 일부 시설을 평양과 부평공장으로 옮기는 것을 결정하였으나 추진 과정에서 전쟁은 끝났다.

미쓰비시제강(주)사택

■시대 : 일제강점기 ■유형 : 주택시설 ■소재지 : 부평동 760 일대

히로나카 상공이 건설한 사택(社宅)건물이다.

히로나카 상공은 1937년부터 경성공장에 대한 확장과 함께 부평공장을 신설하였는데 이 때 함께 지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사택지에 대한 토지 매입은 1942년이 되어서야 이루어짐에 따라 이전까지는 토지를 임대하였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히로나카 상공의 사택지는 부평로 동편으로 760-1번지와 760-2번지의 구사택지와 760번지의 신사택지로 현지 주민들에게 불려지고 있는데, 두 건물 사이의 시간적 선·



부평로 760-1/760-2번지 일대 위치 한 구사택지



신사택지

16. 부평역사박물관, 『미쓰비시를 품은 여백, 사택마을 부평삼릉』, 2016.



홍중상공주식회사 사택촌(부평역사박물관 소장)

후 관계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현재까지 확인할 수 없다.

구사택지의 폐쇄등기부등본에 근거할 때 히로나카 상공은 1939년 두 토지를 임차하여 사택을 건설한 것으로 파악된다. 1947년 지도를 살펴보면 당시 구사택지에는 총 13동의 건물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아시아역사자료센터가 소장하고 있는 1940년 제작된 「홍중상공부평공장배치도면」과도 일치한다. 또한 구사택지와 신사택지를 아울러 공원사택(工員社宅)으로 표시하고 있어 거주자의 직위를 가늠할 수 있다.

760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신사택지는 구사택지도보다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ㄱ자 한옥 형태의 건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구별된다. 신사택지 한옥은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부영주택의 한옥과 다른 재료의 기와를 덮었는데, 시멘트기와로 추정된다. 부평동 756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는 부영주택의 경우 표준평면 중 하나로 한옥을 채용하였으며, 경인기업주식회사에서 건설한 산곡동 주택의 경우에도 한옥의 형태를 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체에서 건설한 사택에서는 한옥 형태를 전혀 찾아 볼 수 없어 히로나카 상공의 한옥사택은 아주 드문 예에 속한다.¹⁷⁾

히로나카상공의 사택은 1942년 미쓰비시 제강이 인수한 뒤 소속 공원의 사택으로 활용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미쓰비시는 사택 인수 이후 11월에 제조설비신설허가신청서를 조선총독부에 제출하여 직원사택 3동과 공원사택 6동, 공동기숙사 1동의 추가 건설을 계획하였다. 그리고 1944년에 완공하였다. 같은 해 11월에는 마찬가지로 조선총독부에 사업설비확장허가신청서를 제출하는데, 직원사택 16동과 공원사택 10동을 추가로 짓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944년까지 확장된 내용에 따르면 사택지내 건물은 직원사택은 97동, 공원사택은 42동, 합숙소와 공동목욕탕 52동으로 사택이 총 139동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 1943년 이후 추가로 건설된 건물은 부영로의 동편에 위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미쓰비시제강 40년사에 따르면 부영로 서편의 사택지는 히로나카에서 인수한 것으로 구사택지라 할 수 있으며, 진정한 신사택지는 미쓰비시가 인수한 후 추가로 건설한 부영로의 동편 건물로 볼 수 있다.

미쓰비시 사택이 위치하고 있는 부평 2동지역은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옛 사택 건물 일부가 철거되었다. 구사택 중 일부가 남아있긴 하지만 집주인들이 조금씩 확장·수리를 하여 원래의 모습을 잃은 지는 오래다.

한하운 시인 가옥터

■시대 : 일제강점기 ■유형 : 주택시설 ■소재지 : 십정동 607 일원

한하운의 본명은 한태영이다. 1921년 함경남도 함주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함흥공립보통학교를 거쳐 1935년, 당시 명문이었던 이리농림학교 수의축산과에 입학하는 등 소위 '엘리트 코스'를 밟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성장하였다. 이리농림학교 재학시절부터 습작활동을 하며 문학에 대한 열정을 키워나갔으나 불행하게도 이 무렵 한센병 확진 판정을 받

17. 홍현도, 「부평2동의 일제강점기 지적변화와 집단주택 건설」, 『미쓰비시를 품은 여백, 사택마을 부평삼릉』, 부평역사박물관 학술총서 3호, 2016, 148쪽.

게 된다. 그가 쓴 자서전 「고고한 생명, 나의 슬픈 반생기」에 따르면 이리농림학교 졸업 후 일본 세이케이고등학교와 중국의 북경대학교 농학원에서 수학하였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그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는 없다.¹⁸⁾

1946년에는 함흥 학생의거사건으로 체포되어 함흥형무소에 투옥되기도 하였으며, 광복 후에는 재산을 몰수당하고 었친 데 덮친 격으로 어머니마저 여의는 등 계속된 시련 속에 고통을 받아야 했다. 집안의 몰락으로 인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된 시인은 1948년 홀로 월남하였고, 이 무렵 이병철 시인과의 운명적 만남이 이루어진다.

1949년 이병철 시인의 도움으로 『신천지』 4월호에 ‘나시인 한하운 시초(羅時人 韓何雲 詩草)’라 하여 「전라도 길」의 12편을 발표하였고, 같은 해 5월에는 『한하운 시초』를 간행하였다. 당시 훌륭한 작품이라는 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센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함께 소수문학인에 대한 문단의 배제를 받으며 떠돌이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러던 그가 유랑생활을 정리하고 부평에 정착하게 된 것은 1949년 겨울이었다. 시인은 정부로부터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 거주하고 있는 한센인을 부평으로 모으는 일에 대한 교섭을 받고, 12월 30일 70여명의 한센인과 부평에 입주하였다.

우선 부평은 이 지방민의 반대가 없을 것이라 믿고 불모의 산협이지만 우리가 무슨 선택의 자유가 있을까…… 우리들의 마지막 안식처로서 택하기로 하였다.

내가 그들을 설득시키고 수원시의 알선으로 서력 1949년 12월 30일 밤 8시에 70명 환자를 인솔하고 부평으로 갔다.

나는 기뻐다. 그렇게도 원하였던 땅을 얻게 된 까닭으로……

(중략)

나는 600명 환자의 선거에 의하여 이곳 자치위원장에 취임하고 원명을 성계원이라 명명하였다.

도리지하 자성계(桃李之下 自成蹊) 이라는 뜻에서 성계란 이름을 얻었다.

한하운, 『황토길』, 무하문화사, 1960, 144쪽.

성계원(成蹊園)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이름과 위상이 변화되어 왔는데, 1951년 국립나요양소를 거쳐 1957년 ‘부평 성계원’으로 고쳤다가 1960년



성계원 가는 길

18. 2016년 12월 21일에 세이케이학원 사료관을 찾아 한하운의 행적을 확인하려고 했다. 사료관 직원은 세이케이고등학교는 해마다 재적 학생의 명단을 만들었으니 중퇴한 학생도 거기에는 이름이 나와 있다고 했다. 하지만 한하운의 본명 한태영도, 창씨개명 후의 이름인 기요하라 가오루(清原薫)도 거기에는 없었다. 그 밖의 세이케이고등학교 관련 자료, 예를 들면 『회고록 구제 세이케이 고등학교 관련 자료』, 『우리들이 칭송하는 이름 세이케이—구제 세이케이고등학교 창립 80주년 기념지』, 『세이케이학원 사료관 사료집』등도 봤지만 한하운에 관한 기사는 찾지 못했다. 하운이 세이케이고등학교에 입학한 사실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요시카와 나기, 「한하운과 일본」, 『다시보는 한하운의 삶과 문학』, 소명출판, 2017, 230쪽.



신명보육원 직원들과 함께 한 한하운 시인



성계원이 있었던 부평농장의 현재 모습

국립부평병원으로 바뀌고, 1968년 병원이 폐쇄된 후, ‘부평농장’으로 자리 잡았다.¹⁹⁾

자치위원장이 된 한하운은 이후 한센인들의 자활과 복지를 위해 힘썼다. 1952년 10월에는 자립생활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축산협동조합을 발족 하였고, 국고, 구호품, 국유지를 불하받아 황무지를 개간해 양돈과 양계농장을 만들었다. 이전의 삶과 비교하여 경제적 여유가 생긴 한센인들은 자녀들의 미래를 걱정하게 되었다. 당시 정부의 정책에 따라 한센인의 임신과 출산은 금지되었고, 설령 출산을 한다고 해도 자녀와 격리된 채 생활해야만 했다. 한센인 자녀들이 공교육의 혜택을 받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으며, 사회적 소외를 경험해야 했다.

이에 한하운은 한센인 자녀의 인권과 교육을 위해 1952년 성계원 인근에 2세들의 복지시설인 ‘신명보육원’을 설립하고 초대원장에 올랐다. 이후에도 끊임없이 지역사회를 설득하여 한센인 2세들의 부평서국민학교에 입학을 이루어내는 등 한센인의 후생을 위한 사업에 투신하였다.

문학인으로서의 활동도 활발히 전개해 나갔다. 1955년 제2시집 『보리피리』를 비롯하여, 1958년에는 자서전 『고고한 생명 - 나의 슬픈 반생기』, 1960년 자작시 해설집인 『황토길』을 발표하였다.

1959년 한하운 시인은 한센병 완치판정을 받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완치판정을 받은 지 15년을 갓 지난 1970년 십정동 자택에서 간경화로 짧은 생을 마감하였다. 줄곧 비주류 시인으로 문단의 배제를 받아왔던 시인의 장례식은 외롭기 짝이 없었다. 오죽하면 언론에서도 부고 소식을 알리며 ‘인정없는 문인 사회’라는 기사를 내보내기까지 했다.²⁰⁾

그는 월남 후 25년간이나 넘게 살며 제2의 고향이나 마찬가지였던 부평에 잠들지 못하고 김포 장릉 공원묘지에 안장되었다. 부평에 터를 잡고 머물렀던 단출한 가옥은 이후 철거되었고 현재는 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청천동 한센인 자활농장 터

■시대 : 현대 ■유형 : 농업시설 ■소재지 : 청천동 62-30 일대



청천동 양계마을 입구

부평구 청천동에는 ‘양계마을’로 불리는 곳이 있다. 마을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곳에는 대규모 양계농장이 있었다. 또한 이곳은 한센인들이 모

20. 『경향신문』, 1975년 3월 14일자, “인정없는 문인사회” 비판도.

19. 『(탐방)복지시설에 눈 돌린 「부평농장」』, 『새빛』 제 14권 제 7호, 새빛사 1976, 19쪽.

여 이룬 거주지라는 특
수성이 더해진 곳이다.

1956년부터 정부는
한센인들의 병력을 조
사하여 음성판정을 받
은 한센인을 사회로 복
귀시키기 위한 정책을
펼치게 된다. 이전까지
한센인에 대한 무조건
적인 격리가 정부 방침
이었다면 이후부터는
제한적이거나 한센인
의 사회활동을 허락한
것이다.



청천농장 내 위치한 청농교회

정부정책에 따라 1961년 12월 부평농장(前 국립부평병원) 주민 일부가
청천동으로 집단 이주하여 오늘날의 청천농장을 형성하게 되었다. 1962년
5월에는 십정동으로 이주하여 십정농장을 이루었다. 한센인들이 청천동이
나 십정동이나를 두고 이주지를 선택하는 데에 가장 크게 작용한 것은 종교
였다. 개신교도는 주로 청천농장으로 이주하였고, 천주교도는 십정농장으
로 이주하였다.²¹⁾

청천농장에 정착한 한센인들은 부평농장에서의 경험을 살려 양돈과 양계
사업을 펼쳐나갔다. 그러나 이전부터 마을에 터를 잡고 살았던 사람들은 한

센인들의 이주를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 한센인에 대한 그릇된 인식에 따른
두려움도 있었지만 농장에서 흘러나오는 오수와 분뇨냄새로 인한 생활의
불편이 이어졌기 때문이었다. 이주·정착한 한센인 역시 이웃 마을의 불편한
시선과 불만을 짐작하여 마을 간 이동이나 교류를 거의 하지 않았다. 사회
복귀를 위한 정부 정책으로 한센인을 이주시켰지만 역설적으로 또 다른 고
립을 만들어 낸 것이다. 한센인들의 고립된 생활은 이주 이전과 비교하여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지만 경제적 안정은 이전과 비교하여 훨씬 나아졌다.

경인고속도로 부평인터체인지에서 남쪽으로 먼발치, 3면이 나지막한 야산
에 둘러싸인 분지 18만평이 단위부락으로는 전국 제1의 부농임을 자랑하는 인
천시 북구 청천동 청천농장이다.

넓직한 분지에 시골학교 건물만큼씩한 계사와 돼지우리가 꼭 들어차 마치
공장지대를 연상케 하는 이 농장에는 현재 닭이 15만 마리나 되며 돼지도 1천
여 마리다. 지난 61년 12월 맨 주먹으로 이곳에 정착한 1백 54가구 6백여명의
음성 환자들은 그동안 무던히도 고생을 했다.

(중략)

가구당 가축보유수는 평균 닭 1천여마리와 돼지 10마리 정도.

상수도 시설과 전화 없는 집이 없고 텔레비전도 2가구에 1대꼴이다.

달걀 생산량은 하루 6만개이며 성란기에는 10만개를 웃돈다. 닭똥은 농장
시금치밭 등에 거름으로 쓰고도 남아 제주도 감귤농장 등에 판다.²²⁾

양계사업의 호황에도 불구하고 주변 마을의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였
고, 부평수출산업공단의 준공에 따른 주변지역의 용지(用地) 변경이 이루어

21. 김현석, 「청천동 공간과 기록」, 『부평역사박물관 학술총서 4, 장수산 맑은내 마을, 부평청천
동』, 부평역사박물관 학술총서 4호, 2016.

22. 『동아일보』, 1976년 2월 11일자, '천형(天刑) 딛고선 청천농장'.

졌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농장의 규모는 점차 축소되어 현재는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오늘날 청천농장이 사라진 자리에는 영세한 공장들이 들어서 있다.

십정동 우물

■시대 : 미상 ■유형 : 수도시설 ■소재지 : 십정동 61-1 일원

부평구 십정동은 현지 주민들에게 ‘열우물 마을’이라고 불려진다, 십정동 지명유래에 대한 가설은 여러 개가 있다.

첫 번째 가설은 마을에 열 개의 우물이 있었기 때문에 십정(十井)이라 불린다는 것이다.



윗열우물마을에 있는 고래우물

아마도 열 개라는 우물의 개수를 특징했다기보다 다른 마을에 비해 우물이 많았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윗열우물마을에 있는 큰 우물

두 번째 가설은 온기가 나는 우물이 있어서 열우물(熱井)로 불리던 것이 이것을 한자로 변환하는 과정 중에 십정(十井)이 되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지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현 상정초등학교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우물 중에 영하의 날씨에도 열(熱)이 많이 나는 우물이 있었다고 한다.²³⁾

세 번째 가설은 이 동네의 산맥이 십(十)자로 교차한 모습을 하고 있어 십정(十丁)이라 하였는데, 이 역시 한자로 변환하는 과정 중에 십정(十井)으로 오기되었다는 것이다.

십정동 지명유래에 대한 가설에 대해 정확하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란 어렵지만 마을 곳곳에서 심심찮게 우물을 발견할 수 있는 점으로 미루어 그 시작에는 우물이 있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십정동은 경원대로를 기준으로 크게 ‘윗열우물마을’과 ‘아랫열우물마을’로 나뉘는데 십정동 큰우물은 ‘윗열우물마을’에 위치하고 있다. 조선시대부터 마을을 이루었던 ‘윗열우물마을’에는 여러 개의 우물이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데 최근 부평구에서 설립한 우물 분포도를 살펴보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우물이 8기이고 매립한 우물은 2기로 표시되어 있다. 그 중 눈에 띄는 것이 십정동 큰우물과 고래우물이다.

십정동 큰우물은 십정동 61-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여전히 많은 물이 집수(集水)되고 있어 마을 사람들이 현재까지도 이용하고 있다.

십정동 77-1번지 소망교회 맞은편에 작은 녹지에는 유서 깊은 고래우물이 전해지고 있다. 마을 주민의 기억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때 9년 동안 가뭄이 극심해 대부분 지역에 흉년이 들었는데 그 때에도 ‘고래우물’은 물이 항상 넘쳐나 주변 논밭이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한다.²⁴⁾ 주민들은 고래우물이 적어도 300~400년 정도는 되었을 것이라 하며 3~4m 깊이에

23. 손민환, 『열우물마을의 탄생과 공간 형성』, 『열우물마을과 부평 십정동』, 부평역사박물관 학술총서 5호, 2017.

24. 『사람들의 삶을 품어주던 '고래우물'』, 『부평사람들』제192호, 2012년 3월 25일.

바닥이 흰히 보일 정도로 맑은 물을 담고 있었다고 한다.

천일염 생산 시험 터

■시대 : 일제강점기 ■유형 : 염전시설 ■소재지 : 십정동 558-7

우리나라 소금생산의 방식과 체제는 20세기 초 식민지화 과정 속에서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이전까지 자염(煮鹽)의 생산방식을 천일염 생산체제로 변화시켰으며, 천일염의 수익을 국가 재원으로 환원시키기 위해 천일염 생산을 관영(官營)으로 전환한 것이다.

일제에 의한 소금생산의 재편은 식민지 경영을 위한 재정확보의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일제의 시책은 두 가지 의도를 지닌다. 먼저 식민지 경영과 제국의 확장을 위해서는 많은 세출이 소요되는 바, 재원으로 여겨지는 상품의 전매를 통해서 세입을 확보하고자 했다. 이 과정 속에서 소금생산의 재편이 주요하게 부각되었다. 둘째는 식민지를 원료의 생산지로 구축해 나가는 일단을 드러내주고 있다. 제국주의가 식민지에서 공급하고자 했던 작물로는 쌀, 면화 등이 있는데 소금 역시 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 특히 일제는 공업용으로서의 전망을 갖고 있는 천일염이 필요했다. 자국에서는 생산이 가능하지 못하였으므로 주변국에서 천일염의 생산지를 확보하고자 했다. 따라서 인천과 광양만에서 대단위로 구축된 천일염전은 원료공급지로서의 계획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²⁵⁾

개항 이후 1880년대부터 일본상인들에 의해 일본산 소금이 수입되었던 것이, 1890년 후반에는 청국의 소금이 본격적으로 수입되면서 국내 자염의 경쟁력은 크게 약화되었다.

당시 국내 자염은 생산지와 생산시기가 매우 제한적이었으며 생산 기술

방식에서도 연료비가 많이 소모되는 등 소금 생산에 그리 호의적인 상황은 아니었다.

수요를 충족시킬만한 국내 수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일제는 한반도 내 소금 생산량 증대를 위한 방법으로 이전의 자염생산방식에서 천일염 생산체제로의 변화를 시도하게 되고 천일염과 자염의 생산 시험을 통한 대단위 천일염의 축조계획을 추진하게 된다. 이러한 일제의 계획에 따라 1907년 십정동에 1정보(약 3,000평) 규모의 천일염시험장이 설치된다.

그러나 처음부터 인천 주안이 적지(適地)로 지목된 것은 아니었다. 천일염 시험에 있어 당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통감부 재정고문 메가타 다네타는 전남 목포를 눈여겨보고 간사지 매수 방법에 대한 조사까지 완료하였으나 한국 정부는 목포의 천일염시험장 개발에 대하여 허가하지 않았다. 당시 한국정부로서는 자염 생산에 종사하는 제염업자가 가장 많은 목포 지역에 천일염전이 건설되는 것을 간과할 수 없었을 것이다.²⁶⁾

결국 일본 정부도 이러한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 인천 주안으로 낙점하게 된 것이다.

십정동 윗열우물마을 토박이 성영모의 증언에 따르면 근대식 천일염전인 주안염전이 들어서기 전부터 자신의 선조들이 전통식 자염을 생산하여 많은 수익을 얻었다고 한다. 그 장소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전통식 자염이 행해지던 공간에 근대식 천일염전인 주안염전이 들어섰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²⁷⁾

1907년 9월에 준공한 주안천일염시험장은 1정보(3,000평)의 증발지

26. 유창호, 『식민지기 인천의 근대 제염업』,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017, 82-83쪽.

27. 손민환, 앞의 글, 33쪽.

25. 유승훈, 「20세기 초 일제의 소금정책과 생산체제의 재편」, 『국학연구』 6호, 2005.6. 501쪽.



주안염전(부평역사박물관 소장)



주안염전 표지석

(蒸發池) 및 결정지(結晶池), 그리고 같은 1정보의 저수지(貯水池)를 포함하는 총 2정보(6,000평)의 규모로 축조되었다. 주안천일제염 시험장은 준공 직후 곧바로 채염작업에 돌입하였는데 시험 결과 일본 내지염(內地鹽)의 1~2등급에 상당하는 품질을 거두었고, 색깔 등에 있어서도 청국염이나 대만염에 비해 손색이 없다고 하였다.²⁸⁾

천일제염시험의 성

공을 발판삼아 일제는 천일염전의 축조계획을 총 4기로 세워 진행해나갔으며, 주안염전은 1907년 8월 1구의 준공을 시작으로 1919년 3월까지 총 8구로 확장되었다.

주안염전의 확장과 더불어 1920년대 남동염전과 군자염전, 1930년대 소래염전의 조성까지 이르게 한 천일제염시험장의 위치는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전매국주안출장소관계자료’를 통해 현재 십정동 557번지 일원으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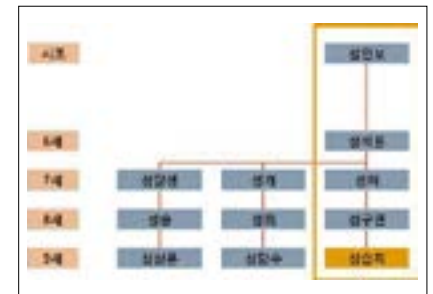
그러나 ‘한국 최초의 천일염전지’의 위치를 표시하고 있는 천일제염시험장 표지석은 이곳과 다소 거리가 있는 십정동 558-7에 세워져 있어 실제 위치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²⁹⁾ 표지석을 세울 당시, 어떠한 이유에서 천일제염시험장에 표지석을 세우지 않고 현재의 위치에 세웠는지는 알 수 없다. 토지 매입의 어려움, 혹은 구술 증언의 오류 등이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 향후 천일제염시험장 표지석의 위치를 바로 잡아 역사적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³⁰⁾

십정동 창녕성씨 묘역

■시대 : 조선시대 ■유형 : 묘역

■소재지 : 십정동 59, 63 일원

십정동 윗열우물마을은 조선시대부터 집성촌을 이루기 시작했는데 창녕성씨(昌寧成氏)를 비롯하여 능성구씨(綾城具氏), 영월신씨(寧越申氏), 언양김씨(彦陽金氏) 등이 많이



창녕성씨 회곡파 열우물종중의 주요 인물 세계도

살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중 창녕성씨는 오늘날까지 마을을 지키고 있는 대표적 가문으로서 이곳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는 창녕성씨 회곡파(檜谷派) 열우물종중 전 총무 성영모의 말에 따르면 창녕성씨는 단종의 복위를 모의하다가 순절한 성삼문(成三問, 1418~1456)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³¹⁾

29. 현재 표지석이 세워진 위치는 1909년 5월에 준공된 주안염전 제 2구 부지이다.

30. 천일염전지 표지석 위치의 오류에 대해서는 손민환의 앞의 글을 요약하였다.

31. 손민환, 앞의 글, 26쪽.

28. 유창호, 앞의 책, 87~89쪽.

1456년 6월 성삼문은 박팽년(朴彭年), 하위지(河緯地), 이개(李塏) 등과 함께 세조 일파를 제거하고 단종의 복위를 위한 거사를 주도하였다. 그러나 사전에 발각되어 성삼문을 비롯한 주도자들은 거열형(車裂刑)에 처해졌으며, 그들의 가족 역시 교형(絞刑)을 당하거나 노비로 전락하는 등의 고초를 겪어야 했다.

십정동 윗열우물마을에 처음 이주한 것은 성삼문과 6촌 지간인 성습지(成習之)이다. 병자사화(丙子士禍)로 인한 가문의 몰락으로 벼슬길이 막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생명도 보장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신을 위한 목적이 강했을 것이다.

성습지가 십정동 윗열우물마을을 선택한 까닭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그의 부인인 달성서씨의 연고로 인한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십정동과 인근하고 있는 서구 가좌동 건지골은 예로부터 달성서씨의 집성촌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좌동에 세거하던 달성서씨와 성습지의 배위 달성서씨와의 관련성은 현재까지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확증할 수 없는 단계이다.³²⁾

십정동 윗열우물마을에는 성습지와 그의 아버지 성구연, 할아버지 성허의 무덤이 나란히 위치하고 있다. 성습지의 묘역은 성습지의 봉분과 숙인 달성서씨의 봉분, 옛 묘표 1기와 새 묘표 2기, 상석과 향로석, 망주석 1쌍, 문인석 1쌍으로 구성되어 있다. 옛 묘표는 풍화로 인해 비문의 판독이 어려운 상황이다. 성허의 묘는 실전(失傳)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충주에서 묘표를 발견하고 1931년 윗열우물마을로 이장하였으며, 1985년에는 배위 반남박씨의 분묘를 옮겨와 합장한 것이다.³³⁾

경인선 부평역

■시대 : 일제강점기 ■유형 : 철도시설 ■소재지 : 부평동 738-21

경인철도는 1897년 3월 29일 기공되어 1899년 9월 18일 개통된 한국 최초의 철도이다. 경인선의 개통은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지만 이로 인한 인천 전반의 지역구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못내 크다. 경인선은 인천역을 출발, 원통이 고개를 관통하여 부평에 들어온 후 동소정면과 석천면(부천시), 수탄면(서울시 구로구)을 거쳐 서울로 향하는 노선을 갖고 있었다. 개통 당시 33.2km 구간을 1시간 30분에 달렸으며 오전과 오후 하루 2차례씩 왕복했다.³⁴⁾

경인선 이전의 부평은 계양산 남쪽(지금의 계산동)을 중심으로 광활한 저습지가 펼쳐져 있는 전형적인 농촌의 모습이었으며, 오늘날 부평역과 그 주변은 들판이 군소부락이 자리하고 있을 뿐이었다.

부평역의 설치로 즉각적인 지역구조의 변화를 가져온 것은 아니었다. 부평역이 부평의 중심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어 철도 이용승객은 많지 않았을 것이며, 그로 인해 주변의 변화가 급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부평 하경

청리(靑里)에 백조 날아 그 빛은 학학(鶴鶴)할시고.

허공 중천에 우줄이 나니 너뿐이로다.

어즈버 청구의 백의검수(白衣黔水) 한 못 풀어 하노라.

1925년 동아일보에 실린 우현 고유섭(高裕燮)의 “경인팔경” 중 부평의 모습을 표현한 구절이다. 이 시의 저자 고유섭은 경인선 기차를 타고 경성을

32. 손민환, 위의 글, 27쪽.

33. 손민환, 앞의 책, 30쪽에서 재인용.

34. 『한국 최초 인천 최고 100선』,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2015, 146쪽.

출발하여 인천 축현역에 도착할 때까지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그 감상을 적었는데, 1925년 한 여름날의 부평 모습을 그저 푸른 빛 가득한 평온한 농촌의 모습으로 보고 있다. 1934년 동아일보의 기사에서는 철도국에서 노후된 역사를 개축하기 위해 약 십만원의 예산을 계상하고 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영등포(永登浦), 월정리(月井理) 등과 함께 부평도 역사 개축 대상에 포함되었다.³⁵⁾ 같은 해 12월 27일 기사에 따르면 비로소 부평역에 전기가 가설이 되었는데 경인선 10개 역 중 가장 마지막으로 전기가 설치되는 것이었다.³⁶⁾

부평역의 개통으로 교통이 편리해져 경성과 인천 중간에 위치한 부평의 넓은 들은 일찍이 토지집적의 대상으로 부각되었다. 1936년 조선총독부 미곡검사소 소사출장소가 설치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일제시기에는 부평평야에서 생산된 미곡이 부평역을 통해 인천항으로 반출되었을 것이다. 일제 말기 부평에 공단이 설치된 것도 이러한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의 조건하에서 가능한 것이었다. 이러한 영향으로 1930년대 후반부터 크고 작은 근대식 공장이 입주하게 되고 일제강점기 한강 이남 최대의 군수단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듯 경인철도의 개통은 부평지역의 사회경제적 조건을 크게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³⁷⁾

부평동 철도 관사

- 시대 : 일제강점기 ■유형 : 건축물(관사) / 문화재 등록사항 해당 없음
- 소재지 : 부평동 697-22, 725-9



현재 부평동 철도 관사

부평역(富平驛)은 1899년 경인선(京仁線)의 개통과 동시에 영업을 시작하였다. 1930년 중반 이전 부평역 일대는 주막과 외양간이 있는 한적한 농촌으로 1934년까지 경인선 중 유일하게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역이었다. 1934년 역사(驛舍)를 신축하면서 전기가 가설되었다.

1940년 경인시가지계획(京仁市街地計劃)으로 부평역일대는 토지구획(土地區劃)과 공업용지, 주택지로 지정되었다. 이후 일본 육군 조병창(造兵廠)을 비롯하여 다양한 공장들이 들어섰고, 학교, 우편소, 극장도 함께 생긴다. 부평일대의 인구 증가로 부평역을 이용하는 승객은 하루 평균 2천명에 달하였으며, 이에 따라 부평역도 이전의 4배로 개축하게 되었다.

부평역의 확대와 함께 역에 소속된 직원의 관등도 올라갔다. 1939년 이전까지 부평역에 소속된 직원의 최고 관등은 5등 서기(書記)였으나, 1939년 이후에는 3등 서기로 변경되었다.

관사단지는 2호 연립의 관사 16동(32호)으로 이루어졌다. 1940년에 부평역에는 4등 서기, 6등 서기가 각 1명씩 총 2명이 근무하였기 때문에 인원비해 관사가 많은 편인데, 인천과 부천지역의 직원이 함께 거주하였을 것으

35. 『동아일보』, 1934년 7월 19일자, '철도국의 빈약역개축 하순부터 착수'.

36. 『동아일보』, 1934년 12월 27일자, '부평역전기가설'.

37. 『부평사』 제 1권, 부사편찬위원회, 2007, 255쪽

로 추정된다. 관사는 조선총독부 철도국에서 마련한 표준 평면 중 7등 관사로 당시 판임관(判任官)이나 고원(雇員)을 위해 지은 것으로 인천지역에 근무하던 직원의 관직도 판임관에 속하는 서기(書記), 기수(技手) 및 철도수(鐵道手)였다.

관사는 목구조로 외벽은 시멘트 모르타르로 마감하였으며, 지붕은 시멘트기와이다. 방은 3개로 6조 다다미방 2개, 4조 반 다다미방 1개였으며, 주방과, 욕실, 화장실이 있다. 3개의 방 모두에 반침을 두었으며, 방 한 곳에는 반침과 도꼬노마를 함께 두었다.

현재 관사는 1호씩 2동이 남아 있으며, 그 중 부평역과 인접한 관사는 상점으로 이용되고 있고, 나머지는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 상점으로 이용되고 있는 관사는 비교적 원형을 유지하여 외벽은 시멘트 모르타르로 마감한 위에 페인트를 칠하였으며, 지붕은 시멘트 기와가 얹어져 있고, 측면에서 환기창이 남아 있다.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관사는 부분적으로 확장이 되었지만 내부의 구조 및 방문은 비교적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3개의 방은 다다미에서 보일러를 이용한 온돌로 바뀌었으며, 오시이레가 있던 곳을 터서 방으로 이용하고 있다. 부엌이 있던 곳은 거실로 사용하며, 화장실과 욕실은 주방으로 바뀌었다. 건물의 측면을 확장하여 화장실과 욕실을 설치하였으며, 북면도 확장하여 방을 넓혔다. 창고가 있던 마당에는 별채를 추가로 건설하였다.

국산자동차 사택 및 디젤자동차주식회사 사택

- 시대 : 일제강점기 ■유형 : 건축물(사택) / 문화재 등록사항 해당 없음
- 소재지 : 부평동 401, 406일대 / 부평동 379일대

1937년 이시카와지마자동차제작소(石川島自動車製作所), 도쿄와사전기공업주식회사(東京瓦斯電氣工業株式會社), 닥트자동차제조(ダクト自動車製



현재 국산자동차 사택

造)의 세 회사가 합병하여 도쿄자동차공업(東京自動車工業)이 설립되었다.

1939년 도쿄자동차공업(東京自動車工業)은 국산자동차주식회사(國產自動車株式會社)와 합병을 추진하면서 부평에 132,231㎡(40,000평)을 3기로 나누어 조립공장과 부품공장을 건설하기로 한다. 도쿄자동차공업과 국산자동차주식회사는 합병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공장이 완공될 무렵인 1940년의 기사에 따르면 국산자동차주식회사의 부분부품공장이 도쿄자동차공업의 부대공장으로 되어 있다.

도쿄자동차공장은 1941년 디젤자동차 전용허가업체로 지정되어 디젤자동차공업(ヂ.ゼ.ル自動車工業)으로 개칭하였으며, 공장은 부평의 소화정(부평동)에 위치한 것으로 보인다.

시가지계획령 10조 허가철에는 국산자동차주식회사와 디젤자



현재 디젤자동차주식회사 사택

동차주식회사의 사택건축 신청서가 있다. 국산자동차주식회사는 1941년 5월 26일에 신청하였으며, 디젤자동차주식회사는 1944년 6월 29일에 신청하였다.

국산자동차주식회사는 부평정 207, 109-6번지에 2호 연립으로 10동의 신축 신청을 하였으나, 1947년의 항공사진에서는 총 15동, 30호의 사택이 확인된다.

디젤자동차주식회사는 국산자동차주식회사의 사택과 인접한 소화토지구획정리지구의 197호 가곽에 4호 연립 5동, 20호와 2호 연립 5동, 10호를 계획하였으며, 조선주택영단의 정형(丁型)과 무형(戊型) 표준평면을 이용하여 건설되었다.

현재 국산자동차주식회사의 사택은 5동 6호가 남아 있다. 디젤자동차주식회사의 사택은 2동 8호가 남아 있는데 모두 무형 평면의 주택이다.

청천동 검정사택

■시대 : 일제강점기 ■유형 : 건축물(주택) / 문화재 등록사항 해당 없음 ■소재지 : 산곡동 46 일대



현재 청천동 검정사택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특히 현재 행정구역 상 청천1동은 일제강점기와 광복 이후 과정을 거치면서 주거지로 확대되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청천

1동에는 1940년대 일본육군조병창(인천 산곡동 소재) 사택으로 이용한 주거지들이 현재 '검정사택'으로 불리며 현재도 일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검정사택은 집 벽을 타마구 기름으로 먹인 종이로 지은 집들이 많아서, 또는 주변과 달리 검은 빛이 도는 시멘트로 담을 칠했다하여 그렇게 불린다 고도 한다. 검정사택지는 미군부대 물건들을 팔던 도깨비시장과 연결되어 있는데, 도깨비시장은 옛날 미군부대 미제 물건을 팔 때 단속이 나오면 게 눈 감추듯 순식간에 사라졌다하여 그렇게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검정사택지는 예전에는 트럭이 지나다닐 수 있을 만큼 넓었던 골목은 좁아졌고,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담벼락은 허물을 벗으며 흙 담장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현재 주거환경 개선 및 주변 도시재개발 사업 등으로 인하여 그 본래 모습을 더욱 확인할 길이 점점 희미해져가고 있다. 정확한 주택 형성의 연원이나 건축학적 특징들은 본격적인 지역 학술조사를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 마땅한 학술연구 계기나 동력을 찾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1940년대 일본식 가옥 구조의 특징이 국내에 어떠한 형태로 자리 잡게 되었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소중한 역사 현장의 존재 연속성 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현재 청천동 검정사택에 대한 기존 연구는 지역 주민들의 구술에 기원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체계적인 연구와 대중적 관심이 필요한 건축물이기도 하다.

청천동 검정사택은 한 지붕에 4집이 사는 연립형 주택이며, 한 가구당 방 2개, 부엌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본 구조는 산곡동의 영단주택과 유사하며, 안방에는 부엌이 딸리고 다락이 있으며, 건넌방은 안방과 별도의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청천동 검정사택과 산곡동 영단주택 모두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는 지역주민들은 산곡동 영단주택이 대단지로 생활하기 편리한 환경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산곡동 영단주택은 대규모 주택지로 조성된 반면, 청천동 검정사택은 소규모로 조성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인천북부교육지원청 인근 일본식 가옥군

- 시대 : 일제강점기 ■유형 : 건축물(주택) / 문화재 등록사항 해당 없음
- 소재지 : 부평동 542, 543 일원



현재 인천북부교육지원청 인근 일본식 가옥군

2006년도에 인천광역시와 인하대학교박물관에서 발간한 『문화유적분포 지도』에 따르면 인천북부교육지원청 인근의 일본식 가옥군에 대한 간략한 조사 내용이 실려 있다. 해당 가옥들의 지번은 부평동 542-2와 부평동 543-82이다.

부평동 542-2번지 주택(前 조선일보 건물)은 현재는 주거 및 상업의 복합 용도로 쓰이나, 과거에는 서민 집합주택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주택은 일식 주택의 변형타입으로 부분적으로 전면에는 일본식 2층 주택과 뒤쪽의 한옥이 이어져 있어 기존의 한옥에 일본식 주택을 증축한 것으로 보인다.

부평동 543-82번지 주택은 굴포천 북개 구역의 맞은편, 현재 부평문화로 53번길에 위치하고 있으며, 굴포천 주변의 무허가 주택지역과는 다른 형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광복 이전 이 근처에 있던 공장지대에 근무하던 근로자들이 사용하던 사택으로 보인다.

부평문화의 거리 인근 일본식 가옥군

- 시대 : 일제강점기 ■유형 : 건축물(주택) / 문화재 등록사항 해당 없음
- 소재지 : 부평동 211 일원



현재 부평문화의 거리 인근 일본식 가옥군

2006년도에 인천광역시와 인하대학교박물관에서 발간한 『문화유적분포 지도』에 따르면 부평문화의 거리 인근의 일본식 가옥군에 대한 간략한 조사 내용이 실려 있다. 해당 가옥들의 지번은 부평동 211-8과 부평동 211-72이다.

부평동 211-8번지 주택은 일제강점기 때 설정된 필지에 조적조 2층으로 지어진 주상복합으로서, 건물 내부를 크게 변경하지는 않았고, 외부의 마감과 일부를 증·개축하였으며, 현재 1층은 상업시설로, 2층은 주거용도로 쓰이고 있다.

부평동 211-72번지 주택은 목조를 기본으로 한 흙벽의 2층 건축물로서, 일제강점기 때 설정된 필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외부의 마감과 일부를 개축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 1층은 옷 수선 점포로, 2층은 주거 용도로 쓰이고 있다.

이들 부평문화의 거리 인근 일본식 가옥군은 현재 부평시장 권역 내에 위

치하고 있지만, 2017년 현재 가옥 1층에서의 상업 행위는 전보다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일부 인근 시장 상인들의 말을 빌리면, 1960~70년대에는 이 가옥들을 비롯한 인근 많은 점포들에서 윤락여성들의 매춘영업이 있었다고 하는데, 정확한 사실 내용은 보다 면밀한 현장 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성현 옛길 터

■시대 : 삼국시대 ■유형 : 교통시설 / 문화재 등록사항 해당 없음

■소재지 : 구산동 355 일대

일설로는 삼국시대부터 중국으로 왕래하는 사신들을 배웅하는 길이라는 연원을 가지고 있어 이별하는 고갯길 즉, ‘이별(=별리)고개’라는 이름으로 불려오던 지역이다. 부평의 황굴(현재의 부평구 일신동)에서 만수동으로 넘어가는 고개로, ‘비루고개’[별리현(別離峴)]라 불리는데 옛 지도에는 성현(星峴)으로 표기도 되고 있다.

이 ‘비루고개’는 예로부터 서울에서 인천도호부로 통하는 유일한 국도로, 중국으로 가는 사신들이 이 고개를 거쳐 인천 문학산 줄기의 ‘사모지고개



현재 성현 옛길 터로 추정되는 주변의 현장

[삼호현(三呼峴)]’를 넘어서 인천 서해안 방면의 능허대(凌虛臺) 동쪽 한나루[대진(大津)]에서 배를 타고 중국의 산둥반도를 향하여 떠났다고 전해진다. 사신을 전송하는 가족과 친지, 지인들은 서울에서

부터 따라와 ‘비루고개’에서 이별을 나누고 그래도 정을 못 잊어 헤어지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모지고개’까지 따라와서 멀어져 가는 사신을 향해 크게 세 번을 불러 석별의 정을 나누었다고 해서 ‘삼호현(三呼峴)’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그러나, 부평의 별리현(別離峴)은 모든 옛 지도를 살펴봐도 찾을 수 없는 지명인데, 다만 고산자(古山子) 김정호 선생의 『대동여지도』에 성현(星峴)이라고 적혀 있어 눈길을 끌게 한다. 또한, 1918년 간행한 조선총독부 제작 1:50,000 지형도에서도 역시 ‘성현’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부천군 부내면 향동리에서 남동면 만수리 새골[조곡(鳥谷)]로 넘어가는 해발 120m 정도의 나지막한 고개로 나와 있다. 이곳이 현재의 지도에는 ‘비루고개’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 ‘비루’라는 말은 별리고개[별리현(別離峴)]와 상통하는 지명이고, 이 별리고개를 한문으로 표기할 때 ‘별[성(星)]고개’로 착각해서 성현(星峴)으로 표기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또한, 일설에는 초기 고구려 남하 세력이자 미추홀 백제의 시조라 추정되는 비류(沸流)가 미추홀 땅에 비류국을 세울 때 이 고개를 넘었다고 하여 ‘비류고개’라 한 것이 변하여 ‘비루고개’로 불려온 것을 한자로 표기할 때 ‘별고개’로 잘못 쓴 것이라고도 전해진다. 이 일설에 근거하여 현재 인천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를 콘텐츠화하고, 각종 브랜드 및 문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문화행정적인 사안을 감안해서라도 고대부터 이어진 인천의 오래된 옛 교통로 ‘성현’에 대한 전문가들의 체계적인 연구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고대 삼국시대 이래로 오랜 시간동안 인천과 서울 지역을 이어준 성현은 통행이 별로 없는 한산한 시골길에 불과하였는데, 1930~40년대 무렵 이 일대가 일제에 의해 군용지로 수용되면서부터 현재까지 군사시설이 넓게 자리 잡고 있어 고갯길의 원형을 답사할 길이 극히 제한적이다. 이 성현 주변

으로는 조선시대 운하 굴착 사업과 관련해 붙여진 이름의 무네미고개[수현(水峴)]도 존재하는데, 이 일대는 현재 경인산업도로와 서울외곽순환도로가 자리하고 있어 시간이 흘러도 주요한 교통의 요지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8군 군수지원사령부 터

■시대 : 현대 ■유형 : 군사시설 / 문화재 등록사항 해당 없음 ■소재지 : 산곡동 449 일대



현재 미8군 군수지원사령부가 있었던 캠프마켓

광복 이후 부평은 외국의 원조에 의해 의존성이 점차 커져가고 있었다. 이 가운데 1950년대 부평지역의 변화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미군의 주둔이다.

미군은 광복 직후인

1945년 9월 10일부터 6·25전쟁이 발발하기 이전까지, 부평에 있던 일본육군조병창을 접수하며 남한지역에 주둔한 미군들의 주요한 보급기지로서의 역할을 맡겼다.

6·25전쟁으로 철수했던 미군이 부평지역에 다시 주둔을 시작한 것은 전쟁 중인 1951년 1.4후퇴로 밀려났다가 인천지역을 수복하게 되면서부터이다. 그 전해인 1950년 9월, 인천상륙작전의 성공과 함께 잠시 부평지역을 접수한 적은 있었지만 중공군의 개입으로 4개월만에 다시 철수할 수밖에 없었는데, 1951년 봄부터 보급창, 의무대, 공병대, 통신대, 항공대 등의 부대들이 차례차례 부평지역에 자리를 잡기 시작하였다. 부평지역의 미군 부대는 한때 단일 지역으로서의 최대 규모인 4천여 명의 한국인 종업원들이 근

무할 정도로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주요한 일터이기도 하였다. 미8군 군수지원사령부는 남한 지역 최대 규모 군사도시의 한 정점에 위치해 있었으며, 미군들은 미 군수지원사령부(ASCOM) 일대의 부평구 산곡동 지역을 ‘도시(CITY)’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각종 지형도와 공식 문서에 사용하였다. (ASCOM CITY)

1967년 미군이 작성한 내부 문건을 보면 『UNITED STATES ARMY ASCOM DEPOT』, 1967. 2. 10), 1950년대 ‘ASCOM CITY’에는 제6의 무보급창, 제4통신대, 미육군 종합 보급창인 제55보급창, 제195·330·74병기중대, 제728헌병대(Company ‘D’) 등이 속속 들어서기 시작하였고, 이들 부대의 배치는 1960년대까지도 계속 이어졌다.

부평에 주둔한 미군은 물자 및 기술을 지원하며 전후 복구 사업에 참여하기도 하였는데, 대표적인 것이 부평 화랑농장의 건설과 부평 관내 학교 재건사업이었다. 화랑농장은 6·25전쟁 상이군인들의 자활 공동체 집단 생산 및 주거 시설이었으며, 미군이 참여한 학교 재건 사업의 혜택을 본 곳은 부평동초등학교와 해당 학교의 부개분교가 있었다. 또한, 부평구 관내에서 부평동초등학교 건립 이래로 생겨난 여러 교육시설들은 대부분 미군들과 직간접적인 후원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그 흔적들이 여러 학교 관련 문서와 사진들로 현재까지 남아 있다. 광복 이후 부평의 제반적인 현대화 과정에서 미8군 군수지원사령부를 위시한 많은 미군부대들의 지역적인 영향은 매우 높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1960년대 화재로 일본육군조병창 본부 시설을 사용하였던 옛 미8군 군수지원사령부 건물은 현재 전하지 않으나, 1970년대부터 단계적인 부평 미군부대들의 지방 이전으로 현재는 ‘캠프마켓’으로 불리는 미8군 군수지원사령부 터는 조만간 지역사회에 환원될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6·25전쟁 부평지구 전투 터

- 시대 : 현대 ■유형 : 군사시설 / 문화재 등록사항 해당 없음
- 소재지 : 부평동 산 40 일대 외



한국전쟁 부평지구 전투 터 중, 현재 원통이고개 전투 지역 주변

6·25전쟁 개전 초기 인민군에게 인천이 점령된 지 74일만에 유엔군은 ‘인천상륙작전’을 감행하여 전황을 일시 반전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인천상륙작전 이

튄날인 9월 16일 오후부터 미 해병과 한국 해병이 서울을 탈환하기 위해 영등포와 김포로 진격을 계속했는데, 이때 유엔군과 국군의 서울 진격을 차단하고 저지하려는 인민군들 때문에 크고 작은 전투가 부평지구에서 2~3일간 벌어졌다. 6·25전쟁사에 기록된 부평지구 전투로는 원통이고개 전투, 부평역 전투, 부개동 및 송내 전투, 김포와 신리지역 전투 등이 있다.

인천상륙작전 직후 인천을 방어하던 북한 인민군의 주력군은 서울지구로 퇴각하고 그 일부만 서울 방어의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기 위해 남아 있었는데, 부평지구의 잔류 병력은 약 1개 대대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은 계양산, 박촌리, 연희리 등지에 수백 명씩 잠복해 있으면서 유엔군의 서울 진격을 지연시키는 임무를 맡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9월 19일 미 해병이 영등포 서쪽의 안양천까지 진출하고, 9월 21일 김포지구로 패주하였던 인민군의 주력군이 한국 해병대에 의해 대부분 섬멸되면서 부평지구의 전투는 종료되었다.

이 6·25전쟁 부평지구 전투 중에서 가장 치열했던 것이 원통이고개 전투라고 전해진다. 인천 해안 교두보를 확보한 미 해병 제1사단은 9월 16일부

터 한강으로 진격을 개시하였다. 경인국도를 기준으로 하여 북쪽 지역은 제5해병연대가 남쪽 지역은 제1해병연대가 각각 담당하였다. 제5해병연대의 공격 목표는 김포비행장이었고, 제1해병연대의 공격목표는 영등포였다. 부평지역의 전투는 주로 서울 수복을 위하여 미 해병 제1사단의 두 방향으로의 진격을 중심으로 벌어진 셈이었다.

미 해병 제5연대와 제1연대는 16일 밤 부평일대를 내려다 볼 수 있는 고지까지 진출하여 전투배치를 완료하였다. 그 중 제5연대의 선두 부대인 제2대대는 부평역 서쪽 원통이고개 일대의 중요 고지에 배치되었고, 경인철도를 경계선으로 하여 그 좌측 131고지(현재 인천가족공원 전망대 부근)에 F중대를, 그리고 그 우측에 D중대를 배치하였다. D중대는 원통이고개 일대가 도로와 철도가 거의 직각으로 회전해야하는 굴곡지점이므로, 대전차 방어에 유리한 점을 고려하여 그 전방 89고지(현재 호명사 부근 산 정상)에 중대 공용화기와 전초 병력을 매복 배치하였다. 원통이고개 전투는 인천 상륙 3일째인 9월 17일 일출 직전에 벌어졌는데, 89고지 해당 매복 전초 소대는 미 해병의 진지 구축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진군하는 인민군 보전협동부대를 맞아 기습 전투를 벌였다. 인민군 보전협동부대는 당시 T-34전차 6대와 보병들로 이루어졌는데, 미 해병 전초 소대의 화망에 포위되어 진로와 퇴로를 차단당한 채 큰 피해를 입었다. 원통이고개의 지리적인 특징을 이용하여 기습 작전을 감행한 미 해병은 인민군의 주력 전차들을 무력화하였고, 대부분의 인민군 병력들은 현장에서 사살되었지만, 아군의 피해는 매우 경미했다고 보고(인민군 전차 완파 및 인민군 200명 사살에 비하여 아군 측은 1명이 부상하는데 그쳤다.)되었다. 기습 전투를 감행할 당시 원통이고개 전장 입구에 도착한 한국군 제10중대 2소대 참병들 역시 갑작스러운 미 해병의 기습 전투에 당황하였으나 곧 공격에 가담하여 큰 전과를 올렸다.

이후 이어진 인민군 부대의 역습을 완전히 차단한 미 해병 5연대는 당일

오전 9시경 김포비행장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작전을 개시하였고, 부평역 전투와 부개동·송내 전투, 김포와 신리에서의 전투에서 연이어 승리한 유엔군은 파죽지세로 북진하였다. 이듬해 이어진 중공군의 개입으로 인천은 다시 인민군의 점령 하에 들어가지만 유엔군과 국군 측의 반격으로 한 달 뒤에 수복되었다. 이후에는 주된 전투의 현장이 중동부 전선으로 이동함에 따라 부평지구에서는 기록할만한 전투는 이어지지 않았다.

당시 아군 측의 큰 전과로 평가되는 원통이고개 전투를 비롯한 6·25전쟁 당시 부평지구 전투의 승리를 기념한 전적비가 현재 부평구 십정동 부평아트센터 주변에 세워져 있어 보존시설물로 관리되고 있다.

한국지엠 부평공장

■시대 : 현대 ■유형 : 산업시설 / 문화재 등록사항 해당 없음 ■소재지 : 청천동 199, 193 일원



현재 한국지엠 부평공장

부평지역에 현대식 자동차 조립공장이 세워진 계기는 '새나라 자동차'가 처음으로 청천동 일대에 자리 잡으면서 부터이다. 이후 이곳은 신진자동차, GM Korea, 새한자동차,

대우자동차, GM대우, 한국지엠 등으로 주인을 바꾸어 가기는 하지만, 부평지역이 자동차 생산도시라는 명성을 얻어 가는데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1978년 6월 대우그룹은 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새한자동차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본격적으로 자동차산업에 발을 디디게 되었다. 이로부터 2002

년 12월 대우그룹이 GM이 갖고 있던 지분 50%를 인수하여 GM과 결별할 때까지 약 25년간 자동차산업을 경영하였다.

1983년 대우그룹은 자동차회사를 그룹의 주력으로 키운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회사명을 새한자동차에서 대우자동차로 변경하고, GM으로부터 독자적인 경영권 확보에 열을 올렸다. 하지만, 기술 및 재무 분야에서는 여전히 GM의 World Car Program의 영향력을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였다. 당시 대우자동차의 승용차 생산규모는 국내 1위 생산 기업인 현대자동차에 비하여 1/5 수준(연간 생산 20,000대)이었으므로, 대우자동차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고유모델의 양산이 절실한 과제였다. GM 역시 자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소형차 생산을 제조경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외국에서 공급하고자 하는 전략을 세웠으므로 대우그룹과 GM의 이러한 상황이 절충되어 1986년 7월 신차 '르망'이 출시되었다. 이는 독일의 GM 자회사인 오펔사가 기술제공은 물론 신공장 건설과 관련한 엔지니어링을 담당하고, 생산은 대우자동차가, 최종 품질 보증은 GM이 각각 담당하는 분업체제에서 탄생한 대미수출 전략 신규모델이었다. 외국 시장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대우자동차의 승용차 판매대수는 신차 모델의 호조에 힘입어 1987년에 7만 8천대로 승용차 점유율 31.1%를 기록하였다. 하지만, 이후 국내 다른 자동차 기업의 도전과 노사분규 등으로 인하여 대우자동차의 경영여건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특히, 기술 및 재무 분야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GM과의 갈등이 결정적이었다. 신규 모델의 개발과 신공장 건설 등과 같은 과감한 투자와 도전에 소극적인 GM의 태도에 결국 대우그룹은 1992년 12월 GM과의 합작 관계를 청산하고, 10년 뒤에는 지분을 인수하는 조치로 결별하지만, 이후 대우자동차가 GM대우와 한국지엠으로 이어지면서 부평의 자동차공장과 GM의 상관관계는 현재도 진행형이다.

자동차산업은 세계 제2차 대전 전후 자본주의 경제권의 성장을 실질적으

로 주도해왔고, 세계 각국에서도 제조업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까지도 국내 자동차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부평의 자동차 생산 현장이 산업화시기를 대표하는 유산으로서 기억될 가치가 있는 것은 반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다.

인천 일본육군조병창 지하공장 건설 터

■시대 : 일제강점기 ■유형 : 군사시설 / 문화재 등록사항 해당 없음

■소재지 : 산곡동 산 54 일대



현재 인천 일본육군조병창 지하공장 건설 터로 추정되는 동굴 입구

산곡동 산 54 일대, 즉 함봉산이라고 불리는 야산에 형성된 횡혈식 토굴(굴의 내부 구조를 보면 토굴보다는 석굴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처음 함봉산의 굴 존재를

지역에 알린 향토사 연구 기관의 실

무자는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친근한 의미로 지역의 역사적 문화유산을 설명하기 위하여, 세간에서 많이 이용되는 ‘토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 조성한 인공 군사 시설물로 추정된다. 바로, 토굴이 위치한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육군조병창이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육군조병창 관내에서도 함봉산 기슭에서 발견된 토굴과 유사한 지하 인공시설물(방공호 형태로 추정)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아직 본격적인 발굴이 진행되지 않아 정확한 실체가 공개되지 않았다. 일반적인 토굴과는 달리 콘크리트로 마감되어 있으며 정교한 설계 하에 만들어져 있어서 특수한 목적으로 조성된 ‘땅굴’로 추정되고 있다. 함봉산 기슭에서 확인되는 토굴은 콘크리트 타설 마감 이전 단계로 추정되며, 공습과 같은 외부의 위협으로부

터 안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굴 입구로부터 횡혈식으로 100여m 굴착한 흔적만이 도처에서 확인되고 있다.

현재 산곡동 산 54 일대인 함봉산 기슭에서 확인된 여러 개의 토굴은 얼마 전까지 만해도 개인 소유로 새우젓을 자연적으로 숙성시키는 식품 유통업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었는데, 현재는 식품위생안전법에 의해 중단된 상태로 해당 토굴 내부에는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아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적기로 보고 있다.

현재 전국 각지에 남아 있는 토굴들은 대개 전쟁 유적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다. 형태면에 있어서도 수직으로 파내리가는 수혈식 토굴과 지면과 평행한 방향으로 굴착한 횡혈식 토굴로 나뉘어 있다. 부평지역에서 발견된 토굴은 모두 횡혈식 토굴로 함봉산 일대의 산지 하부 능선에 조성되어 있다.

전쟁수행 과정, 혹은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 만든 토굴의 경우 방공 목적이 가장 크다. 이 경우 항공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대피처로서 역할을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군수장비의 은폐, 엄폐를 목적으로 한 경우도 있다. 함봉산 기슭에서 발견된 여러 토굴 역시 시기상 일제강점기의 전쟁 유적일 가능성이 크다. 인근 마을주민들의 전언에서도 관련 증언이 채록되고 있다. 일제강점기에 조성되었다면 부평지역이 갖고 있는 지정학적 특성을 고려해 접목할 필요가 있는데, 분지형 지형인 부평지역은 서쪽이 산지로 막혀 있고 동쪽이 개방된 형태를 보인다. 서쪽 산지의 경우 서해를 향하고 있으며 인천 앞 바다는 이미 19세기 초부터 이양선의 출몰을 경험한 공간이기도 하다. 1930년대 이후 대륙침략전쟁에 돌입한 일본은 부평지역을 남한 최대의 군수기지로 조성할 목표를 세우고 조병창을 비롯한 각종 군수공장들을 설치하였다. 함봉산 기슭에 조성된 일련의 토굴들은 그러한 과정에서 형성된 흔적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해당 토굴의 학술적 접근을 위한 명칭을 굳이 인천 일본육군조병창 지하

공장 건설터라고 잠정적으로 정한 것은 아시아-태평양전쟁의 막바지에 일본 본토를 비롯한 점령지 대부분의 제공권을 상실한 일본 군부가 결사항전을 다짐하며 결행한 마지막 선택이 지하군수공장 건설과 운영에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캠프마켓 자리였던 인천 일본육군조병창 지역에서 멀지 않은 함봉산 기슭에 대규모 인력을 동원하여 암반이나 다름없는 야산 벽면을 굴착하여 횡렬식 굴 공간을 만든 것은 긴급한 전시 체제하에서도 꾸준히 군수물품을 제작, 보관, 수송하고자 하였던 일본 군부의 마지막 선택이라고 판단된다. 이 토굴들은 유사시 군수품 제작을 위한 인력과 물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활용되는 방공호의 역할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는 산록 일부에서 토굴이 발견되고 있지만 가정방공호의 존재 여부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부평지역 일대에는 1930년대 다수의 공장 건설과 함께 대규모의 사택지가 형성되었으며 사택지 내부, 혹은 주변에 가정용 방공호를 조성했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 남아 있는 사택지를 중심으로 그러한 용도의 토굴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서구 역사 문화 유적

서구

연희진 터

■시대 : 조선 ■유형 : 관방시설 ■소재지 : 연희로46번길 6



연희진 터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및 운요호사건을 겪으면서 국방의 중요성을 절감한 조선의 조정에서는 그 방비를 위해 1879년(고종 16) 인천에 화도진을 설치하고, 부평에는 연희진을 설치하였다. 일명 용의 머리 혹은 용두산이라고 불리는 지점이며 이에 따라 용두포대라 불렀다고도 한다. 부평 연안에는 연희포대와 원창동, 가좌동에 포대가 있었다고 전해오나 현재 찾기가 어렵다. 연희진은 수도의 관문이며 요충지인 당시 부평의 연안이 개항지로 제시될 것에 대비하여 1879년 7월 1일 설치되었지만, 인천의 개항을 허용한 뒤인 1882년(고종 19) 헐파되었다.

연희진 터는 후에 서곶출장소로 사용되었으며, 현재 계명공원으로 조성되어 표지석만 설치되어 있다. 주변으로는 연희동 우성아파트와 서곶중학교가 들어서 있으며, 당시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연희포대 터

■시대 : 조선 ■유형 : 관방시설 ■소재 : 용두산로 156



연희포대 터

일명 '용의머리' 혹은 '용두산'이라고 불리는 지점이며, 여기서 이름을 따서 용두포대라 불렀다고도 한다. 양쪽 끝의 돌출부분 사이로 약간의 만을 형성하고 있는데 여기에 포대가 설치되었을 것으로 추

정된다. 경명로 초입으로 흘러드는 갯골의 방비를 위한 것이며, 포좌의 방향은 서북쪽을 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하부에 석축의 흔적이 일부 남아

있으나 당시의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정상부에는 군 시설물(초소)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한다.

가정포대 터

■시대 : 조선 ■유형 : 관방시설 ■소재 : 봉수대로 643

가정포대는 연희진에 소속되어 있던 6~8개의 포대 중 하나로 서구 가정동 봉우재 일대에 해당한다. 해안에서 가정오거리 방향으로 들어오는 갯골(심곡



가정포대 터

천)을 방비하기 위한 목적에서 포대가 축조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포좌의 방향은 서남방을 향하여 인근의 포대와 교차사격이 가능하도록 하였을 것이다. 최근까지 석축이 남아 있었다고 전해지지만 현재는 석축은 남아 있지 않고 가정포대 터였음을 알려주는 표지석 하나만 남아 있다.

축곶봉수 터

■시대 : 조선 ■유형 : 관방·교통시설 ■소재 : 가정동 산54

축곶봉수는 서구 가정동 산 54번지 일대의 나지막한 구릉정상(해발 79.8m)에 위치하는 조선시대 제5거 직봉노선의 연변봉수이다. 봉수에서 남쪽으로 약 350m의 거리를 두고 북망산(해발 101m)이 위치하는데 이를 중심으로 해발 100m 내의 나지막한 구릉이 남북으로 연이어져 있다. 동쪽으로는 해발 225m의 철마산으로 인하여 시야 확보가 곤란한 상태이다. 서쪽으로는 서해 연안에 인접한 까닭에 멀리까지 조망이 가능하다.



축곶봉수 터

축곶봉수에서 시작된 봉화는 순식간에 문학산과 강화도를 지나 서울 남산까지 닿았다. 축곶봉수는 '검단 백석산-통진 수안성산-강화 진강산-교동 화개산' 봉수까지 이어졌다가 다시 '강화 화음산-강화 송악산-통진 남산-김포 북성산-양천

화개산-서울 남산 제5봉'으로 연결됐다.

서구 심곡동에 위치한 양지초등학교의 남쪽 정면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는 이곳이 봉수 터라는 것을 알려주는 안내판이 있고, 석축이 남아 있다.

중심성 터

■시대 : 조선 ■유형 : 관방시설 ■소재 : 공촌동 산1 일원

중심성은 계양산 징맹이고개를 중심으로 동서로 연장된 성으로 현재는 공촌로가 관통하고 있다. 부평 지역의 해안에서 서울까지 70여 리의 여정 중, 징맹이고개를 제외하고는 낮은 구릉조차 없는 평지가 펼쳐져 부평 연안의 방비가 문제되었다.



중심성 터

이 때문에 중심성은 병인양요 이후 1883년 부평부사 박희방이 당시 주민들의 의연(義捐)으로 축조한 것인데 문주를 세워 경명(景明)문주라 현액하였다.

문주 옆에 중심성 사적비를 세웠으나 관리가 허술하여 인천시가 시립박물관에 향토자료로 진열 설치하였으나 1950년 인천상륙작전 당시 함포사

격으로 파손되었고, 사적비 초석도 도로 개설로 인해 분실되었던 것을 찾아 서구청에서 보관 중이다.

공촌동 청송심씨 묘역

■시대 : 조선 ■유형 : 분묘 ■소재 : 경명대로 725-26



공촌동 청송심씨 묘역

청송심씨 묘역은 본래 옛 시흥인 지금의 서울 금천(衿川) 흘리(屹里)에 있었다고 한다. 심한웅(沈漢雄, 1652~1715)이 가좌동 아랫말에 거주하였다는 기록으로 볼 때 늦어도 18세기 전반에는 청송심씨가 가좌동에 세거하고 있었을 것이라 여겨진다. 본 묘역은 1970년 공촌동 갈피산에 조성되었다고 한다.

현재 이 묘역에는 심자(沈鎡), 심우정(沈友正), 심집(沈諱), 심동귀(沈東龜), 심유(沈攸), 심경(沈敬), 심한웅(沈漢雄), 심봉기(沈鳳岐), 심철희(沈喆希), 심공좌(沈公佐), 심홍조(沈弘租) 등 40여기에 육박하는 묘가 조성되어 있다. 묘역 하단에는 심유, 심동구, 심집, 심우정의 신도비와 묘갈이 나란히 건립되어 있다. 그 위 구릉에 5단에 걸친 묘역으로 묘와 묘비가 있는데, 신도비와 구릉 사이에는 상석 4기가 있고 구릉 양옆으로는 문인석과 망주석 등의 석물이 세워져 있다.

대곡동 전주류씨 묘역

■시대 : 조선 ■유형 : 분묘 ■소재 : 대곡동 산122



대곡동 전주류씨 묘역

황곡 안쪽으로 들어가면 너른 공터가 나오는데 공터를 둘러싸고 전주류씨의 묘역이 넓게 조성되어 있다. 조선시대 지리지나 읍지 자료, 그리고 조사되었던 자료에서도 전주류씨는 생소한 성씨이다.

묘역의 석물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개 1970년대 이후에 조성된 것들로 보이기 때문에 이 묘역이 최근에 이장하여 조성된 것이 아닌가 싶다.

현재 묘역에는 5세 류계반(柳季潘)의 망배단이 모셔져 있고, 류진(柳軫), 류항(柳沆), 류악(柳渥), 류효찬(柳孝纘), 류계생(柳啓生), 류조생(柳肇生), 류파(柳坡), 류시성(柳時成)의 묘가 있다. 류계반의 망배단과 류파, 류진, 류시성의 묘가 한 곳에 조성되어 있고 류계반의 망배단 위쪽에 상석과 함께 특이한 얼굴 문양을 새긴 동자석이 놓여져 있다. 류계반의 망배단으로부터 시계방향으로 류항, 류효찬, 류악, 류계생, 류조생의 묘가 산길을 따라 위치해 있다.

대곡동 전주이씨 묘역

■시대 : 조선 ■유형 : 분묘 ■소재 : 대곡동 산157

현재 전주이씨 묘역에는 효령대군을 기준으로 6세 이경운(李卿雲), 8세 이진현(李晉賢), 9세 이만협(李萬協)의 묘가 있다. 또한 묘비가 없어 그 내역

을 알 수 없는 묘도 다수 존재한다.

이경운은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1590년(선조 23) 생원시에 급제하고 1595년(선조 28) 별시문과에 급제하였다. 경차관(敬差官), 호조정랑(戶曹正郎),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 예조좌랑(禮曹佐郎), 평안도도사(平安道都事), 내자시정(內資寺正) 등을 역임하였다. 저서로 『정양재집』이 전한다. 현재 봉분은 증정부인 안동김씨와의 단분으로 조성되어 있고, 묘비, 혼유석, 상석과 향로석, 망주석 1쌍이 있다.



대곡동 전주이씨 묘역

이진현은 비문을 통하여 승정원좌승지를 역임했다는 것 이외에는 다른 관직활동 기록은 찾을 수 없다. 처음 묘는 개풍군 풍덕면 군장산(軍藏山)에 쓰였으나, 1820년경 실전된 분묘를 찾아 대곡동으로 옮겼다. 현재 봉분은 숙부인 평양조씨와의 단분으로 조성되어 있고, 묘비, 상석과 향로석, 망주석 1쌍이 있다.

이만협은 비문을 통하여 병조참판(兵曹參判), 겸동지의금부사(兼同知義禁府事), 병마첨절제사(兵馬僉節制使) 등을 역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봉분은 정부인 풍산심씨, 정부인 수원백씨와의 단분으로 조성되어 있고, 묘비, 상석과 향로석, 망주석 1쌍이 있다.

백석동 광산김씨 묘역

■시대 : 조선 ■유형 : 분묘 ■소재 : 백석동 산3



백석동 광산김씨 묘역

광산김씨 양간공파(良簡公派) 판군기감사공파(判軍器監事公派)의 21세손 김달도(金達道)와 그의 아들 김호(金浩), 손자 김우서(金禹瑞) 등의 묘가 있는 묘역이다.

김달도는 조선 초기의 문신으로 자는 도경(道卿)이고 벼슬은 호조참판에 이르렀다. 부친은 계성(繼性)이고 부인은 평산신씨이다. 1742년(성종 3) 문과로 출사하였으며, 충청도관찰사, 호조참판 등을 거쳤다.

22세손 김호는 충청도관찰사를 지냈고, 김달도의 아들이다. 부인은 전의 이씨로 이청신의 딸이다. 23세손 김우서는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김호의 아들이며, 자는 천석(天錫)이다. 1504년(연산군 11) 식년시 문과에 병과 21인으로 급제하여, 좌랑을 거쳐 도사와 사헌부 지평, 사간원 헌납이 되었다가 의정부 사인에 올랐고 개천군수(价川郡守), 제주목사를 지냈으며 경기도 수군절도사, 복도병사, 방어사를 역임하였고 대사성에 추증된 인물이다.

광산김씨 묘역은 김달도의 봉분이 위치하고 있는 곳과 김호의 봉분이 위치하고 있는 곳 사이의 거리가 약간 떨어져 있으며(산길로 70~80여m), 김달도의 묘역이 위에 위치한다. 김달도의 묘역 제일 상단에는 김필(金弼)의 봉분이 제일 상단에 있고, 김달도의 봉분은 그 아래 단에 있다. 묘비는 1981년 세운 것으로 비의 규모는 36×109×14cm이다. 김호의 묘역에는 봉분 앞에 비석이 있고, 그 앞에 상석, 망주석 1쌍, 문인석 1쌍이 있다. 비의 규모는 45×104×17cm이다.

검암동 진천송씨 묘역

■시대 : 조선 ■유형 : 분묘 ■소재 : 검암동 산113-10

진천송씨 묘역은 청라톨게이트 좌측에 위치하고 있다. 마을 입구에 진천송씨 안성공파 인천중중 동지공 재실(同知公齋室)이 있고, 그로부터 북쪽으로 200m 지점에 진천송씨 묘역이 있다. 현재 묘역에는 송윤과 그의 차남 송홍규의 묘가 들어서 있다.



검암동 진천송씨 묘역

송윤은 조선 후기의 문신이다. 송윤은 검암동에 낙향하여 살며 향촌의 유림들을 지도하였다. 부평 문묘에서 유생들을 가르치고 있던 1636년 병자호란이 발발하였다. 부평향교가 불에 타자 송윤이 위험을 무릅쓰고 향교에서 모셨던 위판을 거두어 숨겼다가 난이 수습된 후에 다시금 향교에 봉안하였다. 또한 향교 재건에도 공을 세워 『청금록(靑衿錄)』에 첫 번째로 등재되었다. 현재 송윤의 묘는 정부인 해주정씨와의 단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묘비, 상석과 향로석, 문인석 1쌍이 있다.

경서동 김해김씨 묘역

■시대 : 조선 ■유형 : 분묘 ■소재 : 경서동 산159

김해김씨 묘역은 경서초등학교 앞산에 위치하고 있다. 17세기부터 김진호(金盡浩)가 입향한 이래 경서동에 김해김씨가 세거하기 시작하였고, 현재 묘역에는 김진호, 김성룡(金成龍)의 묘가 있으며, 지금까지도 선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김진호는 경서동 입향조이다. 그는 숙부인(淑夫人) 동래정씨(東萊鄭氏)와



경서동 김해김씨 묘역

혼인하였다. 김진호의 행적은 비문이나 족보에 기록이 미진하여 자세히 알 수 없다. 다만 통정대부의 품계에 올랐다는 것만 확인된다. 현재 봉분은 숙부인 동래정씨와의 쌍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묘

비, 상석과 향로석, 문인석 1쌍이 있다. 묘비는 1683년(숙종 9)에 건립하였다고 새겨져 있는데, 새 묘비를 건립할 때 원래 묘비의 조성 연도를 그대로 새긴 것으로 보인다.

김성룡은 김진호의 손자이다. 그는 숙부인(淑夫人) 곤양문씨(昆陽文氏)와 혼인하였다. 김성룡의 행적 역시 기록이 미진하여 자세히 알 수 없다. 다만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를 역임하였다는 것만 확인된다. 현재 봉분은 숙부인 곤양문씨와의 단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묘비, 상석과 향로석, 문인석 1쌍이 있다. 묘비는 1754년(영조 30)에 건립하였다고 새겨져 있는데, 이 묘비 역시 새 묘비를 건립할 때 원래 묘비의 조성 연도를 그대로 새긴 것으로 보인다.

심곡동 전주이씨 숙의문씨 묘역

■시대 : 조선 ■유형 : 분묘 ■소재 : 심곡동 산36

전주이씨 묘역은 이비(李備)가 세종 연간에 심곡동에 입향하여 세거하였고, 이후 이곳이 전주이씨의 선영이 되었다. 신라의 도인이 수도를 하던 곳으로 옥(玉)을 다듬는다는 마음으로 수도하던 곳이었다는 전설을 간직한 탁

옥봉(琢玉峰)에 묘역이 조성되었는데, 숙의문씨(淑儀文氏), 이비(李備), 이만년(李萬年), 이계완(李啓完), 이지윤(李志尹)의 묘가 있다.

숙의문씨는 조선 문종의 후궁이다. 1442년(세종 24) 17세의 나이에 문종의 후궁으로 선임되어 양원(良媛)이 되었고, 문종이 왕위에 오르자 숙용(淑容)이 되었다. 하지만 문종이 재위 2년 만에 죽자 세조 초에 소용(昭容)으로, 명종 초에 다시 숙의로 승차하였다. 애석하게도 후사는 없었다고 전한다.

숙의문씨가 죽자 심곡동에서 장례를 지냈다. 이곳은 정종(正宗)의 14남 정석군(貞石君)의 5세손 이비(李備)가 입향하여 세거를 이루고 전주이씨의 선영이 된 곳으로, 문종에 의하면 숙의문씨가 이비의 '장숙모'가 되는 연유로 이곳에 모셨다고 전한다.

1947년 류희진이 쇠락한 숙의문씨 묘와 매몰된 묘비를 찾아내어 정비하였다. 이때 발견된 백자에 쓴 묘지명이 인천광역시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1997년 연희지구 개발로 묘를 동쪽의 산 중턱으로 이장하였다. 현재 숙의문씨 묘는 전주이씨 묘역 내에 철제 펜스로 둘러싸여 있다. 봉분은 단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묘비, 상석, 문인석 1쌍이 있다.



심곡동 전주이씨 숙의문씨 묘역

당하동 고성이씨 묘역

■시대 : 조선 ■유형 : 분묘 ■소재 : 심곡동 산36

당하동 고성이씨 묘역은 본래 16세기 초반 동구 화수동 37-2번지에 조성되었는데, 정숙공(貞肅公) 이척(李則)이 죽자 그가 장전(莊田)으로 관리해 오던 곳에 이척의 묘를 조성한 것을 시작으로 묘역이 조성되었다. 1936년



당하동 고성이씨 묘역

인천부의 부역확장 계획에 따라 화수동에 있던 묘역은 정숙공의 증손자인 이희(李曦), 이돈(李墩) 형제의 묘역이 있는 서구 석남동 산50번지로 이장되었다. 1970년 인천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석남동 묘역 또한 이장하게 되어 현재의 위치인 서구 당하동 산164번지로 이칙과 이웅(李翬), 이변(李忭), 이성(李性) 묘가 이장되었다.

현재 묘역에는 묘비에 새겨진 금석문을 통하여 이칙, 이웅, 이성의 묘가 들어서 있는 게 확인되며, 묘비가 없는 봉분은 이변의 묘로 추정된다. 또한 근래에 건립한 이분(李賁), 이래(李萊), 이요(李薺)의 설단이 세워져있다.

마전동 청도김씨 묘역

■시대 : 조선 ■유형 : 분묘 ■소재 : 심곡동 산36

청도김씨 묘역에는 김점(金漸)의 유허단이 있고, 김유손(金裕孫), 김유손 처 진양정씨, 김영우의 묘가 있다. 한편 김영우의 묘비 오른쪽에 김유손의 옛 묘비 2기, 진양정씨의 옛 묘비 1기, 김영우의 묘비 1기 등 묘비군이 조성되어 있다.

김점은 조선 전기의 문신이다. 김점은 조선이 개국하였을 때 용기순위사대장군(龍騎巡衛司大將軍)으로 태조를 보필하고, 태종 때 안주도좌익병마단사(安州道左翼兵馬團使)를 지냈으며, 세종 때 형조판서(刑曹判書), 호조판서(戶曹判書), 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를 역임하였다.



마전동 청도김씨 묘역

현재 묘역 상단 오른쪽에 김점의 유허단과 유허단비, 상석과 향로석이 있다. 그의 묘소는 북한 장단 송서면에 있어 성묘를 할 수 없자 그의 아들 김유손의 묘가 있는 곳에 1978년 유허단을 설치한 것이다.

김유손은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의흥사 중령 호군(義興司中領護軍)을 역임하였고, 사후 나주목사(羅州牧使)로 추증(追贈)되었다. 청도김씨 마전동 입향조로 비문에 검단면 열애리(悅愛里)에서 장사지냈다고 새겨져 있는데, 열애리는 지금의 마전동 소재 여래마을을 의미한다. 사후 나주목사(羅州牧使)로 추증(追贈)되었기에 김유손의 후손들은 그를 목사공(牧使公)이라 부른다.

현재 묘역 상단에 김유손의 묘가 위치하고 있다. 그의 묘는 정부인 안동 권씨와의 단분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묘비, 상석과 향로석이 있다. 묘 아래쪽에 있는 묘비군 4기 중 2기가 김유손의 것으로 1460년과 1963년에 세운 것이다.

시천동 전주이씨 묘역

■시대 : 조선 ■유형 : 분묘 ■소재 : 아라로105번길 17

전주이씨 묘역은 조선시대 왕족의 묘가 쓰인 곳이다. 조선시대 성종의 후손들이 이곳에 묻혔다. 하지만 이곳에 묘역을 쓴 전주이씨는 시천동에서 세거한 성씨는 아니다. 본래 묘는 서울 난곡에 위치하였는데



시천동 전주이씨 묘역

도시개발로 인하여 1970년대 현재의 자리로 이장하였다. 비록 묘비는 없으나 고풍스러운 장명등, 혼유석, 상석과 향로석 등이 있다.

원창동 밀성박씨 묘역

■시대 : 조선 ■유형 : 분묘 ■소재 : 원창동 산15

1500년대 양지현감(陽智縣監) 박우(朴祐)가 원창동 밀성박씨 입향조로 후손들이 원창동 일대에 세거하였다. 그 중 일부의 묘는 도시계획에 의거하여 연천군으로 이장하였다. 현재 묘역에는 박종남(朴宗南), 박의진(朴義眞), 박의몽(朴義蒙)의 묘가 있다.

박종남은 조선 후기의 문신이다. 문과에 급제하여 홍문관교리(弘文館校理)를 역임하였다. 현재 묘역 상단에 비신(碑身)이 없고 비를 세웠던 받침인 비대석(碑臺石)만 남아있는 묘가 있는데, 그로부터 10m 떨어진 지점에 묘비 일부가 매몰되어 지표에 드러나 있다. 일부가 멸실된 이 묘비는 박종남의 것으로 확인되어 인근 봉분 역시 박종남의 것이라 추정된다. 봉분은 박



원창동 밀성박씨 묘역

종남과 숙부인 온양방씨와의 단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묘비, 상석과 향로석, 문인석 1쌍이 있다.

박의진은 조선 후기의 무신이다. 용양위부사과(龍驤衛副司果)와 감찰(監察)을 역임하였다. 현재 묘역 하단에 박의진의 묘가 있다. 봉분은 김화이씨와의 단분으로, 묘비, 상석과 향로석, 문인석 1쌍이 있다.

박의몽은 조선 후기의 무신이다. 무과에 급제하여 관직을 받지 못한 출신(出身)의 신분으로 갑산진관(甲山鎭管)에 나아가 동인권관(東仁權管)을 역임하였다. 현재 묘역 하단 박의진의 묘 좌측에 박의몽의 묘가 있다. 봉분은 청주이씨와의 쌍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묘비, 상석과 향로석, 문인석 1쌍, 망주석 1쌍이 있다.

대곡동 밀양당씨 정열비

■시대 : 조선 ■유형 : 분묘 ■소재 : 대곡동 279

밀양당씨(密陽唐氏)는 부호군(副護軍) 박종주(朴宗柱, 1807~1885년)의 처다. 박종주는 대곡동 반남박씨 대종중 묘역에 모셔진 11세 박승명(朴升明)의 후손으로 20세에 해



대곡동 밀양당씨 정열비

당한다. 그의 자(字)는 여천(如天), 초명(初名) 종매(宗梅)로, 관직은 통정대부 첨지중추부사 행용양위 부호군에 이르렀다.

밀양당씨의 아버지는 당치술(唐致述), 할아버지는 당걸(唐杰), 외할아버지는 이규석(李圭錫)이다. 밀양당씨는 박종주에게 출가하여 대곡동에 살았

는데, 1867년(고종 4) 남편이 중병에 들자 부인 당씨는 오른손 무명지(無名指)를 잘라 피를 내어 남편의 의식을 살렸다고 전한다. 이에 1882년(고종 19) 향교의 유생들이 김포군수 조준구(趙俊九)에게 선행을 칭송하며 상소한 것이 경기감사에게 보고되어 정려(旌閭)가 내려졌다. 정렬비는 1926년에 세운 것이다.

밀양당씨 정렬비는 계봉산(桂鳳山) 아래에 조성되었다. 입구에는 문이 있었던 흔적이 남아 있으며 안으로 들어서면 계단을 통하여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다. 망주석 1쌍 사이에 봉분 3기가 있는데, 각각 상석과 향로석이 있다. 그로부터 좌측에 있는 비각 안에 정렬비가 있다.

가정 터

■시대 : 조선 ■유형 ■소재 : 가정동 474



가정 터

조선의 개국공신인 조반(趙胖)의 별장 터. 가정오거리에서 서쪽으로 100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원래는 마을 뒷동산에 있었는데 도시계획으로 인해 표지석을 세웠다. 『부평부읍지』고적 조에는 “가정(佳亭)은 석곶면(石串面)에 있는데 부흥군 조반(復興君 趙胖)의 별장[別業]”이라 기록되어 있다. 현재는 도로변에 표지석만 남아 있다. 조반이 이곳에 별장을 지은 것은 1400년(태조 4~정종 2)경으로 추정된다.

조반(1341~1401)은 고려 공민왕 때, 12세의 나이로 아버지를 따라 북경으로 가서 매부 단평장(段平章)에게 의탁하여 중국어와 몽골어를 배우고 승상 탈탈(脫脫)의 인정을 받아 원에서 벼슬을 하였다. 귀국하여 1382년(우왕 8)에는 판도판서(版圖判書)로 정조겸주청사(正朝兼奏請使)가 되어 명나라에 가서 왕의 시호 및 승습을 청하고 돌아왔으며, 1385년(우왕 11)에는 사은사(謝恩使)로 다시 명나라에 다녀왔다. 우왕 시기에는 임견미(林堅味), 염흥방(廉興邦)의 전횡이 심하였는데, 염흥방의 종인 이광(李光)이 조반의 조업전(祖業田)을 강탈하자, 조반은 이광을 죽이고 그 집에 불을 질렀다. 이에 염흥방이 조반이 반란을 꾀하였다고 무고하여 조반과 그의 가족이 옥에 갇혔다. 이에 우왕은 최영, 이성계와 협의하여 조반을 석방하고 임견미, 염흥방 등을 숙청하였다.

조선이 건국되자 조반은 개국공신 2등으로 부흥군(復興君)의 칭호를 받았다.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 참찬문하부사(參贊門下府事)의 관직을 역임하고 1401년(태종 1)에 61세로 세상을 떠났다.

가정 터의 표지석은 가정동 경찰기동대 건물 옆에 있었으나 현재는 인천 루원시티 개발현장으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한들방죽

■시대 : 근현대 ■유형 : 수리시설 ■소재 : 시천동 162



한들방죽

백석방죽, 흰돌방죽, 거지방죽이라고도 불린다. 청대방죽보다 나중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신방죽’이라고도 한다. 구한말에 착공하였다가 실패하고 1919년에 송병준이 완공한

방죽으로써, 1960년대에 노선재라는 사람의 소유가 되었으므로 노선재 방죽이라고도 한다. 거지방죽이라는 별칭이 붙게 된 사연은 다음과 같다.

이곳은 과거 드넓은 갯벌이었다. 서울의 돈 많고 권세 높은 사람들이 독을 막고 간척하려 하였다. 그러나 썰물 때 간신히 갯벌을 파 놓으면 밀물이 밀려와 모두 덮는 바람에 번번이 실패하였다. 마지막에 돈을 대며 덤빈 사람이 친일파이자 재력가인 송병준(宋秉駿)이었다.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제방이 거둬 터져 몇 달째 공사가 지연되고 있었을 때, 마침 거지 하나가 공사장으로 구걸하러 왔다. 사람들은 거지에게 상을 차려주고는 정신없이 밥을 먹는 그를 밀어 구덩이에 떨어뜨리고 개흙으로 생매장했다. 이러한 인신공회를 한 뒤에야 갯골의 제방이 터지지 않아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 뒤부터 사람들이 거지방죽이라고 불렀다.

서구의 유물산포지

두밀 유물산포지

■시대 : 고려~조선 ■소재 : 대곡동 439-440 일대

김포시와 경계에 인접한 곳에 위치한 검단공동묘지 북서쪽의 밭 일대에

서 도기편과 자기편 등이 수습되었다. 유적은 쇠재산의 북서쪽 끝 완만한 남향의 밭으로 주변 일대는 공장과 논으로 둘러싸여 있다. 과거에 해안가에 인접했을 것으로 보이며 유물의 출토 빈도수는 높지 않다.

마전동 유물산포지

■시대 : 삼국~조선 ■소재 : 마전동 26-8 · 26-10 일대

마전동 삼북골 가현에 위치하는 구릉 남현의 완만한 밭 일대에서 유물이 수습되었다. 구릉의 정상부를 경계로 하여 동서방향으로 마전동과 대곡동으로 나뉜다. 유적의 주변으로는 민가와 공장이 위치하고 있다. 과거 조사에서는 타날문토기편과 백자, 도기편 등이 수습되었다.

대곡동 유물산포지 1

■시대 : 청동기~조선 ■소재 : 대곡동 527 · 528-1 · 529번지 일대

검단 길을 지나다가 여래교를 못 미쳐 왼쪽으로 빠지는 도로 끝에서 골목길로 들어서면 접근하기 쉽다. 골목 안으로 진입해 구릉쪽으로 다가가면 정면으로 군부대가 보인다. 군부대를 못 미쳐 왼편으로 민가가 보이는데 민가를 중심으로 아래 밭과 위 밭에서 유물이 수습되었다. 수습유물로는 토기편, 도기 저부편 백자 저부 및 수키와편 등이 수습되었다.

대곡동 유물산포지 2

■시대 : 고려 ■소재 : 대곡동 570전 일대

대곡동 유물산포지 1에서 군부대 방면으로 가다 군부대정문 약간 못 미쳐 동쪽에 위치한 밭 일대에서 청자편 등이 수습되었다. 유적의 맞은편에는 공장들이 자리 잡고 있다. 수습된 유물은 대부분 청자편으로 정확한 기종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대곡동 유물산포지 3

■시대 : 청동기~삼국 ■소재 : 대곡동 606-4전 일대

대곡동과 마전동의 경계부분에 위치하는 유물산포지로 완만한 북향의 밭 주변으로는 공장들이 자리 잡고 있다. 마전동 가현에서 대곡동 태현으로 넘어가는 작은 언덕을 넘으면 두 갈래의 길이 나오는데 그 중 오른편의 소로를 따라 100m 가량 가다보면 유적에 도달한다. 과거의 조사에서 청동기시대 무문토기편과 삼국시대 타날문토기편이 확인되었다.

대곡동 유물산포지 4

■시대 : 고려~조선 ■소재 : 대곡동 505전 일대

‘대곡동 유물산포지 1’에서 동쪽으로 500m 떨어진 곳으로 도라지골산의 나지막한 남사면의 능선 끝자락에 위치한다. 유물이 수습된 밭 주변으로는 건물들이 들어서 있으며 건물 신축 공사 등으로 인해 대부분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기와 및 자기 저부편 등이 수습되었다.

대곡동 유물산포지 5

■시대 : 고려~조선 ■소재 : 대곡동 507전 · 506 일대

‘대곡동 유물산포지 1’과 ‘대곡동 유물산포지 4’의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도라지골 산의 나지막한 구릉 남사면 밭 일대에서 유물이 수습되었다. 유적의 전방에는 들판이 펼쳐져 있는 전형적인 배산임수의 지형이다. 과거 조사에서 고려·조선시대 도기편과 기와편이 다수 수습되었다.

대곡동 유물산포지 6

■시대 : 고려~조선 ■소재 : 대곡동 490-49 · 12전 일대

‘대곡동 유물산포지 4’의 맞은편 정면에 위치한 장고산 남사면의 끝자락

에 위치한 곳으로 현재 밭으로 경작되고 있다. 유적의 전방에는 들판이 펼쳐져 있으며, 전형적인 배산임수의 지형이다. 과거의 조사에서는 수키와편과 자기편 등이 수습되었다.

대곡동 유적추정지 1

■시대 : 미상 ■소재 : 대곡동 산39임 · 산40임 일원

장고산의 북쪽 봉우리 정상부에 해당하는 곳으로 정상부의 둘레를 따라 시대미상의 석축시설이 확인되었다. 내부의 범위는 약 30평 정도로 작은 규모이다. 최근에 조성된 군사시설일 가능성도 있으나 신앙유적이나 관방유적일 가능성도 있다.

대곡동 유적추정지 2

■시대 : 미상 ■소재 : 대곡동 산35임 · 산37임 일원

장고산의 남쪽 봉우리 정상부에 해당하는 곳으로 정상부에서 특별한 시설은 확인되지 않는다. 장고산의 남사면은 비교적 완만한 편으로 전방에 나진하천 유역의 들판이 펼쳐져 있다. 선사시대의 고지성 집락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대곡동 유적추정지 3

■시대 : 미상 ■소재 : 대곡동 601 · 609 일대

삼국시대 타날문토기편이 수습된 ‘대곡동 유물산포지 3’과 바로 인접한 곳으로 타날문토기편이 수습된 지점이 구릉의 북사면이므로 그 곡간부에 해당되는 지점에 생산시설이나 주거시설이 매장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검단 유적

■시대 : 청동기~근대 ■소재 : 마전동 산150 일원

인천광역시 도시개발본부에서 추진한 검단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일환으로 한국문화재보호재단과 인하대학교박물관에 의해 검단 1지구와 2지구로 나뉘어 발굴 조사되었다. 조사결과 1지구에서는 고토양층이 확인되었다. 2 지구는 1, 2, 3 구역과 도로개설구간으로 나뉜다. 이 중 2구역과 도로개설구간에서 유구가 확인되었다. 2구역에서는 청동기시대 주거지 2기, 회곽묘 2기, 토광묘 4기, 미상의 수혈유구 1기, 석렬유구 1기가 확인되었다. 도로개설구간에서는 토광묘 4기, 유물포함층 2개소가 확인되었다.

불로동 유적

■시대 : 청동기~조선 ■소재 : 불로동 348-1 · 410-10 일대

인천광역시 도시개발본부에서 추진한 검단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일환으로 2003~ 2004년에 걸쳐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 의해 총 4개 구역으로 나누어 발굴 조사되었다. 1구역에서는 문화층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2구역은 군부대시설 구역으로 사업지구에서 제외되었다. 3구역에서는 청동기시대 주거지 1기와 소성유구, 구석기 문화층이 확인되었고, 4구역에서는 소성유구 1기, 수혈유구 9기, 회곽묘 2기가 확인되었다.

불로동 유물산포지

■시대 : 삼국~조선 ■소재 : 불로동 537-1 · 547-4 · 547-11 일대

원당사거리에서 불로동 방향으로 넘어가다 보면 뒷골이라는 마을에 도달하게 된다. 유적은 뒷골의 북쪽 구릉에 위치한다. 구릉의 남쪽 하단부에 민가와 무덤이 위치하고 있는데 민가들 사이의 밭에서 유물이 수습되었다. 과거의 조사에서 기와편과 자기편, 타날문토기편 등이 확인되었다.

백석동 유물산포지 1

■시대 : 신석기~조선 ■소재 : 백석동 182-2 · 산59-2 일대

골막산 남쪽 능선의 말단부에 위치하며, 현재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다. 공촌사거리에서 검단 방면으로 2km정도 가다 보면 좌측으로 봉수대길과 만나게 되는데, 이 봉수대길을 따라 500여m 가다 보면 왕길고가차도가 나온다. 이 고가차도를 못 미쳐 오른쪽에 황룡사라는 신축 절이 보인다. 이 절 남동쪽의 경작지에서 즐문토기편,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도기, 자기, 기와편 등이 수습되었다.

백석동 유물산포지 2

■시대 : 삼국~조선 ■소재 : 백석동 산471-1 일대

등그재산에서 남동쪽으로 뻗어내린 능선 말단부에 위치하며, 현재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다. 백석중학교와 백석고등학교 사이에 난 길로 올라가다 보면 좌측으로 나지막한 능선이 보인다. 능선 일대와 능선의 남서쪽 일대 경작지에서 백제의 토기편, 도기, 자기, 기와편 등이 확인되었다.

백석동 유물산포지 3

■시대 : 고려~조선 ■소재 : 백석동 89 · 산26-1 · 산28-3 일대

한진고등학교 북동쪽 일대의 경작지와 해발 41.5m의 구릉지대에서 유물이 수습되었다. 구릉의 남서쪽 일대는 현재 묘목밭과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다. 묘목밭 및 공장의 조성으로 지형이 일부 훼손되긴 하였지만, 나머지 부분은 원래 지형이 잘 보존되어 있다. 도기편, 토기편 등의 유물이 수습되었다.

당하동 유적

■시대 : 구석기~조선 ■소재 : 마전동 산179 일대

인천 검단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일환으로 2000년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지표조사와 2001년 인하대학교박물관이 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4개의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조사결과 I·Ⅲ·Ⅳ구역에서는 특이할만한 유구가 확인되지 않고 Ⅱ구역에서 토광묘 1기와 고토양층이 확인되었다.

원당동 유적

■시대 : 청동기~조선 ■소재 : 원당동 산118 일원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본부에서 시행한 인천 검단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일환으로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 의해 지표조사와 발굴 조사되었다. 유적은 4개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3개의 구역에서 유구가 확인되었다. 1구역은 만수산의 남동쪽으로 뻗은 능선에 위치한다. 조사결과 석곽묘 1기, 청동기시대 석관묘 3기, 소성유구 1기, 회곽묘 2기, 토광묘 3기가 확인되었다. 2구역에서는 소성유구 2기, 분묘유구 101기, 성격미상의 수혈 6기와 백자, 토기류, 청동합, 청동수저, 청동젓가락, 인골 등이 출토 되었다. 4구역은 3개의 구릉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구릉은 각각 가, 나, 라 지점으로 나뉜다. ‘가’지점에서는 19기의 장방형의 청동기시대 주거지와 3기의 수혈이 확인되었다. ‘나’지점에서는 청동기시대 주거지 7기, 수혈유구 4기, 토광묘 2기가 확인되었다. ‘라’지점에서는 구석기와 고토양층, 청동기시대 주거지 5기와 토광묘 1기가 확인되었다.

당하동 유물산포지

■시대 : 고려 ■소재 : 당하동 205

원당동 서문교회 뒤편 산기슭 쪽으로 원당사거리에서 장기사거리 방면으로 가는 길 우측으로 100여m 떨어진 곳에 우측으로 빠지는 길이 나온다. 이 길을 따라가다 보면 정면에 언덕 위로 서문교회가 보인다. 서문교회의 뒤편

동남쪽의 산기슭에 민묘가 있고 민묘의 우측의 밭에서 유물이 수습되었다. 과거의 조사에서 경질토기편과 연질토기편들이 수습되었다.

경서동 유물산포지 1

■시대 : 신석기~조선 ■소재 : 경서동 산181임 · 산182임 · 산183임 · 산159임 · 237전 일대

경명로와 중봉로가 만나는 지점의 북측능선의 밭 일대에서 유물이 수습되었다. 경서지구토지구획사업이 진행되면서 형질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의 조사에서 빗살무늬토기편과 회청색경질토기편, 백자편 등이 확인되었다.

경서동 유물산포지 2

■시대 : 삼국 ■소재 : 경서동 234전 · 248 · 233 · 232 일대

경서동 고잔마을 동쪽에 위치한 해발 30m 내외의 구릉과 구릉의 남쪽으로 이어지는 낮은 능선 일대에서 유물이 확인되었다. 구릉의 남쪽과 서쪽 사면의 구릉은 밭으로 경작되고 있으며, 서쪽 사면의 말단부는 경서지구토지구획사업으로 인하여, 북쪽 사면은 골프장이 조성되어 이미 형질변경이 이루어졌다. 과거의 조사에서 어망추와 회청색 경질토기편, 자기류 등이 확인되었다.

경서동 유물산포지 3

■시대 : 삼국~조선 ■소재 : 경서동 산200 · 202 · 204임 일대

경명로를 따라 인천 서부지방 산업단지를 지나 신공항고속도로 북인천인터체인지 방향으로 가다 보면 경명로와 신공항고속도로가 만나는 지점에 해발 50m 정도의 구릉이 있다. 유물은 류사늬 묘가 위치한 구릉의 동쪽 사면의 경작지에서 일부 확인되었다. 구릉의 동쪽 사면 외의 구릉은 도로 개

설 및 골프장의 건설로 인해 대부분 훼손되었다. 과거의 조사에서 회청색 경질토기 및 백자편 등이 수습되었다.

경서동 유물산포지 4

■시대 : 고려~조선 ■소재 : 경서동 52전·53전·61전 일대

사적 제211호인 인천녹청자도요지와 지형적으로 연결된 곳으로 연희동 방면에서 봉수대길을 따라 강화도 방면으로 가다보면 우측에 골프장으로 가는 4거리가 나온다. 유적은 이 사거리의 좌측의 밭 일대에서 확인되었다. 과거의 조사에서 기와편 등이 수습되었다.

경서동 유물산포지 5

■시대 : 고려~조선 ■소재 : 경서동 425·426·427·428 일원

경서동 유물산포지 4에서 강화도 방향으로 가다보면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 만나는 지점의 우측으로 나지막한 구릉이 보인다. 유물은 구릉의 남쪽 사면을 개간하여 만든 밭 일대에서 확인되었다. 과거의 조사에서 자기편, 기와편 등이 수습되었다.

시천동 유물산포지 1

■시대 : 고려~조선 ■소재 : 시천동 산12-8

검암 2지구 동편으로는 자연부락이 형성되어 있는데 유적은 이 마을 내 굴포천 도로변의 구릉 남안에 위치한다. 꽃매산의 북동편 능선 남안 밭에서 유물이 수습되었다. 과거의 조사에서 도기, 자기, 기와편 등이 다량으로 수습되었다.

시천동 유물산포지 2

■시대 : 고려~조선 ■소재 : 시천동 3-1

시천동의 서구와 계양구 경계 부분에는 꽃매산이 위치한다. 꽃매 주말농장 북편의 능선 밭 일대에서 유물이 수습되었다. 주민들의 제보에 의하면 과거에는 논으로 사용되다가 밭으로 전환된 곳이라고 한다. 과거의 조사에서 자기편이 확인되었다.

검암동 유물산포지 1

■시대 : 고려~조선 ■소재 : 검암동 산55 일원

공촌사거리에서 검단 방면으로 500여m 가다 보면 좌측으로 대인고등학교가 보인다. 고등학교의 뒤편으로 난 소로를 따라 200여m 가다 보면 허암산에 이르게 된다. 허암산 북동쪽 능선 일대에서 도기편과 자기편, 기와편 등이 수습되었으며, 동쪽 해발 40m 정도의 곡간부에서 고려시대 분묘에 매장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청자 3점과 청동합 1점, 청동수저 1점 등이 수습되었다. 이 유물은 대략 13세기경에 매장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분묘에서 수습된 청자는 지방가마에서 구운 중하품에 속하는 것이지만 항(缸)이라는 보기 드문 기종으로 청자에서 분청자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형태를 지니고 있다.

검암동 유물산포지 2

■시대 : 청동기~고려 ■소재 : 검암동 산55-2임

허암산 남서곡간부의 경작지역에서 청동기시대 돌끌 1점과 고려시대 도기편과 자기편들이 다량으로 수습되었다고 한다. 수습된 돌끌의 폭은 약 5cm 정도의 외날로 몸통 부분은 결실된 채 수습되었다.

청라도 유물산포지

■시대 : 삼국~조선 ■소재 : 경서동 산251·산252 일원

청라도는 해발 70m 내외의 구릉 2개가 연결하여 구성된 섬이다. 섬의 서쪽은 매립되어 화력발전소 및 쓰레기 소각장이, 남쪽으로는 이도, 북쪽에는 쓰레기 매립장이 위치하고 있다. 청라도 사면 말단부에는 민가 및 소규모 공장들이 조성되어 있으며 경사면 중간부분은 밭으로 경작되고 있어 원 지형이 일부 훼손되었다. 유물은 청라도 전체 지역에서 고르게 확인되었다. 과거의 조사에서 회청색경질토기, 회색연질토기, 백자 등이 수습되었다.

이도 유물산포지

■시대 : 삼국 ■소재 : 경서동 산249 · 509-10임 · 672 일원

이도(耳島)는 청라도 남서쪽에 인접해 있는 소규모 섬으로 청라도와 작은 소로를 경계로 구분된다. 섬의 서쪽은 실버타운과 쓰레기 소각장 등의 건설로 많은 부분 훼손되었다. 청라도와 연결된 북쪽 및 동쪽의 능선은 공장부지의 조성으로 상당부분 절개되었다. 구릉의 정상부는 송전탑이 세워지면서 일부 훼손되었다. 유물은 구릉의 동쪽 사면 말단부의 절개면 및 경작지에서 수습되었다. 과거의 조사에서 회청색경질토기편, 적갈색연질의 타날문토기편 등이 수습되었다.

소문침도 유물산포지

■시대 : 미상 ■소재 : 경서동 산255임

소문침도는 청라도 남동쪽에 위치한 해발 8.5m 가량의 소규모의 섬이다. 섬 주변은 개간되어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다. 섬의 북쪽 사면은 다소 급한 경사를 이루고 있으나 나머지 사면은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다. 과거의 조사 당시 소문침도 동쪽에 수로공사를 하면서 절개된 부분에서 소규모 패각층과 함께 백자 등의 유물의 수습되었다.

연희동 유물산포지

■시대 : 고려~조선 ■소재 : 연희동 산119 · 122 · 126 · 127 일대

봉수대길과 경명로가 만나는 사거리에서 연희동 방면으로 100여m 가다 보면 좌측으로 구릉이 나타난다. 구릉은 동-서의 방향으로 두 개의 봉우리가 있는데, 동쪽의 구릉과 서쪽의 구릉에서 유물을 수습하였다. 유물은 능선의 정상부에 조성된 경작지에서 주로 확인되며 서쪽 능선 일부 밭에서도 수습되었다. 과거의 조사에서 회청색 경질토기편과 도기편, 자기편 등이 수습되었다.

가정동 유물산포지 1

■시대 : 고려 ■소재 : 가정동 산27 · 28 · 29일대

북망산의 남쪽 능선의 끝부분에 서부 중앙교회가 있는데 교회 건물의 서쪽 주변에서 녹청자편과 요벽(窯壁), 도기편, 자기편 등이 다량으로 수습되었다. 수습된 유물은 사적 제211호인 인천 경서동 녹청자도요지에서 수습된 유물과 매우 유사하다. 교회를 조성하면서 상당 부분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가정동 유물산포지 2

■시대 : 삼국~조선 ■소재 : 가정동 산30임 · 31임 · 64임 등 일대

북망산의 서쪽 사면 경작지 일대로 북망산과 구 해안선 사이에 있는 단구상의 충적 지대이다. 유물산포지의 일부는 경작지의 조성과 가좌-경서동간 도로개설 공사 등에 의해 빠르게 훼손되었다. 과거의 조사에서 타날문토기편과 백자편 등이 수습되었다.

장금도 유물산포지

■시대 : 삼국 ■소재 : 경서동 산256임 · 661 · 662 일대

장금도는 청라도 남동쪽에 위치한 해발 15m 내외의 섬이다. 장금도는 원래 2개의 독립된 구릉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섬의 일부를 삭평·매립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섬으로 연결되었다. 동북쪽에 위치한 풍화암반층 위에 적갈색 점토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곳에서 유물이 확인되었다. 남서쪽에 위치한 구릉은 공장부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동쪽의 사면 일부가 절개되었는데 이 절개면에서 패각층이 확인되었다. 공장부지 주변에서도 부분적으로 패각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공장을 조성하면서 상당부분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과거의 조사에서 흑회색연질 타날문토기 구연부 및 저부, 적갈색 연질 타날문토기 등이 수습되었다.

환자곳 유물산포지

■시대 : 미상 ■소재 : 원창동 산10 · 11 · 12임 · 15임 일대

원창동 유물산포지 2에서 북쪽으로 400여m 떨어진 곳에 해발 30~40m 정도의 나지막한 능선이 위치하고 있다. 능선은 남-북 방향으로 두 개로 나뉘어 있다. 유물은 이 두 능선 주변의 경작지 일대에서 확인되었다. 능선의 북쪽 및 동쪽 사면은 봉수대길 공사로 인해 절단된 상태이다. 과거의 조사에서 회청색경질토기, 백자 등이 수습되었다.

원창동 유물산포지 1

■시대 : 삼국~조선 ■소재 : 원창동 산49임

원창동 유물산포지 2에서 남쪽으로 500여m 떨어진 해발 20m 내외의 나지막한 능선의 정상부와 남쪽 사면 일부 밭에서 유물이 수습되었다. 능선 북쪽과 남쪽의 말단부에는 목재 가공 공장과 민가들이 들어서면서 대부분

형질 변경이 이루어졌다. 과거의 조사에서 회청색 경질토기편, 백자편 등이 수습되었다.

원창동 유물산포지 2

■시대 : 삼국~조선 ■소재 : 원창동 산54 · 56 · 59 일대

원창동 동사무소의 남동쪽에 위치한 해발 62m 구릉 북쪽 사면 말단부에 위치하는 20m 내외의 낮은 능선에 해당한다. 구릉 주변은 정유 공장 및 주택 단지 등이 조성되면서 형질 변경이 이루어졌다. 정상부 주변과 북사면 일대는 과수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민가가 부분적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민가의 주변 밭 일대에서 유물이 수습되었다. 과거의 조사에서 회청색경질토기, 회색연질토기, 백자 등이 수습되었다.

서구 유물산포지

연번	유물산포지	주소	시기
1	두밀 유물산포지	대곡동 439 · 440 일대	고려~조선
2	마전동 유물산포지	마전동 26-8 · 26-10 일대	삼국~조선
3	대곡동 유물산포지 1	대곡동 527 · 528-1 · 529 일대	청동기~조선
4	대곡동 유물산포지 2	대곡동 570전 일대	고려
5	대곡동 유물산포지 3	대곡동 606-4전 일대	청동기~삼국
6	대곡동 유물산포지 4	대곡동 505전 일대	고려~조선
7	대곡동 유물산포지 5	대곡동 507전 · 506 일대	고려~조선
8	대곡동 유물산포지 6	대곡동 490-49 · 12전 일대	고려~조선
9	대곡동 유적추정지 1	대곡동 산39임 · 산40임 일원	미상
10	대곡동 유적추정지 2	대곡동 산35임 · 산37임 일원	미상
11	대곡동 유적추정지 3	대곡동 601 · 609 일대	미상
12	검단 유적	마전동 산150 일원	청동기~근대
13	볼로동 유적	볼로동 348-1 · 410-10일대	청동기~조선

연번	유물산포지	주소	시기
14	불로동 유물산포지	불로동 537-1 · 547-4 · 547-11 일대	삼국~조선
15	백석동 유물산포지 1	백석동 182-2, 산59-2 일대	신석기~조선
16	백석동 유물산포지 2	백석동 산471-1 일대	삼국~조선
17	백석동 유물산포지 3	백석동 89 · 산26-1 · 산28-3 일대	고려~조선
18	당하동 유적	마전동 산179 일대	구석기~조선
19	원당동 유적	원당동 산118 일원	청동기~조선
20	당하동 유물산포지	당하동 205	고려
21	경서동 유물산포지 1	경서동 산181임 · 산182임 · 산183임 · 산159임 · 237전 일대	신석기~조선
22	경서동 유물산포지 2	경서동 234전 · 248 · 233 · 232 일대	삼국
23	경서동 유물산포지 3	경서동 산200 · 202 · 204임 일대	삼국~조선
24	경서동 유물산포지 4	경서동 52전 · 53전 · 61전 일대	고려~조선
25	경서동 유물산포지 5	경서동 425 · 426 · 427 · 428 일원	고려~조선
26	시천동 유물산포지 1	시천동 산12-8	고려~조선
27	시천동 유물산포지 2	시천동 3-1	고려~조선
28	검암동 유물산포지 1	검암동 산55 일원	고려~조선
29	검암동 유물산포지 2	검암동 산55-2임	청동기~고려
30	청라도 유물산포지	경서동 산251 · 산252 일원	삼국~조선
31	이도 유물산포지	경서동 산249 · 509-10임 · 672 일원	삼국
32	소문침도 유물산포지	경서동 산255임	미상
33	연희동 유물산포지	연희동 산119 · 122 · 126 · 127 일대	고려~조선
34	가정동 유물산포지 1	가정동 산27 · 28 · 29 일대	고려
35	가정동 유물산포지 2	가정동 산30임 · 31임 · 64임 등 일대	삼국~조선
36	장금도 유물산포지	경서동 산256임 · 661 · 662 일대	삼국
37	환자곶 유물산포지	원창동 산10 · 11 · 12임 · 15임 일대	미상
38	원창동 유물산포지 1	원창동 산49임	삼국~조선
39	원창동 유물산포지 2	원창동 산54 · 56 · 59 일대	삼국~조선

인천광역시 서구 지정문화재

유적명: 인천 녹청자도요지

지정상황: 사적 제211호

소재지: 서구 도요지로 52

유적명: 신현동 회화나무

지정상황: 천연기념물 제315호

소재지: 서구 신현동 165-4

유적명: 심집 신도비

지정상황: 유형문화재 제32호

소재지: 서구 경명대로 725-26

유적명: 류사눌 묘

지정상황: 기념물 제5호

소재지: 서구 경서동 산200-1

유적명: 조서강 묘

지정상황: 기념물 제6호

소재지: 서구 석남동 산119-2

유적명: 검단 대곡동 지식묘군

지정상황: 기념물 제33호

소재지: 서구 대곡로 330-4 인근

유적명: 한백륜 묘역

지정상황: 기념물 제54호

소재지: 서구 마전동 366-5

유적명: 김안정 묘 및 출토 묘비

지정상황: 기념물 제57호

소재지: 서구 원당동 810-10

유적명: 허암 정희량 유허지

지정상황: 기념물 제58호

소재지: 서구 검암동 산61-5

유적명: 반남박씨 대종중 묘역

지정상황: 기념물 제59호

소재지: 서구 대곡동 산151-1

유적명: 의령남씨 종중 묘역

지정상황: 기념물 제60호

소재지: 서구 원당동 산82-1

유적명: 평산신씨 종중 묘역

지정상황: 기념물 제61호

소재지: 서구 대곡로368번안길 11

계양구 역사 문화 유적

계양구

독실동 청송심씨 묘역

■시대 : 조선 ■유형 : 분묘 ■소재지 : 독실동 산 95 일원

계양구 독실동 당산에 위치한 청송 심씨(靑松 沈氏)의 묘역으로, 심신겸(沈信謙), 심율(沈木栗), 심항(沈杭), 심정영(沈廷英) 등 4기의 합장묘가 조성되어 있다. 심신겸은 심강(沈綱)의 아들로, 조선중기 사림의 거두인 영의정 심의겸(沈義謙)의 아우이자 명종(明宗)의 비 인순왕후 심씨의 동생이다. 가산군수(嘉山郡守)를 지낼 때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군량미 공급에 큰 공을 세웠고, 선조 28년(1595) 부평도호부사를 역임한 뒤 독실동(蠶室洞)에 낙향해 말년을 보냈는데, 훗날 이조판서에 추증되었다.¹⁾ 4기 모두 묘비가 세워져 있으며 심신겸의 묘에는 문인석이 1쌍이 세워져 있다.

1. 『桂陽史』, 인천광역시 계양구, 200, 340쪽.

이명달 묘

■시대 : 조선 ■유형 : 금석문 ■소재지 : 오류동 산4번지

이명달(李命達, 1576~1654)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덕수(德水)이고 자는 여현(汝顯)이다. 선조(宣祖) 39년(1606) 증광시(增廣試)에 합격했는데, 1613년(광해군 5) 폐모론이 일어났을 때, 많은 선비들을 이끌고 상소하여 이위경(李偉卿) 등 삼흉(三兇)을 참(斬)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되자 가족과 함께 태백산에 은거하였다. 인조반정 후 경기전참봉(慶基殿參奉)이 된 이래 정릉참봉(1624), 사섬시봉사(1626), 종부시지장(1628), 사옹원주부(1629), 공조좌랑(1630), 사복시판관(1631), 진위현령(1633), 용인현령(1636), 안산군수(1645)를 역임한 뒤 1647년 인천도호부사가 되었다.

정묘호란(1627) 당시 사섬시 봉사로 소장 기물을 잘 관리하였고, 종부시 직장으로서 『璿源錄』을 태백산과 금강산에 옮겨 안전하게 보관토록 하였으며, 병자호란 때에는 운량차사원(運糧差使員)으로서 그 직에 충실히 수행하였다.²⁾ 그의 묘역에는 상석과 문인석 외에도 황운조가 쓴 묘비가 남아 있다.

황어장 터

■시대 : 조선 ■유형 : 장시 ■소재지 : 장기동 142번지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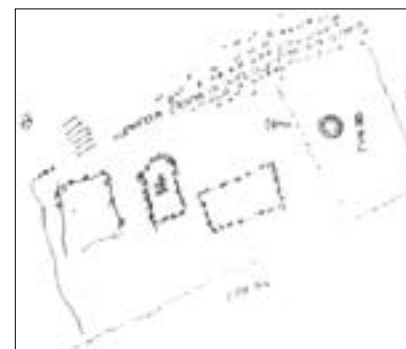
황어장은 부평도호부의 황어면(黃魚面)에 있었던 전통 시장(5일장)으로 매달 3일, 8일, 13일, 18일, 23일, 28일에 장이 열렸다고 한다. 원래는 서곶 검암동의 '바라니'[發阿驛]장이었으나, 이를 폐지하고 황어면으로 옮긴 것이다. 황어장에서는 곡물, 잡화 및 소가 거래되었는데, 특히 우시장은 제주

도와 거제도 등에서도 올라와 거래를 할 만큼 유명하였다고 한다. 1987년 우시장이 철폐되면서 전통 시장으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

한편 1919년 3·1운동 당시 장날을 이용해 수백 명이 만세운동을 일으킨 장소로도 유명하다. 2004년 8월에 건립한 3·1만세운동 기념탑과 전시관이 남아 있어 당시의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있다.³⁾

명월사 터

■시대 : 고려 ■유형 : 불교 ■소재지 : 계산 2동 산52번지 일원



명월사지 실측도(인천고적조사보고서)



명월사지 수습 유물

명월사는 계양산 중턱에 있던 고려시대의 사찰로, 현재의 계산2동 산 52번지 일대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동국여지지(東國輿地志)』(1656) 사찰조의 '명월사재계양산(明月寺在桂陽山)'이라는 기록과 『여지도서(輿地圖書)』(1760) 사찰조의 '만일사명월사봉일사이상구유금무(萬一寺明月寺奉日寺以上舊有今無)'라는 기록으로 보아 18세기 중엽 이전에 이미 폐허가 된 것으로 보인다. 사찰의 창건에 대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지만, 이규보의 시에 이 사찰이 언급되고 있어 고려시대 존재한 사찰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2. 이궁익, 『燃藜室記述』.

『仁川北部 綜合學術調査』, 인천광역시립박물관, 2004.

『仁川の 金石文』, 인천광역시립박물관, 2004.

3. 『仁川北部 綜合學術調査』, 인천광역시립박물관, 2004.

이규보가 남긴 시를 통해 명월사의 위치를 추정해 볼 수 있는데, 『명월사시』에 나오는 ‘하마행차전 절아삼척장(下馬行且顛 折我三尺杖)’ 또는 ‘대박점파심 마약경구소양(大舶點波心 磨若輕鷗櫟樣)’ 등과 같은 표현을 통해 험준한 산간에 위치하였고 또 해면을 바라보는 위치에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1949년의 인천시립박물관의 계양산방면 고적 조사 보고서에는 ‘계양산 북면 약 200미터 중턱에 10척 이상의 석축이 자리한 평지가 있는데 남북 50미터, 동서 100미터의 사지에는 아직도 초석이 원형대로 남아있고 동측에는 큰 우물이 있어 석축은 퇴락되었으나 아직도 물이 넘쳐흐르고 있다. 西串지방 사람은 이곳을 약수터라고 한다. 사지에서 이조시대의 와편과 자기편을 다수 발견하였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⁴⁾

금륜역 터

■시대 : 고려~조선 ■유형 : 공해 ■소재지 : 다남동 80-6

현재 계양구 다남동에 있던 역참의 터로, 역은 국가의 명령과 공문서의 전달 번방의 주요한 군사정보 그리고 사신의 왕래에 따른 영송(迎送)접대를 위하여 마련된 교통통신기관이다. 보통 30리 간격으로 하나씩 설치하였으나 지형여건 등에 따라 일정하지만은 않았다. 금륜역은 고려시대에서부터 19세기 전반기까지 유지되었던 역으로, 『富平府邑誌』와 『東國輿地勝覽』 역원 조에는 ‘在北 十三里’라 되어 있고 『大東地誌』에는 ‘在北一里’로 기록되어 있는데 현재 다남동 대촌마을(大村마을)에 해당된다. 현재 금륜역의 흔적은 찾을 수 없지만, 대촌마을 논 한가운데에 고사한 측백나무 한그루가 서 있

는 곳이 역사 자리라고 전해지기도 한다.⁵⁾

사직단 터

■시대 : 조선 ■유형 : 공해 ■소재지 : 계산동 973 일원

사직단은 토지와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으로, 지방에서는 고을의 수령이 부민의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며 제를 거행하였다. 『동국여지승람』부평부조에는 ‘부평의 사직단은 부 서쪽 2리에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부평도호부 영역 및 사직단 추정지

문헌과 고지도 등의 기록을 토대로 근대 지적원도를 참고한 연구에 따르면, 부평 사직단의 위치는 부평도호부와 향교 사이에 해당하는 계산동 973번지 일원으로 추정되고 있다.⁶⁾ 석축이 남아 있어 기존에 사직단 터로 추정되었던 계산2동 52번지 일원은 부평도호부 관아의 북쪽에 해당해 사직단보다는 여단의 위치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부평의 사직단이 언제 세워졌는지 알 수 없으나, 조선 초 태종 6년(1416)에 주현(州縣)의 사직제(社稷祭)가 실시되었으므로, 부평도 이 시기에 설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부평의 사직제는 매년 2월 8일의 첫 무일(戊日)에 지

4. 柳馨遠 撰, 『東國輿地志』, 1656.
官撰, 『輿地圖書』, 1760년 경.
『仁川古蹟調査報告書』, 인천시립박물관, 1949.
『仁川北部 綜合學術調査』, 인천광역시립박물관, 2004.

5. 『仁川北部 綜合學術調査』, 인천광역시립박물관, 2004.
6. 『부평도호부청사 일원 문화재 정비계획』, (재)한울문화재연구원, 2014, 92~94쪽.

냈다. 부평의 사직단은 일제강점기에 헐어 없었다고 한다.(1915년 을묘)⁷⁾

초정 터

■시대 : 고려시대 ■유형 : 건물지 ■소재지 : 계산동 939-44번지

초정(草亭)은 척서정(滌署亭)이라 불렸던 고려시대의 정자로, 계산동 계산천변에 있었으나 현재는 그 터만 남아 있다. 정자 지붕은 초가로서 띠풀로 덮였고 ‘옥원’이라고 불렸다. 1899년 발간된 『부평군읍지(富平郡邑誌)』 고적 조에는 이규보의 초정에 대한 언급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계양은 궁벽한 측대밭 사이에 있어 유람할 만한 하나의 수림도, 샘도 없는 곳이다. 남산(南山)의 비탈에 정자가 하나 있을 뿐이다. 늙은이들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고(故) 상국 허홍재(相國 許洪材)가 이 고을을 맡아가시고 처음에 이 자리를 잡아 돌을 쌓고 대를 세웠다. 죽은 태수 이실충(李實忠)은 물을 끌어서 늪을 만들고 그 위에 정자를 지었다. 단칸에 서까래 10개를 올리고 띠로 이엉을 이었는데 보기도 초라하였다. 가로 세로의 길이는 불과 여덟 자였고 여덟 사람이나 겨우 앉을 수 있어 참말 보잘 것 없었다. 바위 틈에서 나오는 물은 얼음과 같이 매우 차가웠다. 무더운 여름에도 목욕하려 들어가면 머리칼이 곤두서고 오랫동안 견디어낼 수가 없었다. 게다가 소나무 숲까지 무성하여 서늘한 그늘이 지고 시원한 바람까지 불어 뜨거운 별에 시달리는 일도 없어 피서지로서는 가장 알맞았다. 그러므로 현판에 ‘척서(滌署)’라고 썼다. 그러나 고을사람들은 대체로 ‘초정(草亭)’이라고 불렀다. 혹 어떤 사람들은 이 지대의 형세가 기이하고 아름다워 고을에서 살기보다 이롭다고 하였다. 이따위 소경무당들의 황당한 소리는 유생들이 마땅히 삼가야 할 말들이다. 그러나 상말이나 속된 말

도 맞는 때가 있으니 믿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여기에 당도하기 전에 정자에 대해서 ‘거문고를 불태워 학을 삶듯이’ 정자를 마구 헐어버려 옛 고장을 황량하게 만들어 나는 가슴이 아팠다. 그래서 고을 아전을 불러 ‘이 정자는 이태수(李太守)가 세운 것인데 너의 고을에 무슨 해를 주었다고 감히 헐어버린단 말인가’라 하니 아전은 아무 말도 못하고 물러갔으나 얼마 후에는 낡은 재목들을 주워 모아 가지고 급기야 다시 정자를 세웠다. 정자를 다시 세우는 일이 끝난 다음에 찾아와서 알렸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정자에서 술을 마시면서 낙성식을 하였다. 나는 지난 해 초여름 대궐에서 나와 이 주의 태수로 있다가 금년 6월에 예부에서 낭중기거주지제고(郎中起居注知制誥)의 벼슬로 제발되었다. 궁궐로 올라가게 되자 여러 관료 친구들은 말하기를 ‘이 정자는 태수가 다시 지은 것인데 기록에 남기지 않으면 후세 사람들에게 알게 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나는 이 정자의 유래를 써서 훗날 사람들이 쉽게 헐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며 또 한 이태수의 불후의 공적을 남기려 하였다”

현재 초정지라 추정할 수 있는 곳은 두 곳이다. 한 곳은 계산1동 신도 브래뉴아파트 107동 옆의 샘터 길가로 주택가 가운데 국유지가 가로, 세로 5m 정도 남아 있고 주소는 계산1동 939-44번지이다. 다른 한 곳은 계산동 974-23번지로 위와 150여 m 떨어진 곳에 위치하는데 두 곳 모두 계산천변에 위치하고 있다.⁸⁾

자오당 터

■시대 : 고려시대 ■유형 : 건물지 ■소재지 : 계산동 774

자오당은 현재의 계산동 774번지 계산 고양골체육관 내 궁도장 자리에

7. 조기준, 『富平史研究』, 1994.

8. 『譯註 富平郡邑誌』,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역사문화연구실, 2005.

있던 고려시대 계양도호부사의 관사로, 고려 고종 때 부사로 부임한 이규보가 ‘자오당’이라 이름을 붙였다. 지금은 1955년 인천시에서 건립한 ‘자오당지’라 표석만 남아 있다. 우측에는 ‘부평부사관사로 부사 이규보(李奎報)가 이름하다’라 쓰여 있으며, 좌측에는 ‘고려 고종7년 단기 3553’이라 되어 있다. 『부평부읍지』 산천조에 ‘북서쪽 3리에 중구봉(重九峰)이 있고 계양산 서쪽 기슭에서 남쪽으로 뻗어내려 봉우리를 이루었고, 그 봉우리 아래 자오당터가 있고 또한 냉천(冷泉)이 있다’고 한 것과 일치한다.

1899년 발간된 『부평군읍지』에 실린 이규보의 ‘자오당기’에는 “깊은산(深山) 옆의 갈대가 우거진 사이에 한쪽이 무너져 마치 부서진 달팽이 껍질 같이 생긴 집이 태수의 거처였는데, 집의 형편이 겨우 대들보와 기둥만 세우고 역지로 집이라 해 놓은 것이라 머리를 들기가 불편하고 굽혀서 무릎을 펴기 힘드니 무더운 여름철엔 시루에 들어앉아 한증이라도 하는 듯하다고 하며 모든 가족이 살기를 꺼려하는 집이지만 홀로 집안을 깨끗이 치우고 기거하면서 그 집을 ‘자오당’이라 이름 지었다.”⁹⁾고 그 내력을 기록하고 있다.

이규보는 고종 5년(1218) 좌사간(左司諫)으로 있으면서 지방수령들이 팔관회에 하표를 올리지 못한 것을 탄핵하려 했던 일로 최충헌에게 미움을 사 1219년 계양부사로 좌천되었다. 13개월 동안 계양부사로 재임하면서 이규보는 수 많은 시문을 남겼는데, 자오당의 내력을 기록한 ‘자오당기’도 그 가운데 한편이다.

백룡사 미륵불

■시대 : 미상 ■유형 : 불교 ■소재지 : 계산동 산20-5번지

9. 『譯註 부평군읍지』,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역사문화연구실, 2005.
『仁川北部 綜合學術調査』, 인천광역시립박물관, 2004.

현재 백룡사 미륵전에 있는 높이 1.5m 규모의 불상은 원래 계산동 963번지 일대 개울가에 있던 것을 1975년 백룡사 건립 때 봉일사 터에 있던 3층석탑과 함께 경내로 이전한 것이다. 미륵불은 얼굴과 몸통을 하나의 돌로 조각하고 머리에 초립같은 보관을 얹어 놓은 형태이다. 4등신의 어린아이 같은 구조로 기다란 얼굴과 커다란 귀에서 바로 어깨가 시작된다. 양손은 가슴 앞으로 모아 홀같은 것을 쥐고 있으며 불상의 하단부에는 도식화된 이중연판문 위로 활짝 핀 연꽃과 연잎 등을 그렸다. 전체적으로 토속적인 분위기의 불상으로 제작 시기가 그리 오래된 것으로는 여겨지지 않는다.¹⁰⁾



백룡사 미륵불

봉일사 터 3층석탑

■시대 : 고려시대 ■유형 : 불교 ■소재지 : 계산동 산20-5

현재 백룡사 대웅전 앞에 있는 고려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3층석탑은 과거 봉일사 터(현 경인여대 자리)에 있던 것을 1975년 백룡사 건립 때 이전해 온 것이다. 1950년대에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자료에 따르면, 이중기단위에 탑신과 3개의 옥개석이 나란히 올려져 있으며, 탑두부(塔頭部)는 없어지고 그 위에 자연석 하나를 올려놓은 상태이다. 이 탑은 백룡사에 모

10. 『仁川北部 綜合學術調査』, 인천광역시립박물관, 2004.



1950년대의 삼층석탑

서 복원하는 과정에서 화강석을 깎아 3층의 탑신부를 보완하고, 상층기단부를 마치 1층 탑신처럼 옥개석 밑에 놓음으로써 전체적으로 3층의 규모로 만들었다.¹¹⁾ 그러나 남아 있는 부재의 비례가 불안정한 점과, 지역에 전해지는 이야기를 근거로 당초에는 5층 석탑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봉일사 터

■시대 : 고려시대 ■유형 : 불교 ■소재지 : 계산동 산20

봉일사는 계양산에 있었던 사찰로 창건 및 폐사연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동국여지승람』(1481)에 ‘奉日寺在京畿道富平郡桂陽山’이라 되어 있고, 1799년(정조23)에 편찬된 『梵宇攷』에는 ‘今廢’, 『부평부읍지』에는 ‘奉日寺在桂陽山今廢’라 되어 있어 대략 조선 중기 이후 폐사된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립박물관은 1949년 계양산방면 고적 조사 때 계양산 남록(현 경인여대 부지)에서 고려 또는 조선초의 것으로 보이는 높이 2m의 3층 석탑과 문지(門址), 법당지(法堂址), 강당지(講堂址) 등을 발견하고 이곳을 봉일사 터로 추정하였다. 1961년에는 봉일사 터를 실측 조사하여 봉일사의 영역이 길이 50.6m, 폭46.2m이며, 그 안에 15칸 규모의 본전과 부속건물이 삼단으로 배치되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¹²⁾ 그러나 이후 별도의 보존관리가 이루

어지지 않고, 그 자리에 경인여대가 들어서면서, 지금은 옛 모습을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

부평초등학교 내 선정비군

■시대 : 조선시대 ■유형 : 금석문 ■소재지 : 계산동943(부평초등학교 내)

부평초등학교 정문 오른쪽에는 인조 7년(1629) 부평부사를 지냈던 오준(吳竣)의 선정비로부터 고종 24년(1887) 부평부사였던 정병하(鄭秉夏)의 선정비까지 총 21기의 선정비가 남아 있다. 여기에 있는 선정비들은 본래 부평초등학교 남쪽의 구읍 중심거리에 산재해 있던 것을 계양문화회관 앞으로 모아 이전했다가, 2004년 현재의 위치로 다시 옮긴 것이다. 부평부사의 선정비가 18기이고, 경기도 관찰사의 공덕비가 3기인데, 선정비의 개략적인 현황은 다음과 같다.¹³⁾

1) 오준 청덕애민비(行府使吳竣淸德愛民碑)

- 건립 : 1629. 7
- 규모 : 50×102×17cm
- 재임기간 : 1628. 5 ~ 1629. 5

2) 이필달 청덕애민비(行府使李公必達淸德愛民碑)

- 건립 : 1647. 11
- 규모 : 57×113×19cm
- 재임기간 : 1645. 10 ~ 1646. 8

11. 앞의 책.

12. 『仁川北部 綜合學術調査』, 인천광역시립박물관, 2004.

13. 『譯註 부평군읍지』,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역사문화연구소, 2005.
『仁川の金石文』, 인천광역시립박물관, 2004.

3) 김운장 청덕애민비(行府使金公雲長淸德愛碑)

- 건립 : 1676. 2
- 규모 : 48×87×22cm
- 재임기간 : 1675. 2 ~ 1677. 6

4) 박시경 청덕애민비(行府使朴公示璟淸德愛民善政碑)

- 건립 : 1687. 2
- 규모 : 47×122×24cm
- 재임기간 : 1681. 10 ~ 1683. 1

5) 조위수 청덕애민선정비(行府使趙公渭叟善政碑)

- 건립 : 1706. 2
- 규모 : 47×119×23cm
- 재임기간 : 1684. 11 ~ 1686. 1

6) 유상재 청덕애민선정비(行府使柳公尙栽淸德愛民善政碑)

- 건립 : 1706. 2
- 규모 : 50×109×24cm
- 재임기간 : 1696. 3 ~ 1698. 2

7) 홍만선 청덕애민선정비(行府使洪公萬選精德愛民善政碑)

- 건립 : 1713. 8
- 규모 : 49×146×16cm
- 재임기간 : 1707. 11 ~ 1709. 4

8) 심정보 청덕애민선정비(行府使沈公廷輔愛民善政碑)

- 건립 : 1716. 8
- 규모 : 51×137×20cm
- 재임기간 : 1709. 4 ~ 1713. 6

9) 김상성 영세불망비(行府使金公尙星永世不忘碑)

- 건립 : 1736. 3
- 규모 : 55×137×18cm
- 재임기간 : 1732. 8 ~ 1734. 1

10) 김상우 청덕애민비(行府使金公相遇淸德愛民碑)

- 건립 : 1754. 12
- 규모 : 49×92×25cm
- 재임기간 : 1746. 10 ~ 1747. 7(추정)

11) 김응근 애민선정비(行府使金侯應根愛民善政碑)

- 건립 : 1846. 5
- 규모 : 51×117×17 cm
- 재임기간 : 1844. 10 ~ 미상

12) 김기묵 영세불망비(行府使金侯箕默永世不忘碑)

- 건립 : 1846. 5
- 규모 : 58×126×23cm
- 재임기간 : 1884. 10 ~ 1846. 7

13) 박준양 애민선정비(行府使朴公峻陽愛民善政碑)

- 건립 : 1851. 5
- 규모 : 54×127×16cm
- 재임기간 : 1848. 1 ~ 1852. 1

14) 안응수 영세불망비(行府使安侯膺壽永世不忘碑)

- 건립 : 1895.
- 규모 : 39×142×19cm
- 재임기간 : 1856. 7 ~ 1860. 12

15) 조병로 영세불망비(行府使趙侯秉老永世不忘碑)

- 건립 : 1867. 5
- 규모 : 56×128×22cm
- 재임기간 : 1866. 8 ~ 1866. 11

16) 이기조 청덕애민선정비(行府使李侯基祖淸德愛民善政碑)

- 건립 : 1872. 11
- 규모 : 41×134×20cm
- 재임기간 : 1870. 12 ~ 1871. 9

17) 민석호 영세불망비(行府使閔侯皙鎬永世不忘碑)

- 건립 : 1885. 10
- 규모 : 43×102×17cm
- 재임기간 : 1875. 12 ~ 1878. 6

18) 정병하 영세불망비(行府使鄭侯秉夏永世不忘碑)

- 건립 : 1887. 9
- 규모 : 57×135×17cm
- 재임기간 : 1885. 11 ~ 1888. 5

19) 이재원 자혜애휼선정비(觀察使李公載元宇惠愛恤善政碑)

- 건립 : 1878. 3
- 규모 : 52×153×22cm
- 재임기간 : 1876. 7 ~ 1877. 9

20) 민태호 포덕선화선정비(觀察使閔公台鎬布德宣化善政碑)

- 건립 : 1878. 2
- 규모 : 53×158× 24cm
- 재임기간 : 1874. 9 ~ 1876.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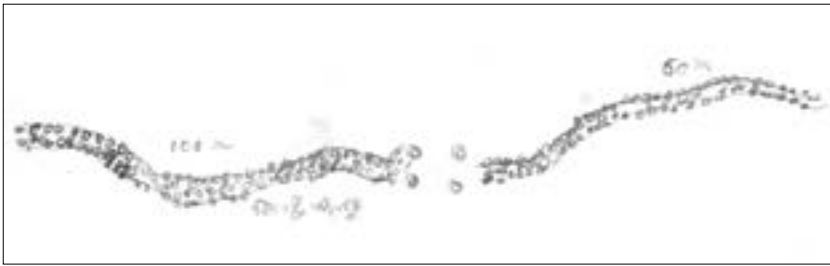
21) 김보현 영세불망비(觀察使金公 輔鉉永世不忘碑)

- 건립 : 1880. 3
- 규모 : 53×158× 24cm
- 재임기간 : 1879. 7 ~ 1882. 6

중심성 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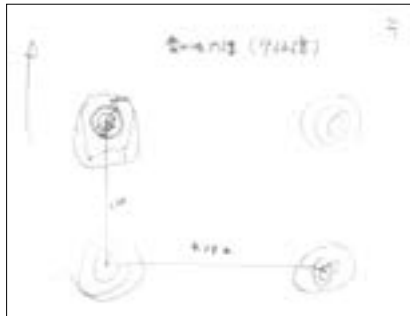
■시대 : 1883년 ■유형 : 관방 ■소재지 : 계양구

중심성은 인천 개항에 따라 유사시에 대비해 해안에서 도성으로 향하는 육로를 차단하는 방어선을 구축할 목적으로 부평부사 박희방이 부평부민의 성금으로 축조한 성곽이다. 때문에 ‘부민의 마음을 모아 쌓은 성’이란 뜻에



중심성 실측도(1949년, 인천시립박물관)

서 그 이름을 ‘중심성(衆心城)’으로 정했다. 고종 20년(1883) 10월 舊 연희진에서 부평도호부로 향하는 길목인 경명현(景明峴)에 중심성(衆心城)을 축조하여 육로를 방비하였고, 이듬해 1월에는 부평에 기연해 방영(畿沿海防營)을 두어 연희진의 연안방비의 기능을 대신하게 하였다.



중심성 망해루 실측도(1949년, 인천시립박물관)

중심성에는 관문인 경명문(景明門)이 설치되었고, 문에는 공해루(控海樓)라 이름 붙인 문루(門樓)가 설치되었으며 장대(將臺)도 갖추고 있었다. 경명문 곁에는 중심성의 축조사실을 새긴 ‘중심성 사적비’가 있었는데, 이에 따르면 성을 쌓는 데에는 부평부 부서면의 상동(上洞)과 하동(下洞)의 주민들이 60금을 내서 성곽을 축조했다고 한다.¹⁴⁾

중심성은 성벽의 중심부를 토축한 후 외면은 석축으로 마감하였는데, 석축한 성돌은 계양산에서 채취한 것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일제의 ‘읍성폐지령’에 따라 1914년 철거되었고, 이후 훼손이 가중되어 현재는 성벽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1949년 인천시립박물관의 조사 때 문루의 초석과 성곽의 기초, 중심성 사적비 등의 존재를 확인하였고, 비를 박물관으로 옮겨 보관하였으나 1950년 6·25전쟁의 와중에 파괴되어, 1949년 인천시립박물관에서 필사한 비문의 내용만 전한다. 현장에 남아 있던 사적비의 귀부는 중심성의 흔적을 보여주는 유일한 유물이었으나, 도로 확장공사로 인해 서구청 구내로 옮겨졌다. 이 귀부(91×85×60cm)는 하나의 돌로 이루어졌는데, 머리부분이 훼손되고 비좌 부분도 심하게 파손된 상태이다. 등에는 넓게 비좌(74×56cm)를 마련하고 그 안에 비를 끼웠던 비공(19×44×10cm)이 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정문화재

유적명: 부평향교

- 지정상황: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2호
- 소재지: 인천광역시 계양구 향교로 19

유적명: 부평도호부청사

- 지정상황: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제2호
- 소재지: 인천광역시 계양구 어사대로 20

유적명: 옥은지

- 지정상황: 인천광역시 문화재자료 제1호
- 소재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어사대로 20

유적명: 어사대

- 지정상황: 인천광역시 문화재자료 제3호
- 소재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어사대로 20

유적명: 이찰, 이율 형제정려

- 지정상황: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52호
- 소재지: 인천광역시 계양구 갈현동 산73-6

14. 『계양산 중심성 지표조사 보고서』, 인하대학교 박물관, 2003, 39~49쪽.

유적명: 영신군(永新君) 이이(李怡)묘

·지정상황: 기념물 제 43호

·소재지: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2동 산2번지

유적명: 계산동은행나무

·지정상황: 인천광역시기념물 제11호

·소재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어사대로 20

유적명: 계양산성

·지정상황: 인천광역시기념물 제10호

·소재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2동 산10-1 일원

유적명: 이선봉 묘역

·지정상황: 인천광역시기념물 제53호

·소재지: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양동 588



인천의 문화사적과 역사 터

강화군

강화군 역사 문화 유적

강화군

선사분묘

고인돌은 청동기시대 대표적인 분묘로서 한국과 일본에서는 지석묘(支石墓), 중국에서는 석봉(石棚)으로 부르며 유럽에서는 돌멘(Dolmen)이라고도 한다. 고인돌은 전 세계적으로 약 6만여 기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중 약 50%에 해당하는 약 3만여 기의 고인돌이 한반도에 분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를 비롯해 전역에 고인돌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인천의 강화도와 전북 고창, 전남 화순은 그 밀집도가 높고 보존 상태도 양호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고인돌은 그 구조에 따라 크게 3가지 형식으로 구분된다. 첫째는 4개의 받침돌을 놓아 무덤방을 만들고 그 위에 덮개돌을 올려 놓은 형식의 탁자형 고인돌이다. 탁자형 고인돌의 무덤방은 대체로 ‘ㅁ’ 형태의 모양을 하고 있으며 무덤방 즉 시신과 부장품을 안치하는 위치가 지상인 관계로 유골이나

유물의 출토 사례가 드물다. 둘째는 지상에 작은 받침돌을 3~4개 혹은 그 이상 설치하고 그 위로 덮개돌을 올려 놓은 것으로 바둑판식 고인돌이 있다. 바둑판식 고인돌의 무덤방은 지표를 굴착한 후 평평한 판석 등으로 사면을 돌려 조성했는데 이런 이유로 함께 부장한 유물이 출토 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¹⁾ 셋째로는 지상에 받침돌을 설치하지 않고 덮개돌만 얹어 놓은 형태의 개석식 고인돌이 있다. 개석식 고인돌 또한 무덤방이 지하에 위치해 유물의 출토 사례가 많은 편이다.

위와 같은 형식 분류에서 강화도의 고인돌은 탁자식 고인돌이 주를 이룬다. 현재까지 조사된 바에 의하면 강화도 고인돌의 형식은 탁자식이 약 50%를 차지하며 개석식이 41%, 형식이 확인되지 않는 것이 약 9% 정도이다.²⁾ 주목되는 것은 강화지역의 고인돌은 탁자식이 주류이며 바둑판식 고인돌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강화도 내 삼거리 소동 고인돌 및 주변 집자리(住居地) 유적, 오상리 고인돌군 등에 대한 발굴조사 시 팽이형토기(角形土器)와 습배달린간돌칼(有莖式石劍)이 출토되었는데 이는 대동강 유역에서 주로 확인되는 유물 조합이다. 이를 통해 본다면 강화도 고인돌을 축조한 세력은 대동강을 중심으로 한 팽이형토기 문화권에 속했음을 시사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강화도 고인돌은 입지에서도 타 지역에 비해 특이성을 보이고 있다. 강화도의 고인돌은 평지 및 구릉과 산기슭, 산사면, 산마루, 산정에 위치하는데 대체로 해발고도가 낮은 구릉과 산기슭에는 탁자식보다 개석식 고인돌의

개체수가 많으며 해발고도가 높은 산마루, 산정 등에는 대부분 탁자식 고인돌이 위치한다. 또한 과거 해안가 인근에 위치한 평지의 경우에도 개석식보다는 대규모의 거대한 탁자식 고인돌이 주로 분포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 중 구릉 및 산기슭 등에 위치한 고인돌은 삼거리, 부근리, 오상리, 교산리 고인돌군 등이 있는데 이들 고인돌이 입지한 조건은 식수나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소하천 인근에 위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와 같이 고인돌이 생활공간 및 그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점은 고인돌이 만들어질 당시 사회 내부적으로 수직적인 계층분화가 덜 이루어졌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에 비해 산마루나 산정에 위치한 고인돌은 대체로 해발고도가 100~300m 사이로 나타나는데 교산리와 고천리 일부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이 탁자식이다. 고인돌을 만드는데 있어 개석식에 비해 채석과 축조과정에서 더욱 정교한 기술과 많은 노동력이 들어가는 탁자식 고인돌이 전망이 좋은 지역에 차별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그만큼 축조집단 내부의 계층분화가 심화된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평지에 위치한 대규모의 고인돌은 부근리의 강화 지석묘, 양오리 고인돌, 대산리 고인돌이 대표적이다. 이들 고인돌은 입지와 규모를 볼 때 축조집단의 이념적이거나 사회적 성격의 행위를 지속하기 위해 특정한 공간에 조영하여 기념물과 같은 성격을 가졌던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고인돌 조성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제사와 같은 공통의 의례를 통해 집단간의 동질성을 확인하고 지역적 통합을 확인하기도 했다. 이런 거대한 규모의 고인돌은 축조과정에서 대규모의 노동력을 동원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정치적, 경제적 기반이 필수적인데 이런 점을 통해 본다면 강화 지석묘 등은 강화북부 지역의 청동기 사회에서 가장 최상위 계층의 무덤이었던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아울러 이러한 대규모 탁자식 고인돌은 서북한 지역의 안악 로암리, 연탄오덕리, 배천 용동리 등의 유적과 요동반도의 개주 석봉산, 장하 대항유적

1. 이전까지 탁자식 고인돌과 바둑판식 고인돌은 각각 북방식, 남방식 고인돌로 분류되기도 했다. 이는 한강을 기준으로 이북 지역에서는 탁자형이 주를 이루었고 그 이남에서는 바둑판식이 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사 결과가 축적되고 신규 고인돌 조사 결과 남부 지역에서도 탁자식 고인돌이 확인되는 사례가 있어 근래들어서는 형태에 따른 분류가 중시되고 있다.

2. 하문식, 「가화지역의 고인돌에 대하여」, 『송실사학』 제19집, 2006, 35쪽.

등과 유사성을 보인다. 특히 탁자식 고인돌의 분포는 서해를 중심으로 둥글게 호를 이루는 양상인데 이는 바다를 통해 탁자식 고인돌 문화가 교류되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고천리 고인돌군2

■시대 : 청동기시대 ■유형 : 선사시대 거석 문화재, 분묘 ■소재 : 내가면 고천리 산 76



고천리 고인돌군 2 중 받침돌만 남은 고인돌(문화재청)

고천리 고인돌군2는 적석사(積石寺)에서 약 300m 떨어진 연촌길 동쪽의 20m 지점의 산중턱에 위치한다. 이곳은 고려산에서 서쪽으로 분기한 능선의 남쪽 사면 일대로 북쪽의 고려산 능선을 제외한 동, 남, 서 방향 모두가 조망된다. 현재 고인돌

은 총 4기가 확인되는데 이중 3기는 받침돌만이 남아 있으며 1기는 덮개돌까지 온전히 남아 있는 상태이다. 이 지역은 현재 민묘들이 주변으로 조성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를 고려해 본다면 원래 고인돌 개체수는 더 많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고인돌의 형식은 남아 있는 유적의 흔적을 볼 때 탁자식과 개석식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산리 덕고개 고인돌

■시대 : 청동기시대 ■유형 : 선사시대 거석 문화재, 분묘
■소재지 : 양사면 교산리 덕고개 835전

고인돌은 양사면사무소에서 서쪽으로 약 100m 정도에 위치한 성덕산~별악봉을 잇는 등산로 상에 위치한다. 면사무소에서 약 300m 정도 떨어져 있다. 고인돌이 위치한 곳은 별악산에서 서남쪽으로 이어지는 산능선의 중



교산리 덕고개 고인돌(문화재청)

턱으로 현재는 밭으로 쓰이고 있다. 고인돌은 밭의 한 가운데 위치하며 덮개돌이 특이하게 원통형의 괴석으로 만들어져 있다. 덮개돌의 크기는 높이 142cm, 직경 120cm이며 암질은 화강편마암으로 밝혀졌다.

교산리 덕응 고인돌군

■시대 : 청동기시대 ■유형 : 선사시대 거석 문화재, 분묘
■소재지 : 양사면 교산리 덕응 187-1임

고인돌은 양사면사무소 인근에서 북서쪽으로 분기하는 전망대로 1366번길 460m 지점 서쪽 능선 사면 일대에 2기가 위치한다. 이곳은 덕응마을의 서쪽에 위치한 증산의 북쪽 능선 일대로 덕응 고인돌군의 북쪽 150여m 지점에는 교산리 묵골 고인돌군이 위치하고 있다. 두 개의 고인돌은 약 15m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으며 덮개돌의 크기는 각각 160cm×130×40cm(가로×세로×두께), 290×150×50cm 정도이다. 형태로 보아 개석식 고인돌로 추정된다.

교산리 묵골 고인돌군

■시대 : 청동기시대 ■유형 : 선사시대 거석 문화재, 분묘 ■소재지 : 양사면 교산리 614

고인돌은 덕응 고인돌군의 북쪽 150m 지점에 위치한다. 고인돌군은 남쪽에 위치한 증산의 북쪽 능선 말단부에 해당하며 증산의 서쪽과 동쪽으로 각각 송산과 저담산이 자리하고 있다. 또한 고인돌군의 북쪽은 간척지와 해안이 입지하는데 남쪽으로는 산을 등지고 북쪽으로 해안을 바라보는 지형을 보인다. 유적은 해발고도 약 15m 내외의 얇은 구릉 정상부와 동사면 일

대에 있다. 고인돌은 총 8기가 확인되었으며 이중 7기는 밀집되어 있고 나머지 1기는 북쪽에 떨어져 분포하고 있다. 고인돌은 탁자식이 2기, 개석식이 6기로 나타난다.

교산리 증산 고인돌군

■시대 : 청동기시대 ■유형 : 선사시대 거석 문화재, 분묘
■소재지 : 양사면 교산리 978, 976, 1073, 101-2

증산 고인돌군에서는 총 6기의 고인돌이 확인되었는데 봉천산의 북쪽 서남쪽 사면 일대에 짝을 지어 군집을 이루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교산리 증산마을의 김용환씨 집 인근에 3기, 이곳에서 약 400m 떨어진 고주현씨 집 주변에 2기, 그리고 남서쪽으로 200m 떨어진 도로 변에 1기가 위치한다. 현재 고인돌의 형식은 덮개돌의 형태로 보아 개석식으로 추정되고 있다.

북성리 말미 고인돌군

■시대 : 청동기시대 ■유형 : 선사시대 거석 문화재, 분묘 ■소재지 : 양사면 북성리 1262-4

고인돌군은 전망대로에서 북성리 말미마을로 들어가는 길이 갈라지는 삼



북성리 말미 고인돌(문화재청)

거리에서 약 60m 떨어진 밭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방치되어 부분적으로 훼손이 심하며 주변에 다른 석재들이 널려 있어 정확한 형태를 확인하기 어렵다. 육안으로 확인되는 덮개돌의 크기는 각각 230×165×40cm(가로×세로×두께), 105×70×

20cm로 측정되었고 2기는 모두 흑운편마암 계열의 석재를 이용해 조영되었다.

북성리 요곡 고인돌

■시대 : 청동기시대 ■유형 : 선사시대 거석 문화재, 분묘
■소재지 : 양사면 북성리 산 134-6

유적은 현재 북성교회에서 약 100m 남쪽의 별악봉 북사면에 위치한다. 고인돌은 1기로 덮개돌 일부가 흩어 묻혀 있어 전체적인 형태를 파악하기는 힘들다. 덮개돌 아래로 받침돌로 추정되는 할석이 남아 있다. 덮개돌의 평면형태는 말각방형으로 크기는 165×160×50cm(가로×세로×두께) 정도이다. 또한 요곡 고인돌 주변으로는 고인돌의 부재로 추정되는 석재들이 산재되어 있어 향후 고인돌이 추가로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

창후리 별립산 고인돌

■시대 : 청동기시대 ■유형 : 선사시대 거석 문화재, 분묘
■소재지 : 하점면 창후리 산 121임

별립산 고인돌은 별립산의 남쪽 사면 해발 80m 지점에 위치한다. 이곳은 창말마을에서 별립산 방향으로 약 300여m 떨어진 곳으로 산사면은 대략 4~5부 능선으로 완만한 경사지대이다. 고인돌은 덮개돌이 받침돌에서 흘러내려 산지 경사면에 비스듬히 놓여 있으며 바로 북쪽으로 붙어서 받침돌이 노출된 상태이다. 형식은 탁자식 고인돌로 덮개돌의 평면형태는 타원형의 판석이고 크기는 240×170×70cm(가로×세로×두께)이다. 받침돌의 배치를 볼 때 고인돌의 장축 방향은 동-서 방향을 보인다. 고인돌의 암질을 화강편마암이다.

창후리 사촌 고인돌군

■시대 : 청동기시대 ■유형 : 선사시대 거석 문화재, 분묘
■소재지 : 하점면 창후리 441대, 산 49임



창후리 별립산 고인돌(문화재청)

고인돌군은 창후 1리 마을회관의 북쪽인 별립산 남사면 말단부에 분포한다. 고인돌군은 2기씩 짝을 지어 총 2개 군집으로 분포하고 있다. 이 지역은 별립산에서 내려오는 능선의 말단부분으로 완경사를 가진 지역으로 고인돌은 형식으로 볼 때

모두 개석식이다. 덮개돌의 크기는 각각 $310 \times 240 \times 45\text{cm}$, $220 \times 190 \times 30\text{cm}$, $350(\text{노출부}) \times 300 \times 60(\text{노출부})\text{cm}$, $320 \times 175 \times 60\text{cm}$ 정도이다. 사촌 고인돌군 중 441대 일대 고인돌 1기에는 성혈이 확인되며 산49 일대의 고인돌은 지역 주민들의 기도 대상으로 이용되기도 했다고 한다.

창후리 뒷물 고인돌

- 시대 : 청동기시대 ■유형 : 선사시대 거석 문화재, 분묘
- 소재지 : 하점면 창후리 산1

이강 삼거리에서 창후리 방향으로 약 100여m 정도 가면 우측으로 별립산(別立山) 남쪽 말단부에 고인돌이 위치한다. 현재 상석과 1매의 지석이 잔존하고 있는 탁자식 고인돌로서, 상석은 대형의 판석이며 크기는 $310 \times 290 \times 70\text{cm}$ 정도이다. 장축방향은 남-북향이다. 지석은 상석의 장축방향과 같은 남-북향을 하고 있으며, 크기는 $240 \times 100 \times 35\text{cm}$ 이다. 암질은 모두 화강편마암이다.

창후리 구동 미보고 고인돌

- 시대 : 청동기시대 ■유형 : 선사시대 거석 문화재, 분묘
- 소재지 : 하점면 창후리 14

강화 창후리 구동 추정 건물지 서쪽, 창후로 16-19번지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고인돌 상석만 확인되며, 상면에는 기존에 다른 것으로 사용된 콘크리트 흔적이 남아 있다. 상석의 규모는 $185 \times 250 \times 45\text{cm}$ 이다.

이강리 성경 고인돌

- 시대 : 청동기시대 ■유형 : 선사시대 거석 문화재, 분묘
- 소재지 : 하점면 이강리 374, 357

고인돌은 이강리 성경부락 심은미술관 주변에 2기, 강서중학교 앞의 솔밭에 1기 등 총 3기가 위치해 있다. 유적은 별립산 남동쪽 산록 완사면의 말단부로서 거의 평지에 해당한다. 1기는 탁자식, 2기는 개석식으로 판단되며, 각각의 덮개돌의 크기는 $370 \times 230 \times 60\text{cm}$, $300 \times 200 \times 40\text{cm}$, $220 \times 150 \times 28\text{cm}$ 이다. 탁자식으로 판단되는 고인돌에서는 석축이 출토되었다고 하며, 개석식 고인돌 상석에서는 성혈이 발견된다. 이외에도 모현부락의 남영상회 맞은편에 고인돌이 있었다고 전하지만, 10여 년 전 도로확포장 공사로 없어졌다고 한다.

덕하리 고인돌군

- 시대 : 청동기시대 ■유형 : 선사시대 거석 문화재, 분묘
- 소재지 : 양사면 덕하리 12-2

고인돌군은 강화군 양사면 덕하리 전망대로 1442번지 남서쪽에 1기, 북동쪽에 1기가 위치하고 있다.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1기의 고인돌의 규모는 개석 크기 장축 320cm, 단축 220cm, 높이 35cm로 상석만 존재한다. 주변에 10~50cm 내외의 잔돌들이 산재해 있으며, 벽석으로 보이는 대형 석재도 6기 정도 확인된다.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1기의 고인돌의 규모는 크기 $265 \times 184 \times 38(\text{cm})$ 로 상석만 확인된다. 벽석으로 보이는 석재는 노출되지

않았으며 주변 잔돌들은 확인되지 않는다.

신봉리 골말 고인돌

■시대 : 청동기시대 ■유형 : 선사시대 거석 문화재, 분묘

■소재지 : 양사면 신봉리 297-3

고인돌군 하점면사무소 앞으로 난 48번 국도와 강화대로 1247번길이 분기하는 지점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봉천산의 남서쪽 능선의 최하단 완사면이다. 고인돌은 받침돌이 없는 것으로 보아 개석식 고인돌로 추정되며, 덮개돌은 판석을 사용하였다. 덮개돌 위에는 흙이 쌓여 있어 정확한 형태를 알 수 없으나, 육안으로 확인되는 상석의 크기는 $240 \times 190 \times 60\text{cm}$ 정도이며, 장축방향은 북동-남서향이다. 암질은 화강편마암이며, 주민들의 전언에 의하면 주변에 다른 1기의 고인돌이 더 있었다고 전하나 최근 도로확장으로 인해 없어졌다고 한다.

양오리 관돌산 고인돌

■시대 : 청동기시대 ■유형 : 선사시대 거석 문화재, 분묘

■소재지 : 송해면 양오리 산1



양오리 관돌산 고인돌(문화재청)

전망대로에서 강화은암자연사박물관 앞으로 장정양오길 409번길을 따라 800m 들어가면 장정양오길 365번길과 분기하는 삼거리가 나오는데 유적은 이 삼거리에서 북쪽으로 약 200m 떨어진 야산에 위치한다. 이곳은 봉천산 북동쪽 끝부분의

해발 20m 가량의 구릉에 해당한다. 고인돌은 1기이며 덮개돌과 2매의 받침

돌이 흩어져 있는 상태로 주변에는 고인돌 부재로 보이는 판석들도 산재해 있다. 덮개돌은 받침돌에서 밀려나 있는 것으로 보아 훼손된 것으로 판단된다. 덮개돌은 괴석형의 판석으로 크기는 $530 \times 390 \times 70\text{cm}$ 정도이며, 받침돌은 1매는 쓰러져 있고, 또 다른 1매는 쓰러져 있는 받침돌에 기대어 세워져 있는데, 서측의 받침돌 크기는 $330 \times 250 \times 40\text{cm}$ 정도이다. 암질은 모두 흑운모편마암이다.

망월리 고인돌군

■시대 : 청동기시대 ■유형 : 선사시대 거석 문화재, 분묘

■소재지 : 하점면 망월리 산47, 산55

하점면 망월리 미꾸지부락에서 고려산 서쪽 능선 끝자락을 따라 300m 가량 떨어진 곳에 고인돌군이 위치한다. 고인돌은 등산로를 따라 2개군으로 나눌 수 있는데, 등산로를 중심으로 남쪽에 4기가, 북쪽의 공동묘지 아래쪽에 1기의 고인돌이 있다. 고인돌이 위치한 지역은 지형상으로 고려산 낙조봉 서쪽 하단인데 경사면을 따라 지석 등이 흘러내려진 상태이다. 북쪽의 1기를 제외하고 고인돌은 3m 이내의 간격을 두고 밀집되어 있다. 밀집된 4기는 탁자식, 북쪽의 1기는 개석식 고인돌로 추정되지만 완전한 형태를 갖춘 것은 없고, 덮개돌이나 받침돌의 일부만 잔존할 뿐이다. 이중 덮개돌이 확인되는 것은 모두 3기로 각각의 크기는 $150(\text{노출부}) \times 60(\text{노출부}) \times ?\text{cm}$, $160 \times 50(\text{노출부}) \times 25\text{cm}$, $260 \times 200 \times 60\text{cm}$ 이다.

오상리 고상골 고인돌

■시대 : 청동기시대 ■유형 : 선사시대 거석 문화재, 분묘

■소재지 : 내가면 오상리 238-2임

고인돌은 강화서로와 강화서로 416번길 분기점에서 남동쪽으로 약



오상리 고상골 고인돌

230m 떨어진 삼도농협종합미곡처리장 뒤편에 위치한다. 고인돌이 위치한 지역은 낙조봉에서 남쪽으로 이어지는 능선의 말단부로 얇은 구릉지대이다. 고인돌은 하부시설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지만 개석식으로

판단된다. 고인돌의 덮개돌 평면은 반타원형을 이루며 장축 266cm, 단축 224cm, 두께 43cm 정도이다.

삼거리 천촌1 고인돌군

■시대 : 청동기시대 ■유형 : 선사시대 거석 문화재, 분묘

■소재지 : 하점면 삼거리 산122임

천촌부락 앞의 고려산 북쪽 능선 하단부에 위치하는 유적으로, 삼거리 고인돌군으로 오르기 약 200m 전의 완사면에서 총 4기의 고인돌을 확인된다. 고인돌은 능선방향으로 약 5m 내외의 간격을 두고 있다. 고인돌은 현존 상태가 불량하여 정확하지는 않으나 3개의 탁자식과 1기의 개석식 고인돌로 추정된다. 이 중 2기의 고인돌에서만 덮개돌이 잔존하는데, 각각의 크기는 270×110×70cm, 260×170×52cm이다.

삼거리 천촌2 고인돌군

■시대 : 청동기시대 ■유형 : 선사시대 거석 문화재, 분묘

■소재지 : 하점면 삼거리 720, 914, 927

삼거리 마을회관 우측의 길을 따라 약 300여m 정도 가면 천촌마을 가운데 회나무를 중심으로 10기의 고인돌이 밀집되어 있으며 북서쪽으로 약간의 거리를 두고, 민가 앞마당에 1기가 단독으로 위치해 있다. 고인돌이 밀집

한 지역은 고려산 북서쪽 능선 사이의 산자락 바로 아래인 해발 30m 가량의 대지상이며, 정면인 서쪽은 해안을 마주하고 있다. 삼거리 천촌1 고인돌군과는 약 50m 가량 떨어져 있다. 각 고인돌은 방치된 채 훼손되어 세부사항을 자세히 알 수 없으나 대부분 개석식 고인돌로 판단된다. 덮개돌이 잔존한 것들의 각각의 크기는 260×160×25cm, 370×340×30cm, 150×110×45cm, 250×160×40cm, 270×180×26cm, 280×200×22cm, 200×160×22cm, 330×170×35cm, 150×45×25cm, 210×180×30cm이다.

신삼리 고인돌

■시대 : 청동기시대 ■유형 : 선사시대 거석 문화재, 분묘

■소재지 : 하점면 삼거리 524-2

고인돌은 행정구역상 삼거리 524-2번지에 위치하나, 통상적으로 신삼리 고인돌로 알려져 있다. 신삼리 마을회관에서 삼거리 방향으로 약 450여m를 가면 도로 좌측의 논 위에서 유적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지역은 하점평야의 시발점으로 해발고도 5m 내외이다.



신삼리 고인돌(문화재청)

고인돌은 대형판석의 덮개돌이 얇은 봉분 위에 놓여 있고, 2매의 받침돌은 봉분에 걸쳐진 채 모두 쓰러져 있는데 형태로 보아 탁자식 고인돌로 추정된다. 타원형의 덮개돌은 390×260×40cm 정도이며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특히 덮개돌 위에는 채석열이 있는데, 남북방향은 각각 6개, 5개씩 2열이, 동서 방향으로는 16개가 확인된다. 장축 방향은 남동-북서향이다. 받침돌은 2매가 잔존하고 있는데, 모두 판석으로서 동쪽 받침돌이 265×160

×50cm, 서쪽의 것이 170×175×36cm이다. 암질은 화강편마암이며, 고인돌 아래의 야트막한 봉분이 고인돌과 관계가 있는지는 현재의 상태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부근리 대촌 고인돌군

■시대 : 청동기시대 ■유형 : 선사시대 거석 문화재, 분묘 ■소재지 : 하점면 부근리 247전, 235-3

하점면 부근리 삼거리에서 고려산로를 따라 약 200여m 떨어진 곳에 고려산로 27번길이 위치한다. 유적은 고려산로와 고려산로 27번길 분기점에서 남쪽으로 약 250여m 떨어진 민가 앞에 있다. 고인돌군이 위치한 곳은 고려산에서 분기한 봉우리인 시루메산의 능선하단부인 평지이다. 고인돌 중 3기가 덮개돌이 잔존하는데, 각각의 크기는 250×200×40cm, 170×140×70cm, 210×?×43cm이다.

하도리 고인돌

■시대 : 청동기시대 ■유형 : 선사시대 거석 문화재, 분묘 ■소재지 : 송해면 하도리 366-1

고인돌은 하도1리 화순복음교회 뒤쪽에 위치해 있으며, 마을주민들에 의하면 ‘관돌’로 불리고 있다. 덮개돌은 판석을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파괴되어 원형을 알 수가 없다. 주민들의 전언에 의하면 일제강점기 때 석재를 쓰기 위하여 파괴하였다고 하며, 주변에 덮개돌의 파편으로 추정되는 잔돌들이 있다. 잔존한 덮개돌의 크기는 145×76×30cm 정도이며, 암질은 화강편마암이다.

하도리 아랫말 고인돌군

■시대 : 청동기시대 ■유형 : 선사시대 거석 문화재, 분묘 ■소재지 : 송해면 하도리 187-1전

송해면 의용소방대 앞의 도로 건너편 밭에 총 5기의 고인돌이 밀집되어 있다. 이 고인돌군은 일제강점기 이나미시 류(今西龍)에 의해 조사 보고된 바 있어 강화군에서는 가장 먼저 알려진 곳이다. 북서쪽의 부근리 고인돌군과 평야를 사이에 두고 약 400여m 떨어져 있고, 강화도 대부분의 고인돌 입지와는 달리 평지에 위치한 것이 특색이다.

고인돌은 5m이내의 간격을 두고 떨어져 있는데, 각각 3기, 2기가 2열로 일직선을 이루며 분포한다. 총 5기 중 탁자식 1기, 개석식 4기이며 덮개돌 각각의 크기는 270×220×70cm, 240×190×40cm, 130×80×30cm, 150×140×40cm, 250×195×35cm 정도이다.

하도리 오류내 고인돌군

■시대 : 청동기시대 ■유형 : 선사시대 거석 문화재, 분묘 ■소재지 : 송해면 하도리 613, 618-2

고인돌군은 하도2리 오류내 마을에 위치하는데, 이곳은 고려산 북동쪽 능선에서 이어진 완사면 일대이다. 고인돌은 총 8기로 알려져 있으나, 현재는 7기만이 확인된다. 이 중 민가에 위치해 있던 것을 도로변에 복원·정비해 놓은 것이 2기, 저수지 안에 잠겨있는 1기, 마을 인근 밭에 4기가 있다. 덮개돌 각각의 크기는 170×130×30, 300×200×90cm, 210×140×50cm, 270×200×70cm, 210×140×?cm, 230×?×40cm, 320×170×30cm 정도이다. 대부분 개석식으로 판단되지만, 경작지에 위치한 2기를 포함한 3기의 고인돌은 이전복원 보고서에서 바둑판식으로 보고하고 있다.

삼거리 소동 고인돌군

■시대 : 청동기시대 ■유형 : 선사시대 거석 문화재, 분묘 ■소재지 : 하점면 삼거리 38-2

고인돌군은 삼거리 마을회관 앞 고려산로 209번길을 따라서 북쪽으로 약 300여m 떨어진 밭 주변에 위치한다. 이곳은 1966년 국립중앙박물관에 의해서 5기의 고인돌이 발굴된바 있는 유적으로 현재는 발굴 당시의 고인돌 3기를 비롯한 총 9기의 고인돌이 위치해 있다.



삼거리 소동 고인돌(문화재청)

소동 고인돌군이 위치한 곳은 고려산 북록 완사면의 편평한 대지로서 전면에 하점평야와 봉천산이 펼쳐져 있다. 1966년 발굴된 5기의 고인돌 중 현존하고 있는 것이 어느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고인돌은 민가의 가옥담장에 1기, 밭 주변으로 10m 내외의 거리를 두고 6기, 이성희씨 댁 근처에 2기가 위치해 있다. 이들 중 덮개돌이 존재하는 7기 각각의 크기는 260×170×50cm, 260×200×33cm, 140×90×32cm, 170×?×20cm, 220×160×57cm, 200×140×46cm, 260(노출부)×145×60cm이다. 정확하지는 않으나 일부 탁자식과 개석식 고인돌이 동시에 존재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도장리 어두부락 고인돌

■시대 : 청동기시대 ■유형 : 선사시대 거석 문화재, 분묘
■소재지 : 양도면 도장리 산1

고인돌은 도장리 어두마을에서 마을 뒷편의 오솔길을 따라 석릉 방향으로 50m쯤 가면 길의 우측에 위치하고 있다. 고인돌이 입지한 곳은 진강산 남록 말단부가 구릉을 이루는 곳으로 남동쪽으로는 길정저수지가 조성되어 있다.

고인돌은 3매의 받침돌(막음돌 포함)과 1매의 덮개돌이 잔존하고 있는 탁

자식 고인돌로 추정된다. 장방형의 판석형 덮개돌은 산의 경사면을 따라 흘러내려와 있으며, 받침돌은 북쪽으로 70°정도 기울어져 있다. 막음돌 역시 안쪽으로 쓰러져 있고 전체적으로 많이 훼손되어 있다. 덮개돌의 크기는 230×110×40cm이며, 남쪽과 북쪽의 받침돌 크기는 각각 160×110×25cm, 140×?×60cm이며, 서쪽 막음돌은 90×65cm 정도이다. 받침돌 간의 내부 폭은 80cm 정도이며 장축방향은 남서-북동향이며 덮개돌과 받침돌, 막음돌 재질은 모두 흑운모편마암이다. 이외에도 주변에서 고인돌로 보이는 판석재의 바위들이 흩어져 있으나 모두 매몰되어 그 구조를 알 수 없다.

비지정 선사분묘 현황

구분	명칭	수량	소재지	시대	비고
1	고천리 고인돌군2	4기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고천리 산76	청동기	
2	교산리 덕고개 고인돌	1기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교산리 835전	청동기	
3	교산리 덕음 고인돌군	2기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교산리 187-1임	청동기	
4	교산리 묵골 고인돌군	8기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교산리 614	청동기	
5	교산리 증산 고인돌군	6기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교산리 978, 976, 1073 외	청동기	
6	북성리 말미 고인돌군	2기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북성리 1262-4	청동기	
7	북성리 요곡 고인돌	1기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북성리 산134-6	청동기	
8	창후리 별립산 고인돌	1기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창후리 산121임	청동기	
9	창후리 사촌 고인돌군	4기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창후리 441대, 산49임 등	청동기	
10	창후리 뒷물 고인돌	1기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창후리 산1임	청동기	
11	창후리 구동 미보고 고인돌	1기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창후리 14	청동기	
12	이강리 성경 고인돌군	3기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이강리 374, 357 등	청동기	
13	덕하리 고인돌군	2기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덕하리 12-2	청동기	
14	신봉리 굴말 고인돌	1기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신봉리 297-3	청동기	
15	양오리 관월산 고인돌	1기	인천광역시 강화군 송해면 양오리 산1	청동기	
16	망월리 고인돌군	5기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망월리 산47, 산55 등	청동기	
17	오상리 고상골 고인돌	1기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오상리 238-2임	청동기	
18	삼거리 천촌1 고인돌군	4기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삼거리 산 122임	청동기	
19	삼거리 천촌2 고인돌군	11기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삼거리 720, 914 등	청동기	

구분	명칭	수량	소재지	시대	비고
20	신삼리 고인돌	1기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삼거리 524-2	청동기	
21	부근리 대촌 고인돌군	47기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 247전, 235-3	청동기	
22	하도리 고인돌	17기	인천광역시 강화군 송해면 하도리 366-1	청동기	
23	하도리 아랫말 고인돌군	57기	인천광역시 강화군 송해면 하도리 187-1전	청동기	
24	하도리 오류내 고인돌군	77기	인천광역시 강화군 송해면 하도리 613, 618-2, 871전 등	청동기	
25	삼거리 소동 고인돌군	97기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서면 삼거리 38-2	청동기	
26	도장리 여두부락 고인돌	17기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도장리 산1	청동기	

선사유적 및 패총

강화지역의 선사유적 중 이제까지 그 시대가 명확히 확인되는 것은 대체로 신석기~청동기 시대가 주를 이룬다. 물론 구석기 시대의 흔적은 찾아지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구석기 시대 문화층이 확인된 것이 아니라 유물만이 일부 확인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강화의 선사시대 중 구석기 시대는 아직까지 그 실체를 명확히 정의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이제까지 조사에서 신석기 시대 유적은 대부분 패총이나 토기산포지 등이 주로 확인되었다. 대표적으로 일제강점기 일본인 학자 도리이 유조(鳥居龍藏)에 의해 확인된 동막리 선사유적, 와다 유지(和田雄治)에 의해 확인되었던 사기리 선사유적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건평리 대화촌 선사유적, 도장리 선사유적 등이 광복 이후 강화지역에서 확인되었다. 이상에 언급한 선사유적은 대체로 토기산포지로서 아직까지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중 동막리, 사기리, 도장리 유적은 해수욕장 개발, 인천가톨릭대학교 건립 등으로 인해 현재는 멸실된 상태이다.

이외에 신석기 유적으로는 패총유적이 대표적인데 강화 본도(本島) 내에

는 창후리 패총, 여차리 유적 내 패각층, 덕진진 주변 유적 내 패각층 등이 있으며, 그 외 부속도서에서 확인되는 패총 유적으로는 석모도 규리란 패총, 교동도 읍내리 사신당 패총, 서검도 패총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패총유적에서는 대체로 신석기를 대표하는 빗살무늬토기편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 근래 들어 강화의 신석기 문화를 구체적으로 알려 주는 유적이 일부 확인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먼저 강화외성의 덕진진 구간 중 북측 성벽 주변에서는 앞서 본 패각층과 더불어 집자리(住居地) 유적이 확인되었다. 집자리(住居地)는 해안에 돌출한 곳의 정상부 일대에서 발견되었는데 내부에는 화덕 흔적과 함께 빗살무늬토기편이 출토되었다. 이는 강화도 최초의 신석기 시대 집자리(住居地) 유적으로서 의미가 있다. 또한 창후리 패총의 북쪽 구릉의 사면에서도 신석기 시대 집자리(住居地)로 추정되는 유구가 확인되고 있어 향후 강화의 신석기 시대상으로 보여주는 유적의 발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강화의 청동기 시대 유적은 먼저 살펴보았던 고인돌 유적이 가장 대표적일 것이다. 그런데 많은 수와 높은 밀집도를 보이는 고인돌에 비해 아직까지 강화지역 내 다른 유형의 청동기 시대 유적은 그 발견 사례가 적은 편이다. 최초로 확인된 고인돌 외의 청동기 유적으로는 삼거리 유적이 있다. 이 유적에서는 청동기 시대 집자리(住居地)가 처음 확인되어 강화지역의 청동기 문화의 양상을 이해하는데 주요한 자료를 제공해 주었다. 삼거리 유적 발굴조사 이후 집자리(住居地) 및 다른 유형의 청동기 시대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는 진전되지 못했다. 그러다가 최근에 들어 강화지역의 각종 개발사업과 더불어 고인돌 외의 청동기 시대 유적의 발견 사례가 조금씩 늘고 있는 추세이다. 대표적으로는 인화~강화 간 도로개설공사에서 확인된 유적들이다. 당시 도로개설공사 구간 중 F, G, 강화산업단지 구간에서 각각 집자리(住居地)와 환호 등의 유구와 더불어 간돌도끼, 민무늬토기, 구멍무늬

토기, 겹아가리토기, 반달돌칼 등의 유물이 함께 출토되기도 했다.

이상의 강화지역 선사유적들은 대체로 신석기~청동기 시대를 중심으로 편년되는 유적이 다수이며 유적의 유형 또한 마을과 같은 주거유적보다는 패총이나 산포지 등의 유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유적의 양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아직까지 강화지역의 선사유적에 대한 전면적인 발굴조사가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강화지역에 대한 발굴조사가 선행이 된다면 현재의 선사유적의 특징들은 다시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평리 대화촌 선사유적

■시대 : 신석기시대 ■유형 : 유물산포지, 토기산포지 ■소재지 : 양도면 건평리 680

유적은 행정구역상 양도면 건평리 대화촌 680번지 일대로 노고산의 남쪽 끝 구릉 정상부에 위치한다. 현재 이 일대는 고구마와 콩밭으로 경작 중이다. 확인되는 유물은 빗살무늬토기가 주종을 이루며, 무문양의 경우에도 바탕흙으로 보아 빗살무늬토기의 무문양 부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토기편에 시문된 문양은 물고기뼈문양(魚骨文)계가 주종이며 간혹 찍어누른문양(押捺文)계도 확인된다.

도장리 선사유적

■시대 : 신석기시대 ■유형 : 유물산포지, 토기산포지 ■소재지 : 양도면 도장리 어두부락

이 유적은 1961년 고려대학교 사학과 교수 김정학의 지표조사에 의해 알려진 유적이다. 과거의 조사 기록에 의하면 이 지역의 원래 지형은 해안이었으나 숙종 대 가릉언과 선두포언 간척을 통해 육지화 되었다. 조사 당시 유물은 빗살무늬토기 32점, 무문토기 94점 등이 수습된 바 있고, 현재는 도질토기 일부가 수습되고 있다. 이 유적에서 농사를 지었다고 하는 어두부락

주민 전언에 따르면 과거 농지를 경작할 때, 토기편 외에도 석검이 출토되었고 제철지에서 볼 수 있는 슬레그도 나왔다고 전한다. 현재는 인천가톨릭대학이 들어서면서 유적 대부분이 파괴된 것으로 파악된다.

동막리 선사유적

■시대 : 신석기시대 ■유형 : 유물산포지, 토기산포지 ■소재지 : 화도면 동막리 3, 6, 7

동막리 선사유적은 강화군 화도면 동막리 3·6·7번지 일대에 위치한다. 이 지역은 마니산 정상에서 동남쪽으로 뻗은 능선 가장 끝부분으로 강화의 최남단 돈대인 분오리돈대와 송곳돈대 사이에 형성된 백사장 후면의 사구성 방풍림지대이다.

동막리 유적은 일제강점기인 1916년 일본인 도리이 유조(鳥居龍藏)에 의해 서해중부 도서 유적 중 가장 먼저 발견된 신석기유적으로 이후에 전혀 학술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1980년대 후반에 첫 지표조사가 실시되었다. 1980년대 조사내용에 따르면 동막리 유적에서 주로 수습된 토기편들은 빗살무늬토기가 주종을 이루며, 이외에도 무문토기와 소위 김해식 토기로 불리우는 도질 소성 토기들도 수습되었다 한다. 아울러 연결해 있는 분오리돈대 주변에서는 토기편과 함께 패각들이 일부 흩어져 있어 패총의 가능성도 있으나 패각의 양이 극소수여서 정확하지 않다. 현재 유적은 해수욕장 개장 이후 들어선 펜션, 민박, 식당 등으로 인해 사전 발굴조사 없이 유적의 대부분이 파괴되었다.

사기리 선사유적

■시대 : 신석기시대 ■유형 : 유물산포지, 토기산포지 ■소재지 : 화도면 사기리

사기리 유적은 마니산 동 사기리 선사유적이 처음 알려지게 된 것은 1914년 일본인 학자 와다 유지(和田雄治)의 조사에 의해서 처음 알려졌는

데, 그의 보고에 의하면 수습된 유물은 사암제의 갈판 3점, 타제 돌그물추 4점, 돌도끼편 1점, 토기 등을 수습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유적은 아무런 조사없이 방치되었고 도로개설 등의 지형변화로 인해 이제는 과거의 조사기록에만 의지하여 사기리에 신석기유적이 존재하였다는 사실만 알 수 있을 뿐이다

삼거리 선사유적

■시대 : 신석기시대~청동기 ■유형 : 토기산포지, 주거유적
■소재지 : 하점면 삼거리 소동부락

삼거리 선사유적은 강화군 하점면 삼거리 소동부락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1966년 국립중앙박물관의 삼거리 소동 고인돌 발굴조사 시 함께 조사되었던 유적이다. 당시 조사에서는 고인돌 외에 신석기 시대 빗살무늬토기 유적과 청동기 시대 집자리(住居地)가 확인되었다. 보고서에 의하면 빗살무늬토기 유적은 소동 고인돌 D, E호가 소재하고 있는 밭에 위치하고 있었다고 한다. 조사 결과 표토하의 흑갈색 토층에서 빗살무늬 토기들이 출토되었고, 유구는 민가 축조로 인하여 교란되어 있었다. 토기의 문양은 물고기뼈 문양(魚骨文) 계통이 주류를 이루며, 기형은 반란형에 가까운데 입술부분은 곧거나 약간 바깥쪽으로 구부러진 경향을 보인다. 토기의 두께는 대개가 0.6~0.8cm이지만 1cm가 넘는 것도 있어 대체적으로 대형 토기의 파편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유물로 보아 신석기 후기에 제작된 빗살문토기로 보인다.

청동기 시대 주거 유적은 소동 고인돌이 위치하고 있는 소동부락에서 동북으로 약 400m 정도 떨어진 능선 상에 위치하고 있었다. 발굴 결과 이곳에서 일부 잔존한 각형토기관련의 집자리(住居地) 1기를 발견하였으나 대부분의 유적은 이미 파괴된 상태였다. 그러나 이 유적은 임진강 이남의 최초

의 각형토기 관련 유구로 큰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출토된 유물로는 팽이형(角形)토기의 구연부와 저부 일부, 단인편평석부, 환상석부와 가락바퀴(紡錘車)가 출토되었다. 삼거리 유적은 대략 기원전 7세기로 보고되고 있다.

여차리 선사유적

■시대 : 신석기시대, 원삼국시대~조선시대 ■유형 : 유물산포지
■소재지 : 화도면 여차리 186

유적은 해안남로 20 29번길을 따라 남쪽으로 470m 떨어진 구릉 정상부와 사면 일대에 해당한다. 유적과 인접해서는 미루지돈대가 위치한다. 이곳은 마니산에서 남쪽의 해안으로 돌출된 가지능선 일대이다. 유적은 2006년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에서 조사한 '강화정밀지표조사에서 '여차리 유물산포지1'로



여차리 선사유적 내 패각층

보고된 바 있다. 여차리 선사유적은 독립적인 구릉이며 해안가에 형성되어 있어 조망권이 좋다. 또한 어로활동에 용이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 신석기시대 유적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유적이 위치한 구릉 정상부 일대는

현재 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부 폐각무더기가 확인되기도 한다. 유물은 빗살무늬토기편과 타날문토기편이 수습되었다. 이 외에도 도기·자기편이 확인되었으며, 지형적 양상과 수습된 유물의 성격으로 보아 신석기시대 및 원삼국~조선시대까지 유적이 입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주문도리 선사유적

- 시대 : 신석기시대, 고려~조선시대
- 유형 : 유물산포지, 토기산포지
- 소재지 : 서도면 주문도리 48전

주문도리 선사유적은 서도초·중·고등학교의 정문 앞쪽 경작지 일대에 해당한다. 해발 2m 내외의 편평한 충적지로 동쪽의 바다와는 불과 100m 가량 떨어져 있으며, 서쪽으로 봉악산(峰岳山)을 두르는 도로가 지나고 있다. 현재는 땅콩과 고구마 밭으로 경작되고 있으며, 경작지 내에서 유물이 확인되었다. 지표조사 당시 빗살무늬 토기편을 비롯하여, 고려~조선시대에 해당하는 청자편과 백자편, 도기편들이 수습되었다.

석모리 규리란 패총

- 시대 : 신석기시대, 원삼국시대~조선시대
- 유형 : 조개더미, 패총
- 소재지 : 삼산면 석모리 산213



석모도 규리란 패총(문화재청)

패총은 석모리 규리란 마을의 구릉에 유적이 위치하며, 이곳은 상봉산 북서쪽 말단부에 해당한다. 유적의 앞쪽으로는 과거 바다였던 송개벌판이 멀리까지 조망된다. 규리란 패총은 밭에 위치하는데, 이곳은 부채꼴 형태로 펼쳐진 나지막한 구릉

에 해당한다. 패각의 노출 범위는 동서 50m, 남북 20m, 패각층의 두께는 2~3m로 이 일대에서 상당기간 어로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패각은 굴껍질이 주를 이루고 수습되는 유물이 없어 정확한 연대편년은 불가능하지만, 과거 인하대학교 조사 당시 빗살무늬토기가 수습되었다고 한다.

창후리 패총

- 시대 : 신석기시대, 고려~조선시대
- 유형 : 조개더미, 패총, 유물산포지
- 소재지 : 하점면 창후리 산158

패총은 최초 2009년 ‘강화조력발전 공동개발사업 인허가 용역 문화재 지표조사’에서 확인되었다. 당시 산지 절단면에서 패각층이 확인되었으며 유물은 도기편이 소량 확인되어 패총의 조성시기를 조선시대로 추정했다. 하지만 2012년 ‘황청~인화 강화 해안 순환 도로 개설공사 구간 지표조사’에서 빗살무늬토기 동체부편과 토기편 2점이 수습되어 유적의 시기를 신석기 시대로 상향조정했다. 현재 유적은 방치된 상태이며 바로 인접해서는 민간의 창고건물이 들어서 있어 훼손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이다.

교동 읍내리 사신당 패총

- 시대 : 신석기시대
- 유형 : 조개더미, 패총
- 소재지 : 교동면 읍내리 571-2

읍내리 사신당 패총은 남산포구 북쪽의 남산의 구릉 말단부에 위치한다. 이 일대는 조선시대 삼도수군통영의 선박 계류지였던 곳으로 패총이 위치한



교동 읍내리 사신당 패총

곳에는 고려시대 송나라 사신이 왕래할 때 뱃길의 안전을 기원했다는 사신당(使臣堂)이 있다. 패총의 정확한 규모는 확인되지 않지만 사신당 정비공사 당시 일부 굴착된 지표에서 패각층이 확인되고 있으며 빗살무늬토기편들이 산재해 있는 상태이다.

비지정 선사유적 및 패총 현황

구분	명칭	수량	소재지	시대	비고
1	건평리 대화촌 선사유적	1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건평리 680	신석기	
2	도장리 선사유적	1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도장리 어두부락 일대	신석기	
3	동막리 선사유적	1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동막리 3, 6, 7	신석기	
4	사거리 선사유적	1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사거리 일대	신석기	
5	삼거리 선사유적	1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소동부락	신석기~청동기	
6	여차리 선사유적	1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여차리 186	신석기, 원삼국~조선	
7	주문도리 선사유적	1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주문도리 48전	신석기, 고려~조선	
8	석모리 구리란 패총	1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리 산213	신석기, 원삼국~조선	
9	창후리 패총	1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창후리 산158	신석기, 고려~조선	
10	교동 읍내리 사신당 패총	1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읍내리 571-2	신석기	

분묘, 고분군

강화도는 서해 중부 해상의 전략 거점 도서로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었던 곳이다. 특히 대몽항쟁기에는 39년 간 고려의 수도로 그 위상이 높아졌고 이에 강화는 강도(江都)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다. 당시 강화에는 몽고와의 전란을 피해 개경에서 10만호가 이주했다고 하며 이외에도 다수의 사

람들이 강화로 입도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런 연유로 인해 강화에는 국왕을 비롯한 왕비들의 능이 조성되었고, 최고위직의 귀족관료들의 무덤을 비롯해 다수의 고려시대 분묘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 이밖에도 조선시대에는 강화 출신의 양반사족의 개인 무덤 등이 위치하고 있다.

강화도의 왕릉은 모두 고려시대 것들로 현재 피장자가 알려진 묘는 고려 고종 홍릉, 강종 비 원덕태후의 무덤인 곤릉, 희종 석릉, 원종 비 순경태후의 가릉이 있으며 능호와 묘주만 기록에 있고 그 위치가 불분명한 능으로는 희종 비 성평왕후의 소릉이 전해져 온다. 이외에도 묘주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최고위층 묘제인 돌방무덤(石室墳)으로 확인된 능내리 석실분, 인산리 석실분, 연리 석실분 등은 왕릉급 무덤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근래에 새로운 의견이 제시되었다. 현재 순경태후의 능으로 알려진 가릉과 능내리 석실분의 묘역의 규모, 조성 방식 및 출토 유물 등을 비교해 현재 가릉으로 알려진 능은 성평왕후의 소릉이며, 능내리 석실분이 가릉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더불어 인산리와 연리의 석실분은 강화 천도 시 개경에 있던 세조와 태조의 능을 이장한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다.³⁾

강화도 내에 왕릉을 제외한 고려시대 대표적인 분묘유적으로는 이규보, 허유전, 김취려의 묘가 대표적이며 기록으로만 남아 있는 묘로는 최항의 묘가 전해진다. 또한 이외에도 강화도에는 고려시대 고분군이 섬 전체에 고루 분포하고 있는데 돌덧널무덤(石槨墓) 및 널무덤(土壙墓) 등 고려의 거의 모든 묘제가 확인되고 있다.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길정리 석릉 주변 고분군, 양오리 고분군, 하도리 고분군, 여차리 고분군, 창후리 고분군, 장흥리 고분

3. 인천광역시립박물관, 『강화고려역사재단, 『고려 강도의 공간구조와 고고유적』, 인천광역시립박물관·강화고려역사재단 공동 학술회의 자료집, 2016, 186~192쪽.

군, 고천리 고분군 등이 있다. 이중 발굴조사가 진행된 유적으로는 창후리 고분군이 있는데 당시 조사에서 총 53기의 고분 중 6기가 강도시기 조성된 무덤으로 확인되었고 출토 유물로는 청자와 백자, 동전 등 다량의 유물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이제까지의 연구에서 고려시대 묘제(墓制)는 대체로 돌방무덤-돌덧널무덤-널무덤으로 구분되는데 돌방무덤의 경우 왕릉급의 최상위 묘제로 알려져 있다. 돌덧널무덤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되는데 잘 다듬은 판석(板石)으로 사방 벽면과 덮개를 구성하는 판석조석곽묘와 치석된 할석(割石)이나 자연석을 이용해 5~6단 정도의 단을 조성하여 사방 벽면을 구성하는 할석조석곽묘로 나뉘어진다. 널무덤은 구덩이를 파고 그 안에 목관이나 시신을 직접 안치하는 묘제이다.

강화에서는 이들 묘제 중 할석조석곽묘와 널무덤이 가장 많이 나타나며 그 다음으로 판석조석곽묘가 군집을 이루는 양상이 나타난다.⁴⁾ 판석조석곽묘는 일반적으로 고위 관료층의 무덤 양식으로 파악되고 있는데⁵⁾ 이런 양식의 무덤이 강화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것은 당시 수도로서 강도의 모습을 반영한 결과로 이해되기도 한다.

강화의 조선시대 분묘는 강화 출신 관료나 양반 사족들의 묘소가 주를 이룬다. 대표적으로는 조선 전기 삼포왜란 당시 이를 진압한 장무공(莊武公) 황형의 묘가 있으며, 조선의 양명학을 확립하고 강화학파를 이룬 정제두의 묘소도 강화도에 안치되어 있다. 또한 병자호란 당시 전사하거나 순절한 황선신, 구원일을 비롯해 병자호란 당시 순절한 이시원 등의 묘소도 강화도에 있다. 이밖에 강화도 내에는 조선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고분군도 다수 존

재하는데 대부분이 봉분이 삭토되거나 묘역이 훼손된 상태로 망주석이나 향로석, 문인석 등을 통해 묘역이 위치했다는 사실만 확인된다. 대표적인 조선시대 고분군으로는 건평리 화촌 고분, 하일리 고분군, 인산리 황골 고분 등이 있다.

이상과 같이 강화도 내 왕릉 및 고분, 분묘들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강화도 내 왕릉 고분의 분포상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삼국~통일신라시대 무덤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이다. 이는 고고학적인 조사의 부족에 기인하는 것으로 근래 개발에 따른 발굴조사에서는 삼국시대 분구묘⁶⁾, 통일신라시대 돌방무덤 등이 일부나마 확인되고 있어 향후 조사의 진척에 따라 삼국~통일신라시대 무덤 유적 또한 그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현재까지의 조사에서 돌방형의 유구나 돌덧널 흔적이 확인되었지만 수습되는 유물이 없어 시기가 불분명한 무덤 유적도 8개소 정도 확인되는데 이에 대한 발굴조사가 진행되면 강화도의 정확한 무덤 유적에 대한 현황이 파악될 것으로 보인다.

고천리 고분군

■시대 : 고려~조선시대 ■유형 : 무덤, 고분 ■소재지 : 내가면 고천리 210대

고천리 고분군은 신선저수지에서 북쪽으로 250m 가량 떨어진 혈구산 서쪽 능선 중턱에 위치하고 있다. 전언에 따르면 신선저수지의 동쪽의 산지는 옛부터 고려장터라 전하고 있으며, 고려시대의 고분을 비롯하여 조선 분묘로 추정되는 흔적들도 확인된다. 또한 고분군 주변으로는 근래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민묘가 약 10여기 분포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본다면 고려시대

4. 인천시립박물관, 『고려시대의 강화』, 2010, 52쪽.

5. 이희인, 「강화 고려고분의 유형과 구조」, 『인천문화연구』 제2호, 2004.

6. 기호문화재연구원, 『인화~강화 도로건설공사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약보고서』, 2017, 114쪽.

~현재까지도 오랫동안 매장행위가 이루어진 곳으로 보인다. 현재 유적은 동서 50m, 남북 50m, 전체면적 2,500㎡의 범위 내에 산재한 것으로 추정된다.

길정리 석릉 주변 고분군

■시대 : 고려시대 ■유형 : 무덤, 고분 ■소재지 : 양도면 길정리 산183



석릉주변 고분군 내 석인상(문화재청)

유적은 석릉을 중심으로 진강산에서 동쪽으로 이어지는 능선부와 북서-남동방향으로 내려오는 곡간부 일대에 나누어 위치한다. 2000년에 진행된 인하대학교박물관의 조사에서는 지표에서 확인되는 고려시대 고분이 약 112기로 파악되었

고, 지표에 노출되지 않은 고분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120~150기 이상의 고분이 밀집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당시 조사에서 11호, 15호 등의 고분은 모두 판석재로 크기도 중대형 고분에 속하며 주변으로 '∩'자형의 석렬이 둘러진 것이 확인되었는데 곡장(曲牆)의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또한 일부 고분은 동일한 등고선 상에서 일정한 간격을 이루면서 조성되었고 주 능선 상에서는 상하로 열을 지어 고분이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당시 고분이 자연 입지 조건과 함께 신분적인 서열, 사망시기, 혈족관계 등이 무덤 조성 과정에 투영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석릉 주변 고분군은 2001년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석릉 발굴조사 당시 일부가 조사되었는데, 조사에 의하면 묘역의 전체구조 및 담장시설, 석실구조에서 다소간의 차이가 엿보였으나 고분들은 모두 남쪽으로 향하는 가지능선의 중심자락에 장축을 남-북 방향으로 조성하였으며, 입구부는 남쪽을 향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석실 주체부를 둘러싸고 있는 담장시설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양오리 고분군

■시대 : 고려시대 ■유형 : 무덤, 고분 ■소재지 : 송해면 양오리 산110

유적은 장정양오길과 장정양오 324번길이 갈라지는 분기점에서 동쪽으로 140m 떨어진 구릉 일대에 위치한다. 유적이 위치한 곳은 봉천산에서 분기하여 남동쪽으로 뻗어내린 가지능선의 동쪽 끝 부분이다. 고분은 최소 9기 이상의 판석조석곽묘가 분포하고 있는데 대략 2.1×0.7m 규모이다. 무덤은 사방의 벽면과 덮개돌은 각기 판석 1매씩으로 구성되어 있다. 양오리 고분군처럼 판석조석곽묘가 무리를 이루는 경우는 다른 지역에서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무덤 축조 형태와 분포로 보아 묘주의 계층이 높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발굴조사가 진행되지 않아 조심스럽지만 아마도 강도시대 관료층의 무덤일 가능성이 있다.

장정리 수월하 고분군

■시대 : 고려시대 ■유형 : 무덤, 고분 ■소재지 : 하점면 장정리 산48

유적은 장정리 종촌마을에서 약 300여m 떨어진 봉천산 능선의 중턱에 위치하고 있다. 고분군이 있는 지형은 경사가 급하고 좌우로 얇은 계곡이 형성되어 있는 좁은 지역이다. 고분군에는 도굴된 대형의 돌방무덤(石室墳)들이 있다. 이 주위로 삭토된 얇은 봉분들이 분포하고 있는데, 추정건대 10~20기 가량의 소형 고분과 근세에 매장된 민묘가 상당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민의 전언에 의하면 과거에는 대형 돌방무덤 안으로 사람의 출입이 가능하였다고 하고, 석실 내부는 상당히 넓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다고 전한다.

고천리 연촌 지물재 고분군

■시대 : 고려시대 ■유형 : 무덤, 고분 ■소재지 : 내가면 고천리 산69

적석사로 올라가는 마을의 배산 동향사면에서 고분이 확인되었다. 고분은 현재 육안으로 1기만 확인되고 있으나, 이미 여러 차례 도굴사실이 알려진 것으로 보아 고분군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남아 있는 고분은 등고선과 직교하여 동서로 조영되었으며, 현재 2매의 덮개돌이 얹혀 있다. 덮개돌은 할석재로 100×60cm, 90×24cm의 크기이며, 형태는 부정형이다. 무덤방은 대부분 토사로 매몰되어 벽면이나 바닥 확인이 불가능하며, 도굴 갱의 흔적이 뚜렷하다. 고분 주변에서는 회색 계통의 연질토기 구연부편 1점이 수습되었다. 한편 이곳에서 북동쪽으로 약 10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도 폐고분 1기가 조사되었다.

냉정리 개골동 고려 왕릉지

■시대 : 고려시대 ■유형 : 무덤, 고분 ■소재지 : 선원면 냉정리 산11

유적은 찬우물고개와 대문고개 사이에 놓인 야산의 남동쪽 사면에 위치한다. 그러나 당시의 유구가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고, 다만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에 ‘고려 고종 24년(1237) 태조와 세조의 능을 이장하였다가, 충렬왕 2년(1278) 다시 개성부로 이장하였다’는 기록이 있어 왕릉지로 추정될 뿐이다. 전언에 의하면 이 일대에서 석축기단과 자기편 등 유물이 수습되었다고 하는데 이를 통해 볼 때 대형 고분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는 새로운 의견이 제시되었다. 여기에 따르면 냉정리 개골동은 강화로 이장되었던 태조와 세조의 능이 천장한 곳이라는 문헌 기록을 토대로 처음 강화도 내 이장했던 태조와 세조 능은 인산리와 연리의 돌방무덤으로 파악했다. 인산리 돌방무덤의 경우 석실의 규모가 여타 강화

왕릉과 비슷하고 무덤방 주변의 구조 등도 왕릉의 일반적 특징을 충실히 따르는 점에서 왕릉으로서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연리의 돌방무덤도 석실과 석등, 옥판 등이 설치되었으나 풍수에 배치되는 점을 들어 가왕릉만 설치했다는 점에서 이 역시 왕릉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러한 왕릉급 돌방무덤은 강화에 조성되었던 여러 왕릉 중 아직까지 묘역의 위치가 확인되지 않은 태조와 세조의 능일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는 향후 발굴조사를 통해 정확한 유적의 성격을 밝혀내야만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연리 능골 고려 가왕릉지

■시대 : 고려시대 ■유형 : 무덤, 고분 ■소재지 : 선원면 연리 산17

연리의 돌방무덤은 선원면 연리 신골의 서산 송씨 묘역 내에 위치한다. 현재 봉분으로 추정되는 얇은 둔덕아래 덮개돌 1매가 노출되어 있으며 그 아래로는 흙에 묻혀 있어 내부 확인이 어려운 상태이다. 주민들의 전언에 따르면 덮개돌 아래 부분은 넓은 돌방으로 이곳에서 청자 등이 도굴되었다고 한다. 덮개돌의 주변으로는 희미하게 곡장으로 추정되는 폭 20cm 가량의 석렬이 확인되는데 전체적인 윤곽은 뚜렷하지 않다.

외포리 고분군

■시대 : 고려시대 ■유형 : 무덤, 고분 ■소재지 : 내가면 외포리 산135, 산149

유적은 외포리 유스호스텔에서 약 200여m 정도 동쪽의 덕산 남사면 계곡 일대에 위치한다. 고분은 노출된 상태로 상당수 확인되며, 또 주위에는 고분의 대형 덮개돌로 추정되는 석재가 있는데, 덮개돌의 측면에는 떼기흔이 있다. 외포리 고분군은 현재 상태로 보아 상당부분 도굴이 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외포리 고분군 구역 내에는 소릉 추정지가 있다고 전

해지나 현재는 그 흔적을 찾기 어렵다.

능내리 돌방무덤(石室墓)

■시대 : 고려시대 ■유형 : 무덤, 고분 ■소재지 : 양도면 능내리 209-9



능내리 돌방무덤

유적은 능내리 마을회관에서 서쪽으로 약 200m 떨어진 낮은 구릉성 산지 서사면 일대에 위치한다. 이 구릉은 진강산에서 뻗어 내려온 남서쪽 자락이며, 산자락 끝으로 평탄지가 형성되어 있다. 돌방무덤은 구릉의 남서사면에 위치하여 산지를 등지고 해안을 바라보는 방향에 입지하고 있다. 유적이 위치한 능선의 동북쪽으로 ‘강화 가릉’과 ‘능내리석실분’이 입지하고 있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돌방무덤은 대형 판석 5매를 정교하게 다듬어 사방의 벽체와 덮개돌로 이용했다. 다만 현재 남쪽 단벽이 유실되었으며, 잔존상태가 양호하지 못하다. 남아 있는 무덤방의 석재의 두께와 다듬은 흔적을 볼 때 고려시대 최상위 관료층의 무덤일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

다. 한편, 지역 주민들의 전언에 의하면 이 돌방무덤은 우릉으로, 무덤이 위치한 곳은 우릉대라고 불렀다고 하며 강도시기 집권자인 무신 최우의 무덤이라는 설도 있다고 한다.

건평리 화촌 고분

■시대 : 조선시대 ■유형 : 무덤, 고분 ■소재지 : 양도면 건평리 815-1전

건평리 화촌마을 내 보호수인 화촌 은행나무 남쪽 약 20여m에 위치하는 것으로, 노고산 끝자락과 밭의 경계면에 있다. 현재 봉분은 대부분이 유실되었지만 그 앞으로 향로석과 상석을 중심으로 좌우 각각 망주석과 문인석이 1기씩 짝을 이루고 있다. 묘비가 없어서 묘주는 파악되지 않는다. 우측의 망주석과 문인석은 본래 자리 위치한 것으로 보이며 망주석의 높이는 185cm, 문인석은 높이 187cm, 견폭 45cm, 두께 50cm로 나타났다. 좌측의 문인석은 쓰러져 있는 상태이고 망주석은 그 오른쪽에 서 있다. 쓰러져 있는 문인석의 높이는 174cm, 견폭은 43cm, 두께는 49cm이고 망주석의 높이는 185cm이다.

조산리 예천군 이천 묘

■시대 : 조선시대 ■유형 : 무덤, 고분 ■소재지 : 양도면 조산리 산64-1

예천군 이천의 묘는 탑재삼거리 로터리에서 동쪽으로 약 180여m 떨어진 진강산의 가지능선 남서쪽 말단부에 위치한다. 무덤은 예천군(藥川君) 이천과 그의 부인 음성 박씨의 합장묘이다. 현재 묘역은 봉분 중앙 상석을 중심으로 묘표와 좌우에 석인상이 세워져 있다. 봉분의 규모는 동서 500cm, 남북 180cm이다. 묘표는 매장 당시의 것으로 보이는 것과 이장할 때의 것이 좌우로 배치되어 있다. 좌측의 묘표는 가로, 세로, 두께 각각 100cm, 37cm, 20cm이며 정면에 ‘조선창의대부예천군이천지묘(朝鮮彰義大夫藥川君李筭之墓)’

라고 음각되었다. 우측의 것은 가로, 세로, 두께 각각 50cm, 95cm, 15cm로 정면에 ‘현부인음성박씨지묘(縣夫人陰城朴氏之墓)’라고 음각되었다. 좌우 대칭으로 서 있는 석인상은 좌측의 것이 가로, 세로, 전폭, 두께가 각각 40cm, 140cm, 26cm, 40cm이며 우측의 석인상은 가로, 세로, 전폭, 두께가 각각 40cm, 144cm, 27cm, 40cm이다.

예천군은 세종 27년(1445) 서울 태생으로 태종의 차남(次男) 효령대군의 아들이다. 현부인(縣夫人) 음성 박씨는 부사(府使) 계서(繼徐)의 딸이다. 묘소는 원래 금천구의 삼성산 금불암 선산에 있었으나, 일제강점기인 1940년 경성부의 도시 확장에 따라 1941년 5월 6일에 중종의 결의에 의하여 현재 이곳으로 이장하였다.

조산리 정○대부고양정 이공 묘

■시대 : 조선시대 ■유형 : 무덤, 고분 ■소재지 : 양도면 조산리 산64-1

유적은 예천군 이천과 부인 음성 박씨 묘소 하단에 위치하고 있다. 봉분은 쌍분으로 각각의 봉분 앞에 묘표와 상석이 놓여 있고 묘역의 좌우측에 대칭적으로 석인상이 서 있다. 우측의 봉분은 동서 370cm, 남북 500cm이다. 우측 묘표는 정면에 ‘효령대군제이자서원군제사자예군제일자 정○대부고양부정이공지묘 정○부인 평산갑씨(孝寧大君第李子瑞源君第四子藁君第一子 貞○大夫高陽副正李公之墓 貞○夫人 平山甲氏)’라고 음각되었다. 묘표의 크기는 가로, 세로, 두께가 각각 38cm, 90cm, 13cm이다. 좌측 묘표의 크기는 가로, 세로, 두께가 각각 38cm, 83cm, 16cm이다. 마모되어 묘표의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좌우측에 서 있는 석인상의 크기는 우측의 것이 가로, 세로, 전폭, 두께가 각각 34cm, 140cm, 21cm, 27cm이다. 좌측은 가로, 세로, 전폭, 두께가 각각 36cm, 140cm, 23cm, 28cm이다. 묘주는 예천군 이천의 장자 부부이다.

하일리 권개 묘

■시대 : 조선시대 ■유형 : 무덤, 고분 ■소재지 : 양도면 하일리 산66-4

유적은 강화남로와 강화남로 769번길 분기점에서 서쪽으로 약 150m 떨어진 야산에 위치하고 있다. 권개 묘 앞으로는 정근, 정유성의 묘역이 자리하고 있다. 묘의 좌향은 남동향하였고, 봉분의 지름은 5.5m이다. 묘의 앞 정면에 묘표가 있는데, 높이 112cm, 폭 45cm, 두께 10cm, 비좌는 높이 20cm, 폭 83cm, 두께 49cm이다. 앞면에는 ‘봉정대부행호조좌랑권개지묘(奉正大夫行戶曹左郎權愷之墓)’라 새겨져 있다.

하일리 송세영 묘

■시대 : 조선시대 ■유형 : 무덤, 고분 ■소재지 : 양도면 하일리 산68

유적은 양도면 301번 지방도의 하우고개 서쪽 60여m 지점의 야산에 위치한다. 이곳은 진강산 주능선에서 분기해 서남향하는 가지능선에 해당하며 서쪽으로 180여m 떨어진 곳에는 인천광역시 문화재 자료 제25호인 김취려 묘가 자리하고



하일리 송세영 묘(문화재청)

있다. 송세영의 묘는 봉분을 중심으로 가운데 묘갈이 있고 좌우로 석인상이 있는데 좌측의 것은 쓰러져 있다. 묘갈 전면에는 ‘창신교위○충○부사○송세영지묘(彰信校尉○忠○副司○宋世英之墓)’라고 새겨져 있다. 후면에도 음각되었으나 마모되어 내용은 알 수 없다. 묘갈의 높이는 110cm, 폭 60cm, 두께는 17cm이다. 비좌의 높이는 20cm, 폭 90cm, 두께는 50cm이다. 우측의 석인상은 두부(頭部)가 파손된 흔적이 있으며 높이 140cm, 전폭 40cm, 두께 35cm이며 토사에 약간 묻어 있다. 좌측의 석인상은 쓰러져 있는데, 그 높이

는 90cm, 견폭 40cm, 두께 30cm이다.

하일리 정근, 정유성 묘

■시대 : 조선시대 ■유형 : 무덤, 고분 ■소재지 : 양도면 하일리 산66-4

정근과 정유성의 묘는 권개 묘와 바로 인접해 있다. 정유성의 묘 뒤쪽으로 정근의 묘가 위치하는데 두 사람은 부자지간이다. 정근(1568-1658)은 본관이 영일(迎日), 자는 여옥(汝頊)으로 정몽주의 8대손이자 사직서참봉 정구응(鄭龜應)의 아들이다. 정근은 1594년(선조27)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해 승문원의 장자로부터 박사에 기용되었고 박사로 있을 때 주변으로 청수옥윤(淸秀玉潤)으로 칭송받았다. 병자호란 당시에는 노모를 모시고 외가인 강화로 피난하기도 했다.

정유성은 정근의 아들로 강화 출신이다. 1627년(인조5) 강화에서 실시한 정시문과 을과로 급제했다. 이후 예문관검열, 춘추관기사관, 황해도 관찰사, 전라도 관찰사 등을 지냈다. 이후 1649년(효종 즉위년)에 중앙으로 돌아와 대사간, 대사성, 도승지 등을 역임했으며 이어 우찬참, 호조판서, 예조판서 등을 거쳐 대사헌이 되었다. 1660년(현종1)에는 우의정으로 고부사(告訃使)가 되어 청나라에 다녀오기도 했다.

정근의 묘는 봉분 앞으로 묘비석과 혼유석, 향로석이 있고, 그 좌우로 각각 망주석과 문인석상이 2기씩 있다. 묘비의 전면에는 ‘증대광보국숭록대부 의정부영의정점영경연홍문관예문관춘추관관상감사행무공랑승문원박사정공휘근지묘(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行務功郎承文院博士鄭公諱謹之墓)’라 적혀 있다. 묘비는 높이 114cm, 폭 54cm 두께 16cm이고, 비좌는 높이 20cm 폭 82cm이다. 향로석은 높이 43cm, 폭 30cm이다. 망주석은 좌측의 것이 높이 158cm, 우측의 것이 156cm이다. 문인석은 봉분과 가까운 것 중 우측이 높이 101cm, 두고 30cm, 견폭

26cm, 두께 26cm이고 좌측의 것은 높이 107cm, 두고 30cm, 견폭 26cm, 두께 24cm이다. 봉분과 먼 문인상은 우측의 것이 높이 168cm, 두고 56cm, 견폭 43cm 두께가 38cm이고, 좌측의 것이 높이 192cm, 두고 53cm, 견폭 49cm, 두께 37cm이다.

정유성 묘의 좌향은 정남향으로 봉분은 동서 길이는 6.7m, 남북 길이 8.5m이다. 좌우에 각각 망주석과 문인석이 2기씩 서 있다. 묘 앞의 비석은 높이 141cm, 폭 61cm, 두께 23cm, 비좌 높이는 22cm, 비 폭은 96cm, 두께는 50cm이다. 망주석은 좌측의 것이 높이 171cm이며, 다람쥐와 같은 동물이 양각되어 있다. 우측의 것은 높이 158cm이다. 문인상은 좌측의 것이 높이 155cm, 두고 51cm, 견폭 46cm, 두께 40cm이다. 우측의 것은 높이 179cm, 두고 50cm, 견폭 46cm, 두께 44cm이다. 정면에는 ‘대광보국숭록대부의정부우의정영연사감춘추관사 증의충정공정유성지묘 정정부인전주이씨원대(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右議政領筵事監春秋館事 贈諡忠貞公鄭維城之墓 貞敬夫人全州李氏苑大)’라 새겨져 있다. 후면의 명문은 판독이 불가능하다.

정상징 묘

■시대 : 조선시대 ■유형 : 무덤, 고분 ■소재지 : 양도면 하일리 산65

정상징의 묘는 정계두 묘 전면에 위치하고 있다. 정상징은 양명학자 정계두의 부친이자 현종대 우의정을 지낸 정유성(鄭維成)의 아들이다. 직경 7m에 달하는 봉분의 좌향은 남향으로 좌측에 묘비가 있고, 묘의 전방 좌우에는 문인상이 각 1구씩 있다. 비의 전면에는 ‘증숭록대부의정부좌찬성경판의금부사오위도부도관성균진사정상징묘 증정정부인한산이씨좌(贈崇祿大夫議政府左贊成兼判義禁府事五衛都府都管成均進士鄭尙徵墓 贈貞敬夫人韓山李氏左)’라 새겨져 있다. 비의 크기는 높이 137cm, 폭 55.5cm, 두께 22cm이고, 비좌의 크기는 높이 40cm, 폭 86cm, 두께 52cm이다. 양 문인상의 크기는

좌우 동일하다. 각각의 높이는 183~190cm, 견폭 44cm, 두고 60cm, 두께 41cm이다. 향로석은 높이 20cm, 폭 28cm, 두께 21cm로 앞면에는 6익(翼)의 곤충문양이 돌을새김되어 있다.

인산리 호박골 전경례, 전창길 묘

■시대 : 조선시대 ■유형 : 무덤, 고분 ■소재지 : 양도면 인산리 산236

전경례의 묘는 인산 삼거리에서 북쪽으로 약 500여m 떨어진 퇴모산의 중턱에 위치하고 있다. 묘역 뒤편으로는 성산 전씨 성산군 이하 3대를 배향하는 사당인 원모재가 위치한다. 현재 봉분은 쌍분으로 묘비의 높이는 133cm, 폭 52cm, 두께 2cm이고, 비좌의 높이는 60cm, 폭 81cm이다. 다른 석물들은 발견되지 않으며 묘비의 전면에는 ‘통정대부호조참의행룡○위부사과전공경례지묘 숙부인원주○씨지묘(通政大夫戶曹參議行龍○衛副司果全公敬禮之墓 淑夫人原州○氏之墓)’라고 쓰여 있다.

전창길 묘는 전경례의 묘 아래쪽에 위치한다. 봉분 앞의 묘비를 중심으로 석인상이 좌우 대칭으로 배치된 상태이다. 묘비의 전면에는 ‘통훈대부어모장군행선전관전공길창지묘 숙인강릉최씨지묘(通訓大夫禦侮將軍行宣傳官全公吉昌之墓 淑人江陵崔氏之墓)’라 적혀 있다. 묘비의 높이는 143cm, 폭 50cm, 두께 16cm이고 비좌의 높이는 24cm, 폭은 55cm이다. 우측 석인상은 높이 152cm, 견폭 40cm, 두께 29cm, 좌측 석인상의 높이는 164cm, 견폭 45cm, 두께 30cm이다.

인산리 황골 고분

■시대 : 조선시대 ■유형 : 무덤, 고분 ■소재지 : 양도면 인산리 산204-2

유적은 황골마을 내 퇴모산의 국사봉의 능선 서남쪽 말단부에 위치한다. 묘소는 지난 2015년과 16년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는데 부서진 비석의 비신

부가 발견되었고 무덤 내에서는 관재와 더불어 분청사기 대접 등의 조선 전기 유물이 출토되었다. 부서진 비신의 탁본을 통해 볼 때 묘주는 조선 전기 강화 출신의 장림으로 추정되었다. 장림은 문과에



인산리 황골 고분 발굴조사(한국고고인류연구소)

급제해 안주목사를 지내고 이후에는 제주 목사로 부임하기도 했다고 한다.⁷⁾

하일리 고분군 1

■시대 : 조선시대 ■유형 : 무덤, 고분 ■소재지 : 양도면 하일리 산65

하일리 하일마을 초입 연안정씨의 묘역 뒤편으로 연고를 알 수 없는 분묘들이 산재해 있는데, 약 30여기의 개체수가 확인된다. 『문화유적총람(文化遺蹟總覽)』에서는 고려시대 고분군이라 보고하고 있으나, 고려시대의 고분이라 확정할 만한 유물을 수습하지는 못하였다. 지금도 나지막한 봉분이 상당히 남아 있는데, 산재해 있는 상석, 장명등 등의 석물을 보면 조선시대 분묘군으로 추정된다.

하일리 고분군 2

■시대 : 조선시대 ■유형 : 무덤, 고분 ■소재지 : 양도면 하일리 산65

7. 한국고고인류연구소, 『강화 인산리 황골 고묘 정비사업 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약보고서』, 2017.

하일리의 양도면사무소 인근의 남태령가든 좌측 야산에 유적이 위치한다. 얇은 봉분이 약 10여기 정도 확인되는데, 문인석 6기, 묘비 3기, 망주석 등 석물도 분포하고 있다. 묘비석 가운데 1기에는 ‘통정대부○순안주공수지묘(通政大夫○安柱公秀之墓)’라 새겨져 있다. 석물 등을 살펴볼 때 조선시대의 분묘군으로 보이나 연고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삼흥리 고분군

■시대 : 조선시대 ■유형 : 무덤, 고분 ■소재지: 양도면 삼흥리 산146

유적은 덕장사지(德藏寺址)에서 380여m 정도 서북쪽으로 뻗어 내린 진강산 능선사면에 위치한다. 유적의 범위는 가로 50m, 세로 50m로 확인되며 약 30여기의 도굴된 고분이 있다. 『문화유적총람』에는 문인석·상석·망주석 등의 석물이 흩어져 있다고 하였으나 현재는 남아 있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 이 일대는 지형 변형이 심해 정확한 고분의 중심구역을 찾기 어렵고, 다만 지표상에서 확인되는 유구는 대부분 조선시대의 분묘로 추정되고 있다.

고능리 능촌 구유홍 묘

■시대 : 조선시대 ■유형 : 무덤, 고분 ■소재지 : 불은면 고능리 산209

유적은 불은남로 422번길과 고능로 153번길이 갈라지는 분기점에서 북서방향으로 200여m 떨어진 구릉의 능선 말단부에 위치한다. 현재 봉분은 쌍분으로 하단부에는 근래의 민묘군이 들어서 있다. 묘역에는 향로석 없이 상석이 중앙에 놓여 있고 좌우에 석인상이 배치되었다. 묘표는 좌측 석인상 옆에 서 있는 것으로 후대에 세워진 것이다. 석인상은 매장 당시의 것으로 추정된다. 묘표 정면에는 ‘충주 위어시모장군행분무위부사직릉주구공유홍지묘 배숙인청주한씨우(忠州 衛御示侮將軍行奮武衛副司直綾州具公有洪之

墓 配淑人淸州韓氏右)’라고 새겨져 있다. 좌측 석인상의 높이 160cm, 견폭 30cm, 두께 40cm, 우측 석인상의 높이 160cm, 견폭 30cm, 두께 35cm이다

고능리 아침가리 고분

■시대 : 조선시대 ■유형 : 무덤, 고분 ■소재지 : 불은면 고능리 산109

묘역은 고능리 아침가리 향나무로부터 북서쪽으로 약 50여m 떨어진 마을을 둘러싼 산록의 남동단 말단부에 위치하고 있다. 묘역은 산의 경사면을 따라 난 평탄지를 이용하였다. 아래로는 잡목 등을 재배하는 밭이 펼쳐져 있다. 묘역은 이미 파괴되어 봉분의 흔적은 전혀 남아 있지 않고, 다만 좌우 대칭으로 서 있는 석인상과 망주석으로 묘역임을 추정할 수 있다. 좌우 석인상의 거리는 대략 20m로 묘역의 규모를 대략적으로 유추할 수 있으며, 좌측의 석인상은 쓰러져 있다. 좌측 석인상의 높이 190cm, 견폭 25cm, 두께 33cm이며, 우측 석인상의 높이 160cm, 견폭 25cm, 두께 40cm이다. 좌측 망주석 높이 120cm, 두께 30cm, 우측 망주석 높이 120cm, 두께 30cm이다.

넙성리 구원일 묘

■시대 : 조선시대 ■유형 : 무덤, 고분 ■소재지 : 불은면 넙성리 산50-3

유적은 현재 한국미술협회(강화창작실, 舊신성초등학교) 뒤편에 위치한다. 구원일(具元一, 1582~1637)은 조선 중기의 무신으로 본관은 능성(綾城)으로 자는 여선(汝先)이다. 인조 15년(1637) 병자호란 당시 강화좌부천총(江華左部千總)으로서 휘하 수십명을 거느리고 갑곶진에 나갔으나, 강화유수 장신(張紳)이 싸우지 않자 바다에 빠져 자결하였다. 이후 충렬사에 배향되었으며, 병조참의에 증직되었다.

북동향으로 자리잡고 있는 묘역에는, 원형의 봉분 뒤로 사성이 둘러져 있으며 상석과 혼유석, 향로석, 그리고 봉분 좌측에는 묘비가 남아있다. 봉분

의 크기는 남북 3.8m, 동서방향 4.7m 정도이다. 묘비는 반월형 비신과 말각 방형의 비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크기는 높이 148cm, 폭 52.2cm, 두께 20.5cm이다. 묘비의 전면에는 ‘유명조선국충신어모장군행훈원원첨정 증자현대 부병조판서구공원일지묘(有明朝鮮國忠臣御侮將軍行訓練阮僉正 贈資憲大夫兵曹判書具公元一之墓)’라고 쓰여져 있고, 후면의 비문은 강화유수 이복원이 찬하였다. 묘비는 1631년에 건립되었다.

덕성리 광성보 순절묘단

■시대 : 조선시대 ■유형 : 무덤, 고분 ■소재지 : 불은면 덕성리 산11

광성보 내에 위치하고 있는 쌍충비각 아래에 위치한다. 묘역에는 전체 7기의 무덤이 있고, 좌향은 서향이다. 비에는 ‘신미양요전망장병시랑순절묘단(辛未洋擾戰亡將兵侍郎殉節墓壇)’이라 새겨져 있다. 순절묘단(殉節墓壇)은 1866년 제너럴서먼호 사건을 빌미로 미국이 개항을 목적으로 무력 침공한 신미양요 당시 순국한 무명용사들을 위한 무덤으로 1871년(고종 8)에 세워진 것이다.

두운리 고경신 묘

■시대 : 조선시대 ■유형 : 무덤, 고분 ■소재지 : 불은면 두운리 87

제주 고씨 사당인 영모사 좌측에 위치하고 있다. 묘역이 위치한 곳은 두도미 마을을 둘러싼 배산의 동남사면의 말단부에 해당한다. 중앙의 쌍분을 중심으로 묘비석, 향로석과 상석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으로 석인상이 배치되어 있다. 향로석과 상석, 석인상은 매장 당시의 것으로 추정되며 묘비석은 후대에 다시 세워진 것이다. 묘비에는 ‘증가선대부이조참판 제주고공경신지묘 배정부인창령성씨지묘(贈嘉善大夫吏曹參判 濟州高公敬身之墓 配貞夫人昌寧成氏之墓)’라 작서되었다.

사기리 작은사골 이시원 묘

■시대 : 조선시대 ■유형 : 무덤, 고분 ■소재지 : 양도면 하일리 산65

이시원(李是遠)의 묘는 이견창(李建昌) 생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다. 본래 길상면 길직리에 있던 것을 1985년 정부인(貞夫人) 청송 김씨와 함께 이곳에 합장하였다. 이시원(1790~1866)은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자는 자직(子直), 호는 사기(沙磯)이다. 조선 정종의 아들 덕천군(德泉君)의 후손이다. 1866년(고종 3) 병인양요 때 강화도가 함락되자 아우 지원(止遠)과 함께 유서를 남기고 음독 자결하였다. 뒤에 영의정으로 추증되고 충정(忠貞)의 시호가 내려졌다. 저서로는 시문 10권과 고금서(古今書) 100여권 등이 있다. 현재 묘역에는 석물은 남아 있지 않고 직경 약 4.5m 정도의 봉분만이 남아 있다.

문산리 방식 묘

■시대 : 조선시대 ■유형 : 무덤, 고분 ■소재지 : 화도면 문산리 산431

방식 묘는 문산교회에서 동쪽으로 약 130m 떨어진 구릉 정상부에 위치한다. 방식의 본관은 온양(溫陽)으로 함종가산남해(咸從嘉山南海)를 역임하였으며 1646년 인조 대 유탁이 반란을 일으키자 삼수군수(三水郡守)로 있던 중 단독 출전하였다가 전사하였다. 봉분의 지름은 약 5.5m이고, 앞쪽으로 비가 놓여 있다. 비는 높이 116cm, 폭 42.5cm, 두께 17cm이다. 비좌는 높이 17cm, 가로 길이 65cm, 세로길이 44cm이다. 정면에는 ‘유봉조선충신행삼수도호부사겸진관병마첨제사증가선대부병조판 겸 동지의림시부사방공식지묘 배 증정부인 무장경씨좌(有朋朝鮮忠臣行三水都護府使兼鎭管兵馬僉制使贈嘉善大夫兵曹判 兼 同知義林示府事方公軾之墓 配 贈貞夫人 茂長庚氏左)’, 배면에는 ‘대정7년 4월일입 9대종손귀표 주무8대손 원(大正七年四月日立 九代宗孫貴杓 主務八代孫 潁)’라 기록되어 있다.

대산리 황선신 묘

■시대 : 조선시대 ■유형 : 무덤, 고분 ■소재지 : 강화읍 대산리 산122

묘소는 황선신(黃善身) 정문(旌門)에서 동쪽으로 약 200m 가량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한다. 묘역은 강화읍 북산(北山)의 북쪽 끝자락에 위치하며, 묘역에는 모두 3기의 묘가 안장되어 있는데 동쪽 상면에 1기, 그로부터 약 10m 아래에 2기가 나란히 안장되어 있다. 그 좌우로 문인석과 망주석이 한 쌍씩 있고, 봉분의 앞쪽으로 혼유석과 상석, 그리고 향로석이 갖추어져 있다.

묘의 정면에 있는 묘비에는 ‘고충신평해황공지묘(故忠臣平海黃公之墓), 배면에는 ‘재을묘축월일(在乙卯丑月日)’이라 음각되어 있다. 비신의 높이는 119cm, 폭 52cm, 두께 17cm이며, 비좌의 높이 12cm, 폭 80cm, 두께 53cm이다. 묘의 서쪽으로 묘비가 1기 있다. 정면에는 ‘유명조선충신어모장군훈원정증자헌대부병조판서겸지의금부훈원사황선신지묘 증정부인영일정씨 증정부인온양안씨좌(有名朝鮮忠臣禦侮將軍訓院正贈資憲大夫兵曹判書兼知義禁府訓院事黃善身之墓 贈貞夫人迎日鄭氏 贈貞夫人溫陽安氏左)’라고 적혀 있고, 배면에는 신도비문이 남아 있다. 상석의 크기는 높이 22.5cm, 향로석은 높이 19.5cm, 가로 폭 17cm, 세로 폭 24cm이다.

묘주인 황선신은 1597년(선조30)에 무과에 급제하여 훈련원정을 역임했다.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강화로 자리를 옮겨 중화부중군 직책으로 강화유수 장신, 충청수사 강진흔, 장관(將官) 구원일 등과 함께 청군과 싸웠고 갑곶진에서 전사했다. 이후 병조참의에 추증되었고 강화 충렬사에 제향되었다. 또한 1792년(정조16)에는 충렬을 기려 그 자손에게 벼슬을 내리기도 하였다.

월곶리 대묘동 고분 1

■시대 : 조선시대 ■유형 : 무덤, 고분 ■소재지 : 강화읍 월곶리 산72-1

월곶리 대묘동 고분 1은 황형 묘에서 북서쪽으로 약 100m 떨어진 능선의 말단부에 위치한다. 현재 고분은 1개의 봉분을 중심으로 중앙에 상석과 향로석, 좌우 대칭적으로 망주석과 석인상이 각각 1기씩 세워져 있다. 묘역은 경사면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으며 상석은 높이 25cm, 폭 140cm, 두께 88cm이고, 좌측 망주석의 높이는 150cm, 두께 25cm이다. 우측 망주석의 높이는 155cm, 두께 25cm이고 좌측 석인상의 높이는 130cm, 견폭 20cm, 두께 40cm, 우측 석인상의 높이는 137cm, 견폭 17cm, 두께 35cm이다. 묘비가 없어 묘주는 확인되지 않는다.

월곶리 대묘동 고분 2

■시대 : 조선시대 ■유형 : 무덤, 고분 ■소재지 : 강화읍 월곶리 산72-1

황유(黃瑜) 묘소에 약 10여m 못 미친 거리에 묘비가 없는 묘역을 발견할 수 있다. 묘역은 쌍분을 중심으로 중앙에 상석과 향로석이 있고, 좌우에 망주석과 석인상이 각각 1기씩 대칭적으로 놓여 있다. 상석의 크기는 높이 30cm, 폭 140cm, 두께 24cm이며, 좌측의 석인상은 높이 140cm, 견폭 20cm, 두께 30cm, 우측의 석인상은 높이 150cm, 견폭 28cm, 두께 26cm이다.

월곶리 대묘동 황예헌 묘

■시대 : 조선시대 ■유형 : 무덤, 고분 ■소재지 : 강화읍 월곶리 산72-1

황예헌 묘는 황형 사당 관리소 우측에서 북동쪽으로 약 100여m 떨어진 계곡부의 중상단부에 위치하고 있다. 묘역은 중앙에 큰 규모의 쌍분을 중심으로 중앙에 묘비와 상석이 있고, 그 앞으로 석인상이 좌우 대칭으로 각각 1기씩 배치되어 있다. 묘비의 전면에는 ‘중직대부선공감정황예헌지묘(中直大夫繕工監正黃禮軒之墓)’라고 새겨져 있다.



월곶리 대묘동 황예헌 묘소

황예헌은 장무공 황형의 부친으로 강화 월곶리 대묘동 출신이다. 후에 자헌대부병조판서겸지의금부사(資憲大夫兵曹判書兼知義禁府事)로 추증되었다. 묘비의 전체 높이는 90cm, 폭 48cm, 두께 17cm이다. 좌측 석인상은 높이 143cm, 견폭 30cm, 두께 30, 우측 석인상은 높이 133cm, 견폭 30cm, 두께 30cm이다.

월곶리 대묘동 황예헌 경주 김씨 부인 묘

■시대 : 조선시대 ■유형 : 무덤, 고분 ■소재지 : 강화읍 월곶리 산72-1

강화 월곶리 대묘동 황예헌 묘에서 남동쪽 구릉에 위치하고 있으며, 잔존 상태는 양호하다. 묘역에는 문인석상 2기가 놓여 있으며 묘역 내 묘비는 2007년에 세운 것이다.

월곶리 대묘동 황침 묘

■시대 : 조선시대 ■유형 : 무덤, 고분 ■소재지 : 강화읍 월곶리 산72-1

강화 월곶리 대묘동 황예헌 묘 아랫단에 위치하고 있다. 양주에서 이장했

으며, 이장 시기는 확인되지 않는다. 양주에 비석 등이 더 있었으나 함께 가져오지 않았다고 한다. 묘역에 있는 묘비는 2007년에 세운 것이다.

황침은 황형의 아들로 조선 중기 무신이다. 1514년(중종9) 강원도사를 지내던 중 좌의정 정광필의 천거로 갑산부가 되었으며, 경상좌도, 전라도의 병마절도사를 역임한다. 1532년에는 함경북도절도사에 임명되었고 이듬해에는 장례원판결사를 거쳐 다시 북도병마 직에 수망되기도 했다. 황침은 황형과 더불어 북방의 여진족들에게 경외의 대상이었으며 무인으로서의 자질도 뛰어나 변방의 방비책이나 군사 문제가 발생하면 반드시 주론(主論)하는 위치에 있었다. 1535년에 경관직을 맡아 한성부우윤을 지냈고 공조판서에 올랐으며 이후 지중추부사, 한성부판윤, 비변사당상을 지냈다.

월곶리 대묘동 황유 묘

■시대 : 조선시대 ■유형 : 무덤, 고분 ■소재지 : 강화읍 월곶리 산72-1

황유의 묘는 황형 사당에서 동쪽으로 약 200m 떨어진 능선의 동남사면에 위치한다. 묘역은 봉분을 중심으로 정면에 상석이 있고, 왼쪽으로 치우쳐 묘갈(墓碣)이 위치한다. 봉분의 좌우로 망주석과 석인상이 각각 1기씩 세워져 있다. 묘갈의 전면에는 ‘통훈대부 행군자감첨정창황공묘 숙인전의 이씨지묘(通訓大夫 行軍資監僉正昌黃公墓 淑人全義李氏之墓)’라고 새겨져 있다.

묘소의 주인은 황형의 3남인 황유이다. 황유(1488-1536)의 자는 자상(子祥)이며, 한흥첨사, 훈원첨정 등을 역임하고, 군자감정(軍資監正)에 올랐으나 당시 정권을 잡은 김안로 등에 의해 광주에 유배되어 1536년(중종31) 강화에서 운명했다. 원래 묘소는 광주시 동기면에 있었으나 광복 후에 이곳으로 이장했다 한다.

월곶리 대묘동 황찬 묘

■시대 : 조선시대 ■유형 : 무덤, 고분 ■소재지 : 강화읍 월곶리 산74

황찬의 묘는 황형 묘에서 북서쪽으로 약 200여m 떨어진 산록의 상단부에 위치한다. 묘역은 경사면을 다듬어 만든 평탄면지에 쌍분을 조성했다. 중앙에는 묘비와 상석을 중심으로 좌우에 석인상이 놓여 있다. 황찬 묘는 1980년대 지금의 위치로 이장한 것이라고 한다. 묘비의 전면에는 ‘통훈대부 행사섬시부정황찬지묘 ○○인전의이씨지묘(通訓大夫行司贍寺副正黃瓚之墓 ○○人全義李氏之墓)’라 새겨져 있다. 묘비의 크기는 전체 높이 138cm, 폭 53cm, 두께 15cm이다. 좌측 석인상은 높이 164cm입니다.

월곶리 유일충 묘

■시대 : 조선시대 ■유형 : 무덤, 고분 ■소재지 : 강화읍 월곶리 산16-1

유충일 묘는 해안북로에서 연미정길 36번길이 분기하는 지점의 야산의 남쪽 사면 말단부에 위치한다. 묘는 유씨 일가의 묘역에 자리하고 있는데, 가운데 있는 쌍분을 중심으로 정면에는 묘갈이 있고, 그 앞으로 좌우에 향



월곶리 유일충 묘

로석과 상석, 그 앞으로 망주석과 석인상이 각각 1기씩 배치되어 있다. 묘갈의 전면에는 ‘절○장군 지중추부사유공일충지묘 숙부인김해김씨좌(折○將軍 知中樞府事劉公一忠之墓 淑夫人金海金氏左)’라고 음각되어 있다. 묘갈의 배면은 마모되어 글의 내용은 알 수 없다. 좌측 석인상의 크기는 높이 150cm, 견폭 20cm, 두께 35cm, 우측 석인상 높이 162cm, 견폭 19cm, 두께 33cm이다. 좌측 망주석의 높이 135cm, 두께 24cm, 우측 망주석의 높이 150cm, 두께 22cm이다.

냉정리 물우리 조요룡 묘

■시대 : 조선시대 ■유형 : 무덤, 고분 ■소재지 : 선원면 냉정리 산70-52

조요룡의 묘는 냉정리 마을회관에서 서남쪽으로 250m 정도 떨어진 야산의 중턱에 있으며 주변으로는 철종외가가 위치한다. 묘역의 중앙 봉분 앞에 세워진 묘비에는 ‘가선대부조요룡○위지묘(嘉善大夫趙天龍○位之墓)’라 쓰여 있다. 봉분을 중심으로 중앙에 상석과 향로석이 놓여 있고, 좌우로 석인상이 각각 1기씩 서 있다. 묘비의 높이는 110cm, 폭 50cm, 두께 13cm, 상석의 높이 42cm, 폭 100cm, 두께 70cm이다. 좌측 석인상의 높이는 136cm, 견폭 17cm, 두께 35cm, 우측 석인상의 높이 135cm, 견폭 20cm, 두께 39cm이다. 한편, 주민들 사이에서 ‘조씨 묘’로 불리고 있는 묘역은 동서 약 30m, 남북 약 20m 규모이며, 가운데 봉분을 중심으로 총 7기의 묘가 더 위치하고 있다.

철종 외가 묘

■시대 : 조선시대 ■유형 : 무덤, 고분 ■소재지 : 선원면 냉정리 산70-46

묘역은 철종의 외가에서 서쪽으로 약 70m 떨어진 야산에 위치한다. 전체적으로 남향하고 있으며 묘역의 전체 규모는 동서 60m, 남북 20m이다. 현재 묘역에는 철종의 외숙부들 묘 3기가 있다. 강화유수 조충식(趙忠植)이

1859년(철종 10)에 왕족의 위신을 갖춘다는 뜻에서 철종의 외숙부 3인의 묘를 정비하고 비석을 세웠다고 한다. 또한 철종은 외가 5대에게 벼슬을 추증케 하고 선원면 냉정리에 전답 10여 정보를 하사하는 특전을 베풀었다고 한다.

각 묘마다 묘비, 방주석, 상석 등의 석물을 갖추고 있다. 좌측으로부터 염상임(廉尙任) 묘, 중앙 염덕석 묘, 우측의 염성화의 부부합장묘가 있다. 각 비문의 크기와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① 염상임묘(廉尙任墓)-정면에 '조선증자현대부이조판서용담염공휘상임지묘 배증정부인전주이씨(朝鮮贈資憲大夫吏曹判書龍潭廉公諱尙任之墓 配贈貞夫人全州李氏)'라 적혀 있으며, 크기는 높이 130cm, 폭 42cm, 두께 25cm이다.

② 염덕석묘(廉德碩墓)-정면에 '조선증승정대부의정부좌찬성용담염공휘덕석지묘 배증정정부인김해김씨(朝鮮贈崇政大夫議政府左贊成龍潭廉公諱德碩之墓 配贈貞敬夫人金海金氏)'라 적혀 있으며, 크기는 높이 130cm, 폭 41.5cm, 두께 24cm이다.

③ 염성화묘(廉星華墓)-정면에 '조선증대광보국승록대부의부영의정용담염공휘성화지묘 배증정정부인상주지씨우(朝鮮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府領議政龍潭廉公諱星華之墓 配贈貞敬夫人尙州池氏右)'라 적혀 있으며, 크기는 높이 138cm, 폭 43cm, 두께 27cm이다.

장정리 긴우물 하음백 봉우 묘

■시대 : 조선시대 ■유형 : 무덤, 고분 ■소재지 : 하점면 장정리 산122

묘역은 하점면 석조여래입상 북쪽으로 약 10m 정도 떨어져 조성되었으며, 계단을 중심으로 2단으로 구획되어 있다. 무덤은 봉분 아래에 호석을 둘러 새로 조성하였으나 주변의 석물로 보아 조선시대에 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무덤의 정면으로는 신·구의 석물이 혼재하여 세워져 있으나 여기서는 구석물에 대해서만 언급하고자 한다.

무덤의 우측으로는 옥개형 이수에 오석의 비신(높이 130cm, 너비 45cm)을 한 공적비가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무덤의 한단 아래 동서에는 문·무인석(높이 약 120cm 정도)이 자리하고 있으며, 문·무인석의 남쪽에는 장명등 1기가 세워져 있다. 장명등은 8각의 옥개석에 4각의 화사석이 갖추어져 있다. 비신을 제외한 석물 대부분이 화강암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표면은 대부분 부식된 상태이다.

하음백 봉우는 하음 봉씨 시조로 고려 인종 대에 과거에 급제하여 정당문학, 위위소경을 지내고 좌복야까지 올랐다.

고천리 연촌 고려산 고분군

■시대 : 조선시대 ■유형 : 무덤, 고분 ■소재지 : 내가면 고천리 산91-1

유적은 적석사에서 동쪽으로 약 500m 가량 떨어진 고려산 주능선의 남쪽 사면 중턱에 위치한다. 고분은 대부분 석곽분으로 능선상 혹은 남향사면 하단부에서 조사되었다. 덮개돌이 모두 원래 위치에서 옮겨져 있는 것으로 보아 도굴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고분은 등고선과 직교하고 있으며, 무덤방 내부는 토사로 매몰되어 있다. 무덤방 크기는 120~180cm 정도이고 너비는 50~80cm 정도이다. 벽석은 20~30cm 정도의 할석으로 축조되었으나 도굴 과정에서 벽면 대부분이 붕괴된 상태이다. 주변에서 출토된 유물이 없어 고분의 축조연대는 알 수 없다.

금월리 고분군

■시대 : 조선시대 ■유형 : 무덤, 고분 ■소재지 : 선원면 금월리 348

유적은 선원면사무소에서 용진진 방향으로 이어지는 연동로의 1km 지점

의 야산의 남쪽 사면 말단부에 해당한다. 현재 유적이 위치한 곳은 목장과 목초지로 사용되고 있다.

이 유적은 일제강점기에 조사된 유적으로 당시 고려시대 고분 45기가 있었다고 알려져 있다. 전언에 의하면 석곽묘가 아닌 토광묘로서 청자가 출토되기도 하였다고 한다. 현재는 우사(牛舍)와 함께 목초지로 구성되어 있어 유적의 흔적은 찾을 수 없다.

양오리 김지곡 고분군

■시대 : 조선시대 ■유형 : 무덤, 고분 ■소재지 : 송해면 양오리 산226



양오리 김지곡 고분군 내 돌방무덤(문화재청)

유적은 양오리 마을회관에서 장정양오길을 따라 서쪽으로 570m가량 이동하면 남동쪽으로 보이는 구릉 일대에 위치한다. 이곳은 봉천산 동쪽 줄기의 북동사면 해발 30m 만에 해당하는 곳이다. 북동-남서

방향으로 뻗어있는 봉천산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북서쪽은 산지, 남동쪽은 평탄한 경작지를 이루고 있다. 고분군은 총 13기의 석곽묘로 확인되었고, 고분군 주변으로 여무덤방의 잔해로 판단되는 석재편들을 다수 확인하였다. 또한 유적에서 북동쪽으로 약 500m 떨어진 구릉 정상부에서도 석곽묘 1기를 확인하여 이 일대에 대규모 고분군이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수습된 유물은 없어 무덤의 조성 시기는 확인되지 않는다.

장정리 긴우물 고분군

■시대 : 조선시대 ■유형 : 무덤, 고분 ■소재지 : 하점면 장정리 산183, 산184

유적은 하음백 봉우의 묘소에서 북서방향으로 약 350여m 떨어진 봉천산

의 서쪽 능선 중턱 사면에 위치한다. 이곳에서는 모두 3기의 석곽묘가 확인되었다. 석곽묘 1은 남동사면의 구릉 선상에 동서를 장축으로 축조되었으나 이미 도굴된 상태이다. 덮개돌은 모두 옮겨져 고분의 아래에서 확인되었고 남쪽 벽면은 대부분 유실되었다. 고분의 내부는 퇴적으로 덮여 바닥 확인이 어려우며, 벽석은 약 2단 정도 살펴진다. 묘실의 크기에 있어 단변은 약 1m, 장변은 약 2m 정도이다. 덮개돌과 벽석 모두 할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벽석의 크기는 대략 30~40cm이다.

석곽묘 2는 석곽묘 1이 위치한 서쪽 능선 상에서 확인되었다. 석곽 1과 마찬가지로 등고선과 직교하여 조성되었다. 이미 도굴된 상태로 조사되었으며, 덮개돌은 1매를 제외하고 모두 유실되었다. 남쪽 벽면을 제외한 동·서·북면의 경우는 현재 표면에 노출되어 있다. 덮개돌과 벽석 모두 할석으로 조영되었으며, 벽면의 경우 안쪽으로 기울어지게 축조하였다. 무덤방의 크기는 단변의 경우 70~80cm, 장변은 약 150cm 정도이다. 덮개돌은 표토 아래 60cm 지점에서 확인되었다.

석곽묘 3은 석곽묘 2의 동쪽 약 10여m 지점에서 확인되었다. 석곽묘 2와 같은 형식으로 축조되었으며, 무덤방 크기는 단변이 90cm, 장변이 약 220~230cm 정도이다. 주변에서 출토된 유물이 없어 고분의 축조연대는 알 수 없다.

창후리 고분군

■시대 : 조선시대 ■유형 : 무덤, 고분 ■소재지 : 하점면 창후리 산136

유적은 강화도 서북단에 자리한 별립산의 서쪽 능선 사면에 위치한다. 현재는 강화 유스호스텔이 들어서 있다. 별립산 고분군으로도 알려진 유적은 지난 2005년 인천시립박물관에서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조사 결과 고려~조선시대 널무덤(土壙墓) 49기와 돌덧널무덤(석곽묘) 4기 등의 유구가 확

인되었고 청자, 백자, 동전 등의 다량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이중 고려시대 유물이 출토된 것은 널무덤 5기와 돌덧널무덤 1기로 무덤의 연대는 대략 12~13세기로 추정되고 있다. 창후리 고분군은 강화 고려 왕릉을 제외하고 강화에서 최초로 발굴된 고분군으로 고려~조선시대 강화지역의 묘제 변천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 준 것으로 평가 받는다.

하도리 고분군

■시대 : 조선시대 ■유형 : 무덤, 고분 ■소재지 : 송해면 하도리 산85, 산98

유적은 석주 권필 유허비에서 남서쪽으로 약 200여m 떨어진 고려산 북동쪽 능선 중하단부에 위치한다. 유적이 확인된 것은 과수원 조성과정에서 잡목을 제거하는 중 청자 주자와 마상배 등이 발견 신고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 현재 능선 사면에 걸쳐 약 60여기의 돌덧널무덤이 분포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유적의 입지와 지형적 조건으로 보아 많게는 100여기 이상의 고분이 존재할 가능성도 높다. 현재까지 조사된 고분의 축조 구조는 대부분이 할석조석곽묘로 파악되었으며 부분적으로 판석조석곽묘도 확인되기도 한다. 또한 지표 상에서도 관정, 동전편 등이 확인되기도 한다. 이 유적은 앞서 살펴본 석릉 주변 고분군과 더불어 강화에서 조사된 고려 고분군 중 최대 규모이다.

교동 상릉리 남대우동 김경선 묘

■시대 : 조선시대 ■유형 : 무덤, 고분 ■소재지 : 교동면 상릉리 산85-4

김봉상묘 좌측 하단에 위치하고 있다. 김경선은 김봉상의 손자이다. 봉분은 쌍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운데 묘표를 중심으로 상석과 향로석이 배치되었다. 묘표를 제외한 상석과 향로석은 후손들에 의해 1992년에 새로 만들어진 것이다. 묘표 정면에는 ‘통훈대부행사헌부감찰 김공경선지묘(通訓

大夫行司憲府監察 金公慶先之墓)’, 배면에는 ‘강희20년을사3월일립(康熙二十年乙巳三月日立)’라고 쓰여 있다. 묘표의 높이, 너비, 두께는 각각 135cm, 40cm, 15cm이다.

교동 상릉리 남대우동 김봉상 묘 및 묘갈

■시대 : 조선시대 ■유형 : 무덤, 고분 ■소재지 : 교동면 상릉리 산85-4



상릉리 김봉상 묘소 및 묘갈(문화재청)

김봉상의 묘와 묘갈은 화개산 정상에서 동북쪽으로 뻗어내린 능선의 말단부에 위치한다. 묘소의 바로 아래쪽으로는 김경선의 묘가 위치하고 있다. 김봉상(金鳳祥)의 자(字는) 백응(伯應)으로 습독관(習讀官) 구(俱)의 아들이며, 조선 명종 때 대

사간을 지낸 김난상의 만형이다. 1522년 동수 사마(司馬)에 등용되어 도천(道薦)에 의하여 음보(蔭補)로 영릉참봉(英陵參奉)을 지냈다.

묘의 좌향은 북동방향으로 자리되어 있으며, 원형의 봉분과 상석, 혼유석, 향로석 그리고 묘갈 1기와 문인석 1쌍 등의 석물이 남아 있다. 그 중 상석과 혼유석, 향로석은 최근에 조성한 것이다. 봉분의 길이는 남북 4m, 동서 5m 정도의 크기이다. 묘갈은 반월형 비신과 비좌로 구성되어 있는데, 최근에 시멘트로 바른 흔적이 남아 있다. 크기는 가로 48cm, 높이 138cm, 두께 19cm이며, 전면에는 ‘통사랑행영릉참봉김공봉상지묘(通仕朗行英陵參奉金公鳳祥之墓)’라 쓰여 있다. 배면에는 ‘통사랑영릉참봉김군봉상묘갈명병서(通仕朗英陵參奉金君鳳祥墓碣銘并序)’라고 시작하고 있어 묘갈임을 밝혀주며 특히 묘갈문을 이황이 찬서했다고 기록되어 있어 조선 전기 금석문의 귀중한 자료로 생각된다. 묘갈은 만력 10년(1582)에 건립되었다.

봉분 좌우에는 한 쌍의 문인석이 세워져 있는데, 머리에는 복두를 쓰고 손에는 홀을 들고 있는 관복의 차림새다. 문인석의 팔이 직각으로 꺾여 있어 입체적으로 표현된 점, 소맷자락 끝부분이 측면으로 돌아가 있는 점 등이 16세기 중반 이후의 문인석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크기는 좌측이 160cm, 우측은 144cm이며, 심하게 부식되어 있다.

교동 상릉리 남대우동 김구상 묘

■시대 : 조선시대 ■유형 : 무덤, 고분 ■소재지 : 교동면 상릉리 산85-4

김구 묘 좌측에 위치하는 것으로 김봉상의 동생인 김구상(金龜祥) 묘이다. 쌍분이며 가운데 묘표와 상석, 향로석을 중심으로 좌우 석인상이 배치되어 있다. 묘표에는 ‘조산대부행경현감김공구상지묘 영인강릉김씨지묘(朝散大夫行慶縣監金公龜祥之墓 令人江陵金氏之墓)’라고 쓰여 있다. 석인상은 매장 당시의 것으로 묘표는 1800년대, 상석과 향로석은 1992년에 새로 만들어진 것이다. 우측 석인상의 크기는 높이 150cm, 견폭 23cm, 두께 33cm이며, 좌측 석인상의 크기는 높이 150cm, 견폭 22cm, 두께 34cm이다. 봉분의 크기는 동서 4.1m, 남북 3.6m이다.

교동 상릉리 남대우동 김현 묘

■시대 : 조선시대 ■유형 : 무덤, 고분 ■소재지 : 교동면 상릉리 산85-4

김현의 묘는 김구상의 묘와 바로 인접해 있으며 김봉상의 묘에서 약 450m 동쪽 능선 말단부에 위치한다. 전체묘역 안에는 총 4기의 봉분이 있다. 이중 우측의 것이 김현의 묘이다. 김현은 김봉상의 부친으로 묘역은 부부묘로 조성되었다. 현재 묘소는 중앙의 쌍분을 중심으로 묘표, 상석을 중심으로 좌우에 석인상과 망주석이 있다. 묘표에는 ‘습독관청도김공휘현지묘 의인안동전씨(習讀官淸道金公諱現之墓 宜人安東全氏)’라고 쓰여 있다.

석인상과 망주석은 매장 당시의 것이고 묘표는 1800년대, 그리고 상석과 향로석은 1992년에 새롭게 만들어졌다고 한다. 묘표는 높이, 두께, 너비가 각각 115cm, 25cm, 38cm이다. 우측 석인상은 높이, 견폭, 두께가 각각 150cm, 25cm, 38cm이고 좌측의 석인상은 높이, 견폭, 두께가 각각 143cm, 27cm, 42cm이다. 망주석은 우측의 것이 높이, 두께가 각각 180cm, 42cm이며 좌측의 것은 각각 163cm, 25cm이다. 봉분은 동서 5.9m, 남북 5m 정도의 크기이다.

교동 읍내리 고분

■시대 : 조선시대 ■유형 : 무덤, 고분 ■소재지 : 교동면 읍내리 산101

읍내리 고분은 교동읍성에서 동쪽으로 약 300여m 떨어진 도로변의 과수원 인근에 위치한다. 이곳은 화개산의 남쪽 사면 말단부로 평대지에 고분이 위치하고 있다. 중앙에 쌍분을 중심으로 그 앞에 향로석과 상석이 배치되었고 좌우로는 석인상이 놓여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쌍분을 중심으로 좌우로 약 10기의 봉분이 위치하고 있다. 좌우의 석인상의 크기는 좌측 석인상이 높이 93cm, 견폭 18cm, 두께 30cm로 나타나며, 우측 석인상은 높이 97cm, 견폭 18cm, 두께 27cm이다.

비지정 분묘, 고분군

구분	명칭	수량	소재지	시대	비고
1	고천리 고분군	-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고천리 210대	고려~조선	
2	길정리 석릉 주변 고분군	-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길정리 산183	고려	
3	양오리 고분군	-	인천광역시 송해면 양오리 산110	고려	
4	장정리 수월하 고분군	-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장정리 산48	고려	
5	고천리 연촌 지물재 고분군	-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고천리 산69	고려	
6	냉정리 개골동 고려 왕릉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냉정리 산11	고려	
7	연리 능골 고려 가왕릉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연리 산17	고려	

구분	명칭	수량	소재지	시대	비고
8	외포리 고분군	—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외포리 산135 외	고려	
9	능내리 돌방무덤	—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능내리 209-9	고려	
10	간평리 화촌 고분	—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간평리 815-1전	조선	
11	조산리 예천군 이천 묘	1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조산리 산64-1	조선	
12	조산리 정오대부고양정 이공묘	2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조산리 산64-1	조선	
13	하일리 권개 묘	1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하일리 산66-4	조선	
14	하일리 송세영 묘	1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하일리 산68	조선	
15	하일리 정군, 정유성 묘	2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하일리 산66-4	조선	
16	정상징 묘	1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하일리 산65	조선	
17	인산리 호박골 전경례 전 창길 묘	2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인산리 산236	조선	
18	인산리 황골 고분	2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인산리 산204-2	조선	
19	하일리 고분군 1	—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하일리 산65	조선	
20	하일리 고분군 2	—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하일리 산65	조선	
21	고능리 능촌 구유홍 묘	1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고능리 산209	조선	
22	고능리 아침가리 고분	—	인천광역시 강화군 고능리 산109	조선	
23	넙성리 구원일 묘	1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넙성리 산50-3	조선	
24	덕성리 광성보 순절묘단	7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덕성리 산11	조선	
25	두운리 고경신 묘	1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두운리 87	조선	
26	사기리 작은사골 이사원 묘	1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하일리 산65	조선	
27	문산리 방식 묘	1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문산리 산431	조선	
28	대산리 황선신 묘	1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대산리 산122	조선	
29	월곶리 대묘동 고분1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월곶리 산72-1	조선	
30	월곶리 대묘동 고분 2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월곶리 산72-1	조선	
31	월곶리 대묘동 황예현 묘	1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월곶리 산72-1	조선	
32	월곶리 대묘동 황예현 경주 김씨 부인 묘	1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월곶리 산72-1	조선	
33	월곶리 대묘동 황침 묘	1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월곶리 산72-1	조선	
34	월곶리 대묘동 황유 묘	1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월곶리 산72-1	조선	
35	월곶리 대묘동 황찬 묘	1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월곶리 산74	조선	
36	월곶리 유충일 묘	1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월곶리 산16-1	조선	
37	냉정리 조요룡 묘	1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냉정리 산70-52	조선	

구분	명칭	수량	소재지	시대	비고
38	철종 외가 묘	—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냉정리 산70-46	조선	
39	장정리 긴우물 하음백 봉우 묘	1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장정리 산122	조선	
40	고천리 연촌 고려산 고분군	—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고천리 산91-1	역사시대미상	
41	금월리 고분군	—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금월리 348	역사시대미상	
42	양오리 김지곡 고분군	—	인천광역시 강화군 송해면 양오리 산226	역사시대미상	
43	장정리 긴우물 고분군	—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장정리 산183, 184	역사시대미상	
44	창후리 고분군	—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저면 창후리 산136	고려~조선	
45	하도리 고분군	—	인천광역시 강화군 송해면 하도리 산85	고려	
46	교동 상룡리 남대우동 김경선 묘	1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상룡리 산85-4	조선	
47	교동 상룡리 남대우동 김봉상 묘 및 묘갈	1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상룡리 산85-4	조선	
48	교동 상룡리 남대우동 김구상 묘	1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상룡리 산85-4	조선	
49	교동 상룡리 남대우동 김현 묘	1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상룡리 산85-4	조선	
50	교동 읍내리 고분	—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읍내리 산101	조선	

국방 유적

강화도는 한반도 중앙의 큰 물줄기인 한강, 예성강, 임진강 등 주요 하천의 하구에 위치하고 있는 지정학적 특성과 함께 적선(敵船)의 정박(碇泊)이 어려운 넓은 갯벌로 인하여 외적의 접근이 쉽지 않아 각 시대마다 주요한 전략적 요충지로서 기능하였다. 강화도의 전략적인 가치가 급격히 증대한 것은 고려시대인데 대몽항쟁기 강화도는 39년간 고려왕조의 수도로 기능하였다. 전시에 일시적인 피난이 아니라 도읍 자체를 옮기는 일은 세계사적으로도 흔하지 않은 예인데, 이 자체만으로도 강화도의 역사적 가치가 작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도 강화도는 국가의 보장지(保障地)로 인식되었고, 특히 몇 차례의 국난이 있었던 17세기 이후 이 같은 인식은 더욱 강하게 작용하여 유사시를 대비한 방비가 본격적으로 갖추어졌다.

임진왜란 이후 국가의 보장지로 부각된 강화도에는 각종 행정·군사적인 조치들이 취해지고, 경제적인 기반이 마련되었다. 먼저 강화도호부(江華都護府)를 유수부(留守府)로 승격시켜 군사적 권한을 부여하였고, 인근지역에 위치하던 진(鎭)·보(堡) 등을 강화도로 이설하여 강도를 중심으로 하는 군사 체제를 갖추게끔 하였다. 또한 해안에 제방을 쌓아 농지를 확보함으로써 유사시를 대비한 식량을 비축할 수 있었다. 그 중 1679년(숙종 5) 강화도의 해안 방비를 위해 축조된 것이 돈대(墩臺)이다.

돈대는 평지에 있는 성에서는 보통 가장 높은 평지에 축조했으며, 해안에 있는 성에서는 적들이 침입하기 쉬운 요충지에 주로 설치하였다. 외부는 성곽으로 축조되어 있으나 보통 내부에는 군사시설이 있어 포를 쏘거나 사방을 볼 수 있게 조성하였다. 돈대의 기능은 해안으로 접근하는 적선에 대한 경계·경보와 함께 적병의 해안상륙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그러나 적군이 돈대의 감시를 피하거나 경계를 뚫고 해안에 상륙하면 일정한 거리를 두고 원거리에서 방비를 하는 구조로 인해 수비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병자호란 당시 청의 군사들에게 유린되었던 염하를 방비하기에 돈대만으로는 부족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돈대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초지돈대에서 휴암돈대까지 이어썩은 방어시설이 외성이다. 돈대가 높은 위치에서 해안으로 접근하는 적선을 화포로 타격하고 상륙을 시도하는 병력을 활, 조총 등 개인병기로 제압했다면, 염하를 따라 돈대와 돈대를 연결해가며 쌓은 외성은 돈대의 화망을 뚫고 강화도 상륙에 성공한 적병이 섬 내부로 이동하는 것을 봉쇄하려는 목적에서 축조되었다. 초축(初築) 당시 외성은 토성으로 축조되었는데, 이

는 병자호란 때 강화부의 방어시설을 초토화시켰던 청나라의 홍이포 공격에 대비하기 위함이었다. 토성의 흙벽이 포탄의 충격을 흡수하여 적의 화포 공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화해협의 거센 물살이 외성의 토축(土築)을 붕괴시키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 않았다. 쌓은 지 50년이 조금 지난 1743년(영조 19) 무너져 내린 외성의 토축을 벽돌로 고쳐쌓기 시작했다. 그러나 벽돌과 벽돌을 붙이는데 사용한 회(灰)가 바닷물에 녹아내리면서 이 역시 오래가지 못하여 1754년(영조 30)부터 무너진 전축(磚築)구간을 석축으로 다시 쌓게 되었다.

강화해협 관방유적의 하나인 외성은 돈대와 같이 그 자체만으로는 완벽한 방어시설이 될 수 없었고, 돈대와 병행하여 기능해야만 더 큰 방어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시설이다. 강화해협을 건너 강화도로 접근하는 적의 선박을 제압하는 1차 방어선이 돈대였다면, 상륙한 적병을 해안에서 봉쇄하고 격퇴하는 2차 방어선은 외성이었다. 즉, 시기를 달리하여 축조하였지만 돈대와 외성은 서로 유기적으로 작용하면서 효율적인 방어체제를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듯 숙종대 돈대의 축조를 시작으로 강화도에는 통진의 문수산성, 강화외성, 강화산성 등 많은 방비시설이 들어서게 되었고 임진왜란 이후 꾸준히 지속되었던 강도 보장책은 이러한 방어시설과 진무영, 삼도수군통영 등의 방어체제간 유기적인 관계가 형성되면서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되었다.

염주돈대(念珠墩臺)

■시대 : 조선시대 ■유형 : 국방유적-진보돈 ■소재지 : 강화읍 갑곶리 산 2

염주돈대는 해운사를 에워싸고 바다 쪽으로 뻗은 당산 북쪽 능선의 동남쪽 정상부 경사면에 위치한다. 돈대의 평면은 장방형으로 윤곽이 뚜렷한 데 동서 27.4m, 남북 24m이고, 잔존한 토벽의 높이는 약 1m, 두께 3.5m 내외



염주돈대

이다. 입구 시설 및 포문, 내부 유구의 확인은 불가능 하지만 서쪽 중심에 문지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포좌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동쪽은 삭토되어 얇은 토축흔이 남아 있다.

석우돈대(石隅墩臺)

■시대 : 조선시대 ■유형 : 국방유적-진보돈 ■소재지 : 송해면 당산리 산 2-1



석우돈대

석우돈대는 당산리에서 철산리로 이어지는 도로 좌측의 봉천산 동쪽 끝 자락에 위치한다. 석우돈대의 북쪽으로는 천진돈대가 있고, 남쪽으로는 약

700m 떨어져 빙현돈대가 있다. 산 중턱의 급한 산사면을 이용해 포좌가 설치된 전면은 3m 내외의 높은 석축을 만들고, 후면은 석벽을 0.5m 내외로 생략하였다. 전면의 폭은 37m, 측면 폭은 17m로 전면에 포좌를 나열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일부 구간의 석축이 붕괴되었으나, 비교적 온전히 남아 있다.

소우돈대(疎雨墩臺)

■시대 : 조선시대 ■유형 : 국방유적-진보돈 ■소재지 : 송해면 당산리 425

소우돈대는 당산리의 우뚝 솟은 야산 정상에 위치한다. 현재는 인공시설물에 의해 현상파악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소우돈대는 '우레돈대'라 불리기도 하며, 북쪽으로는 빙현돈대, 남쪽으로는 숙룡돈대가 있다.

광성돈대(廣城墩臺)

■시대 : 조선시대 ■유형 : 국방유적-진보돈 ■소재지 : 불은면 덕성리 23-1



광성돈대

광성돈대는 광성보의 문지와 연결되어 북서쪽에 있는 돈대이다. 현재의 돈대는 1976년 강화국방유적 복원사업으로 복원된 것으로, 포좌 4좌를 갖추고 있다. 돈대의 규모는 동서 35m, 남북 43m 정도이다.

손석항돈대(孫石項墩臺)

■시대 : 조선시대 ■유형 : 국방유적-진보돈 ■소재지 : 불은면 덕성리 53-1



손석항돈대 및 용두돈대

손석항돈대는 광성보를 따라 남쪽으로 약 250여m 정도 떨어진 야산의 구릉 정상부에 위치한 돈대이다. 조선 숙종때 축조된 돈대로서, 조선 1871년(고종 8) 신미양요 당시 미국 해군과 치열한 교전을 벌인 곳이다. 원래 돈대는 중앙에 3칸의 무기고가 있었다. 현재의 돈대는 1976년 복원한 것으로 전체적인 규모는 동서 34m, 남북 30m로 평면형태가 원형에 가까운 돈대이다. 출입구는 서쪽에 있으며, 포문 3기는 동남쪽에 위치한다. 돈대의 폭은 778m, 성곽 길이 108m이다.

용두돈대(龍頭墩臺)

■시대 : 조선시대 ■유형 : 국방유적-진보돈 ■소재지 : 불은면 덕성리 산 124

용두돈대는 광성보 내에 위치하는 것으로, 광성보 입구에서 남쪽으로 약 40m 떨어져 있는 육지에서 돌출한 암반 위에 지어진 돈대이다. 돈대의 평면 형태는 부채꼴상의 부정형으로 그 규모는 동서 29m, 남북 11m, 둘레 66m, 석벽의 높이는 2.4~2.6m이다. 외성과 연결되는 98m에 이르는 통로를 만들고 강화도의 돈대 중 바다 쪽으로 가장 돌출된 지형에 만들어졌다. 신미양요 당시 미군의 포격으로 파괴된 것을 1976년 강화국방유적 복원사업으로 복원되었고, 돈대 중앙에는 故 박정희 대통령의 친필로 쓰인 '강화전적지정화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동검북돈대(東檢北墩臺)

■시대 : 조선시대 ■유형 : 국방유적-진보돈 ■소재지 : 길상면 동검리 산 70



동검북 돈대 북벽

동검북돈대는 동검리에 솟은 산 정상부에 위치한다. 동서 93m, 남북 47m에 이르는 평면이 장방형인 대규모의 돈대였음을 알 수 있다. 현재 벽체를 구성했던 석재들이 무너져 내린 상태이다.

내부 동남쪽에는 동서 5m, 남북 4m 규모의 집터가 확인된다. 돈대 내부 가운데 부분은 비교적 높게 단을 마련하였다. 전언에 의하면 동검도는 강화 남단에서 한강을 거슬러

오르기 전에 배를 검사하던 곳이라 하며, 해안에 접해있는 강화도의 다른 돈대들과는 유적의 입지면에서 큰 차이가 보인다.

송곳돈대(松串墩臺)

■시대 : 조선시대 ■유형 : 국방유적-진보돈 ■소재지 : 화도면 동막리 182



송곳돈대지

송곳돈대는 동막리에서 홍왕리로 이어지는 해안도로의 고개 중턱에서 바다로 돌출한 육지의 첨단부에 위치하는데, 이곳은 해발 10m의 비교적 낮은 지역이다. 돈대는 평면형태가 방형으로 동서 31m, 남북 31m, 남쪽으로 4좌의 포좌를 마련하고 북쪽 중앙에 문지를 둔 형태이다. 돈대의 각 면에서 최하단의 석재가 대부분 남아 있고, 일부만 무너져 2~3단 정도의 높이를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문지 주변에도 문지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석재가 남아 있다.

구등곶돈대(龜登串墩臺)

■시대 : 조선시대 ■유형 : 국방유적-진보돈 ■소재지 : 양사면 북성리 996

구등곶돈대는 북성리에서 바다로 돌출한 지형의 우뚝 솟은 야산에 위치



구등곶 돈대 돈문

한다. 돈대가 위치한 곳은 그 전면 및 좌우에 뺨이 발달한 지역이다. 돈대는 동서(포좌부) 32m, 동서(출입구) 24m, 남북 41m로 정면이 북서향한 사다리꼴의 평면을 가진 돈대이다. 바다를 향해 전면에 2좌, 양 측면에 1좌씩 포좌를 설치하였는데, 북쪽의 포좌는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출입구는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불장돈대(佛藏墩臺)

■시대 : 조선시대 ■유형 : 국방유적-진보돈 ■소재지 : 양사면 북성리 산 42

불장돈대는 위도상 강화도 최북단에 위치하는 돈대로서 '불암돈대'라고도 불린다. 북쪽으로 바다와 접해 있고 동쪽으로는 의두돈대, 서쪽으로는 초루돈대가 있다. 불장돈대는 평면형태가 말각방형의 돈대이며 돈대의 폭은 동서 28m, 남북 28m, 벽체의 폭은 3m이다. 북쪽으로 4좌의 포문을 배치한 것으로 보이며, 동북쪽 포좌 1좌는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포문은 폭 1.4~1.6m, 높이 1.2~1.4m, 깊이 2.8m~3.3m이다. 문지는 남쪽에 위치하였다. 대체로 외벽체의 면석은 온전히 남아 있으나, 내벽체는 거의 흔적을 찾을 수 없고, 남서부 구간은 벽체 모두가 훼손된 상태이다.

작성돈대(鵲城墩臺)

■시대 : 조선시대 ■유형 : 국방유적-진보돈 ■소재지 : 양사면 북성리 산 633



작성돈대

작성돈대는 구등곶 돈대의 동쪽으로 약 700m 가량 이동한 해안가의 나지막한 산지를 이루는 지형의 정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곳에는 평탄지가 형성되어 있다. 돈대의 평면형태가 정방형으로 동서 25.6m, 남북

25m이다. 석벽의 높이는 1.6~2.3m이다. 북쪽으로 2좌의 포문이 배치되어 있고, 남면 중앙에 출입구 시설을 두었다.

초루돈대(譙樓墩臺)

■시대 : 조선시대 ■유형 : 국방유적-진보돈 ■소재지 : 양사면 북성리 산 47



초루돈대

초루돈대는 북쪽의 불암돈대로부터 남서쪽으로 약 500m 가량 떨어져 있다. 해발 45m의 낮은 구릉상에 축조한 돈대로서, 해안과 가깝기 때문에 해안수비에 유리하다. 평면 형태는 남북축이 긴 타원형으로 폭은 동서 27m, 남북 35m이고, 돈대 벽면의 두께는 약 3m, 남아 있는 석벽의 최고 높이는 2.5m이다. 북쪽으로 3좌의 포좌를 설치하고 남쪽에 출입구를 마련하였다. 출입구 문주석의 왼쪽에는 4행으로 된 축조시기(康熙五十九年四月日)와 관직명이 적힌 명문(銘文)이 남아 있다. 명문에 의하면 1720년(숙종 46)에 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갈곶돈대(葛串墩臺)

■시대 : 조선시대 ■유형 : 국방유적-진보돈 ■소재지 : 화도면 사기리 산 47-3

선두포구의 오른쪽에 평야로 길게 뻗은 산자락의 정상부에 갈곶돈대터가 위치한다. 일명 '칠온지돈대'로도 불린다. 돈대의 면적은 남아 있지 않지만 토축의 윤곽은 확인할 수 있다. 돈대는 동서 37m, 남북 16m 장방형으로 출입구 시설은 서쪽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양암돈대(陽巖墩臺)

■시대 : 조선시대 ■유형 : 국방유적-진보돈 ■소재지 : 길상면 선두리 840



양암돈대 잔존 성벽

양암돈대는 선두리 선두포둑에서 좌측으로 약 600여m 떨어진 밭에 위치한다. 유적이 위치한 곳은 선두포의 평야를 앞으로 두고, 멀리 사기리의 칠온지돈대와 마주하고 있다.

양암돈대는 사방 폭이 각각 37m 정도의 방형으로 벽체의 폭은 약 6.6m이다. 하단 2·3단의 면석이 전면에 남아 있으며, 서쪽에 출입구 시설이 있으나 할석으로 채워져 있다. 포문 시설이 있었던 남·서·북쪽은 많이 파괴된 상태이고, 현재 남아 있는 문주석의 높이는 좌우 각각 125cm(폭 60cm), 166cm(폭 45cm)이다.

숙룡돈대(宿龍墩臺)

■시대 : 조선시대 ■유형 : 국방유적-진보돈 ■소재지 : 송해면 송뢰리 534 일대



군부대 병커가 새롭게 설치되어 있는 숙룡돈대

숙룡돈대는 송뢰리 금동산의 북서자락 끝에 위치하고 있으며, 근처에 전좌기가 있다. 숙룡돈대는 해방 후 이루어진 제방축조에 면석이 사용되었다

고 전하며, 현재는 인공시설물에 의해 현상파악이 힘들다. 하지만 토축의 흔적으로 대략의 규모를 알 수 있는데, 동서 25m, 남북 21m의 방형에 가까운 돈대이다. 북쪽으로는 폭 3m, 높이 1m, 길이 25m의 토축흔이 남아 있고, 남면에도 토축 일부가 잔존하고 있다.

가리산돈대(加里山墩臺)

■시대 : 조선시대 ■유형 : 국방유적-진보돈 ■소재지 : 선원면 신정리 더리미 344

가리산돈대는 더리미 마을의 배산인 야산이 해안 쪽으로 돌출되어 있는데, 도로개설로 절개된 산지이다. 돈대는 이 야산의 정상부에 위치하며, 유적이 입지한 동쪽의 경우 경사가 매우 급한 지형이다. 가리산돈대는 용진진이 관장하였던 돈대중의 하나로서 좌측 초소였다. 현재 돈대가 위치한 곳은 비교적 넓은 평탄지가 형성되어 있으나 벽체를 이루었던 석재들은 모두 훼손되어 그 외형을 파악할 수 없다. 그러나 내부의 충진토 흔적으로 그 대략의 윤곽은 확인할 수 있다. 돈대는 동서 20m, 남북 34m 규모의 장방형으로 바다를 향한 동쪽으로 3개의 포좌를 두었고, 서쪽의 중심에 출입구를 두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용당돈대(龍堂墩臺)

■시대 : 조선시대 ■유형 : 국방유적-진보돈 ■소재지 : 선원면 연리 1

용당돈대는 강화역사관 앞으로 난 해안도로를 따라 좌강돈대와 용진진을 지나 도로개설로 인해 절단된 해안으로 돌출된 산자락에 위치하고 있다. 유적이 위치한 곳은 산의 동쪽으로 해안과 맞붙어 있어 강 건너 김포지역도 조망되는 곳이다. 용당돈대는 용진진의 관장 아래에 있던 곳으로서, 평면형태가 타원형인 돈대로 서쪽에 출입구 시설을 두고, 포좌는 북쪽과 동쪽, 남쪽에 걸쳐 4좌의 포문을 두었다. 현재의 돈대는 최근에 복원한 것이다.

오두돈대(鰲頭墩臺)

■시대 : 조선시대 ■유형 : 국방유적-진보돈 ■소재지 : 불은면 오두리 5대

오두돈대는 화도돈대에서 남쪽으로 약 1km 지나 바다로 돌출한 육지의 침단부 정상에 위치한다. 오두돈대는 동쪽으로 바다와 마주하고 있고, 그 내부는 평탄하지만 동쪽과 남쪽은 경사가 급하다. 돈대의 평면 형태는 원형으로 지름은 32m, 벽체의 폭은 3.5m이다. 동쪽과 남쪽에 걸쳐 4개의 포좌를 설치하고, 출입구는 서북쪽에 두었다. 현재는 보수·정비되어 복원된 상태이며, 돈대의 동남쪽 오솔길 아래에는 오두정지와 강화전성이 위치한다.

옥창돈대(玉倉墩臺)

■시대 : 조선시대 ■유형 : 국방유적-진보돈 ■소재지 : 강화읍 옥림리 옥개 125

옥창돈대는 옥림리 옥개마을의 낮은 산자락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곳은 봉재산의 말단부에 해당하며 강화중성의 시작 지역이기도 하다. 현재 남동면에 돈대의 외벽이 남아 있는데, 길이 약 45m, 총 4단 중 최하단은 약 30cm 정도 퇴물림하였다. 망해돈대와 마찬가지로 강화외성의 내부에 위치하며 수로를 통해 침입하는 적들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축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망해돈대(望海墩臺)

■시대 : 조선시대 ■유형 : 국방유적-진보돈 ■소재지 : 강화읍 용정리 새말 산 17

망해돈대는 용정리 새말을 둘러싼 배산의 정상부 북쪽에 위치한다. 유적의 평면 형태는 원형에 가깝고 지름은 약 40m이다. 옥포제방 축조시에 망해돈대의 면석을 이용하였다고 하며 잔존한 석부재는 확인할 수 없다. 다만 토축의 흔적으로 대강의 윤곽을 확인할 수 있으나, 그 일부도 인공시설물에 의해 훼손된 상태이다. 이 돈대의 용도는 강화외성 내(內) 수로측면에 위치

하고 있어서, 수로를 통해 침입하는 외적을 방어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제승돈대(制勝墩臺)

■시대 : 조선시대 ■유형 : 국방유적-진보돈 ■소재지 : 강화읍 용정리 산 76

제승돈대는 용정리 해안 쪽으로 돌출한 나즈막한 산자락에 위치하고 있다. 제승돈대 북쪽으로는 월곶돈대, 남쪽으로는 염주돈대가 있다. 현재는 석재가 대부분 유실되어 당시의 모습을 살필 수 없지만, 잔존한 토축의 윤곽으로 보면 대체로 평면은 말각방형 구조로 동서 27m, 남북 28m로 원형 구조에 가까웠던 것으로 추측된다. 일제강점기 초까지는 돈대의 면석이 완연하였다고 하나 옥포제방이 수해를 입어 붕괴되었을 당시 망해돈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승돈대의 면석을 배로 운반하여 축조하는데 사용하였다고 한다. 현재는 대부분 삭토된 상태이다.

월곶돈대(月串墩臺)

■시대 : 조선시대 ■유형 : 국방유적-진보돈 ■소재지 : 강화읍 월곶리 월곶 242 일대

월곶돈대는 월곶진지가 위치한 월곶리의 해안 고지에 위치하고 있다. 월곶돈대는 한강 진입구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곳은 남으로는 염하와 연결되고, 북으로는 조강을 통하여 서해로 진출할 수 있으며, 과거 서울, 인천, 연백 등지로 교통할 수 있는 월곶나루가 있던 해상로의 요충지이다. 현재 돈대의 평면 형태는 타원형을 이루고 있으며, 규모는 동서 47m, 남북 38m이다. 서쪽 중앙부에는 홍예문이 있다. 성체는 동벽 약 30m, 남벽 약 5m 구간이 훼손된 상태이지만, 높이 1.5m 내외의 바른층쌓기한 육축부가 온전히 남아 있다. 돈대 내부에는 동남쪽에 치우쳐 ‘고공신장무공황형(故功臣莊武公黃衡)’이라 적힌 비(碑)를 찾아볼 수 있다.

광암돈대(廣巖墩臺)

■시대 : 조선시대 ■유형 : 국방유적-진보돈 ■소재지 : 양사면 인화리 산 32

광암돈대는 인화리 최북단에 속하는 돈대로 북서해안과 인접한 곳에 위치한다. 평면형태 방형의 돈대로 동서 30.8m 남북 30.5m이고, 석벽의 높이는 2~2.9m이다. 남쪽의 중간지점에 문지가 마련되었다. 문지는 높이 1.5m 폭 1.6m이다. 포좌는 북쪽으로 3좌를 마련하였으며, 포좌내부는 높이 1m, 폭 1.5m이다. 현재는 인공시설물에 의해 돈대 내부가 변형된 상태이다. 자연적으로 붕괴된 몇몇 구간을 제외하고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한 돈대이다.

섬암돈대(蟾巖墩臺)

■시대 : 조선시대 ■유형 : 국방유적-진보돈 ■소재지 : 길상면 장흥리 서남촌 272

섬암돈대는 장흥리 섬암교 맞은편 해발 40m 정도의 산 능선에 위치한다. 육안상 나지막한 토축이 확인되고, 토축의 흔적을 통해 돈대의 평면형태가 방형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동서, 남북 각각 지름이 32m이고, 포좌와 문지의 위치는 확인할 수 없다. 해방 후 제방을 만들면서 이곳의 면석을 이용하였다고 한다.

좌강돈대(左岡墩臺)

■시대 : 조선시대 ■유형 : 국방유적-진보돈 ■소재지 : 선원면 자산리 용진 215

좌강돈대는 복원된 용진진의 우측에 성벽으로 연결된 돈대로서, 용진 마을의 비교적 낮은 평지상의 독립된 고지에 설치되었다. 좌강돈대는 용진진의 관할하에 있었으며 중영우부좌사의 중앙초소였다. 현재의 좌강돈대는 면석이 1~2단이 남아 있던 것을 최근 복원 정비한 것으로 지름이 32m인 평면형태가 원형이다. 서쪽으로 출입문이 만들어져 있고, 동쪽으로 4좌의 포문이 배치되어 있다.

의두돈대(蟻頭墩臺)

■시대 : 조선시대 ■유형 : 국방유적-진보돈 ■소재지 : 양사면 철산리 산 1



의두돈대 복원 성벽

의두돈대는 불장돈대에서 철산리 방향으로 약 800여m 떨어진 해안 쪽 돌출된 산지에 위치하고 있다. 의두돈대는 평면형태가 장방형이고, 동서 15m, 남북 29m의 규모로 벽체의 폭은 4.7m, 최대 높이는 3.4m이다. 벽체의 하단 1열은 퇴물림쌓기를 하였다. 현재 인공시설물에 의해 일부가 훼손되었지만, 비교적 온전한 형태로 보존된 상태이다. 남쪽에 출입구를 마련하였고, 동·서·북쪽에 각각 1좌의 포문을 배치하였는데, 동쪽의 포좌는 남아 있지 않다.

천진돈대(天津墩臺)

■시대 : 조선시대 ■유형 : 국방유적-진보돈 ■소재지 : 양사면 철산리 203

천진돈대는 산이포 마을의 북쪽 고개의 동쪽 끝자락에 자리하고 있다. 돈

대가 위치한 곳은 해안과 바로 맞닿는 부분으로, 이곳은 철북돈대와 빙현돈대 사이이기도 하다. 천진돈대 내부는 인공시설물에 의해 원래의 모습이 많이 변경·교란 되어 있어 정확한 규모의 추정은 불가능하다.

철북돈대(鐵北墩臺)

■시대 : 조선시대 ■유형 : 국방유적-진보돈 ■소재지 : 양사면 철산리 35

철북돈대는 의두돈대에서 남동쪽으로 약 250여m 떨어진 동쪽 해안의 돌출한 임야 가운데에 위치한다. 유적은 최근에 쌓은 인공시설물에 의해 바다와 접한 동쪽 포좌가 위치한 부분과 일부 벽체가 훼손된 상태이다. 평면형태 방형으로 장축은 동서방향이다. 동서 28m, 남북 19.3m(문지부분), 27.8m(포좌부분), 벽체의 폭은 3.5m이다. 서쪽에 위치한 문지의 폭은 1.2m, 문주석의 우측높이는 1m, 좌측높이 84cm이다. 돈대의 외부 벽체는 비교적 본래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석각돈대(石角墩臺)

■시대 : 조선시대 ■유형 : 국방유적-진보돈 ■소재지 : 내가면 황청리 산 171



석각돈대

석각돈대는 국수산 서쪽 해발 60m에 위치한다. 돈대는 서쪽이 바다를 향해 있지만 바다와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다. 이 석각돈대의 북쪽으로는 계룡돈대가 있고, 남쪽으로는 삼암돈대가 있다. 돈대의 평면은 장방형이고, 동서 14m, 남북 20m로 서쪽 지형은 급한 경사를 이루고 남북으로 각각 완만한 경사를 이룬다. 남쪽에는 근세에 조성된 민묘 2기가 있다. 돈대의 노출된 면석은 하단 1~2단 정도만이 남아 있고, 주위 퇴적물에 의해 육축부가 매몰된 상태이다. 현재 상태로는 포좌나 문지 등의 시설물의 위치를 확인하기 어렵다.

택지돈대(宅只墩臺)

■시대 : 조선시대 ■유형 : 국방유적-진보돈 ■소재지 : 길상면 선두리 954

택지돈대는 가천의과대학에서 장흥리 방향으로 약 1.1km 떨어진 우측에 해안 쪽으로 돌출한 저평한 지형에 위치한다. 현재의 돈대는 1998년 복원정비된 것으로 동서 32m, 남북 32m의 방형돈대이다. 벽체의 두께는 3m이고, 북쪽으로 2좌의 포좌와 동서 각각 1좌의 포좌가 마련되었다. 강화 53돈대 중 유일하게 여장이 잘 보존되어 있다.

빙현돈대지(氷峴墩臺址)

■시대 : 조선시대 ■유형 : 국방유적-진보돈
■소재지 : 송해면 당산리 박촌 산 378·377-1전

빙현돈대는 당산리 박촌마을이 있는 야산의 북쪽에 위치한다. 추정 승천보터와 가장 가깝게 위치하는 돈대로 승천보에서 북서쪽으로 약 240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현재 돈대는 남아 있지 않고, 밭으로 경작되고 있다. 밭의 규모는 동서 32m, 남북 32m 정도로 돈대의 크기와 일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낙성돈대지(樂城墩臺址)

■시대 : 조선시대 ■유형 : 국방유적-진보돈 ■소재지 : 강화읍 대산리 242

낙성돈대는 연미정의 북쪽 대산저수지 배수장 일대에 위치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전언에 따르면 제방을 쌓으면서 유적은 완전히 파괴되었다고 한다. 또한 저수지 내부바닥에는 낙성돈대지를 지나는 동서방향으로 과거 토성과 같은 흔적이 보이는데, 저수지가 생기기 전까지는 길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적북돈대지(赤北墩臺址)

■시대 : 조선시대 ■유형 : 국방유적-진보돈 ■소재지 : 강화읍 대산리 1

적북돈대는 연미정 앞으로 난 해안도로가 끝나는 지점에 바다로 돌출한 육지의 첨단부 낮은 야산의 정상에 위치한다. 적북돈대는 낙성돈대와 휴암돈대 사이에 위치한 돈대로서, 현재 인공시설물 설치로 인하여 원형이 교란되어 지표상에서 유적의 흔적을 관찰하기는 힘든 상태이다.

휴암돈대지(鵝巖墩臺址)

■시대 : 조선시대 ■유형 : 국방유적-진보돈 ■소재지 : 강화읍 월곶리 산 11

휴암돈대는 월곶리 고성마을의 배산 해안 끝자락에 위치한다. 현재는 인공시설물에 의해 그 원래의 모습을 살피기 어렵다. 남동쪽으로 길이 4~5m의 석벽이 남아 있다.

인화돈대지(寅火墩臺址)

■시대 : 조선시대 ■유형 : 국방유적-진보돈 ■소재지 : 양사면 인화리 인화성 991

인화돈대는 인화리의 해안과 맞닿아 있는 산지 남서쪽에 위치한다. 석벽은 현재 남아 있지 않고 나지막한 토축만이 잔존하고 있다. 토축의 윤곽으

로 추측해 볼 때 돈대의 규모는 동서 19m, 남북 48m로 세장방형의 돈대이다. 인화돈대는 1725년(영조 1)에 유수 박사익이 강도(江都) 북방의 방어를 보강하기 위해 쌓은 돈대로 포 6문을 설치하였다고 한다.

장자평돈대지(長者坪墩臺址)

■시대 : 조선시대 ■유형 : 국방유적-진보돈

■소재지 : 길상면 초지리 장자말 1074

장자평돈대는 초지리 초지교회 앞으로 난 도로를 따라가면 장자평 마을의 한성도정공장 부지가 있고, 이곳이 돈대 터로 알려져 있다. 장자평돈대는 원래 초지진에 배속된 돈대로서, 현재 옛 모습은 완전히 상실하여 유구의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다.

남장포대(南障砲臺)

■시대 : 조선시대 ■유형 : 국방유적-진보돈 ■소재지 : 불은면 덕성리 846

남장포대는 덕진진과 덕진돈대 사이의 반월형의 해안저지를 따라 설치되어 있다. 덕진진에 소속되어 대포 10문을 설치하였고, 1871년(고종 8) 신미양요 당시 덕진돈대와 함께 치열했던 격전지였다. 성벽과 시설물은 이때 모두 파괴되었으나, 1976년 강화국방유적 복원사업에 의해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복원하였다. 전체길이는 110m, 포대 축조를 위한 토성의 폭은 7.5m, 높이는 2.9m이다.

북성리 포대지(北省里 砲臺址)

■시대 : 조선시대 ■유형 : 국방유적-진보돈 ■소재지 : 양사면 북성리 1202-2

북성리포대는 작성돈대에서 서쪽으로 해안을 따라 위치하고 있다. 북쪽으로 7좌의 포좌를 만들었는데, 현재는 훼손되어 높이 1.5m 가량이 남아 있

다. 포를 설치했던 포좌의 깊이는 3.9m 폭은 2.8m이고, 양끝간의 길이는 40m이다.

사망금포대지(四網金砲臺址)

■시대 : 조선시대 ■유형 : 국방유적-진보돈 ■소재지 : 선원면 연리 2-2답

선원면에서 강화읍 방향으로 해안도로를 따라가다 용당돈대를 오르는 길 쪽에 돌출된 능선과 토지의 접지 면에 토축이 남아 있는데, 이곳이 사망금포대로 추정되는 곳이다. 사망금포대는 해안저지의 강화외성을 따라 설치된 포대로서, 현재 석축 등의 시설물은 유실되고 토축만이 남아 있는데, 그 규모는 길이 약 120m, 폭 5.3m 정도이다. 사망금포대의 경우 『속수증보 강도지』에 기록된 유적인데 조선시대 다른 지지 및 지도 자료에는 나타나지 않는 포대이다. 향후 조사를 통해 포대가 실존했는지에 대한 구체적 조사가 필요하다.

인화포대지(寅火砲臺址)

■시대 : 조선시대 ■유형 : 국방유적-진보돈 ■소재지 : 양사면 인화리 인화성 일대

인화포대는 인화성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산의 해안과 맞닿아 있는 곳으로 인화돈대의 북쪽과 남쪽의 해안가에 있었던 포대이다. 바다로 돌출한 양산의 곡안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이나, 현재 경작지로 변해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없다.

진남포대지(鎭南砲臺址)

■시대 : 조선시대 ■유형 : 국방유적-진보돈 ■소재지 : 길상면 초지리 377

초지진 우측에 연접해 있는 약 100여m 범위가 진남포대로 추정되며, 현재는 주차장으로 정비되어 있다. 초지진에 배속된 포대로 12개의 포문을 두

었다고 한다. 염하를 통과하는 외적을 사전에 관측하고 선제공격할 수 있는 지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황산포대지(黃山砲臺址)

■시대 : 조선시대 ■유형 : 국방유적-진보돈 ■소재지 : 길상면 초지리 황산도 산 80

황산포대는 황산도의 남동쪽 산정상의 해안 절벽에 위치하는데, 이곳은 남쪽의 바다와 농지가 관망되는 지역으로 해발 60m가 되는 비교적 높은 지역에 설치된 포대이다. 동쪽을 향해 포문이 마련되었고, 포대의 총길이는 62m, 폭은 8m이다. 포대를 형성했던 석축의 하단이 평균 1~2단 정도 남아 있으며, 일부 외벽의 석축이 잔존하고 있다. 그런데 황산포대의 경우 저평한 곡부에 위치하는 일반적인 포대의 입지조건이 아닌 해안의 절벽 상부에 위치하며 조선시대 다른 지지나 지도자료에도 나타나지 않아 명확한 실체가 밝혀지지는 않았다.

제물진지(濟物鎭址)

■시대 : 조선시대 ■유형 : 국방유적-진보돈 ■소재지 : 강화읍 갑곶리 갑곶지 1019 일대

김포에서 신(新)강화대교를 건너자마자 48번 국도가 바로 나온다. 이 도로를 따라 약 500여m를 가면 좌측으로 해안도로 진입로가 보인다. 이 도로를 따라 다시 약 200여m를 더 가면 좌측에 강화역사관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 지역이 제물진지로 추정되는 곳이다. 강화역사관이 위치한 지역은 당산의 서남쪽 말단부에 해당하며 동쪽으로는 해안과 바로 맞닿아 있는 곳이다. 제물진은 조선 초 설치된 진들 중 하나로서 소속돈대로는 갑곶돈대, 염주돈대, 제승돈대, 망해돈대 등이 있다. 또한 제물진 외곽으로는 당산을 둘러싼 갑창성이 위치하고 있다. 현재는 강화역사관의 건립과 함께 주변의 개발로 인하여 제물진의 옛 흔적은 확인할 수 없다.

월곶진지(月串鎭址)

■시대 : 조선시대 ■유형 : 국방유적-진보돈 ■소재지 : 강화읍 월곶리 월곶 242 일대

월곶진지는 월곶돈대가 위치한 곳의 남사면에 위치한다. 이곳은 월곶진(月串津)이 위치했던 곳으로 염하를 통하여 인천 방면을 거쳐 삼남 지방으로 왕래할 수 있으며, 북쪽으로는 조강을 통하여 황해도 연백군 등 북쪽과 왕래할 수 있었고 서해를 거쳐 중국과도 교통할 수 있는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었다. 따라서 한국전쟁 이전만 하더라도 매우 번성한 포구 중의 하나였다. 월곶진 주변에는 월곶돈대와 황형택지, 연미정 등의 유적이 있다.

주문진지(注文鎭址)

■시대 : 조선시대 ■유형 : 국방유적-진보돈 ■소재지 : 서도면 주문도리 600

주문도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봉구산 남단의 진말 마을에 있는 구(舊)서도초등학교 일대가 주문진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는 학교시설로 인하여 모든 유적이 훼손되었다. 학교 건물 앞 계단 위쪽에 당시 주문진에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장초석 2기가 방치되어 있다. 초등학교 앞에는 ‘행절제사현공득○영세불망비(行節制使玄公得○永世不忘碑)’가 세워져 있는데, 이 비의 후면에는 ‘함풍8년무오12월(咸豐八年戊午十二月)’이라고 새겨져 있어 1858년(철종 9)에 세워진 비(碑)임을 알 수 있다. 이 비의 크기는 높이 114cm, 폭 40cm, 두께 30cm이다.

선두포 선두보지(船頭浦 船頭堡址)

■시대 : 조선시대 ■유형 : 국방유적-진보돈 ■소재지 : 길상면 선두리 460 일대

길상면 선두포 마을의 가장 고지(高地)인 ‘진터’로 불리는 곳이 있는데, 이곳이 선두보지로 추정되는 지역이다. 입지적으로는 삼랑성의 서쪽에 위치하고, 남쪽으로 양암돈대와 갈곶돈대 사이의 바다가 조망되며, 현재 마을

입구의 경작지는 후대에 간척된 것으로서 그 이전에는 이곳에 포구가 형성되어 배가 드나들었다고 한다. 선두보 유적은 민가들에 의해 교란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인화보지(寅火堡址)

■시대 : 조선시대 ■유형 : 국방유적-진보돈

■소재지 : 양사면 인화리 인화성 산 504 일대

인화리 인화성 마을을 감싼 야산의 동쪽에 해당하는 곳으로 인화돈대에서는 약 150m 가량 남동쪽으로 떨어진 지역이 인화보터로 추정되는 곳이다. 이 일대는 현재 밭으로 경작되어 있어 당시의 유구는 찾을 수 없고, 일부 자기편, 와편 등이 산재해 있다. 인화보는 조선 1656년(효종 7)에 우수홍중보가 별장을 두도록 하였고, 1679년(숙종 5)에 강화유수 윤이제가 만호로 관등을 올리게 하였다.

장곶보지(長串堡址)

■시대 : 조선시대 ■유형 : 국방유적-진보돈 ■소재지 : 화도면 장화리 696 일대

장곶보터는 여차리에서 장화리 방향 지방도 좌측으로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밭으로 경작되고 있다. 장곶보 서쪽은 해안가이고, 현재는 도로 건너로 개간한 논들이 펼쳐져 있다. 장곶보에 사용되었던 석재들로 추정되는 것들은 주위 민가들의 건축자재로 이용되었다. 장곶보는 현재 경작지가 되어서 현상을 파악할 수 없으나, 강화도에 설치되었던 12진보 중 하나로 강화도 관방유적 연구의 중요한 자료이다.

갑창성지(甲倉城址)

■시대 : 조선시대 ■유형 : 국방유적-진보돈 ■소재지 : 강화읍 갑곶리 갑곶지 1019 일원



갑창성 북벽 잔존 구간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장화리 696 일대갑창성은, 『속수증보강도지(續修增補江都誌)』를 살펴보면 1684년(숙종 10)에 강화유수 윤해가 석축으로 처음 쌓았다고 전해지며, 1765년(영조 41)에 그 석재로써 외성을 보충하는 데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다. 성곽의 구조와 치폐에 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제물진, 갑곶돈대 등의 중요 시설들이 이 성내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물진의 방어를 위한 성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구(舊)강화역사관을 둘러싸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성의 전체 둘레는 908m로 보고된 바 있다.

고목근현 고읍성(古邑城)

- 시대 : 조선시대 ■유형 : 국방유적-진보돈
- 소재지 : 교동면 고구리 고읍리 283-1 일대

교동 화개산 북쪽의 고구리에 위치하고 있는 성곽으로 조선후기 현재의 교동읍성으로 교동부가 이전하기 전의 읍성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성곽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읍성의 이전과 축조 내력을 알 수 있는 기록도 남아 있지 않아 지금으로서는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고읍

성이 자리한 곳은 남으로는 화개산, 북동쪽은 해발 80m의 나지막한 산이 자리 잡고 있어 서쪽으로 개방된 지형이다. 둘레는 1,171m이고, 평면형태는 장방형을 이루



고구리 고목근현 고읍성 서벽

고 있다. 성벽은 토축과 석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석축은 북벽의 일부 구간에서만 확인된다. 성의 내부에는 관아 터와 연못지 등이 확인된다.

연촌 석축유구(石築遺構)

- 시대 : 조선시대 ■유형 : 국방유적-진보돈 ■소재지 : 내가면 고천리 연촌 산 84임

연촌 건물지3의 남서쪽 약 50여m 아래에서 성격 미상의 석축유구 1기가 확인되었다. 이곳은 계곡사이에 형성된 독립구릉으로 석축은 서쪽사면 하단부에서 약 10여m 정도 계속되었다. 석축에 사용된 석재는 할석으로 크기는 대략 30~50cm이며, 허튼층쌓기로 이루어졌다. 유구는 대부분 붕괴된 상태이며, 잔존하는 최고 높이가 약 1m 정도이다. 구릉상에는 현재 민묘가 조성되어 있으나 석축유구와는 별개의 시기로 판단된다.

정창성지(井倉城址)

- 시대 : 조선시대 ■유형 : 국방유적-진보돈 ■소재지 : 내가면 외포리 대정626 일대

강화 외포리에 위치하는 정창성은 갑창성과 마찬가지로 이곳에 설치되었던 정보보의 방어를 위한 목적으로 축조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축조시점과 구조에 대해서는 관련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정창성지 서북벽

없다. 다만 『강화부지(江華府誌)』(1783) 하권 고적 정포성조에 ‘예전에는 성이 있었다. 지금은 단지 웅성만이 있을 뿐이고 지금은 진을 설치했다.’는 기록을 보아 이 시기에 정창성의 기능은 상실되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성곽의 둘레는 약 1,090m로 추정되고, 현재는 동벽과 북벽의 토성만이 잔존해 있다. 『문화유적총람(文化遺蹟總覽)』上에는 ‘영조 28년(1752)에 조관빈이 창고를 헐어 그 재목으로 진홀고를 지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기록으로 미루어 볼 때, 정창성은 정포보를 방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목적과 동시에 진홀고를 방비하고자 축조되었던 시설물이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하음산성지(河陰山城址)

■시대 : 조선시대 ■유형 : 국방유적-진보돈 ■소재지 : 하점면 신봉리 산 63 일대

하음산성은 강화읍 서쪽에 자리한 봉천산 정상과 봉천대를 둘러싸고 있는 총길이 290m 가량의 소규모 테뫼식 산성으로 동, 서, 북면은 급한 경사를 이루고 있고, 남면은 비교적 완만하여 등산로가 있다. 남벽은 길이가

20m, 높이 80cm로 5단 내외이며 보충한 흔적이 있다. 서벽은 3~4 곳에서 부분적으로만 석축이 발견되며 수직 쌓기를 하였다. 봉천산 정상부의 봉천대는 고려시대 하음 봉씨의 시



하음산성

조 봉우의 5대손인 봉천우가 선조를 기념하기 위해 쌓았다고 전해진다. 현재 봉천대는 동서 9m, 남북 8.3m, 높이 5.5m로 윗면이 아랫면보다 좁은 사다리꼴 형태이다. 하음산성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어 정확히 언제 축조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성곽 주변에서 통일신라~고려시대의 기와편과 토기편들이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최소한 통일신라시대에는 산성이 존재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산성이 위치한 봉천산은 남쪽의 고려산과 함께 강화도 서북방면에서 강도로 연결되는 교통로 상에 위치하고 있어 고려시대 주요한 방어시설로 역할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혈구진성(穴口鎭城)

■시대 : 조선시대 ■유형 : 국방유적-진보돈 ■소재지 : 불은면 삼성리 일원

혈구진성은 혈구산 정상을 포함하여 5개의 산봉우리를 타고 내려와 삼성리 일대를 감싸 안은 형태로 총길이는 약 8.7km 정도이다. 진성의 구조는 평지는 토루로 되어 있으며 능선에는 석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토루는 폭 6~7m, 높이 1.2~2m가량이며, 석축은 폭 1~2m, 높이 0.6~0.8m 내외로 산돌을 이용해 4~5단 가량 쌓았다. 혈구진은 844년(문성왕 6) 8월에 설치되었다. 설치목적이나 기능에 대해서는 설치 이후 관련 기록이 없어 자



혈구진성의 석축 성벽 붕괴 구간(인천시립박물관)

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그러나 혈구진이 782년(선덕왕 3)에 설치된 패강진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패강진의 방어기능을 배후에서 보조하는 역할과 함께 예성강, 임진강, 한강유역으로 진입

하는 입구에 위치함으로써 이 유역을 방어하는 역할도 수행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혈구진성은 혈구산 일대의 본성과 남동쪽의 익성으로 구분되는데, 본성의 경우 안양대학교 좌측의 삼성초등학교가 동문 터로 추정되며, 동문 터에서 1.5km 정도 떨어진 불은면과 양도면의 접경지역에 위치한 농업기술센터가 서문 터로 추정되고 있다. 이 동문 터와 서문 터를 연결하는 지방도로의 북쪽은 산성이고, 남쪽은 평지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익성은 삼동암리의 야산을 경계로 그 동쪽으로 화도돈대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고려산성(高麗山城)

■시대 : 조선시대 ■유형 : 국방유적-진보돈 ■소재지 : 하점면 부근리 산 152 일대

고려산성은 강화읍 서쪽에 솟아있는 고려산(436.6m)의 정상부와 북쪽 계곡을 감싸 안고 있는 포곡식 산성이다. 고려산은 강화도 북부지방 중심에 우뚝 솟은 산으로, 동쪽으로는 강화읍이 위치하고 남쪽으로는 퇴모산과 혈구산이 가까이 마주하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하점면 일대의 넓은 농경지를 두고 봉천산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지세로 보아 고려산은 서쪽으로부터



고려산성 북벽의 현재 잔존 상태

의 공격에서 강화읍을 방어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강화읍이 북쪽이나 동쪽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시에는 피난하면서 방어를 시도해볼 수 있는 지형이다. 고려산성은 성곽의 자세한 노선과 구간별 상태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도축과 석축이 혼용된 산성으로 파악되며, 둘레는 1,190m 가량이다. 현재 고려산 정상부에는 군사시설이 들어서 있어 성곽의 대부분이 훼손된 상태이며, 계곡 아랫부분에 높이 1m 내외의 석축이 잔존하고 있고, 이외 구간에서는 낮은 단의 석축 열과 그 주위로 흘러내린 토축이 일부 관찰된다. 산성의 내외부에는 예부터 전해오는 오련지로 추정되는 우물지들이 확인된다.

말도요망대(鎭島要望臺)

■시대 : 조선시대 ■유형 : 국방유적-진보돈 ■소재지 : 서도면 말도리 산 68-1

말도요망대는 서도면 말도리 산 68-1번지에 위치하고 있지만, 현재 국방상 민간인 출입이 어려운 지역이다. 이 요망대는 말도항에서 약 20여분 정

도 떨어져 있으며, 해발 110m의 산 정상에 위치하고 있다. 요망대가 위치한 곳은 동쪽으로는 불음도, 주문도, 야차도, 서쪽으로는 서해, 북쪽으로는 황해도 연백군 등 서해 전반을 조망할 수 있는 최적지이다.

어유정 요망대(魚遊井 要望臺)

■시대 : 조선시대 ■유형 : 국방유적-진보돈 ■소재지 : 삼산면 매음리 어류정 산 401

어류정도의 탑재마을 가장 남쪽의 야산 정상(해발 52m)에 위치한다. 이곳은 일대의 바다가 조망되는 곳이다. 정확한 형태를 알 수 없지만 40~50cm의 큰 할석을 쌓아 방형의 담을 만든 것으로 보이고, 현재는 석재들이 무너져 있다. 현재 남아 있는 쌓기의 높이는 1m 내외이고, 유구의 폭은 가로, 세로 각각 4.5m이다.

불음도요망대(淸音島要望臺)

■시대 : 조선시대 ■유형 : 국방유적-진보돈 ■소재지 : 서도면 불음도리 산 7-21

불음도요망대는 서도면 불음도리 산 7-21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요망대는 불음도의 최북단 봉화산 정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가공하지 않은 크고 작은 자연석을 이용하여 축조하였다. 정상부에는 연조로 추정되는 곳이 2개가 있는데, 각각의 지름이 2.5m, 2.9m이며, 이것을 합한 둘레는 13.2m이다.

수정산 봉수대(水晶山 烽燧臺)

■시대 : 조선시대 ■유형 : 교통통신유적-봉수 ■소재지 : 교동면 난정리 산 101 일대

수정산(해발 100m)은 교동면의 서남부에 자리하는 낮은 산으로, 북서에서 남동으로 뻗어 난정리 일대와 서한리 일대를 가로막는 산지이다. 산 정상부에는 능선을 따라 동서 25m, 남북 10m 범위 내에 봉수대 시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위에는 최근에 마련한 인공시설물이 있고, 일

부 석축이 잔존할 뿐 유구의 확인은 불가능하다.

진강산 봉수대(鎭江山 烽燧臺)

■시대 : 조선시대 ■유형 : 교통통신유적-봉수 ■소재지 : 양도면 삼흥리 산 39

강화 진강산(443.1m) 정상부에 자리하고 있는 봉수대는 강화지역 봉수 가운데 가장 높은 위치에 있으며, 동쪽으로는 대모산 봉수와, 서쪽으로는 망산 봉수와 연결된다. 유적은 북쪽으로 퇴모산·혈구산의 산지와 마주하고, 남쪽으로 조산리, 문산리, 길정리의 넓은 지역을 조망할 수 있는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또한 봉수의 위치는 강화도 남단의 강화만을 돌아 삼산도와 어유정도 및 서도 사이에 빠져 들어오는 외적을 감시할 수 있는 요충지에 설치되어 있다.

남장대 남산봉수대(南將臺 南山烽燧臺)

■시대 : 조선시대 ■유형 : 국방유적-산성 ■소재지 : 강화읍 신문리 681-3

장대는 전쟁 또는 군사훈련 시에 성내의 군사들을 지휘하기 위해 대장이 자리하는 누대(樓臺)로 강화산성에는 북장대와 남장대 2개의 장대가 있던 것으로 전한다. 남장대는 강화 진무영(鎭撫營)이 군사를 열병하는 지휘소였던 것으로 전하며 고지도에 장인대(丈人臺)라는 표기도 확인된다. 남장대에 설치되었던 건물의 정확한 규모와 형태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고지도에 묘사된 바에 따르면 정면 3칸의 규모였던 것으로 보인다. 남장대 누각은 1866년(고종 3) 병인양요 당시 허물어진 것을 개축하였으나, 현재는 도괴되어 남아 있지 않다. 남장대 터에 대한 조사 결과, 이곳에서 건물지 2개소와 용도미상의 유구 1기가 발견되었다. 건물지 유구는 자연암반 위에 단을 이루어 조성되었는데, 현재는 4단까지 확인되고 있다. 남장대 터에서 서쪽으로 약 30m 떨어진 곳에 장방형 형태로 석재와 전돌을 세워 돌린 흔적이 조사되었

는데 남산봉수대의 흔적으로 판단되고 있다. 남산봉수는 하음산 봉수와 연결되어 통진현 남산(지금의 김포)과 연결되는 강화도의 마지막 봉수였고, 현재 봉수시설은 육안상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남산 봉수대(南山 烽燧臺)

■시대 : 조선시대 ■유형 : 교통통신유적-봉수 ■소재지 : 강화읍 신문리 681-3

읍내리 남산포를 둘러싸고 있는 배산인 남산에 위치한다. 사신당에서 서북방향으로 약 200m를 더 가면 남산의 정상부에 유적이 위치한다. 현재는 인공시설물의 설치로 인해 원형을 추정할 수 없다. 『속수증보강도지(續修增補江都志)』 제8장 제3절 봉수요망대 진망산 봉수조에 ‘화개산 서남쪽에 위치하는데 장봉에서 시작하여 망도에 전하고 다음으로 말도에 전하여 본산에 내응해서 단지 구교동 본영에 알렸다.’란 기록으로 보아 교동 남서에 위치하는 장봉, 불음도, 말도 등의 작은 섬과 간봉(間烽)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대모산 봉수지(大母山 烽燧址)

■시대 : 조선시대 ■유형 : 교통통신유적-봉수 ■소재지 : 불은면 신현리 산 113-6임



대모산 봉수대 내 잔존한 연조

유적은 강화군 불은면의 대모산 정상(해발 84.2m)에 위치한다. 대모산 봉수는 동쪽의 김포 수안산 봉수로부터 연락을 받아서 서쪽의 진강산 봉수로 연결하는 역할을 하였던 곳

이다. 김포와 마주하는 가장 동쪽에 있는 대모산은 그리 높지는 않지만, 주변이 완만한 구릉성 평지를 이루고 있어 일대를 조망하기에 적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봉구산 봉수지(烽丘山 烽燧址)

■시대 : 조선시대 ■유형 : 교통통신유적-봉수 ■소재지 : 서도면 주문도리 산 132

봉구산 봉수는 서도면 산 132번지 봉구산 정상(해발 146.9m)에 위치하고 있다. 정상에는 동서 10m 사이에 연조로 추정되는 구덩이(직경 4m, 높이 1.8m) 2개 있었다고 하지만 이동통신 안테나가 설치되면서 그나마 남아 있던 유구마저 파손되어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선두포구(船頭浦口)

■시대 : 조선시대 ■유형 : 교통통신유적-기타 ■소재지 : 화도면 사기리 119-24 일대

현재 선두포 비석군이 있는 위치에서 선두포 수문지가 있는 곳까지 약 400m 길이의 독이다. 선두포는 1706년(숙종 32) 왕의 윤허를 받아 강화유수 민진원이 1706년부터 다음해까지 독을 쌓아 막은 것으로, 가릉포구와 함께 축조하여 화도면과 양도면을 연결시킨 대규모 토목사업이었다.

길상장(吉祥場)

■시대 : 조선시대 ■유형 : 유적-목장 ■소재지 : 길상면 장흥리 일원

유적은 장흥리와 초지리에 걸쳐 해발 60~100m내외의 완만한 구릉성 산지에 위치하는데 고지도에서도 목장지로 표기되고 있다. 목장의 경계는 길상배수지 입구에서 능선 정상부를 따라 서남쪽으로 이어져 장흥 제2저수지 부근까지 이어져 내려온다. 현재 일부구간의 토루만 확인되기 때문에 목장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지형 조건을 고려했을 때 현

재 장흥 제1저수지가 위치한 능선 남쪽이 목장 안쪽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목장의 경계는 대부분 토루로 이루어져 있으나 남동쪽 경사면의 일부 구간에는 석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부 묘지가 조성되면서 파괴된 구간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보존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현재 남아 있는 토루의 길이는 약 1.3km이다.

북일장

■시대 : 조선시대 ■유형 : 유적-목장 ■소재지 : 화도면 내리 일원

유적은 마니산의 한 줄기인 상봉의 동북쪽에 자리한다. 목장의 북쪽 경계는 내리 마을 부근에 일부가 남아 있고 서쪽으로는 마을에서 상봉의 정상으로 이어지는 능선을 따라 정상부까지 이어진다. 남쪽경계는 능선 정상부를 따라 연결되다가 상봉과 마니산 사이를 관통하는 도로와 평행하게 북쪽으로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목장의 동쪽 경계를 이룬다. 목장의 북쪽 경계가 불분명한 상태이지만 가운데 계곡부를 중심으로 장타원형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 북일장은 완만한 구릉에 위치한 북쪽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석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북일장의 토루와 석렬은 등산로에 위치하고 있어 상당부분이 훼손된 상태로 희미한 흔적만 확인되는 경우가 많다. 현재 남아 있는 토루와 석축은 약 1.9km 가량이다.

진강장

■시대 : 조선시대 ■유형 : 유적-목장 ■소재지 : 양도면 진강산, 덕정산 일원

유적은 강화군 양도면에 위치한 진강산의 서북쪽과 덕정산의 동쪽에 위치한다. 이곳은 조선 효종대 명마인 벌대총의 산지로 널리 알려져 있는 목장으로 지금도 현지 주민들이 이곳을 ‘벌대총’이라고 부른다. 목장의 동쪽과 북쪽 경계가 확인되지 않아 전체적인 규모와 평면 형태를 알 수는 없지만



진강장 석축 목장 성벽 구간 모습(인천시립박물관)

진강산과 덕정산 사이에 형성된 넓고 편평한 계곡(삼흥리)을 중심으로 사방에서 감싸 안은 형세를 취하고 있다. 진강장 동쪽의 경우 해당지역에 군부대 포사격장이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조사가 불가능해 그 양상을 확인할 수 없으며, 현재 확인된 목장경계는 대략 3km정도이다. 진

강장의 경계는 얇은 토루나 막돌을 이용해 담장과 같이 쌓은 형태가 혼용되어 사용되었는데 서쪽 경계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석축으로 이루어졌다. 석렬은 30~70cm 가량의 산돌을 이용해 막쌓기로 축조되었다. 능선 하단부나 완만한 경사면과 같이 편평한 지형에는 토루를 쌓았고, 능선의 경사면에서는 모두 석축을 조성하였다.

비지정 국방 유적 현황

구분	명칭	소재지	시대	비고
1	염주돈대	강화군 강화읍 갑곶리 산 2	조선	
2	석우돈대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 산 2-1	조선	
3	소우돈대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 425	조선	
4	광성돈대	강화군 불은면 덕성리 23-1	조선	
5	손석항돈대	강화군 불은면 덕성리 53-1	조선	
6	용두돈대	강화군 불은면 덕성리 산 124	조선	
7	동검북돈대	강화군 길상면 동검리 산 70	조선	
8	송곶돈대	강화군 화도면 동막리 182	조선	
9	구등곶돈대	강화군 양사면 북성리 996	조선	
10	불장돈대	강화군 양사면 북성리 산 42	조선	
11	작성돈대	강화군 양사면 북성리 산 633	조선	
12	초루돈대	강화군 양사면 북성리 산 47	조선	
13	갈곶돈대	강화군 화도면 사기리 산 47-3	조선	
14	양암돈대	강화군 길상면 선두리 840	조선	

구분	명칭	소재지	시대	비고
15	속룡돈대	강화군 송해면 송뢰리 534 일대	조선	
16	가리산돈대	강화군 선원면 신정리 더리미 344	조선	
17	용당돈대	강화군 선원면 연리 1	조선	
18	오두돈대	강화군 불은면 오두리 5대	조선	
19	옥창돈대	강화군 강화읍 옥림리 옥개 125	조선	
20	망해돈대	강화군 강화읍 용정리 새말 산 17	조선	
21	제승돈대	강화군 강화읍 용정리 산 76	조선	
22	월곶돈대	강화군 강화읍 월곶리 월곶 242 일대	조선	
23	광암돈대	강화군 양사면 인화리 산 32	조선	
24	섬암돈대	강화군 길상면 장흥리 서남촌 272	조선	
25	좌강돈대	강화군 선원면 지산리 용진 215	조선	
26	의두돈대	강화군 양사면 철산리 산 1	조선	
27	천진돈대	강화군 양사면 철산리 203	조선	
28	철북돈대	강화군 양사면 철산리 35	조선	
29	석각돈대	강화군 내가면 황정리 산 171	조선	
30	택지돈대	강화군 길상면 선두리 954	조선	
31	빙현돈대지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 박촌 산 378 · 377-1전	조선	
32	낙성돈대지	강화군 강화읍 대산리 242	조선	
33	적북돈대지	강화군 강화읍 대산리 1	조선	
34	휴암돈대지	강화군 강화읍 월곶리 산 11	조선	
35	인화돈대지	강화군 양사면 인화리 인화성 991	조선	
36	장자평돈대지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장자말 1074	조선	
37	남장포대	강화군 불은면 덕성리 846	조선	
38	북성리 포대지	강화군 양사면 북성리 1202-2	조선	
39	사망금포대지	강화군 선원면 연리 2-2답	조선	
40	인화포대지	강화군 양사면 인화리 인화성 일대	조선	
41	진남포대지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377	조선	
42	황산포대지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황산도 산 80	조선	
43	갯곶지 제물진지	강화군 강화읍 갯곶리 갯곶지 1019 일대	조선	
44	월곶진지	강화군 강화읍 월곶리 월곶 242 일대	조선	
45	주문진지	강화군 서도면 주문도리 600	조선	
46	선두포 선두보지	강화군 길상면 선두리 460 일대	조선	
47	인화보지	강화군 양사면 인화리 인화성 산 504 일대	조선	
48	장곶보지	강화군 화도면 장화리 696 일대	조선	
49	갯곶지 갯창성지	강화군 강화읍 갯곶리 갯곶지 1019 일원	조선	
50	고목근현고읍성	강화군 교동면 고구리 고읍리 283-1 일대	미상	
51	연촌 석축유구	강화군 내가면 고천리 연촌 산 84임	미상	

구분	명칭	소재지	시대	비고
52	정창성지	강화군 내가면 외포리 대정 626 일대	조선	
53	하음산성지	강화군 하점면 신봉리 산 63 일대	고려	
54	혈구진성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 일원	삼국	
55	고려산성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 산 152 일대	고려	
56	말도요망대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 68-1	조선	
57	어유정 요망대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어유정 산 401	조선	
58	불음도요망대	강화군 서도면 불음도리 산 7-21	조선	
59	수정산 봉수대	강화군 교동면 난정리 산 101 일대	조선	
60	진강산 봉수대	강화군 양도면 삼흥리 산 39	조선	
61	남장대와 남산봉수대	강화군 강화읍 신문리 681-3	조선	
62	남산 봉수대	강화군 교동면 읍내리 571-1	조선	
63	대모산 봉수지	강화군 불은면 신현리 산 113-6임	조선	
64	봉구산 봉수지	강화군 서도면 주문도리 산 132	조선	
65	선두포구	강화군 화도면 사기리 119-24 일대	조선	
66	길상장	강화군 길상면 장흥리 일원	미상	
67	북일장	강화군 화도면 내리 일원	미상	
68	진강장	강화군 양도면 진강산, 덕정산 일원	조선	

금석문

이안눌 선정비(李安訥 善政碑)

■시대 : 조선시대 ■유형 : 비갈-선정비 ■소재지 : 하점면 이강리 347-2임

유적은 심은미술관 부근의 낮은 야산에 위치하고 있다. 최하단부가 낙엽과 수풀에 쌓여서 정확하지는 않으나 비석의 크기는 대략 가로 60cm, 세로 약 110cm로 계측된다. 비문의 뒷부분은 마모되어 전혀 알아볼 수 없고 정면도 일부만 확인되는데,



이안눌 선정비(문화재청)

‘○수이공안눌○○덕○민○은지○(○守李公安訥○○德○民○恩之○)’라고 음각되어 있다. 이 비는 강화유수로 세 번이나 재직한 이안눌의 선정비이다. 후세 사람들이 비가 서 있는 곳이라 하여 ‘비 선머리’로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황원우천씨 기념비(黃原祐天氏 紀念碑)

■시대 : 일제강점기 ■유형 : 비갈-기념비 ■소재지 : 하점면 부근리 사직골 485전

부근리 사직골 보리사 맞은편에 유적이 위치하고 있는데, 정면에는 ‘황원우천씨 기념비(黃原祐天氏 紀念碑)’라고 쓰여 있다. 황원선생은 강화 하점면 부근리 출생으로 경성중앙학교를 졸업하였다. 1933년 10월 27일 창립된 강화산업조합의 이사로 황원선생이 취임하여 이룬 성과들을 기념하기 위하여 1942년에 세워진 기념비이다. 비(碑)는 비좌 위에 비신이 올려진 형태로 서 비좌의 높이와 너비는 각각 29cm, 66cm이고, 비신의 높이와 너비는 각각 125cm, 36cm이다.

황선신 정문(黃善身 旌門)

■시대 : 조선 ■유형 : 비갈-충효비 ■소재지 : 강화읍 대산리 126-2



황선신 정문(문화재청)

북산의 강화산성 북문에서 북쪽으로 약 200m를 가면 좌측으로 황선신 정문이 위치해 있다. 정문이 위치한 곳은 송학마을의 북산 북쪽 말단부 아래의 밭이다. 우측 옆에 송악사지가 연결해 있다. 황선신(?-1637)은 평해 황씨로, 무과에 급제하여 군수(郡守)와 훈정(訓正)을 역

임했다. 1637년 병자호란 당시 호병(胡兵)에게 강화성이 함락될 때 중군(中軍)으로서 패잔병을 이끌고 갑곶진을 수비하다가 전사했다. 당시 세자였던 효종이 그 죽음을 목격하고 특지로 병조참의를 제수하여 정문을 세우고 배향하게 하여 ‘주란헌’이라 하였다. 사당 제실의 상면에 걸려 있는 정문에는 ‘충신 어모장군훈련원정증자헌대부병조판서검지의금부훈련원사황선신지문 승정기원후4회갑일축3월일 개건(忠臣 禦侮將軍訓鍊院正贈資憲大夫兵曹判書兼知義禁府訓鍊院使黃善身之門 崇禎紀元後四回甲一丑三月日 改建)’이라고 쓰인 현판이 있다. 정문의 높이는 187cm, 폭은 160cm이고, 현판의 크기는 높이 33.5cm, 홍살의 높이는 25cm이다.

차명세 정문(車命世 旌門)

■시대 : 조선 ■유형 : 비갈-충효비 ■소재지 : 내가면 오상리 구주머리 515전

황대곤 사당 가기 전인 소로 주변에 위치하고 있다. 정문은 앞이 막힌 홍살문 안에 있다. 정문에는 ‘충신 증통훈대부사헌부감찰 증가선대부병조판동지의금부사차명세지문(忠臣 贈通訓大夫司憲府監察 贈嘉善大夫兵曹判同知義禁府事車命世之門)’이라 쓰여 있다. 현판은 정면·측면 각각 1칸으로 된 건물에 있는데, 입구를 막아 놓아서 출입이 불가능하다.

차명세는 1636년 병자호란 당시 정병(正兵)으로서 삼충사 황선신 등과 같이 갑곶진에서 분전하다 전사하였다.

황경례공 정려(黃景禮公 旌閭)

■시대 : 조선 ■유형 : 비갈-충효비 ■소재지 : 교동면 남갑리 236-2

남갑리 마을입구에서 좌측 소로를 따라 약 50여m 지점인 소로 우측 변에 유적이 위치한다.

1624년 이괄의 난 당시 반란군에게 잡혔으나, 이에 굴하지 않고 순절한



황경례 정려

황경례의 공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정려이다. 그의 후손 양신이 왕에게 진언하여 정문을 하사받았다. 정려는 근세에 지은 시멘트 블록건물 내에 모셔져 있다. 정려의 크기는 전체 높이 190cm, 폭 148cm, 현판의 폭

132cm, 높이 34cm이며, 현판에는 ‘충신보공장군무신겸선전관증병조참 의황 경례지문 상지12년11월일 명정여(忠臣保功將軍武臣兼宣傳官贈兵曹 議黃景禮之門 上之十二年十一月日 命旌閭)’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정려 앞에는 1989년에 그의 후손들이 세운 ‘충신황경례공정려실적비(忠臣黃京禮公旌閭實績碑)’가 있어 정려와 함께 후손들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청해이씨 효자문(淸海李氏 孝子門)

■시대 : 조선 ■유형 : 비갈-충효비 ■소재지 : 하점면 삼거리 923

한 칸짜리 사당 앞에 세워놓은 이문위의 효자문으로, 천춘2 고인돌군의 중심 가택에 유적이 위치하고 있다. 1624년(인조 2) 본군 부윤 부친인 이중로가 강은(江隱)의 방어사로 적을 막다 패전하여 투신자살하자, 평소 부친에게 숙원을 지녔던 이수백이란 자가 시체를 인양하여 마구 박해하였는데, 이를 본 이문위는 형 문웅과 함께 복수하였다고 한다. 이에 궁내에서 벌을 주지 않고 무과에 올려 충청병사로 벼슬을 내렸으며 죽은 후에 왕이 제문과 함께 정문을 세웠다.

문의 높이는 180cm, 폭은 200cm이고, 현판의 높이는 39cm이다. 현판에는 ‘정려 효자절충장군수충청도병마절도사이문위지문상지7년계묘8월일(旌閭孝子折衝將軍守忠淸道兵馬節度使李文偉之門上之七年癸卯八月日)’이라는

명문이 있다.

한산이씨 효자문(韓山李氏 孝子門)

■시대 : 조선 ■유형 : 비갈-충효비 ■소재지 : 하점면 삼거리 139-5임

유적은 하점면 삼거리에 위치하는 것으로, 천춘2 고인돌군이 있는 회나무에서 좌측으로 약 200m 떨어진 임야에 있다. 이 효자문은 목은 이색의 후손인 이면항에게 고종이 내린 것이다. 이면항의 본관은 한산으로 어려서부터 효행이 지극하여 나이 20세에 부친상을 당하자 3년을 시묘하였고, 병이 깊은 모친을 위해 하늘에 기도하여 마침내 소생케 하였다.

1888년(고종 25)에 호조참판 겸 동지의금부사를 제수하고 효자비가 내려졌다. 또한 이면항의 처 영암박씨 역시 정부인을 추증하고 효부정문이 하사되었다고 전한다. 현재 효자문을 보호하는 전각은 남아 있지만, 내부 효자문은 과거 태풍으로 인해 훼손되어 있다.

버드러지 주동량 효자문(朱東良 孝子門)

■시대 : 조선 ■유형 : 비갈-충효비 ■소재지 : 화도면 장화리 버드러지 298

유적은 장화리교회 뒤쪽에 위치하고 있다. 좌우에 각각 효자문과 효부문이 서 있다. 주동량은 별판의 증식을 받은 정혁의 아들로 음서로 오위장이 되었다. 9세 때 부친을 잃고 모친을 봉양하다가 모친이 세상을 떠나자 3년을 하루같이 시묘하는 등 효성이 지극하여 이에 효자문을 세우게 하였다 한다.

현판에는 ‘효자증가선대부병조참판겸동지의금부사신행가춘대부동지중추오위장주동량지문 상지22년 을유2월일입(孝子贈嘉善大夫兵曹參判兼同知義禁府使辛行嘉春大夫同知中樞五衛將朱東良之門 上之二十二年 乙酉二月日立)’이라 쓰여 있다. 정문의 크기는 높이 205cm, 폭 210cm, 현판의 크기는 가로 210cm, 세로 36cm이며, 홍살의 높이는 40cm이다.

밀양박씨 효부문(密陽朴氏 孝婦門)

■시대 : 조선 ■유형 : 비갈-충효비 ■소재지 : 화도면 장화리 버드러지 298

주동량 효자문 맞은편에 세워져 있다. 주동량의 모친인 밀양박씨의 정문으로 밀양박씨 또한 생전에 효성이 지극하여 효부정문을 세우게 하였다고 한다. 효부문 현판에는 ‘효부증가대부공조참판겸오위도총부부총관주정형 처증정부인밀양박씨지문 상지22 을유2월일립(孝婦贈嘉大夫工曹參判兼五衛都摠府副摠管朱淳嫻妻贈貞夫人密陽朴氏之門 上之二十二 乙酉二月日立)’이라 쓰여 있다. 정문의 크기는 주동량 효자문과 똑같이 높이 205cm, 폭 210cm, 현판의 크기는 가로 210cm, 세로 36cm이며, 홍살의 높이는 40cm이다.

평해황씨 효부정문(平海黃氏 孝婦旌門)

■시대 : 일제강점기 ■유형 : 비갈-충효비 ■소재지 : 불은면 두운리 698-1

영모사 부근의 소로 끝에 효부정문이 위치하고 있다. 정문은 한 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판에는 ‘효부 통정대부고계인처 숙부인평해황씨지묘(孝婦 通政大夫高啓寅妻 淑夫人平海黃氏之墓)’라고 쓰여 있다. 효부 평해황씨(1787-?)는 남편 고계인(1786-?)과 결혼하였으나 집안이 빈한하여 삶바느질로 연명하였다. 시부모가 노환으로 늙자 어려운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정성껏 공양하였으나, 시부모가 돌아가시자 원통하여 가사를 팔아 3년 상을 지냈다. 유림에서는 평해황씨의 이와 같은 효행을 여러 번 추천하여 결국 1928년 효부로 표창 받아 효부정문을 세우게 되었다. 평해황씨의 묘소는 강화군 불은면 영모사 서쪽에 있으며 1989년 8월 퇴락한 정문의 한식 맞배지붕인 정면 1칸, 측면 1칸 건물을 복원하였다.

열녀각(烈女閣)

■시대 : 조선 ■유형 : 비갈-충효비 ■소재지 : 송해면 당산리 산 68

열녀각은 당산리 상도촌 산의 중턱에서 유적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열녀각은 조선 고종대 남편이 죽자 3년 동안 시묘살이를 한 후, 같은 날 같은 시에 자결한 이씨(李氏)를 기리기 위해 세운 정려이다. 산 중턱에 위치한 열녀각은 삼면을 시멘트 블록으로 막아 만들었으며, 정려는 그 안에 기대어져 있다. 정려의 크기는 높이 173cm, 길이 184cm이며, 현판의 폭은 40cm이다. 현판에는 ‘학생허진처유인전의이씨열녀지문 광무구년을사삼월일 명정여(學生許璉妻孺人全義李氏烈女之門 光武九年乙巳三月日 命旌閭)’라고 쓰여 있다.

참성단 금표(塹城壇 禁表)

■시대 : 조선 ■유형 : 비갈-기타비 ■소재지 : 화도면 문산리 산 66

문산리 마을에서 천제암궁지를 오르는 산길 바로 우측 바위에 새겨진 각자(刻字)로 해발 100m 지점에 위치한다. 바위 중간에 가로 55cm, 세로 61cm의 면적에 ‘금표 갑자8월 입(禁表 甲子八月立)’이라 각인되어 있다. 금표는 이곳이 신성한 지역임을 알리고, 마니산에서 벌채를 금하고, 관(官)에서 양목(養木)하는 일을 주관했던 표시이다.

함허동천 각자(涵虛洞天 刻字)

■시대 : 조선 ■유형 : 비갈-기타비 ■소재지 : 화도면 사기리 산 58

함허동천 야영장 매표소에서 포장된 산길을 따라 오르면 두 갈래 길이 나오는데, 좌측 길로 약 700m 오르면 왼편 계곡의 암반에 함허동천이 있다.



함허동천의 각자

함허동천은 바위 바닥면에 함허대사가 각자(刻字)한 예서체의 ‘함허동천(涵虛洞天)’이 새겨져 있고, 160m 아래에 ‘산(山)’자가 새겨져 있다. 함허동천의 유래는 정수사를 중창한 함허대사가 수도하였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강화전쟁박물관 비석군

■시대 : 조선 ■유형 : 비갈-기타비 ■소재지 : 강화읍 갑곶리 1025



강화전쟁박물관 내 비석군



비석군 내 금표 비석

현재 강화전쟁박물관 앞마당에 68기의 비석이 있다. 이들 비석은 갑곶리 일대에 산재해 있던 비석들로서 1977년 주변정화사업에 의해 이곳으로 이전되어 관리되고 있다. 비석의 대부분은 조선시대 강화도에 부임한 유수를 비롯한 관리들의 치적을 기록한 선정비 혹은 불망비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외 하마비, 사적비 등도 포함되어 있다. 개별 비석을 그 크기와 명문을 중심으로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명문	크기	건립연대
守令以下皆下馬	비신 높이 132cm, 폭 45cm, 두께 19cm, 비좌 높이 17cm, 폭 61cm, 두께 40cm	1723년
行判官李公秀殷永世不忘碑	비신 높이 113cm, 폭 38cm, 두께 15cm, 비좌 높이 19cm, 폭 67cm, 두께 48cm	1887년
行留守兼鎮撫使趙公然昌球善政永世不忘碑	비신 높이 126cm, 폭 49cm, 두께 30cm, 비좌 높이 15cm, 폭 88cm, 두께 66cm	1855년

명문	크기	건립연대
留守兼鎮撫使鄭公志儉善政鎮卒永世不忘碑	비신 높이 130cm, 폭 42cm, 두께 20cm, 비좌 높이 10cm, 폭 65cm, 두께 52cm	1785년
留守鄭公志儉去思碑	비신 높이 135cm, 폭 49cm, 두께 20cm	1785년
留守兼鎮撫使金公永壽愛民下士遺惠生祠碑	비신 높이 128cm, 폭 46.5cm, 두께 22cm	1879년
留守兼鎮撫使洪公遠清德愛民善政碑	비신 높이 130cm, 폭 52cm, 두께 25cm	1843년
中軍李公基赫無恤軍民去思碑	비신 높이 130cm, 폭 43cm, 두께 20cm	1880년
京江主人李公福賢永世不忘碑	비신 높이 131cm, 폭 44cm, 두께 24cm	1867년
鎮撫使兼留守三道統禦使金公善弼愛民善政碑	비신 높이 130cm, 폭 45cm, 두께 24cm	1880년
鎮撫使兼留守三道統禦使申公穗愛民善政碑	비신 높이 130cm, 폭 46cm, 두께 22.5cm	1880년
洪進士斗森氏施惠記念碑	비신 높이 89cm, 폭 32cm, 두께 14.5cm	-
留守李公時清德善政碑	비신 높이 163cm, 폭 83cm, 두께 25.5cm	1651년
鎮撫使兼留守三道統禦使鄭公岐源清德愛民永世不忘碑	비신 높이 166cm, 폭 60.5cm, 두께 24cm	1872년
經歷趙公明寅愛民善政碑	비신 높이 161cm, 폭 54cm, 두께 24cm	1787년
行留守兼鎮撫使朴公永元清德愛民祛遺惠永世不忘碑	비신 높이 150cm, 폭 54.5cm, 두께 25cm	1841년
留守兼鎮撫使三道統禦使鄭公志儉清德愛民永世不忘碑	비신 높이 147cm, 폭 62.5cm, 두께 22.5cm	1787년
行留守嚴公璫遺愛碑	비신 높이 143cm, 폭 48cm, 두께 19cm	1784년
經歷徐公冕輔愛民善政碑	비신 높이 134cm, 폭 51cm, 두께 26cm	1712년
行判官李公秀殷永世不忘碑	비신 높이 133cm, 폭 40cm, 두께 21cm	1888년
留守兼鎮撫使李公選撫恤軍卒永世不忘之碑	비신 높이 125cm, 폭 65cm, 두께 23.5cm, 비좌 귀부 높이 42cm, 길이 176cm, 비좌 이수 높이 44.5cm, 폭 69cm, 두께 29cm	-
留守徐公必遠愛民善政碑	비신 높이 125cm, 폭 65cm, 두께 26cm, 비좌 귀부 높이 48cm, 길이 135cm, 비좌 이수 높이 45cm, 폭 70cm, 두께 32.5cm	-
行留守李公○善政碑	비신 높이 180cm, 폭 80cm, 두께 22cm, 비좌 높이 32cm, 폭 132cm, 두께 82cm	-
經歷李公井男善政碑	비신 높이 187cm, 폭 82cm, 두께 28cm, 비좌 높이 34cm, 폭 130cm, 두께 78cm	1634년
留守尹公履之清德善政	비신 높이 199cm, 폭 81cm, 두께 27.5cm	1634년
三忠事蹟碑	비신 높이 150cm, 폭 59cm, 두께 20.5cm	1636년
禁標 放牲畜者杖一百棄灰者杖八十	비신 높이 181cm, 폭 68cm, 두께 30cm	1703년
經歷黃公仁紀愛民善政碑	비신 높이 170cm, 폭 61cm, 두께 31.5cm, 비좌 이수 높이 60cm, 폭 104cm, 두께 74cm	1706년
行留守洪公遠雙永修城加稅萬世不忘碑	비신 높이 126cm, 폭 43cm, 두께 25cm, 비좌 이수 높이 51cm, 폭 83cm	1863년

명문	크기	건립연대
留守李公安訥永淸玉白恩愛將卒大開軍營不忘之碑	비신 높이 137cm, 폭 77cm, 두께 21cm, 비좌 이수 높이 70cm, 폭 95cm, 두께 37cm,	1651년
留守李公時白至淸至德撫恤卒永世不忘碑	비좌 귀부 높이 56cm, 폭 125cm, 두께 180cm	1651년
府尹鄭公孝成淸德善政碑	비신 높이 128cm, 폭 63cm, 두께 21cm, 비좌 이수 높이 55cm, 폭 77cm, 두께 34cm, 비좌 귀부 높이 58cm, 폭 120cm, 두께 195cm	1627년
留守兼鎮撫使趙公泰老愛民善政碑	비신 높이 186cm, 폭 75cm, 두께 22cm	1711년
留守洪公重普淸德善政永世不忘碑	비신 높이 178cm, 폭 68cm, 두께 22cm, 비좌 높이 108cm, 폭 30cm, 두께 69cm	1657년
經歷李公星徵愛民善政碑	비신 높이 214cm, 폭 80cm, 두께 27cm	1657년
留守李公曼淸德善政碑	비신 높이 212cm, 폭 85cm, 두께 28cm	1655년
行留守兼鎮撫使趙公師錫淸德善政碑	비신 높이 199cm, 폭 81cm, 두께 26cm	1682년
留守金公藎國淸德善政碑	비신 높이 172cm, 폭 65cm, 두께 23cm, 비좌 높이 28cm, 폭 112cm, 두께 60cm	1640년
行經歷李公禕善政碑	비신 높이 179cm, 폭 80cm, 두께 24cm	1647년
行留守兼鎮撫使洪公命周淸德愛民永世不忘碑	비신 높이 182cm, 폭 72cm, 두께 19cm	1841년
行留守沈公悅淸德善政碑	비신 높이 163cm, 폭 59cm, 두께 26.5cm	1628년
府使權盼善政碑	비신 높이 177cm, 폭 72cm, 두께 21cm, 비좌 높이 33cm, 폭 108cm, 두께 28cm	1613년
行府尹金公起宗淸德善政碑	비신 높이 170cm, 폭 69cm, 두께 19cm, 비좌 높이 35cm, 폭 110cm, 두께 19cm	1647년
行府尹李公安訥淸德善政碑	비신 높이 72cm, 폭 76cm, 두께 22cm, 비좌 높이 14cm, 폭 96cm, 두께 26cm	1620년
鎮撫使兼留守三道統禦使李公章濂淸德愛民永世不忘碑	비신 높이 175cm, 폭 75cm, 두께 20cm	1872년
鎮撫使兼留守三道統禦使李公容熙淸德愛民永世不忘碑	비신 높이 171cm, 폭 57.5cm, 두께 23cm, 비좌 높이 30cm, 폭 115cm, 두께 62cm	1872년
留守兼鎮撫使親軍心營外使閔公丙爽愛民善政碑	비신 높이 163cm, 폭 58cm, 두께 22cm	1889년
留守兼鎮撫使徐公箕淳永淸王潔撫恤軍民永世不忘碑	비신 높이 154cm, 폭 46cm, 두께 28cm	1841년
中軍李公仁立盡心國事撫恤卒永世不忘碑	비신 높이 158cm, 폭 59cm, 두께 26cm	—
府使黃琳善政碑	비신 높이 161cm, 폭 65cm, 두께 22cm	1572년
鎮撫使兼留守三道統禦使朴公枯源愛民永世不忘碑	비신 높이 159cm, 폭 65cm, 두께 18cm	1786년
鎮撫使兼留守三道統禦使李公容熙永世不忘碑	비신 높이 154cm, 폭 57cm, 두께 28.5cm	1873년
行留守金公鍾秀萬世不忘碑	비신 높이 141cm, 폭 49cm, 두께 25.5cm	—
留守兼鎮撫使趙公秉式遺惠望島永世不忘碑	비신 높이 115cm, 폭 49cm, 두께 17cm	1874년
鄭基雲, 金景善, 黃漢奎, 丁大彦, 金汝貞, 崔宗燁,	비신 높이 105cm, 폭 45.5cm, 두께 16.5cm	1895년

명문	크기	건립연대
申大益	비신 높이 140cm, 폭 48.5cm, 두께 23cm	1889년
留守閔公丙爽淸德愛民善政碑	비신 높이 119cm, 폭 53cm, 두께 21cm	1881년
留守兼鎮撫使李公載元淸德善政永世不忘碑	비신 높이 127cm, 폭 44cm, 두께 24cm	1897년
行郡守沈公殷澤治德善政永世不忘碑	비신 높이 129cm, 폭 49cm, 두께 22.5cm	1857년
行留守兼鎮撫使金公泳根救善政永世不忘碑	비신 높이 131cm, 폭 48.5cm, 두께 30cm	1724년
行留守兼鎮撫使崔公錫恒淸德碑	비신 높이 135cm, 폭 58cm, 두께 20cm, 비좌 높이 30cm, 폭 90cm, 두께 60cm	1880년
留守兼鎮撫使趙公秉式愛民善政碑	비신 높이 130cm, 폭 46cm, 두께 24cm	1880년
留守兼鎮撫使李公喬翼愛民善政碑	비신 높이 131cm, 폭 47.5cm, 두께 25cm	—
相國李公存秀遺惠不忘碑	비신 높이 131cm, 폭 50.5cm, 두께 24cm	—
行濟物鎮兵馬萬戶金公炳龜不忘碑	비신 높이 96cm, 폭 37cm, 두께 19cm	1887년
行判官李公秀殷愛民善政永世不忘碑	비신 높이 131cm, 폭 44cm, 두께 21cm	1785년
春秋館堂上徐公有防遺惠碑	비신 높이 141cm, 폭 47cm, 두께 19.5cm	—
留守…	비신 높이 132cm, 폭 43.5cm, 두께 18.5cm	1731년
吳宗道碑	비신 높이 157cm, 폭 72cm, 두께 15cm	

선두포 비석군(船頭浦 碑石群)

■시대 : 조선 ■유형 : 비갈-기타비 ■소재지 : 화도면 사거리 62

이 비들은 본래 길상면 선두리, 사거리 등지에 흩어져 있던 것들을 1990년 화도면 고적보존위원회에서 이곳 사거리 선두포 독 위로 옮겨왔다. 이곳에는 판독할 수 있는 5기의 비(碑)외에 일부만 남아 있는 1기를 합해서 총 6기의 비(碑)가 세워져 있다. 각각의 개략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명문 배문	크기	건립연대
行留守閔公鎮遠積德恤民永世不忘碑 崇禎紀元後再乙卯 庚寅二月日重修建閣	비신 높이 173cm, 상단 폭 54cm, 두께 29cm	1705년
船頭浦築堰始末碑 康熙四十六年	비신 높이 153cm, 상단 폭 66cm, 상단 두께 24cm	1707년
甫水門閔公舊堤/洪公新閘 今上十四年	비신 높이 97.5cm, 상단 폭 43cm, 상단 두께 24cm, 하단 두께 21cm	1863년

御使李公是遠○○稅恤民永世不忘碑 同治十二年三月日市民等位	비신 높이 127cm, 상단 폭 53cm, 하단 폭 50cm, 상단 두께 24cm, 하단 두께 22cm	1873년
繡衣使李公建昌永世不忘碑 甲申五月日洞民人位	비신 높이 101cm, 상단 폭 39cm, 하단 폭 36cm, 상단 두께 19cm	1884년
…洪先生…	비신 높이 43cm, 상단 폭 35cm, 상단 두께 20cm	

화도초교 앞 비석군(華道初校 碑石群)

■시대 : 조선/일제강점기/현대 ■유형 : 비갈-기타비 ■소재지 : 화도면 상방리

각 명현(名賢)의 치적을 기린 비석들로, 원래 화도면 내에 산재해 있던 것을 1990년 화도면 고적보존위원회에서 화도초등학교 앞 공터로 모아놓은 것이다. 총 9기의 비석이 세워져 있는데, 7기의 옛 비석과 함께 근래에 독립 유공자 김형주비 등 현대 비석 2기가 더 세워져 있다. 각각의 개략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명문 배문	크기 내용	건립연대
權元日立橋周徒碑 光武九年乙巳九月 河長丁公大哲 權公明 立橋施德永世不忘碑 光武九年乙巳九月日立 忠正公花園南陽洪翼漢毅蹟碑	비신 높이 80cm, 폭 30cm, 두께 10cm 비신 높이 117cm, 폭 43cm 두께 18.5cm	1905년 현대
行留守閔公鎮遠革龍北一永世不忘碑	비신 높이 161cm, 폭 54cm, 두께 25cm	
崇禎紀元後乙卯十一月日立 庚寅二月日重修建閣	민진원(1664-1736)은 조선후기의 문신으로 숙종비 인현왕후의 오빠이다. 1705년부터 1707년까지 강화유수를 지냈고, 1710년부터 1711년 다시 강화유수에 임명되어 선두포 축연, 세금의 조정 등 많은 업적을 남겼다. 이 비는 마니산 남쪽의 북일목장을 혁파하여 주민들에게 경작하게 했던 것을 기리기 위한 비이다.	1735년
留守閔公丙爽愛民善政永世不忘碑 光緒十六年庚寅八月日下道面立	비신 높이 152cm, 폭 49cm, 두께 25cm 1889년 부임한 강화유수 민병석(1858-1940)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주민들이 세운 선정비이다.	1890년

명문 배문	크기 내용	건립연대
留守李公台佐清德愛民善政碑	비신 높이 171cm, 폭 58cm, 두께 23cm	
戊戌五月日上道下道合力管豎 有可韓命孚金瑀	이 비는 조선 숙종 42년(1715) 강화유수로 재임했던 이태좌의 선정비로서, 1715년 강화지역의 흉년으로 대다수의 주민이 기아에 허덕일 때 구휼에 힘쓰고 굶어 죽은 이들을 위하여 목관을 지급하는 등 이태좌의 치적을 기리기 위한 비이다.	1717년
經歷李公世晟清德愛民善政碑	비신 높이 177cm, 폭 58cm, 두께 22cm	
戊戌五月日上道下道合力管豎 有可韓命孚金瑀	이 비는 강화유수부 이세성의 선정비이다. 이 비는 숙종 42년(1715) 강화지역에 유래가 없는 흉년이 들어 주민들이 기아에 허덕일 때 당시 경력으로 있던 이세성이 양곡을 공정하게 배급하고 구휼하자 上道, 下道 주민들이 유수 이태좌의 선정비와 함께 건립한 것이다.	1898년
郡守趙公充顯愛民松德碑 昭和十年六月日立 金公健哲慈善紀念碑 三月十日 金海金公周愛國志士碑	비신 높이 119cm, 폭 47cm, 두께 20cm 비신 높이 128cm, 폭 47cm, 두께 20cm 비신 높이 156cm, 폭 50cm, 두께 25cm	1935년 근대 현대

석포항 비석군(石浦港 碑石群)

■시대 : 조선 ■유형 : 비갈-기타비 ■소재지 : 삼산면 석포리 525-1 일대

석모도 선착장 좌측 상가 주변에 위치한다. 전언에 의하면 더 많은 수의 비석이 있었으나 상가가 형성되면서 멸실되었다고 한다. 이곳은 과거에도 강화본도와 석모도를 연결하는 나무가 있던 곳으로 중요 길목에 해당한다. 총 4기의 비석이 있는데, 개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명문 배문	크기	건립연대
留守兼鎮撫使趙公秉式永世不忘碑 光緒二年丙子三月日立	비신 높이 116cm, 폭 43.5cm, 두께 22cm	1876년

留守兼鎮撫使李源達遺惠不忘碑 同元十年辛未三月日立	비신 높이 110cm, 폭 37cm, 두께 23cm	—
行草芝僉使兼牧官田公在英永世不忘碑 同治元年壬戌七月日立	비신 높이 116 cm, 폭 40cm, 두께 20.5cm	1862년
留守兼鎮撫使閔公丙爽永世不忘碑 光緒十七年辛卯二月日立	비신 높이 120cm, 폭 40cm, 두께 18cm	1891년

대정 비석군(대정 碑石群)

■시대 : 조선 ■유형 : 비갈-기타비 ■소재지 : 내가면 외포리 대정 537-6

유적은 외포리 삼거리를 지나자마자 도로 좌측 편에 두 기의 비석이 나란히 놓여 있다. 각 비석의 개략적인 사향은 다음과 같다.

명문	크기	건립연대
배문	내용	
行萬戶李公世復撫恤清德善政碑 壬辰正月日立光武九年乙巳九月日立	비신 높이 112cm, 폭 56cm, 두께 25cm 종4품 정포만호의 벼슬을 지낸 李世復의 선정 비임을 알 수 있다. 원래 다른 곳에 있던 것을 옮겨 놓은 것이라 한다.	—
行萬戶朴公○○撫恤○○○之○ 順治十七年丁亥十一月日立	비신 높이 100cm, 폭 51cm, 두께 16.5cm 전면의 판독은 불가능하고, 다른 곳에 있던 것을 이곳으로 옮겨놓은 것이라 한다.	1660년

읍내리 비석군(邑內里 碑石群)

■시대 : 조선 ■유형 : 비갈-기타비 ■소재지 : 교동면 읍내리 산 85-4



교동 읍내리 비석군

교동읍성의 도로 건너편 두 갈래길 사이에 비석군이 자리하고 있다. 원래 ‘비석거리’로 불리던 교동양조장 부근의 비석들을 1970년대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현재의 자리로 이전·정리하였다고 한다. 비석군 내에

는 총 39개의 비석이 있는데, 각각의 개략적인 사향은 다음과 같다.

명문	크기
兼府使白公殷鎮去思臺/恤民革/瀧繼世功/既濡重治/見思無窮/庚子六月日立	비신 높이 67cm, 폭 120cm, 두께 25cm, 비좌 높이 13cm, 폭 155cm, 두께 57cm
兼府使李公容純/借公一年/重我障堡/字牧萬民/化宣三道/去思臺/乙卯八月日立	비신 높이 75cm, 폭 111cm, 두께 35cm, 비좌 높이 11cm, 폭 154cm, 두께 59cm
兼府使李公明學/心淡如水/政明代火/德加泰山/恩比碧海/去思臺/庚申閏三月日立	비신 높이 78cm, 폭 121cm, 두께 31cm, 비좌 높이 21cm, 폭 150cm, 두께 62cm
兼府使李公鳳儀愛民善政碑	비신 높이 121cm, 폭 45cm, 두께 24cm, 비좌 높이 16cm, 폭 80cm, 두께 57cm
兼府使鄭公完默永世不忘碑	비신 높이 142cm, 폭 47cm, 두께 24cm, 비좌 높이 18cm, 폭 92cm, 두께 68cm
行府使李公泰權永世不忘碑	비신 높이 120cm, 폭 39cm, 두께 23cm, 비좌 높이 12cm, 폭 83cm, 두께 60cm
行府使閔公敞鎬永世不忘碑	비신 높이 115cm, 폭 41cm, 두께 22cm, 비좌 높이 16cm, 폭 84cm, 두께 55cm
兼府使李公顯稷愛民善政碑	비신 높이 91cm, 폭 37cm, 두께 16cm, 비좌 높이 20cm, 폭 80cm, 두께 42cm
兼府使鄭公岐源愛民善政碑	비신 높이 118cm, 폭 44cm, 두께 20cm, 비좌 높이 25cm, 폭 82cm, 두께 54cm
兼府使趙公台顯永世不忘碑	비신 높이 118cm, 폭 46cm, 두께 22cm, 비좌 높이 20cm, 폭 87cm, 두께 61cm
行府使申公泰益永世不忘碑	비신 높이 114cm, 폭 45cm, 두께 22cm, 비좌 높이 15cm, 폭 78cm, 두께 57cm
行府使李公健熙恤民善政碑	비신 높이 114cm, 상단 폭 47cm, 하단 폭 44cm, 두께 23cm, 비좌 높이 44cm, 폭 89cm, 두께 65cm
兼府使李公基赫愛民善政碑	비신 높이 118cm, 상단 폭 43cm, 하단 폭 40cm, 두께 23cm, 비좌 높이 18cm, 폭 72cm, 두께 60cm
兼府使申公紘恤民善政碑	비신 높이 153cm, 폭 53cm, 두께 26cm, 비좌 높이 27cm, 폭 80cm, 두께 59cm
兼府使朴公孝晉恤民善政碑	비신 높이 130cm, 폭 50cm, 두께 22cm, 비좌 높이 23cm, 폭 80cm, 두께 54cm
兼府使沈公日永恤民善政碑	비신 높이 113cm, 상단 폭 46cm, 하단 폭 42cm, 두께 19cm, 비좌 높이 20cm, 폭 79cm, 두께 41cm
兼府使白公殷鎮清德既濡民庶又添隸永世不忘碑	비신 높이 110cm, 폭 45cm, 두께 25cm, 비좌 높이 9cm, 폭 67cm, 두께 50cm
兼府使金公翰詰愛民善政碑	비신 높이 108cm, 폭 41cm, 두께 19cm, 비좌 높이 12cm, 폭 69cm, 두께 51cm
兼府李公尙?恤民善政碑	비신 높이 141cm, 폭 57cm, 두께 25cm, 비좌 높이 21cm, 폭 82cm, 두께 51cm

명문	크기
兼府使洪公以度恤民善政碑	비신 높이 129cm, 상단 폭 58cm, 하단 폭 54cm, 두께 24cm, 비좌 높이 21cm, 폭 95cm, 두께 65cm
兼府使○○○○○恤民善政碑	비신 높이 135cm, 상단 폭 61cm, 하단 폭 58cm, 두께 28cm, 비좌 높이 19cm, 폭 93cm, 두께 60cm
兼府使閔公濟章恤民善政碑	비신 높이 132cm, 상단 폭 61cm, 하단 폭 51cm, 두께 20cm, 비좌 높이 21cm, 폭 86cm, 두께 59cm
兼府使申公大謙清德恤民善政碑	비신 높이 113cm, 상단 폭 51cm, 하단 폭 49cm, 두께 27cm, 비좌 높이 21cm, 폭 79cm, 두께 54cm
兼府使李公顯英恤民惠永世不忘碑	비신 높이 119cm, 상단 폭 49cm, 하단 폭 45cm, 두께 16cm, 비좌 높이 14cm, 폭 80cm, 두께 51cm
兼府使申公景善政碑	비신 높이 120cm, 상단 폭 61cm, 하단 폭 55cm, 두께 18cm, 비좌 높이 11cm, 폭 80cm, 두께 45cm
兼府使姜公瑜清白民善政碑	비신 높이 121cm, 폭 64cm, 두께 22cm, 이수 높이 56cm, 폭 79cm, 두께 33cm, 비좌 높이 9cm, 폭 104cm, 두께 58cm
兼府使李公世選善政碑	비신 높이 130cm, 상단 폭 50cm, 하단 폭 46cm, 상단 두께 16cm, 하단 두께 13cm, 비좌 높이 20cm, 폭 81cm, 두께 50cm
兼府使李公昌肇愛民善政碑	비신 높이 140cm, 상단 폭 51cm, 하단 폭 45cm, 두께 21cm, 비좌 높이 18cm, 폭 80cm, 두께 54cm
統禦使吳公載微石築碑	비신 높이 127cm, 상단 폭 53cm, 하단 폭 49cm, 두께 19cm, 비좌 높이 13cm, 폭 80cm, 두께 54cm
觀察使朴公永輔恤民善政碑	비신 높이 118cm, 상단 폭 46cm, 하단 폭 42cm, 두께 23cm, 비좌 높이 19cm, 폭 83cm, 두께 61cm
中軍李完秀善政碑	비신 높이 112cm, 상단 폭 50cm, 하단 폭 47cm, 두께 24cm, 비좌 높이 14cm, 폭 85cm, 두께 59cm
前僉正朴公啓元捐貲減布恩?德重一里均安立石不忘	비신 높이 104cm, 상단 폭 42cm, 하단 폭 36cm, 두께 22cm, 비좌 높이 18cm, 폭 78, 두께 63cm
兼府使李公翊漢清白恤民善政碑	비신 높이 116cm, 상단 폭 57cm, 하단 폭 52cm, 두께 21cm
兼府使具公聖任清德恤民善政碑	비신 높이 111cm, 상단 폭 53cm, 하단 폭 45cm, 두께 20cm
兼府使鄭公清德之碑	비신 높이 124cm, 상단 폭 55cm, 하단 폭 50cm, 두께 17cm
………	비신 높이 135cm, 폭 61cm, 두께 27cm
兼府使洪公濬愛…	비신 높이 108cm, 상단 폭 55cm, 하단 폭 50cm, 두께 23cm
兼府使元公?○○善政碑	비신 높이 125cm, 상단 폭 61cm, 하단 폭 56cm, 두께 18cm
兼府使元公德徽清○善政碑	비신 높이 121cm, 상단 폭 59cm, 하단 폭 55cm, 두께 21cm

비지정 금석문 현황

구분	명칭	소재지	시대	비고
1	이안눌 선정비	강화군 하점면 이강리 347-2임	조선	
2	황원우천씨 기념비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 사직골 485전	일제강점기	
3	황선신 정문	강화군 강화읍 대산리 126-2	조선	
4	차명세 정문	강화군 내가면 오상리 구주머리 515전	조선	
5	황경례공 정려	강화군 교동면 남갑리 236-2	조선	
6	청해이씨 효자문	강화군 하점면 삼거리 923	조선	
7	한산이씨 효자문	강화군 하점면 삼거리 139-5임	조선	
8	버드러지 주동량 효자문	강화군 화도면 장화리 버드러지 298		
9	밀양박씨 효부문	강화군 화도면 장화리 버드러지 298		
10	평해황씨 효부정문	강화군 불은면 두운리 698-1	일제강점기	
11	열녀각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 산 68		
12	참성단 금표	강화군 화도면 문산리 산 66		
13	함허동천	강화군 화도면 사거리 산 58		
14	강화전쟁박물관 비석군	강화군 강화읍 갑곶리 1025		
15	선두포 비석군	강화군 화도면 사거리 62		
16	화도초교 앞 비석군	강화군 화도면 상방리	조선~일제강점기	
17	석포항 비석군	강화군 삼산면 석포리 525-1 일대		
18	대정 비석군	강화군 내가면 외포리 대정 537-6		
19	읍내리 비석군	강화군 교동면 읍내리 산 85-4		

근현대 유적

강화도 일대의 근현대 유산은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 않다. 이는 전통시 대에는 강화가 수도 한양의 보장지이자 해로를 통해 들어오는 입구인 관계 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었지만 개항 이후 그 중요성이 떨어지게 되고 섬이라 는 자연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그 위상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강화의 서구문물 수용은 타 지역에 비해 뒤떨어졌다.⁸⁾ 물론 강화도에 서구문물이나 사상의 수용이 완전히 없었던 것은 아니다. 특히 성공회와 감리교로 대표되는 선교활동과 교육활동은 강화의 근대문물 수용에 큰 기여를 했다.

그렇지만 강화지역의 전체 근현대 관련 문화유산은 타 지역에 비해 그 수가 적고 종류도 다양하지 못하다. 이는 강화지역이 전근대시기 보장지로서만 강조되었고 지역 내 근현대 역사문화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은 관계로 개별 근현대 유산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 서술하는 강화의 근현대 문화유산은 그 수가 매우 적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확인되는 강화지역의 근현대 유산은 나름 그 존재 양태에 있어 여러 가지 특징을 보인다.

강화지역의 근현대 유산의 특징은 첫째, 근대기 서양종교의 전래와 유입에 따른 문화유산이 주를 이룬다는 점이다. 원래 인천 연안의 도서들인 서해 5도 지역이나, 덕적군도 지역은 구한말부터 황당선(荒唐船)이나 서양인들과의 접촉이 가장 먼저 이루어진 지역이다. 이에 비해 강화는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등을 거치면서 서양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관계로 이들에 대한 배타성은 타 지역에 비해 매우 강한 편이었다. 하지만 선교사들의 근대적 의료와 교육활동을 통한 적극적인 포교는 강화도 주민들이 이들 외래 종교를 빠르게 받아들이게 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강화지역 내 최초의 교회를 세운 감리교의 활동이 대표적이다. 감리교의 인천, 강화지역 선교 담당자였던 존스(G. H. Jones, 趙元時)는 1895년 서사면 교산동에 첫 교회를 창립한 이래로 빠르게 교세

를 확장시켜 갔다. 특히 조선인 초대 교인인 박능일, 김봉일, 권신일, 종순일 등이 선교에 앞장섰으며 이로 인해 1907년 무렵의 지역 내 감리교회의 교세는 교회 40개, 신도 4250여명에 이르게 된다. 이런 연유로 지금도 이들 감리교회 흔적은 강화와 주변 도서지역에 산재해 있다. 대표적 문화유산으로는 교동 상룡리의 교동교회와 주문도리의 서도중앙교회가 있다.

성공회의 경우 감리교보다 조금 늦은 1898년 영국인 선교사 조마가(趙瑪可)와 의사인 노인산(盧仁山)이 선교활동을 최초로 시작했다. 이에 1900년에는 강화부내 성현(城峴)에 성공회강화성당을 건축하고 선교의 거점으로 삼았다. 이후 강화의 성공회는 1931년 기준 2200명이었는데 이때 교구를 남과 북으로 나누고 성공회강화성당과 온수리성공회성당이 각각 중심으로 삼았다고 한다.

둘째, 강화도의 근현대 문화유산은 산업 유산이 종교시설 다음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강화지역에서 확인되는 근현대 산업유산으로는 강화양조장 건물, 조양방직 사무실 및 공장 건물, 심도직물 터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유산은 빠른 것은 1890년대부터, 1930년대, 1960년대 각각 건축되었던 유산들로 강화양조장 및 심도직물은 멸실되거나 그 터만 기념하고 있고 조양방직의 경우 보존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다. 이들 산업유산들은 각 시기 강화지역의 사회경제적 모습을 보여주는 근현대 유산으로 의미가 있다.

셋째, 이상의 두 종류의 근대유산 외 나머지 유산은 대체로 가옥이 주를 이루는데 이들 가옥은 모두 한옥과 서양식 주택, 일본식 주택의 건축양식이 혼합해 있다는 점이 특이점이다. 현재까지 강화지역에 근현대 가옥으로 남아 있는 건물은 강화읍 신문리의 황국현 가옥(일명 김구 고택), 송해면 솔정리의 고씨 가옥 등이 대표적이다. 황국현 가옥은 전통한옥 양식에 서양식 발코니 같은 난간과 헤링본 무늬의 마루, 대청의 유리문 등에서 한옥과 서양건축 양식이 혼합되는 모습을 보인다. 솔정리 고씨 가옥의 경우에는 전통

8. 강화군 군사편찬위원회, 『增補 新編 江華史—상 역사와 전통—』, 2015, 728쪽.

한옥에 일본식 주택 양식을 접목했는데 행랑채 끝에는 다실을 두었다. 이렇듯 강화의 근현대 가옥은 전통식과 외래식의 결합이 이루어지는 특징을 갖는다.

이상과 같이 강화지역의 근현대 문화유산은 인천이나 타 지역에 비해 그 수량은 매우 적다. 하지만 종교 및 산업을 중심으로 한 유산들이 군데군데 남아 있으며, 이밖에도 개인 주택으로 지어진 한옥 등이 강화지역의 대표적인 근현대 유산이다. 하지만 강화지역에 대한 근현대 건축이나 유산 조사는 아직까지 제대로 진행된 바가 없다. 이는 앞서도 말한 바와 같이 강화지역의 관심과 연구가 대체로 전근대시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근현대 유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강화지역 내 근현대 문화를 재조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된다.

교동교회

■시대 : 근대, 일제강점기 ■유형 : 종교건축 ■소재지 : 교동면 상릉리 518



교동 교회

교동교회는 교동남로와 교동남로 423번길과 나누어지는 지점에서 423번 길을 따라 동북쪽으로 약 800m 떨어진 야산의 남동사면 말단에 위치한다. 교동교회는 1899년 최초 설립되었는데 처음에는 일반 가정집의 사랑방에서 예배를 보았다. 원래 교동은 고려왕조 당시 안향이 최초로 공자의 위패를 모신 교동향교가 있던 곳으로 타 종교에 대한 배척이 강하였다. 하지만 신도 권신일의 적극적 전도로 상릉리의 박성대와 박형남 부자가 입교하고 이후 교세를 확장해 갔다. 재미있는 점은 당시 선교로 신도가 된 교인들은 세례를 받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이름에 신(信)을 넣어 개명했는데 이는 최초 전도자인 권신일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라고 전한다.

교동교회는 광복 후 난정교회(1949년), 교동중앙교회(1952년)을 분립시켰고 1970년대까지 교동지역의 12개 교회의 모교회로서 권위를 유지했다. 하지만 1979년 일부 교인이 대릉리에 교동제일교회를 설립하고 갈등관계를 겪게 되면서 교회는 쇠락했다.

현재 남아 있는 교회는 1933년 읍내리에서 상릉리로 교회를 옮길 때 지은 것으로 박성대와 박형남 부자에 의해 건축되었다. 원래 교회의 지붕은 초가였지만 1970년대에 양철지붕으로 고쳤다고 한다. 또한 교회의 현판과 종탑은 상릉리에 교회를 세웠을 당시 것으로 현재까지 보존되어 오고 있다.

교동 상릉리 박두성 생가 터

■시대 : 근대, 일제강점기 ■유형 : 주거건물, 생가 ■소재지 : 교동면 상릉리

송암 박두성 선생 생가 터는 교동교회 바로 맞은 편 해안 지대에 위치한다. 현재 생가 터는 경작지 및 신축주택이 들어서 있는 상태이다. 박두성(朴斗星)은 한글 점자(點字)의 창안자로 본관은 무안, 호는 송암(松巖)으로 1888년(고종25) 강화출신이다. 박두성은 1895년부터 4년 동안 강화의 보창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후 한성사범학교에 입학해 졸업하고 어의동보통학교



상릉리 송암 박두성 선생 생가 터

훈도(薰陶)로 교직의 길을 걸었다. 그는 일제강점기 당시 총독부 제생원내 맹아부에 발령받아 맹아 교육에 첫 발걸음을 디뎠다. 이후 일본식 점자를 들여와 한국 최초로 점자 교과서를 출판하였고 1923년 조선어 점자연구위원회를 비밀리에 조직 1926년 한글점자인 훈맹정음을 완성한다. 이후에도 한글점자로 『조선어독본』을 출판했으며 1931년부터 성격의 점자원판을 제작하기 시작해 1941년 점자로 된 신약성서를 완성했다. 광복 후에도 6.25전쟁으로 소실된 신약성서 점자아연판을 다시 제작했고 한편으로는 맹인들의 포교에 힘썼다.

신문리 황국현 가옥

■시대 : 근대, 일제강점기 ■유형 : 근대건축, 주거건축 ■소재지 : 강화읍 신문리

신문리 황국현 가옥은 강화산성 남문에서 남문안길을 따라 100여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이 가옥은 1928년 건축되었는데 당시 유행했던 전통한옥과 서양 혹은 일본 스타일의 건축양식이 합쳐진 양상을 보인다. 황

국현 가옥은 본채, 문간채, 별당, 곳간채로 구성되어 지어졌지만 현재는 본채와 문간채만 남아 있는 상태이다. 본채는 ‘ㄱ’자 한옥으로 대청마루를 중심으로 오른쪽에는 사랑방과 마루가 왼쪽으로는 2칸으로 나눈 안방이 있다. 부엌의 위로는 다락을 설치했는데 다락을 둘러싼 외부 창 바깥으로 나무 난간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대청마루의 외부로는 유리로 된 미닫이문을 달았다.

이 가옥을 건축한 황국현에 대한 기록은 거의 나타나지 않아 정확한 행적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다만 그가 이 가옥 건축 당시 대들보와 서까래 등의 목재로 백두산 잣나무를 구입했다는 점을 볼 때 대단한 자산가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황국현 가옥은 광복 이후 백범 김구가 강화에 와 묵고 간 곳이기도 하다. 백범은 명성황후 시해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인 쓰찌다를 살해한 치하포 사건으로 인천감리서에서 수형생활을 하다가 탈옥했는데 당시 김구의 구명을 위해 도와준 이가 강화도의 김주경이었다. 이에 김구가 탈옥 후 강화로 가 김주경을 보려했으나 만나지 못하고 강화읍에서 약 3개월 동안 머물면서 아이들을 가르쳤다고 한다. 그리고 광복 이후 김구는 김주경을 만나기 위해 1947년 11월 강화도에 와서 머문 곳이 바로 이 가옥이다.

신문리 조양방직 사무소 건물 및 공장건물

■시대 : 근대, 일제강점기 ■유형 : 근대건축 ■소재지 : 강화읍 신문리 588

조양방직은 일제강점기인 1933년 우리나라 사람이 세운 최초의 인조견 회사로 설립자는 강화도의 대표적 지주였던 홍재묵이다. 이 회사는 설립과 동시 공장과 사무동 건축공사를 진행했으며 경성전기주식회사를 통해 강화에 처음 전기를 끌어와 수공업적이었던 강화의 직물산업을 공장화했다. 처음 공장을 설립했을 당시에는 총 15대의 직조기를 설치하고 생산했는데 이



조양방직 사무소 건물



심도직물 터에 있는 공장 굴뚝

후 공장 증축과 더불어 기계설비 증설로 직조기 30여대를 갖추고 생산했다. 조양방직의 인조건은 외국산에 비해 품질이 우수해 국내는 물론 만주와 중국까지 수출되었다고 한다.

조양방직은 이후 연간 매출목표액이 50만원에 달할 정도로 견직물 생산 및 판매에서 경제적 이득을 보았으나 1942년 말 삼정물산(마쓰이물산)의 주임으로 근무하던 이세현에게 인수되어 명맥을 이어가게 된다.

현재 조양방직 사무소 및 공장건물은 개인의 소유로 고물상부지로 활용되고 있으며 간간히 조양방직 사무소 건물이 드라마나 영화 촬영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관청리 심도직물 터

■시대 : 현대 ■유형 : 산업생산시설, 공장 터 ■소재지 : 강화읍 관청리

심도직물은 현재의 용흥궁 주차장 일대에 위치했던 직물공장이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강화에서는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부터 직물산업이 본격

적으로 육성되기 시작했다. 이런 흐름은 광복 이후에도 이어져 심도직물을 비롯해 십자당, 이화직물 등의 업체들이 차례로 들어섰으며 1970년대까지 약 30여개의 업체가 설립되었다. 이중 심도직물은 1947년 창립된 직물회사로 60년대 경제개발계획에 따른 섬유산업 호황에 사세가 가장 컸던 업체였다. 1960년대 심도직물의 종업원 수는 약 1,200여명으로 강화의 사업체 중 가장 많은 종업원을 고용하였으며 창립자 김재소(金在紹)는 강화직물협회 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강화는 당시 섬유도시 대구에 버금가는 위상을 가지기도 했다. 하지만 70년대 중반 이후 2차례의 석유파동과 직물산업의 과잉생산으로 인해 쇠퇴하기 시작했고 1991년에 이르러 최종적으로 부도로 인해 회사가 문을 닫게 되었다.

한편, 심도직물은 1960년대 천주교 노동사목의 계기가 된 회사이기도 하다. 1960년대 당시 강화의 직물산업에 종사한 종업원들은 대부분 나이 어린 여성노동자들이었다. 이들은 하루 12시간 맞교대 근무를 하면서도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았으며 심지어 공휴일 전날 야간조는 24시간



아외에 전시되어 있는 심도직물 방직기

동안 근무하는 등 근로 조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천주교 강화성당 노동청년회 회원들은 강화지역의 직물공장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 노동기본권 확보와 노조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1967년 미국인 미카엘 신부가 지도하는 가톨릭노동청년회 심도직물분회가 설립되었으며 여기에 가입한 여성노동자는 약 900여명에 달했다. 하지만 심도직물 측에서는 노조와해공작과 더불어 노조 분회장 및 핵심 조합원 16명을 해고하였고, 김재소 사장을 비롯한 강화직물협회 임원들은 미카엘 신부를 반공법 위반으로 구속하겠다고 협박하기에 이른다.

그런데 당시 가톨릭노동청년회 총재는 마산교구 주교신부인 김수환이었다. 김수환은 청년회 총무에게서 강화의 사정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해고자 복직과 사과를 받게 된다. 당시 심도직물 사건은 70년대 민주노조 운동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이었으며 특히 천주교가 공식적으로 사회문제에 개입한 첫 사례가 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현재 심도직물 터는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주차장으로 바뀌었고 심도직물의 흔적은 김상용 순절비 뒤편에 남겨놓은 공장 굴뚝만이 남아 있다. 그리고 그 옆으로는 2015년 천주교 인천교구에서 심도직물 사건과 관련한 조형물과 안내판을 조성했으나 일부 주민의 항의와 사적인 성공회성당 내 현상변경 신청 미비를 이유로 다시 철거되었다고 한다.

비지정 근현대 유적 현황

구분	명칭	소재지	시대	비고
1	교동교회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상룡리 518	근대, 일제강점기	
2	교동 상룡리 박두성 선생 생가 터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상룡리	근대, 일제강점기	
3	신문리 황국현 가옥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근대, 일제강점기	
4	신문리 조양방직 사무소 건물 및공장거물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신문리 588	근대, 일제강점기	
5	관청리 심도직물 터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근대, 일제강점기	

기타 유적

갑곶지 이섭정(利涉亭)

■시대 : 조선 ■유형 : 건축물-별서/정원/누정 ■소재지 : 강화읍 갑곶리 갑곶지 1025

이섭정은 강화대교 건너 좌측의 강화역사관 내(內)에 위치하고, 갑곶돈대 바로 뒤에 놓인 팔각정자이다. 1398년(태조 7) 부사 이성의 발원으로 건립되었으며, 이섭정이란 이름은 이침이 지었다. 한



이섭정 원경

국전쟁으로 소실된 것을 1976년 강화국방유적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신축하였다. 현재의 이섭정은 주변을 정비하면서 지어진 정자로, 원래의 터에서 100m 가량 이동된 것이라 한다.

애련당(愛蓮堂)

■시대 : 조선 ■유형 : 건축물-고가 ■소재지 : 강화읍 국화리 287-1



애련당(문화재청)

애련당은 국화리 국화저수지를 지나 남산을 향하여 약 500여m를 오르면 유적이 위치하고 있다. 애련당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양반가 별당채 용도로 지어진 건물로 보인다. 가운데 칸과 좌측 칸은 전면에 툇마루를 두고 그 뒤로는 방을 들었

으며, 우측칸은 누마루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누마루로 쓰였던 부분에 창을 달아 실내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주변에는 방형초석과 향로석 등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애련당 이외의 또 다른 건물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애련당이라는 이름과 함께 배회루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 배회루는 애련당에 딸린 누마루였을 가능성도 있다.

갑곶나루 선착장 석축로

■시대 : 조선 ■유형 : 건축물-관아건축

■소재지 : 강화읍 갑곶리 갑곶지 1067 · 1086 · 1089 일대

강화고려인삼센터에서 해안도로 방향으로 약 50m를 가면 유적이 위치하고 있다. 진해루지의 동쪽에는 강화 갑곶나루 선착장의 석축로가 위치하고, 남쪽에는 통제영학당지가 위치한다. 진해루는 1232년(고종 19) 고려가 강화에 천도할 당시 세워졌다고 하며, 육지와 교통하던 관문의 성격을 지닌 누각으로 정면 4칸의 팔작지붕 문루와 홍예문이 있었다고 전한다. 그러나 현재 정확한 규모와 터는 파악할 수 없고, 다만 수풀 속에서 육지부와 연결한 낮은 축대만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006년 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 문

화유산발굴조사단의 발굴조사 결과 외벽은 모두 뿔층을 정지한 후 기저부를 조성하였고 그 위에 지대석을 올린 후 성돌을 올린 경우와 보축의 흔적이 동시에 확인되었다. 발굴조사 이후 진해루지는 복원되지 않고 매몰되었다.

선원보각지(璿源寶閣址)

■시대 : 조선 ■유형 : 건축물-관아건축 ■소재지 : 길상면 온수리 산 48

전등사에서 성문 등산로를 따라 약 150여m 정도 올라가면 1999년에 복원한 선원보각지가 있다. 선원보각은 조선시대 왕실의 족보를 봉안해 오던 곳으로 1660년(현종 1) 삼랑성 내(內)에 있는 장사각 북편에 건립하였다. 선원보는 1679년(숙종 5) 낭원군 이품이 『선원보략』을 올려 처음 간행한 이래 역대에 걸쳐 새로운 왕이 즉위할 때마다 증교, 보관해 오던 것을 1897년(고종 34)에 합간한 바 있다. 현재의 건물은 1900년대 초 일본인들에 의해 무너진 것을 1998년 강화군에서 옛 모습으로 복원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지적도상에는 온수리 635에 위치한다.

신봉리 요지

■시대 : 고려시대 ■유형 : 요업, 도요지, 가마터 ■소재지 : 하점면 신봉리 25-9

유적은 신봉 삼거리에서 북쪽으로 약 260여m 떨어진 야산의 사면 중턱에 위치한다. 현재 유적에서 남동쪽으로 350m 떨어진 곳에는 강화 만신인 김금화씨의 당집인 금화당이 위치한다. 신봉리 도요지는 1970년 도로정비 작업 중 발견된 가마터로 높이 1.5m, 폭 3m, 길이 5m의 자연석을 굴착하여 만든 가마라고 전해지고 있다. 주민들의 전언에 의하면 청기와를 구웠던 가마라고 하였으나, 인근에서는 도질 토기편과 슬래그 등이 수습되고 있다.

양오리 관골 요지

■시대 : 역사시대 미상 ■유형 : 요업, 도요지, 가마터
■소재지 : 송해면 양오리 관골 200, 204전

유적은 양오리에 위치한 초목향 팬션에서 남서쪽으로 약 350m 떨어진 봉천산의 주 능선의 중하단부에 위치하고 있다. 유적의 규모는 대략 남북길이 30m 정도로 추정되며 주민들 사이에서는 옛날에 고려청자를 굽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유물은 수습되지 않았고, 다만 요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유리질화 된 흙, 슬레그 등이 주변에 산재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사기리 분청사기 요지

■시대 : 조선시대 ■유형 : 요업, 도요지, 가마터 ■소재지 : 화도면 사기리 178

유적은 갈곶돈대지에서 서쪽으로 약 500여m 떨어진 강화 해안남로 변의 구릉상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마니산의 동쪽 끝자락에 해당하며, 대체로 완경사 지대이다. 현재는 밭으로 쓰이고 있다. 육안으로 확인



사기리 분청사기 요지(문화재청)

되는 유적의 면적은 대략 50㎡로 가마로 추정되는 유구의 장축 방향은 동서 방향으로 길게 뻗어있는 양상을 보인다. 유적의 주변으로는 가마벽체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흙벽돌과 인화, 귀얄기법⁹⁾의 분청사기편, 내화토받침

등의 유물이 상당량이 산재되어 있다. 현재 유적의 주변에는 보호펜스를 쳐 놓은 상태이다.

비지정 기타 유적 현황

구분	명칭	소재지	시대	비고
1	갑곶지 이석정	강화군 강화읍 갑곶리 갑곶지 1025	조선	
2	애련당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287-1	조선	
3	갑곶나루선착장 석축로	강화군 강화읍 갑곶리 갑곶지 1067 · 1086 · 1089 일대	조선	
4	선원보각지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산 48	조선	

건물지

강화도는 한강과 임진강, 그리고 예성강이 합류하는 하구에 자리하고 있어 역사적으로 해양세력이 성장할 수 있는 자연적 조건이 갖추어져 있었다. 한반도의 중심을 장악할 수 있는 인천만을 통합할 수 있는 유리한 지역이며, 황해 연안항로를 이용하고자 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으로 문물의 교류와 군사적 쟁탈이 일찍부터 시작된 곳이다. 특히 1232년(고종 19)부터 1270년(원종 11)까지는 몽골의 침입으로 수도를 강화로 천도하면서 고려의 도읍으로서 기능하였고, 조선시대에는 왕실의 보장지처(保藏之處)로서 또한 북벌의 전진기지로서 기능하였다. 따라서 강화도는 다양한 문화 유적이 산재한 곳이기도 하다.

대표적인 것이 사찰이다. 문헌상으로 63개의 사찰이 전해지고 있고, 삼국시대부터 사찰이 건립되기 시작하여 강도시대에는 본격적으로 사찰이 건립되었다. 『고려사』에는 비록 천도 초기이나 구정(毬庭), 궁전, 사사(寺

9. 귀얄기법은 분청사기 장식 기법 중의 하나로 귀얄(풀비 : 풀이나 옷을 칠할 때 쓰는 기구)과 같은 넓고 굽은 붓으로 형체가 완성된 도자기의 면에 백토를 바르는 기법을 일컫는다. 이 기법으로 분청사기의 무늬를 시문하면 도자가 완성된 후 탈자국이 남는 경우가 많다. 귀얄 기법은 대체로 늦은 시기에 사용된 기법으로 15세기말~16세기 초 조선 성종 대에 널리 유행했다.

社)의 이름이 모두 송도(松都)를 따랐다거나 팔관(八關), 연등(燃燈), 행향(行香), 도장(屠場)이 모두 옛방식대로 하였다는 등 강도에서의 불사는 개성과 같이 중요시 되었던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알 수 있는 봉은사(奉恩寺), 법왕사(法王寺), 묘통사(妙通寺), 왕륜사(王輪寺), 혈구사(穴口寺), 묘지사(妙指寺) 등의 사찰 이름은 개성의 주요 사찰들과 동일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강화도에서의 사찰 건립과 불교행사는 전란 상태임을 감안하면 개경에서의 것과 같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천도 직후 건립된 봉은사에는 태조 왕건의 초상을 모셨기에 고종이 행향하는 등 임금이 20차례 이상 행차한 절로는 현성사(賢聖寺), 묘통사, 왕륜사, 복령사(福靈寺), 건성사(乾聖寺) 등 5곳에 이를 정도로 강화도의 불사는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조선시대에 들어서 조선 왕실의 보장지처로서 도읍의 인후지지(咽喉之址)로서 군사적 요충지로서 강화가 주목받게 되면서 관방시설들이 많이 들어서게 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상술한 9개의 성곽, 5개의 봉수, 12개의 진보, 54개의 돈대, 6개의 포대 등이다. 이 관방유적과 관련하여 금위영, 진무영, 연무당, 중영 등의 관아시설들이 있었는데, 대부분이 개발로 인해 소실되었다.

이번 조사는 2002년 대한불교조계종문화유산발굴단의 『강화의 문화유적』과 2003년 인천광역시가 대한불교조계종문화유산발굴단과 함께 조사하였던 『문화유적분포지도-강화군』, 그리고 2009년 인천광역시립박물관이 조사하였던 『강화의 절터』 등의 조사보고서를 기본 자료로 하였다. 그러나 최근 급속하게 진행되었던 개발과 경작, 그리고 자연적 유실 등으로 확인이 어려운 유적들이 상당하였다.

진해사지(鎭海寺址)

■시대 : 미상 ■유형 : 불교유적 / 사지

■소재지 : 강화읍 갑곶리 1082-1 · 1083-3 일대



진해사지

진해사는 갑곶의 북쪽 해안가에 위치하였던 조선시대 군사적 목적으로 창건된 사찰이었다. 『강도지(江都誌)』에는 1691년 신미년에 화주승(化主僧) 32명을 모아 건축을 시작하여 다음 해에 역을 마친 후, 금위영(禁衛營)에 소속되어 창고를 세워 향곡(餉穀)과 군기(軍器)를 보관하였으며 승도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였다고 한다. 또 총섭(摠攝)을 두어 관리하였는데, 서기승(書記僧)과 사후승(伺候僧), 취반승(炊飯僧) 각 1명과 뇌자승(牢子僧) 2명을 두었다고 한다.

『속수증보 강도지(續修增補 江都誌)』에는 진해사는 금위영(禁衛營)의 관할 하에 승군(僧軍) 1초(哨; 약 100명 단위의 군대 편제)가 주둔하고 총섭(摠攝)을 두어 관리하였다고 전하였는데, 이미 폐사지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1890년대에는 이미 폐찰되었음을 알 수 있다. 민간에는 신미양요 때에도 건물이 남아 있었는데, 1900년 전후하여 화재로 소실되었다는 전언도 있다.

진해사 터에는 1966년 권해운 스님이 사찰을 중건하여 해운사(海雲寺)로 이름을 짓고 법화종 소속의 사찰로 등록하였다. 현재의 해운사에는 대웅전, 삼성각, 승보전, 요사채 등의 건물과 함께 석조미륵불입상(石造彌勒佛立像)이 서 있다. 삼성각 주변에는 최근에 세운 부도(浮屠) 1기와 사적비가 있다. 대웅전의 기단 앞에는 석왕(石王)·김포(金砲)·용박(龍朴)·임정(立鄭)·유광(有光) 등 승려들의 법명으로 보이는 글자들이 새겨진 판석이 놓여 있다. 기단석 사이에는 건륭연간(乾隆年間)에 세워진 높이 70cm, 폭 45cm, 두께 15cm의 ‘행진무중군허공임무홀군구(行鎮撫中軍許公任撫恤軍口)’란 비석이 섞여 있다.

갈공사지(葛公寺址)

■시대 : 미상 ■유형 : 불교유적 / 사지 ■소재지 : 교동면 고구리 232·233 일대



갈공사지

교동대교를 건너 읍내리를 향해 가다보면 고구리저수지가 나오는데 저수지가 시작되는 도로에서 우측으로 100m를 진행하면 우측 구릉의 경작지에 갈공사가 있었다고 전한다.

갈공사는 고려시대의 충신 목은 이색(牧隱 李穡)이 수행하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고려가 패망하자 이색은 갈공사로 들어와 독서로 여생을 보내며 이성계의 등용을 거부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현재 절터로 추정되고 있는 곳은 무덤들이 들어서 있고 대부분이 경작지로 변하여 있다. 『속수증보 강도지』에 이미 폐사지로 기록되어 있는 것에서

오래 전부터 훼손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절터로 볼 수 있는 시설물들이 대부분 없어진 상태이다.

용장사지(龍藏寺址)

■시대 : 고려시대 ■유형 : 불교유적 / 사지 ■소재지 : 강화읍 국화리 462



용장사지(인천광역시립박물관)

강화 서문을 지나 302번 지방도를 따라 고려산으로 올라가다 보면 국화저수지가 나온다. 저수지가 끝나는 지점에 용장마을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곳에 고려시대 용장사가 있었다. 『강도지』에는 강화부의 서쪽 3리에 있었으며 승거문(僧居門)이라고 흔히들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고려사(高麗史)』에는 충정왕(忠定王)이 이 절에서 왕위를 양보하고 독살당하였다고도 하고, 공민왕(恭愍王) 11년(1362)에 절을 수축하였다고도 전한다. 이러한 기록으로 보아 용장사는 당시 상당한 사세(寺勢)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기록을 반영한 듯 용장사 터는 크게 두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용장마을 뒤편의 밭과 민가가 들어선 곳에 밭과 민가가 들어선 곳이 I 지역, 고려산의 계곡과 접한 지역이 II 지역으로 두 지역은 약 50m 정도 떨어져 있다.

I 지역은 대략 동서 50m, 남북 70m에 이르는데, 이곳을 경작하면서 나온 원형초석, 방형초석, 장대석 등이 주변 민가에 부재로 사용되었다. II지역은 동서 30m, 남북 40m 규모로 산 경사면에 형성되었는데, 용장사의 부속건물지로 추정된다.

홍릉사지(洪陵寺址)

■시대 : 미상 ■유형 : 불교유적 / 사지 ■소재지 : 강화읍 국화리 산157-2



홍릉사지(인천광역시립박물관)

강화 서문을 지나 306번 지방도를 따라 가다 보면 국화리 학생 야영수련장이 위치하고 있다. 계곡을 따라 난 길은 150m 정도 올라가면 고려 제 23대 고종(高宗)의 능인 홍릉(洪陵)이 나온다. 홍

릉의 아래에는 홍릉에 묘사를 지내는 재실인 만녕재가 위치하고 있는데, 재실 아래쪽에 홍릉사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홍릉사는 홍릉의 능사(陵寺)였던 것으로 전하고 있으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황련사지(黃蓮寺址)

■시대 : 삼국시대 ■유형 : 불교유적 / 사지 ■소재지 : 하점면 고려산로 61번길 270

황련사는 장수왕 4년(416)에 창건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으나, 이후의 불사(佛事)는 뚜렷하지 않다. 고구려 장수왕 때 중국의 동진(東晉)에서 인도의 승려가 와서 고려산 정상에 올라 다섯 색깔의 연꽃을 공중에 날렸는데, 그



황련사지

연꽃이 떨어진 곳마다 사찰을 건립하고 색깔에 따라 청련사(靑蓮寺), 황련사(黃蓮寺), 흑련사(黑蓮寺), 백련사(白蓮寺), 적련사(赤蓮寺; 후에 적석사로 개명)라고 하였다는 오련설화(五蓮說話)가 전해지고 있다.

황련사는 남산의 북쪽 사면에 있었는데, 폐사의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1867년(고종 4)에 윤상건(尹相健)이 절터에 팔각형의 정자인 보만정(保晩亭)을 건립하였다는 기록에 비추어 그 이전에 폐사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보이는 주춧돌 등의 유구는 보만정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다.

병풍암사지(屏風岩寺址)

■시대 : 고려시대 ■유형 : 불교유적 / 사지 ■소재지 : 강화읍 국화리 462

남산의 남서쪽 사면 8부 능선에 병풍암사가 있었다고 전한다. 강화군보 건소에서 충렬사 방향으로 가다보면 오른쪽으로 남산 굽당으로 올라가는 소로가 나오는데, 이 길을 따라 남산 굽당에 올라 다시 산길을 따라 약 5분 정도 올라가면 바위로 둘러싸인 평지에 병풍암사가 있었다는 것이다. 조선



병풍암사지(인천광역시립박물관)

시대 편찬된 지리서에는 언급이 없고, 1942년 간행된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에 처음 병풍암사지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을 뿐이다. 그러나 1942년까지 절터에 대한 전승이 이어진 것에서 인근의 큰 사찰에 속한 암자로 볼 수도 있다.

둘레가 바위로 둘러싸이고 남향으로 터진 평지에 사찰이 들어섰던 것으로 보인다. 동서 40m, 남북 12m 정도의 규모로 추정되며 서쪽에 길이 4~5m, 높이 1m의 단이 남아 있다.

송악사지(松岳寺址)

■시대 : 미상 ■유형 : 불교유적 / 사지 ■소재지 : 강화읍 대산리 산129-1

강화산성의 북문을 지나서 약 200m 정도를 가다보면 송악마을이 나오는데, 마을의 뒷산 인근 경작지에 송악사가 있었다고 전하고 있다.

2009년 조사에서는 지세로 보아 동서로 길게 사지가 북향으로 조성되었던 것으로 보았다. 동서 길이가 약 70m 정도이며 3단으로 구성된 각단의 남



송악사지(인천광역시립박물관)

북 길이는 15~20m 가량으로 추정된다. 현재 사찰과 관련한 유구는 확인할 수 없다.

왕림사지(汪林寺址)

■시대 : 미상 ■유형 : 불교유적 / 사지 ■소재지 : 강화읍 옥림리 산59

강화종합영농센터에서 북서쪽으로 200여 m를 들어가면 옥림마을이 나오는데, 마을의 북서쪽 계곡 안에 왕림사가 있었다고 전한다. 절터는 경작지로 변하였고 또한 물길의 관통하고 있어 훼손이



왕림사지(인천광역시립박물관)

심한 상태로 유구를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2002년 조사된 바에 따르면, 왕림사지는 남동향으로 남동-북서 축을 이루고 있으며, 평탄지가 크게 3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축대는 붕괴되어 토단의 흔적만 남아 있다고 하였다. 사지의 범위는 동서 50m, 남북 약 30m 규모이며, 1단의 하단부터 3단의 상면까지는 약 4m의 높이 차가 있다고 하였다. 현재 사역을 확인하기 어렵지만 이 지역을 왕림골이라 부르는 것에서 왕림사가 있었던 곳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범머리사지

■시대 : 미상 ■유형 : 불교유적 / 사지 ■소재지 : 강화읍 용정리 범머리 255전

망해돈대(望海墩臺)에서 남서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용정리 새말이 나오는데, 이 일대 경작지에 범머리사지가 있었다고 전하고 있다. 현재는 경작지로 인하여 그 흔적을 확인하기 어렵다.

2003년 조사에 의하면 이 일대에서 상당량의 와편과 자기편들이 흩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 범위는 남북 100m, 동서 40m로 남북을 장축으로 한 서향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1970년대 집을 짓던 중 주춧돌과 장대석, 기와, 벽돌 등이 발견되었다는 사지 앞의 309번지 거주자의 제보를 기록하고 있다.

묵왕사지(墨王寺址)

■시대 : 미상 ■유형 : 불교유적 / 사지 ■소재지 : 강화읍 용정리 700

강화대교를 건너 48번국도를 따라 약 1km 정도 가면 좌측으로 강화현대아파트가 보이는데, 그 반대 방향 도로를 250m 정도 가면 먹골이라는 마을이 나온다. 이 마을의 경작지 일대에 묵왕사가 있었다고 전한다.

『속수증보 강도지』에는 갑곶리 구현(龜縣; 옛 이름 宮牆里)에 묵왕사가 있

었으며, 깨진 기와와 주춧돌이 들밭에 산재해 있고 옛날 우물이 아직도 남아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후대 사람들이 묵왕사를 묵사(墨寺)로 잘못 알려져서 먹골이라 마을 이름을 삼았다고도 전하고 있다.



묵왕사지(인천광역시립박물관)

현재 절터라 추정되는 곳은 경작지와 일부 가옥이 들어 서 있어 유구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2003년 조사에서는 평지사찰에 해당하며 경작지에서 상당량의 자기편과 토기편, 기와편 등이 수습되었다고 하였다.

망고도사지(望古島寺址)

■시대 : 미상 ■유형 : 불교유적 / 사지 ■소재지 : 서도면 불음도리 산 7-25

불음도 북쪽 봉화산(烽火山)의 남쪽 끝자락에 망고도사가 있었다고 전하고 있지만 사찰의 흔적을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속수증보 강도지』에는 망고도사지(望古島寺址)가 아니라 망도(望島)에 옛 절터[古寺址]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망고도사지가 아니라 망도고사지(望島古寺址)로 명칭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현재에는 사찰의 흔적을 확인할 수 없다.

위의 책에서는 보을음도(浦乙音島) 신선봉 위에 옛 절터가 있었는데, 그 창건과 폐지 연대는 알 수 없지만, 금불상 하나가 발견되어 정수사에 안치하였다고 기록하였다. 또한 이처럼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섬에도 사찰이 들어선 이유는 신라와 고려와 같이 불교를 숭상하던 시절에 사찰이 널리

퍼졌기 때문이고, 폐사된 이유는 불교가 시들어 약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묘지사지(妙智寺址)

■시대 : 고려시대 ■유형 : 불교유적 / 사지 ■소재지 : 화도면 사기리 산36-23



묘지사지(인천광역시립박물관)

348번 지방도로에 인접한 이견창(李建昌) 생가에서 북쪽에 있는 초피산(椒皮山)의 남록에 묘지사가 있었다. 묘지사와 관련하여 『고려사』에는 원종(元宗) 5년(1264) 6월 경술일(庚戌日)에 삼랑성에 행차하여 오성도량(五星道場)을 삼일 동안 베풀었고, 묘지사로 거동하여 참성단에 초재를 올렸다(卷26 世家 第26 원종 甲子 5年條)는 기록이 전하고 있다. 『속수증보 강도지』에는 절이 폐지된 지 오래되었지만 원종이 거동한 길이 어렴풋이 남아 있다고 하였다. 이상의 기록으로 보아, 묘지사는 강화 천도를 전후한 시기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나 폐사의 시기는 알 수 없다.

2002년 조사에는 절터가 남서향이며, 완만한 경사면을 따라 3단으로 축

대를 구획하고 사찰을 조영하였다고 하였다. 최상단에는凸형으로 축대를 쌓았으나 상면에는 초석 등 건물과 관련된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중단은 상단과 4m 거리를 두고 조성되었는데 높이 60~100cm, 길이 20m의 축대 열이 붕괴된 채 잔존하고 있었다고 전한다. 하단은 중단 축대에서 10m 가량 아래쪽에서 위치하고 있고 현재 높이 2~3m의 비교적 높은 축대가 조성되었으며, 20m 가량의 축대 열이 남아 있었다. 중단과 하단 사이는 비교적 넓은 공지를 형성하였는데, 동쪽에 초석 3기가 남아 있었다. 초석간의 거리는 정면 1.5m이며, 측면 2.8m이다. 또한 사지의 동쪽으로는 수직방향으로 약 30m의 담장 열이 남아 있다.

묘통사지(妙通寺址)

■시대 : 고려시대 ■유형 : 불교유적 / 사지 ■소재지 : 화도면 상방리 산71-3

마니산 북쪽 매표소에서 등산로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칠선교가 나오는데 다리 건너 왼쪽 오솔길을 따라 50m 가량 진행하다 보면 골짜기에 묘통사가 있었다. 2009년 조사에서는 절터가 얇은 계곡에 접한 동서 20m, 남북 40m 정도의 평탄지에 조성되었는데, 유구는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묘통사지(인천광역시립박물관)

『속수증보 강도지』에 따르면 창건연대와 폐사의 시기는 알 수 없으나, 고려 문종(文宗), 숙종(肅宗), 의종(毅宗), 희종(熙宗)이 친히 행차하여 마니지

천동량(摩尼支天道場)을 베풀었다고 전하고 있다. 그 이유는 마니산 주변에는 오래된 절이 많이 있는데, 묘통사가 참성단과 가장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도량이 베풀어진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

왕륜사지(王輪寺址)

■시대 : 고려시대 ■유형 : 불교유적 / 사지 ■소재지 : 화도면 장화리 산13



왕륜사지(인천광역시립박물관)

348번 지방도로에 면해 있는 홍왕보건소 정류장에서 북서쪽으로 마니산을 약 800m 정도 오르면 절터골이라 부르는 곳이 있는데 그 중턱에 왕륜사가 있었다. 『속수증보 강도지』에 의하면 마니산 서쪽에 왕륜사가 있었는데, 창건과 폐사의 시기는 자세하지 않다고 하였다.

절터는 서향이며, 동서 16m, 남북 25m 규모의 축대 위에 ‘ㄷ’자 형태의 건물이 들어섰던 것으로 보인다. 건물의 규모는 정면 5칸, 측면 3칸으로 동서 8m, 남북 12.5m이며 한 칸의 간격은 2.5m이다.

홍왕사지(興旺寺址)

■시대 : 고려시대 ■유형 : 불교유적 / 사지 ■소재지 : 화도면 홍왕리 산36

홍왕 체험 학습장에서 북쪽으로 마니산을 오르면 400m 정도 지난 풍수가 좋은 아담한 곳에 홍왕사가 있었다. 기록에 따르면 대각국사(大覺國師) 의천(義天)이 송나라에서 수집



홍왕사지(인천광역시립박물관)

해 온 3,000여권의 불교장서를 정리한 『속장경(續藏經)』을 조판하기 위한 교장도감(敎藏都監)이 홍왕사에 설치되었고, 고려 문종의 기도처(祈禱處)이기도 하였다. 충목왕(忠穆王) 3년(1347)에는 선원사, 왕륜사, 홍왕사에 복령양도장을 설치한 것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찰로 여겨진다.

절터는 계곡의 완만한 구릉을 3개의 단으로 정지하고 조성되었다. 지를 3단으로 정지하고 조성되었다. 뒤쪽에 옹벽을 만들고 일정한 거리를 두고 상단의 축대를 쌓았으며, 이곳에서 건물이 조성될 공간을 두고 중단과 하단의 축대를 쌓았는데 장축 80m, 단축 68m 가량의 규모가 된다. 상단과 중단의 축대 거리는 약 13m이며 2개의 건물이 들어서 있던 것으로 보인다. 중단과 하단의 축대 거리는 25m로 절터에서 가장 넓고 안정된 공간이 조성되어 있는데, 약 2.5m의 축대를 쌓고 건물을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곳에서는 석탑의 옥개석과 갑석, 그리고 주초석들이 땅속에 박혀 있는 것들이 확인되고 있어 사찰의 주요 건물들이 자리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중단 축대에서 하단 축대까지는 17m로 전방에 45m 가량의 축대열이 남아 있는데, 사찰의 부속건물들이 들어서 있던 곳으로 추정되고 있다.

목은 이색은 흥왕사를 지나다가 남긴 시가『속수증보 강도지』에 실려 있다.

流觀寶塔品 보탑품을 이리저리 살펴보다
 朗詠金仙歌 근선의 노래를 낭랑히 읊노라
 浮空本無帶 본디 꼭지 없어 허공에 떴지만,
 辭漢淚如波 한나라를 떠나며 눈물 흘렸다네
 雨途俱幻誕 두 가지 모두 허탄한 말이건만
 令人發深嗟 사람들은 깊은 탄식을 자아내네.
 恭惟文廟意 삼가 생각건대 문묘의 뜻은
 燕翼垂不廟 먼 후세에 좋은 계책 내린 것이요.
 忠臣固愛主 충신은 참으로 임금을 사랑하지만,
 祕術多差訛 비밀스런 술법엔 잘못된 게 많도다.
 秘雲擁曉色 애설픈 구름은 새벽빛 가리며,
 鬱然興山阿 산모퉁이에서 성하게 일어나는데,
 有客屢回首 나그네는 자주 머리를 돌리면서,
 驅馬登前坡 말을 몰아 앞 언덕을 올라가네

덕장사지(德藏寺址)

■시대 : 미상 ■유형 : 불교유적 / 사지 ■소재지 : 양도면 삼흥리 산57

강화남로 1002번길 171-7에 위치한 펜션에서 남서쪽으로 진강산을 오르
 면 불당골이라 불리는 계곡에 덕장사가 있었다. 2002년 조사에서 절터는 서
 북향의 길이 19m, 높이 2m의 축대 위에 20m정도의 평탄지를 만든 곳에 있
 었다고 하였다. 이 평탄지 위에 ‘ㄱ’자 형태의 건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면 축대 앞에도 6m정도의 평탄지가 있는데 이곳에는 작은 규모의 건물
 지가 조성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속수증보 강도지』에는 절터 옆에는 큰 석굴이 있고, 옛날 계단이 남아 있
 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석굴은 발견하지 못했다.

흥천사지(興天寺址)

■시대 : 미상 ■유형 : 불교유적 / 사지 ■소재지 : 양도면 삼흥리 산355



흥천사지(인천광역시립박물관)



흥천사지 임자터(인천광역시립박물관)

양도초등학교에서
 흥천마을을 지나 벽암
 산(碧巖山)의 서남록에
 평탄한 땅이 나오는데
 이곳에 흥천사가 있었
 다. 절터는 남서향으로
 남서-북동 35m, 북서-
 남동 50m 정도의 규모
 이다. 크게 3구역으로
 나뉘는데, 중간 구역은
 넓게 장방형으로 평지
 를 조성하고 다소 땅을
 돋은 곳에 건물지가 있
 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좌측은 약 1m 가량 높
 게 평지를 조성하였고,

우측은 약 30cm 정도 땅을 북돋아 평지를 조성하였는데, 각각 불전이 있었
 던 것으로 보인다.

2009년 조사에서 흥천사지 동쪽으로 등산로를 따라 가다보면 천주교 묘
 역이 나오는데, 이곳에서 30m 가량 진행하면 오른쪽에 넓은 계곡부가 나오

는데, 계곡 중단에 암자터가 확인되었다. 현재 높이 50cm 정도의 기단이 남아 있다.

금사골사지

■시대 : 미상 ■유형 : 불교유적 / 사지 ■소재지 : 양도면 조산리 산53



금사골사지(인천광역시립박물관)

조산리 마을회관에서 강화남로를 따라 200m 내려가다가 북쪽으로 150m 정도 올라가면 금사골이 나오는데, 이곳에 국정사가 있었다고 한다. 절터는 동서장축으로 남향하였는데, 초석과 기간석

의 일부만 발견될 뿐 잡목과 민묘들이 많아 사역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일부 단이 형성되어 있는 것에서 건물이 들어섰던 것으로 추정된다.

2003년 조사에서 당초 국정사지로 보고되어 있던 것을 사지가 위치한 금사골이라는 지명을 따서 금사골사지로 명칭을 바꾸어 보고하였다.

안양사지(安養寺址)

■시대 : 미상 ■유형 : 불교유적 / 사지 ■소재지 : 양도면 조산리 산40

조산리 마을회관의 맞은편 소로를 따라 북쪽으로 약 400m 정도 올라가면 진강산(鎭江山)과 연하는 부분의 밭이 나오는데, 이곳에 안양사가 있었다고 전한다. 절터는 남향의 동서장축을 이루고 있으며, 크게 2단으로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상단과 하단의 축대는 매몰되어 확인하기 어렵다.

절터의 규모는 동서 39m 정도로 추정된다.

2003년 조사에서 문지공(門支空)이 확인되었는데, 말각방향으로 상면이 다듬어진 문지공의 지름과 깊이는 16cm였다고 한다.



조산리 안양사지(인천광역시립박물관)

임해사지(臨海寺址)

■시대 : 미상 ■유형 : 불교유적 / 사지 ■소재지 : 양도면 인산리 산119

양도면 인산리 황골마을에서 북쪽으로 퇴모산에 오르면 전나무 숲이 나오는데, 이곳에서 왼쪽으로 50m정도 들어간 계곡 입구에 임해사가 있었다고 전한다. 창건과 폐사와 관련된 기록은 없고 전언으로만 전해지고 있다.

현재 절터는 토사가 쌓여 있어 유구를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태이다. 절터는 동서 30m, 남북 40m의 평지에 1단 또는 2단의 석축을 쌓아 조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절터의 남쪽에 석축단이 약 17.5m 정도 남아 있었다고 전한다.

혈구산무명절터(穴口山無名寺址)

■시대 : 미상 ■유형 : 불교유적 / 사지 ■소재지 : 선원면 선행리 산 194

선원면에 소재한 황련사(黃蓮寺)에서 서쪽으로 혈구산(穴口山)을 오르다 보면 해발 230m에 급한 경사가 나오는데, 이곳에 절 터가 있었다고 전하고 있지만 창건과 폐사와 관련된 기록은 전해지지 않는다. 다만, 본래 일명사지(逸名寺址)로 알려져 왔으나 학술조사에서 정미사라는 명문이 새겨진 와



혈구산무명사지(인천광역시립박물관)

당이 수습되면서 정미사지로 부르게 되었다고 하는데, 근거가 박약하여 이름없는 절[無名寺]로 부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동향으로 길이 19.5m, 높이 3m의 석축으로 축대를 쌓고 그 안

쪽으로 동서 15m, 남북 20m의 평지를 조성하여 작은 암자를 지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 노출된 부재들로 보아 동서 4.2m, 남북 9.5m 규모의 건물이 들어섰던 것으로 보인다.

혈구사지(穴口寺址)

■시대 : 고려시대 ■유형 : 불교유적 / 사지 ■소재지 : 선원면 선행리 산175



혈구사지(인천광역시립박물관)

선원면에 소재한 충렬사(忠烈祠)에서 국화저수지로 난 옛길을 따라 가다 보면 나오는 강화섬 김치에서 좌측으로 혈구산으로 오르면 시리미캠핑장이 나오는데 이 부근에 혈구사가 있었다고 전한다.

『속수증보 강도지』에는 혈구사가 1259년(고종 46)에 흥왕이궁(興旺離宮)과 삼랑성가궐(三郎城假闕)과 함께 창건하였는데, 폐사의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다. 1264년(원종 5)에는 혈구사에서 대왕일도량(大日王道場)을 베풀고 왕이 행차하여 향을 올렸다고 하였다.

절터는 동향으로 전체 규모는 동서 50m, 남북 40m로 크게 4개 단의 축대를 만들어 조성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용당사지(龍堂寺址)

■시대 : 조선시대 ■유형 : 불교유적 / 사지 ■소재지 : 선원면 연리 422-4

강화대교에서 초지대교 방향으로 해안도로를 따라 가다보면 나오는 용진(龍津鎭)과 좌강돈대(左綱墩臺)에서 400여m를 더 가면 좌측에 과수원이 보이는데, 이곳에 용당사가 있었다고 전한다.

『강도지』에 의하면 임신년(壬申年; 1692)에 본부로부터 중을 모았으며, 또한 장교들로 하여금 역을 감독하게 하여 계유년(癸酉年; 1693)에 역을 마쳤



용당사지

다고 한다. 창건 목적은 성첩(城堞)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으나 중은 3명만 있었다고 하였다. 사찰에 속한 소금 굽는 염분(鹽盆) 한 곳과 진선(津船) 한척이 있었다고 한다.

절터는 동서 74m 남북 45m 정도로 추정된다. 용당사지 동쪽은 해안 절벽과 이어져 풍광이 매우 좋다. 『속수증보 강도지』에는 ‘용당제월(龍堂霽月)’이 강도팔경(江都八景)의 하나였으니 용당사 또한 명승지로 일컬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구주사지(九州寺址)

■시대 : 고려시대 ■유형 : 불교유적 / 사지 ■소재지 : 내가면 오상리 산197-3

내가면 오상리 마을회관에서 남서쪽으로 봉금산을 오르면 봉금약수터가 나오는데, 이 부근에 구주사가 있었다고 전한다. 『속수증보 강도지』에는 사찰의 아랫마을을 구주촌(九州村)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정확한 창건과 폐사 시기는 알 수 없다.

2002년 조사에서 절터에 동서방향으로 3층으로 바른층쌓기를 한 석축이 약 20여m가 남아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고 하였다.

대정사지(大井寺址)

■시대 : 미상 ■유형 : 불교유적 / 사지 ■소재지 : 내가면 외포리 산199



대정사지(인천광역시립박물관)

강화유스호스텔에서 국수산(國壽山)을 오르면 약수터가 나오는데, 이곳에서 좌측으로 200m 정도 오르면 대정사라는 절이 있었다고 전하지만 창건과 폐사 시기는 알 수 없다. 『속수증보 강도지』

에는 절 아래에 연못 하나가 있었는데 메워져 없어져 겨우 연못 형태만 남아 있는데, 샘물이 흘러 아래에서 산골 물을 이루고 있는 것에서 대정(大井)이라 하지 않았을까 추정하고 있다. 또 마을 사람들은 절 있는 고개를 절터고개[寺墟峴]이라 부른다고 하였다.

절터의 축대는 동남향이며 규모는 가로 50m, 세로 40m 정도이며, 허튼층쌓기를 한 높이 1.5m, 길이 5m 정도의 축대가 보인다.

봉은사지(奉恩寺址)

■시대 : 고려시대 ■유형 : 불교유적 / 사지 ■소재지 : 하점면 장정리 산193



봉은사지(인천광역시립박물관)

하점면 하점우체국에서 우측으로 봉천산(奉天山) 방향으로 약 400m 올라가면 오층석탑이 나오는데, 이곳에 봉은사가 있었다고 전한다. 창건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249년(고종 36)부터 1259년까지 매년 2월에 연등회(燃燈會)를 열었고, 원종(元宗)대에도 7차례에 걸쳐 연등회를 베풀었다고

한다. 폐사의 시기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조선시대에 편찬된 지리책에 수록되지 않은 것에서 조선 초기에 이미 폐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속수증보 강도지』에는 고려 말에 평장사(平章事) 하음백(河陰伯) 봉천우(奉天佑)가 5대조인 봉우(奉佑)를 구호해 준 덕을 기념하여 대(臺)를 만들어 하늘에 제사하였고, 절을 지어 노파를 발원하였으므로 그 대를 봉천대(奉天臺)라 하였고, 절을 봉은사라 하였다는 『봉씨소원록(奉氏溯源錄)』이 소개되었다.

절터는 봉천산을 등진 동향으로 경사면을 평지로 만들어 장방형의 터를 잡았다. 절터의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치우친 곳에는 보물 제10호로 지정된 하점면오층석탑이 자리하고 있다.

수월사지(水月寺址)

■시대 : 미상 ■유형 : 불교유적 / 사지 ■소재지 : 하점면 장정리 산72



수월사지(인천광역시립박물관)

하점면 하점우체국에서 봉천산을 올라가면 보물 제11호로 지정된 하점면석조여래입상을 지나 북쪽으로 더 올라가면 계곡이 시작되는 평지에 수월사가 있었다고 전한다. 사찰의 창건 연대는 정확하

지 않으나, 1530년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과 1783년에 편찬된 『심도지(沁都誌)』에도 사찰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18세기 말까지 존속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절터는 산의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축대를 쌓고 그 위에 동서 40m, 남북 30m 정도의 평지를 조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자연석을 결대로 쌓은 축대가 12m 정도 남아 있다.

월명사지(月明寺址)

■시대 : 미상 ■유형 : 불교유적 / 사지 ■소재지 : 송해면 하도리 산115-1

송해면 하도저수지에서 고려산 방향으로 올라가다 보면 비교적 평평한 지형을 이루고 있는 지역이 나오는데 이곳에 월명사가 있었다고 전한다. 사찰의 창건과 폐사의 시기에 대하여는 전하는 바가 없다.

2002년 조사에서 절터를 대략 동서 30m, 남북 10m 정도로 추정되며 동서로 쌓은 축대가 일부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안양사지(安養寺址)

■시대 : 미상 ■유형 : 불교유적 / 사지 ■소재지 : 교동면 상룡리 199-1

교동향교에서 316번 지방도를 따라 상룡리 방향으로 약 600여m를 가다 보면 갈림길이 나오기 전 약 80m 지점에서 좌측으로 받들이 나오는데, 이를 가로질러 화개산 방향으로 오르다 보면 장수약수터가 나온다. 이곳에 안양사가 있었다고 전하는데, 정확한 창건과 폐사의 시기는 알려지지 않았다.



상룡리 안양사지

절터는 약수터 오른쪽 잡목과 수풀사이에 석축이 보이는데 남향으로 동서 21m, 남북 19m 규모의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절터의 남쪽 끝에 축대 부가 있는데 석축은 없고 높이 1m 정도의 토단만 보인다.

화양사지(華陽寺址)

■시대 : 미상 ■유형 : 불교유적 / 사지 ■소재지 : 교동면 지식리 산53 일대



화양사지

교동면 지식리에 소재한 지식교회에서 북쪽으로 교동북1길 170번길을 따라 오르다 보면 화양동이라는 마을이 나오는데, 이곳에 있는 우물을 중심으로 화양사가 있었다고 전한다. 사찰의 창건과

폐사와 관련된 기록은 전하지 않는다.

마을사람들은 이 우물을 절우물이라 부르는데 우물을 중심으로 동서와 남북 모두 50m 정도의 절터를 조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절우물 주변에는 옥개석과 대석 등의 탑부재가 보이는데 전언에 따르면 5층석탑이 있었다고 한다.

오두정지(鰲頭亭址)

■시대 : 고려시대, 조선시대 ■유형 : 별서 / 정원 / 누정지
■소재지: 불은면 오두리 5 일대

초지대교에서 강화대교 방향으로 해안도로를 따라 10km 정도 올라가다



오두정지

보면 오두돈대(鰲頭墩臺)가 나오는데, 남쪽으로 난 좁은 길을 따라 약 30m 내려가면 오두정이 있었던 터가 있다. 『속수증보 강도지』에 의하면 선조(宣祖) 때 첨지(僉知) 송인범(宋仁範)이 정자를 지어 오정(鰲亭)이라 하였고, 충장공(忠莊公) 권율(權慄)이 말년에 선원연리(仙源烟里)에 와서 거주할 때 오정 일대가 권율의 사패지가 되었으므로 오두정 일대에 별장을 짓고 만취당(晩翠堂)이라 하였다고 한다. 또 고려 때 세워진 오랜 정자라고도 전하며, 이미 폐지되었다고 하였다.

오두정지는 오른쪽으로 넓게 오두정의 왼쪽을 바다가 감싸고 있으며 산과 시냇물이 그 오른쪽을 둘러싸고 있어 경치가 아름답다고 전해지고 있으나 현재는 정자의 흔적을 찾기 어렵다. 오두정 터의 해안을 따라 강화전성의 흔적이 잘 남아 있다. 강화전성은 강화외성의 일부로 사적 제452호로 지정되었다.

솔정리 송정지(松亭址)

■시대 : 조선시대 ■유형 : 별서 / 정원 / 누정터 ■소재지 : 송해면 솔정리 446-2



송정지

송해면사무소 앞 도로를 따라 북쪽으로 100여m 올라가면 우측에 밭이 나오는데, 이곳에 송정이 있었다고 전한다.

『속수증보 강도지』에는 임진왜란 때 양호체찰사(兩湖體察使)로 강화에 온 송강(松江) 정철(鄭澈)이 송해면 솔정리에 살았는데 이곳을 송정우사(松亭寓舍)라 하였다고 하였다. 정철은 이곳에 우거하면서 승지(承旨) 홍찬서(洪贊緒)와 진사 고자원(高自元)과 교류하였다.

현재 송정의 터는 경작지가 되어 송정과 관련한 유구를 찾을 수 없다.

대흥정지(大興亭址)

■시대 : 조선시대 ■유형 : 별서 / 정원 / 누정터 ■소재지 : 강화읍 신문리 413-1

강화산성 남문에서 남서쪽으로 가다보면 남산이 시작되는 부분에 밭들이 나타나는데 이곳에 대흥정이 있었다고 전한다.

『속수증보 강도지』에 의하면 대흥정은 활을 쏘는 터(射亭)로 1788년(정조 12) 강화유수 송재경(宋載經)이 관민과 함께 건축한 것이라고 한다. 홍인규(洪仁規)의 기문에는 대흥(大興)은 지명이고, 정자는 활 쏘는 정자라고 하였다. 원래 활을 쏘던 장소였으나 유수가 시찰을 하다가 정자가 없는 것을 보고 여러 무사를 시켜 남장대에 남은 기와를 가져와 공사를 시작하자 각각 힘을 보태고 재물을 모아 여름 3개월의 공을 들여 팔작지붕의 정자를 세웠

다고 하였다. 대흥정은 활 쏘는 선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비가 오거나 화창한 날씨에도 의지할 수 있고, 군사 훈련의 장소로도, 위급할 때에는 초루(譙樓)로도 삼을 수 있다고 하였다. 근대에 들어서는 고종(高宗)과 순종(純宗)이 승하하였을 때에 강화군민이 모여 망곡(望哭)하였던 곳이었으며, 1950년대에 무너졌다고 전한다. 2002년 조사에서 정자의 초석과 기단석이 확인되었다.

해운정지(海雲亭址)

■시대 : 조선시대 ■유형 : 별서 / 정원 / 누정터 ■소재지 : 양도면 하일리 420-1



해운정지

양도면사무소에서 서쪽으로 약 1.3km 정도 떨어진 하일부락의 끝자락에 해운정이 있었다고 전한다. 『속수증보 강도지』에는 신광일(申光一)의 별장이라 하는데, 자세하지 않으나 오래된 정자라고 하였다. 여러 차례 주인이 바뀌다가 근대에는 내시(內侍) 춘파(春坡) 황수연(黃壽延)이 그 터를 일구고 새로이 별장을 짓고 살았는데, 별이 잘 들고 남쪽을 향해 바라보면 동남쪽

의 여러 산이 한눈에 들어온다고 하였다.

정자 터는 현재 주거지로 변하였고, 장초석, 단초석 등의 부재가 정원석으로 사용되고 있다. 전언에 따르면 1965년 경 철거된 해운정은 약 7평 정도의 규모에 4평의 장초석 위에 누각과 옆으로 ‘ㄱ’자 형태의 방이 붙어 있었다고 한다.

금위영지(禁衛營址)

■시대 : 조선시대 ■유형 : 관아건축 / 건물지 ■소재지 : 강화읍 갑곶리 1081-1임



금위영지

강화대교 북쪽 해안도로를 따라 가면 해운사(海雲寺)가 나오는데, 절 앞쪽으로 금위영이 있었다고 전한다. 그 앞으로 강화 외성의 여러 문루 중의 하나인 북파루가 있었다고 전해진다.

금위영은 조선 후기 국왕의 호위와 도성의 방어를 위해 중앙에 설치되었던 군영(軍營)이다. 1682년(숙종 8) 병조(兵曹)의 청초군(淸抄軍)과 훈련도감(訓練都監)의 훈련별대(訓練別隊)를 합쳐 하나의 군영으로 만든 것이다.

금위영의 군속은 기사(騎士), 향군(鄕軍), 금하군(禁下軍), 기타군(其他軍)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강도유영군(江都留營軍)은 기타군에 속하였다. 강도유영군은 1698년(숙종 24)에 설치되었는데 교련관 중에서 1년씩 윤차(輪差)하여 별관으로 삼고 진해사 승도(僧徒)를 금위영에 속하게 하여 대오지제(隊伍之制)를 편성하였다.

현재 금위영지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조립식가옥 작업장으로 변하여 있었다.

북파루지(伏波樓址)

■시대 : 조선시대 ■유형 : 관아건축 / 건물지 ■소재지 : 강화읍 갑곶리

강화대교 북쪽 해안도로를 따라 가면 옛 진해사 터에 자리한 해운사(海雲寺)가 나오는데, 진입로 일대에 북파루가 있었다고 전한다. 해운사와 북파루 사이에 금위영이 있었다.



북파루지

강화외성(江華外城)의 여러 문 중 하나인 북파루는 1679년 금위영에서 만들었으며, 1758년에 한 차례 중수한 사실이 전해지고 있다. 현재는 도로 개설로 인하여 그 흔적을 확인할 수 없다.

광화문지(廣化門址)

■시대 : 고려시대 ■유형 : 관아건축 / 건물지 ■소재지 : 강화읍 관청리 368

강화읍내에서 고려궁지를 향해 언덕을 오르면 고려궁지 출입문 인근에



광화문지

궁의 동문인 광화문이 있었다고 전한다. 고려 궁궐은 몽골의 공격을 피하여 강화도로 천도한 1232년(고종 19) 6월에 창건되었다.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에는 최우(崔瑀)가 이

령군(二領軍)을 동원하여 궁궐을 지었다고 하였다.

1234년 1월부터 송도(松都; 개성)의 궁궐과 비슷하게 도성과, 궁궐, 각 관청을 건립하였는데, 궁의 뒷산을 송악(松岳)이라 개칭하고 궁궐의 정문은 승평문(昇平門), 동문은 광화문을 두었다. 『속수증보 강도지』에는 왕부의 편문(偏門)으로 그 방향은 동쪽을 향하였고 웅성(甕城)은 없지만 장식이 지나치게 화려하다고 하였다. 1270년(원종 11)에 개경으로 환도하면서 모두 허물어졌다. 현재는 고려궁지로 올라오는 도로가 개설되어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중영지(中營址)

■시대 : 조선시대 ■유형 : 관아건축 / 건물지 ■소재지 : 강화읍 관청리 552

강화읍내에서 고려 궁지를 향해 오르다 보면 좌측에 강화읍사무소가 있는데, 이곳에 1871년(고종 8)에 유수 김선필(金善弼)이 세웠다는 중영(中營)이 있



중영지

었다. 1881년(고종 18)에 군제가 개편될 때 폐지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는 어떠한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

진무영지(鎭撫營址)

■시대 : 조선시대 ■유형 : 관아건축 / 건물지 ■소재지 : 강화읍 관청리 523-3

강화읍내에서 고려 궁지로 오르는 도로의 입구 좌측에 강화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이 들어선 건물이 있는데 이곳에 진무영이 있었다.



진무영지

진무영은 강화도에 본영을 두고 바다를 지키는 일을 맡아보는 군영이었다. 1684년(숙종 10) 유수 윤계(尹堦)가 세웠는데, 1870년 현재의 연무당터로 이전될 때까지 활용되었다고 전한다.

형방지(刑房址)

■시대 : 조선시대 ■유형 : 관아건축 / 건물지 ■소재지 : 강화읍 관청리 654

강화읍내에서 고려궁지로 올라가다 용흥공원사거리에서 왼쪽으로 100m 정도 가서 다시 우측으로 100m 정도 올라가면 개발을 위하여 건물들이 파괴된 터가 나오는데, 이곳이 조선시대 강화유수부의 형방터라고 전한다.

고려궁궐은 1270년(원종 11) 환도하면서 폐쇄되었다. 조선시대에 들어 1631년(인조 9)에 옛 궁궐터에 행궁(行宮)을 지어 국가의 위기에 대비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강화유수부(江華留守府)의 관아(官衙)가 들어서게 되



형방지

었는데, 형방은 강화유수부의 부속기관이다. 고려, 조선시대에는 도성 이외의 옛 도읍지나 행궁이 있던 곳 또는 군사적 요충지였던 개성, 전주, 강화, 광주, 수원 등지에 유수(留

守)를 두었는데, 강화는 병자호란 후에 유수를 두었다.

이 건물은 일제강점기에 농산물검사소로 사용되었으며, 광복 후에는 민간에 불하되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시멘트 몰탈로 외벽이 미장되어 있어 옛 모습을 확인하기 어렵다.

연무당지(鍊武堂址)

■시대 : 조선시대 ■유형 : 관아건축 / 건물지 ■소재지 : 강화읍 신문리 1092

강화군청에서 송해면 방향으로 48번 국도를 따라가다 보면 강화산성의 서문인 담화루(膽華樓)가 나오는데 그 남쪽에 연무당이 있었다.



연무당터

연무당은 1864년 세워진 강화읍사무소 자리의 진무영이 1870년(고종 7)에 새로이 이전되었다. 바다를 지키는 일을 맡아보던 연무당은 큰 활동이 없었다가 외국 선박의 침

입이 잦아지자 국방상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기구를 대폭 강화되었다. 강화유수가 겸임하는 진무사 밑에 정3품의 중군 1인과 상영대솔군관(上營帶率軍官) 3인, 중영대솔군관(中營帶率軍官) 2인을 두었다. 소관부대로는 종전에 경기수영 하에 있던 각 진(鎭)이 이속되었으며, 병력은 포군(砲軍)을 중심으로 하여 3,000여 명에 달하였다. 재정은 사복시의 세납전(稅納錢)을 비롯하여 많은 재원이 할당되었고, 특히 1871년 김병학(金炳學)의 건의로 심도포량미(沁都砲糧米)라는 특별세를 제정하여 경비에 충당하게 하였다. 연무당은 1874년에 옛 군제로 환원될 때까지 지방군의 중추세력으로 기능하였다.

현재는 주변이 정리되어 옛 흔적은 찾을 수 없고, 연무당 옛터를 알리는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선두포 수문지(船頭浦 水門址)

■시대 : 조선시대 ■유형 : 관아건축 / 기타 ■소재지 : 길상면 선두리 1146-3



선두포 수문지

길상면에 소재한 강화로알유스호텔에서 함허동천으로 348번 지방도를 따라 가다 보면 길화교(吉華橋)가 나오는데 이곳에 수문의 석축이 남아 있다.

선두포는 1706년(숙종 32)에 유수 민진원(閔鎭遠)이 왕의 윤허를 받아 이듬해까지 독을 쌓아 막은 것으로 가릉포(嘉陵浦)와 함께 축조되어 현재의 화도면과 양도면을 연결시키는 대규모의 토목공사였다.



선두포 수문지 문주석과 석축

수문의 서쪽 석축은 남아 있지 않고, 동쪽에는 높이 2.1m, 폭 6.5m 가량의 문주석이 남아 있다. 문주석 사이로는 다듬은 돌로 쌓은 석축이 남아 있다.

훈련도감지(訓練都監址)

■시대 : 조선시대 ■유형 : 관아건축 / 건물지 ■소재지 : 선원면 신정리 산61임

선원면에 소재하고 있는 사적 제259호 선원사지(禪源寺址) 동북쪽으로 약 1km 떨어진 곳에 도감말이 있는데, 이곳에 훈련도감이 있었다고 전한다.

임진왜란 이후 조선후기에 도성과 그 외곽을 방어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다섯 군영을 오군영(五軍營)이라 하였다. 훈련도감, 어영청(御營廳), 금위영(禁衛營)은 도성을 직접 방어하는 중앙군영(中央軍營)이었으며, 총융청(摠戎廳), 수어청(守禦廳)은 도성의 외곽의 방어를 담당하였다.

『강도지』에는 병자호란 이전에는 선원면에 있었는데 경신년(1680)에 이르러 다시 세웠다고 하였다. 규모는 쌀이 550섬, 조가 120섬, 감장이 28옹기, 무명이 282동, 포가 6동, 화약이 37,200근, 대조총 55자루, 대연환 1,500개, 수철환 16,500개, 소연환 407,000여개, 장전 4,000부, 편전 3,000부, 황

촉(黃燭) 10,000냥, 연철(鉛鐵) 13,380근, 신철(薪鐵) 69,300근, 가마 215좌, 발달린 술 210좌, 도끼 31자루, 작두 152자루, 대가래 445자루, 소가래 400자루, 소씨랑 205자루, 삽자(鍤子) 1,307개, 팽이 330자루, 수철대포 645좌, 동대포 10좌라고 하였다.

훈련도감이 강화 선원면에 있었다고 전해지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 유적 주변에는 석축과 기동초석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면석들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보아 훈련도감이라 단정할 수 없지만 대규모 공해(公廨) 건축물이 있었음에는 틀림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총융청도 강화 선원면에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덕진별관지(德津別館址)

■시대 : 조선시대 ■유형 : 관아건축 / 건물지 ■소재지 : 불은면 오두리 217-7

광성보에서 오두돈대를 향해 해안도로를 따라 올라가면 오른쪽 해안가에 갈대밭이 형성된 곳에 덕진별관이 있었다고 전한다.

『강도지』에 따르면 1866년 덕진에 정사(亭舍)를 지어 임금의

행차에 근심이 없게 하였는데, 이듬해에 왕의 재가를 얻었다. 또 인근에 제방을 쌓아 논으로 쓸 수 없는 곳에 갈대를 기르게 하여 정사를 덮도록 하였다고 하였다. 다른 전언으로는 1675년(숙종 1)에 유수 허질(許秩)이 세웠다고도 한다.



덕진별관지

유수 민진원(閔鎭遠)이 강화읍으로 행궁을 이전하면서 폐허가 된 별관 터에는 갈대밭이 조성되어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고읍형옥지(古邑刑獄址)

■시대 : 미상 ■유형 : 관아건축 / 건물지 ■소재지 : 교동면 고구리 산 113



고읍형옥지

교동면사무소에서 310번 지방도를 따라 가면 고구리저수지가 나오는데 저수지의 동쪽 야산과 민가가 있는 곳에 고목근현(高木根縣)의 읍성이 있었다고 전한다. 고목근은 교동

의 고구려시대 지명이다. 화개산 남쪽에 자리 잡은 고읍성의 둘레는 1,171m이고 면적은 약 47,50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고읍성에서 서남쪽으로 150m 정도 떨어진 곳에 형옥(刑獄)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으나, 현재는 민묘 몇 기가 들어서 있어 그 흔적을 찾기 어렵다.

삼도수군통어영지(三道水軍統禦營址)

■시대 : 조선시대 ■유형 : 관아건축 / 건물지 ■소재지 : 교동면 읍내리 420-1

교동면사무소에서 남쪽으로 약 2.5km 떨어진 곳에 남산포가 있는데, 이 일대에 삼도수군통어영의 훈련장이 있었다고 전한다. 그러나 근래에 선착장이 신축되면서 당시의 흔적은 발견할 수 없다.

북방의 위협이 커지면서 반정으로 즉위한 인조는 강화도에 대한 방비를 강화하였다. 1633년(인조 11)에 화량진(花梁鎭)에 있었던 경기수영(京畿水



삼도수군통어영지

營)을 교동으로 옮기고 통어영(統禦營)으로 승격시키면서 경기, 충청, 황해 등 삼도의 수군을 관장케 하였다. 통어영은 청과의 관계가 공고해지면서 기능이 약화되어 황해도에 수영이 설치되고, 영중에 방어영이 만들어지면서 통어영의 지휘권에서 벗어났다. 또한 강화도의 방어체계가 수군에서 육군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규모가 크게 축소되었다.

추정 경원전지(推定 慶源殿址)

■시대 : 조선시대 ■유형 : 관아건축 / 건물지 ■소재지 : 교동면 읍내리 420-1

고구리저수지의 북단에 있는 마을에 고려 희종(熙宗)의 유배처인 경원전(慶元殿)이 있었다고 전한다. 강화도뿐만 아니라 교동도 또한 고려와 조선시대에 걸쳐 왕, 왕족, 관리들이



추정 경원전지

많이 유배를 왔던 곳이다. 그 중 고려 무신집권기에 최충헌(崔忠獻)을 시해하려 했던 희종도 1211년에 교동도에 유배되었다.

유적의 주변은 경작지로 변하여 동서 31m, 남북 25m 규모의 평지가 조성되었는데, 그 북동단에 우물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북단에는 축대가 형성되어 있다. 다만, 희종의 경원전이 고목근현 고읍성 내에 있었다는 전언도 있다.

비지정 건물지 현황

1	진해사지	강화읍 갑곶리 1082-1 · 1083-3 일대	조선시대	불교유적/사지	비지정문화재
2	갈공사지	교동면 고구리 232 · 233 일대	미상	불교유적/사지	비지정문화재
3	용장사지	강화읍 국화리 462	고려시대	불교유적/사지	비지정문화재
4	홍릉사지	강화읍 국화리 산157-2	미상	불교유적/사지	비지정문화재
5	황련사지	하점면 고려산로 61번길 270	삼국시대	불교유적/사지	비지정문화재
6	병풍암사지	강화읍 남산리 산66	미상	불교유적/사지	비지정문화재
7	송악사지	강화읍 대산리 산129-1	미상	불교유적/사지	비지정문화재
8	왕림사지	강화읍 옥림리 산59	미상	불교유적/사지	비지정문화재
9	범머리사지	강화읍 용정리 범머리 255전	미상	불교유적/사지	비지정문화재
10	목왕사지	강화읍 용정리 700	미상	불교유적/사지	비지정문화재
11	망고도사지	서도면 볼음도리 산 7-25	미상	불교유적/사지	비지정문화재
12	묘지사지	화도면 사거리 산36-23	고려시대	불교유적/사지	비지정문화재
13	묘통사지	화도면 상방리 산71-3	고려시대	불교유적/사지	비지정문화재
14	왕륜사지	화도면 장화리 산13	고려시대	불교유적/사지	비지정문화재
15	흥왕사지	화도면 흥왕리 산36	고려시대	불교유적/사지	비지정문화재
16	덕장사지	양도면 삼흥리 산57	미상	불교유적/사지	비지정문화재
17	흥천사지	양도면 삼흥리 산355	미상	불교유적/사지	비지정문화재
18	금사골사지	양도면 조산리 산53	미상	불교유적/사지	비지정문화재
19	양양사지	양도면 조산리 산40	미상	불교유적/사지	비지정문화재
20	임해사지	양도면 인산리 산119	미상	불교유적/사지	비지정문화재
21	정미사지	선원면 선행리 산 194	미상	불교유적/사지	비지정문화재
22	혈구사지	선원면 선행리 산175	고려시대	불교유적/사지	비지정문화재
23	웅당사지	선원면 연리 422-4	조선시대	불교유적/사지	비지정문화재

24	구주사지	내가면 오상리 산197-3	고려시대	불교유적/사지	비지정문화재
25	대정사지	내가면 외포리 산199	미상	불교유적/사지	비지정문화재
26	봉은사지	하점면 장정리 산193	고려시대	불교유적/사지	비지정문화재
27	수월사지	하점면 장정리 산72	미상	불교유적/사지	비지정문화재
28	월명사지	송해면 하도리 산115-1	미상	불교유적/사지	비지정문화재
29	안양사지	교동면 상룡리 199-1	미상	불교유적/사지	비지정문화재
30	화양사지	교동면 지석리 산50 일대	미상	불교유적/사지	비지정문화재
31	오두정지	불은면 오두리 5 일대	고려·조선	별서/정원/누정지	비지정문화재
32	술정리 송정지	송해면 술정리 446-2	조선시대	별서/정원/누정지	비지정문화재
33	대흥정지	강화읍 신문리 413-1	조선시대	별서/정원/누정지	비지정문화재
34	해운정지	양도면 하일리 420-1	조선시대	별서/정원/누정지	비지정문화재
35	금위영지	강화읍 갑곶리 1081-1임	조선시대	관아건축/건물지	비지정문화재
36	복파루지	강화읍 갑곶리 1081-1임	조선시대	관아건축/건물지	비지정문화재
37	광화문지	강화읍 관청리 368	고려시대	관아건축/건물지	비지정문화재
38	중영지	강화읍 관청리 552	조선시대	관아건축/건물지	비지정문화재
39	진무영지	강화읍 관청리 523-3	조선시대	관아건축/건물지	비지정문화재
40	형방지	강화읍 관청리 654	조선시대	관아건축/건물지	비지정문화재
41	연무당지	강화읍 신문리 1092	조선시대	관아건축/건물지	비지정문화재
42	선두포 수문지	길상면 선두리 1146-3	조선시대	관아건축/기타	비지정문화재
43	훈련도감지	선원면 신정리 산63	조선시대	관아건축/건물지	비지정문화재
44	덕진별관지	불은면 오두리 217-7	조선시대	관아건축/건물지	비지정문화재
45	고읍형옥지	교동면 고구리 산113	미상	관아건축/건물지	비지정문화재
46	삼도수군통영영지	교동면 읍내리 420-1	조선시대	관아건축/건물지	비지정문화재
47	추정 경원전지	교동면 고구리 206·207	고려시대	관아건축/건물지	비지정문화재

종교와 제의

강화도는 한강, 임진강, 예성강이 합류하는 하구에 자리한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큰 섬이다. 선사시대부터 교통과 군사적으로 요충으로 기능하였다. 고려시대에는 임시 수도로서, 조선시대에는 왕실의 피난처와 수도방어

의 전진기지로 역할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강화도에는 500여 곳이 넘는 다양한 문화유적이 산재하고 있다. 그 중에서 종교와 제의 유적은 크게 해양세력의 안녕을 기원하는 사찰과 동리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당집, 그리고 국난과 관련하여 내려진 정려가 주를 이루고 있다.

강화도의 사찰은 천축(天竺; 인도)에서 온 조사가 고려산에 올라 연꽃 다섯 잎을 날렸더니 다섯 가지 색으로 변하여 떨어진 곳에 사찰을 지었다는 오련설화(五蓮說話)에서 기원하고 있다. 꽃잎이 떨어진 곳에 색깔에 따라 사찰을 건립하였는데, 황련사·백련사·청련사·적련사·흑련사 등의 오련사(五蓮寺)가 그것이다. 백련사와 청련사는 그 자리에 불사를 이어오고 있으며, 황련사는 위치를 바꾸어 이름만이 전해지고, 적련사는 적석사로 이름을 바꾸어 그 맥을 잇고 있다. 삼국시대 사찰로는 고구려의 아도화상이 창건한 진종사(眞宗寺)가 전등사(傳燈寺)로 이름을 바꾸어 강화도의 대표적인 전통사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신라 선덕여왕 때 화정(懷正)대사가 창건한 정수사와 보문사가 그 맥을 잇고 있다. 고려시대에는 많은 사찰들이 건립되었으나 앞 장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지금은 그 터만 남아 있다.

강화도는 해양세력의 중심지였고 또한 주민들은 어로행위를 통해 삶을 영위하였던 곳이다. 강화의 해안을 중심으로 풍어와 함께 동리의 번영과 안녕을 위한 동제를 지내던 당집이 여러 곳 있었다. 석모도의 석모리 당집, 창말 당집과 교동도의 부근당과 사신당 등은 잘 남아 있으나, 나머지 당집들은 흔적을 찾을 수 없거나 접근이 용이하지 않았다.

강화도의 정려는 대부분 병자호란 당시 임금을 호종하였거나 청군과의 전투에서 전사한 인물들의 것이 대부분이다. 황대곤, 차명세, 문응규 등은 강화성을 사수한 공을 인정받았고, 황효원은 인종을 효종한 공을 인정받아 정려가 세워졌다. 제주 고씨의 사당인 영모사 앞에는 평해황씨의 효부 정려도 세워져 있다.

강화도의 제사유적 중 특징적인 것은 관제묘(關帝廟)이다. 관제묘는 관우를 모시는 사당으로 관왕묘, 관성묘, 관우묘, 관운묘, 관묘 등으로도 불린다. 또 동일 지역에 여러 개의 관제묘가 있는 경우에는 동서남북의 방위명을 붙여 부르기도 하는데 강화도에는 동관제묘(東關帝廟), 북관운묘(北關雲廟), 남관운묘(南關雲廟) 등 세 곳이 남아 있다. 관우를 신격화한 관제신앙은 임진왜란 당시 파병된 명나라 군사들이 관우의 음우로 왜군을 격퇴시켰다고 믿었기 때문에 도처에 관제묘를 세우고 수호신으로 모시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강화도의 종교와 제의 유적은 2002년 조계종 문화유산발굴단의 『강화의 문화유적』과 2003년 인천광역시 조계종 문화유산발굴단과 함께 조사한 『문화유적분포지도-강화군』을 기초자료로 하였다.

백련사(白蓮寺)

■시대 : 삼국시대 ■유형 : 불교유적 / 전통사찰 ■소재지 : 하점면 고려산로 61번길 270



백련사

백련사는 416년(장수왕 4)에 창건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으나, 이후의 불사(佛事)는 뚜렷하지 않다. 1806년(순조 6)에 임진왜란 때 승병을 이끈 휴정(休靜)의 선맥을 이은 고승 의해당(義解堂)의 사리비와 부도가 건립되었고, 1905년 승려 인암(忍庵)이 박보월(朴寶月)과 함께 당우(堂宇)를 중건하였으며, 1908년에는 승려 보월이 불상을 개금(改金)하고 탕화를 봉안하였다. 현존하는 당우로는 극락전(極樂殿)과 삼성각(三聖閣)·칠성각(七星閣)·대방(大房)·요사(寮舍) 등이 있다. 극락전에 봉안되었던 철아미타불좌상은 보물 제994호로 지정되었으나, 1989년 11월에 도난당하였다.

강화도에는 청련사(靑蓮寺), 황련사(黃蓮寺), 흑련사(黑蓮寺), 적련사(赤蓮寺) 등 연꽃 이름이 들어간 사찰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하고 있다.

고구려 장수왕 4년에 중국 동진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인도의 승려가 와서 절터를 찾았다. 고려산에 이르러 산 정상에 올라 다섯 색깔의 연꽃이 핀 연못을 발견한 승려는 백련, 황련, 청련, 흑련, 홍련 등 다섯 색깔의 연꽃을 공중에 날렸다. 그 연꽃이 떨어지는 곳마다 절을 건립하였는데, 백련사, 황련사, 청련사, 흑련사, 적련사(후에 적석사로 개명)라고 하였다.

병인양요 때에는 불길이 쌓인 장녕전에서 무거 김재성이 숙종과 영조의 영상을 들고 복문을 거쳐 이절에 모셨던 일이 있었다.

백련사에는 19세기 후반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신중도(神衆圖), 지장시왕도(地藏十王圖), 현왕도(賢王圖) 등의 불화가 소장되어 있다.

청련사(靑蓮寺)

- 시대 : 삼국시대 ■유형 : 불교유적 / 전통사찰
- 소재지 : 강화읍 고비고개로 188번길 112

국화저수지에서 우측으로 난 소로를 따라 약 1km 정도 올라가면 청련사

가 나온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장수왕 4년 인도에서 온 천축조사의 오련설화와 관련 있는 사찰로 조계사(曹溪寺)의 말사인 비구니사찰이다.

『속수증보 강도지』에는 오련설화와 함께 국

정동천(國淨洞天)에 있는데 높은 산봉우리가 감싸고 있으며 임천(林泉)이 그윽하고 아름다우며, 그 위에 원통암(圓通庵)이 있는데 속칭 국정상하사(國定上下寺)로 모두 여승들이 거처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1821년(순조 21) 비구니 포겸(包謙)이 폐허화된 이 절을 중창하였고, 1906년 계근(戒根)이 법전(法殿)을 중수하였으며, 1909년 선혜(善慧)가 산신각을 신축하였다. 그 뒤 정현(淨賢)은 1916년에 불상을 개금(改金)하고 감로탕화(甘露帳畫)를 조성하였으며, 1919년에는 범종(梵鐘)을 조성하였으며, 1936년에는 전면적인 중수를 단행하였다.

현재에는 대웅전을 비롯하여 산신각, 종각, 요사채 등의 당우(堂宇)와 함께 보물 제1787호로 지정된 목조아미타불상(木造阿彌陀佛像)과 1906년 조성된 감로탕화 등이 전해지고 있다.



청련사

청련사 부도군(靑蓮寺 浮屠群)

- 시대 : 조선시대 ■유형 : 불교유적 / 석조유물
- 소재지 : 강화읍 고비고개로 188번길 112

청련사 대웅전에서 좌측으로 약 50m 떨어진 산 능선 상에 2기의 부도탑



청련사 부도군

이 있다.

하나는 석종형의 부도로 시멘트로 만든 방형 기단 위에 탑신과 연봉형 보주를 하나의 돌로 조각하였다. 탑신에는 “은화당(隱華堂)이라는 당호가 새겨져 있

다. 전체 높이는 148cm이다.

다른 하나는 원형에 가까운 팔각 지대석 위에 대체로 사각형의 탑신을 올려놓고 그 위에 사다리꼴의 옥개석을 올려놓은 형태의 부도이다. 탑신에는 당화당(唐華堂)이라는 당호를 새겨 넣었다. 전체 높이는 110cm이다.

적석사(積石寺)

■시대 : 조선시대 ■유형 : 불교유적 / 석조유물

■소재지 : 강화읍 고비고개로 188번길 112

강화읍에서 301번 지방도를 따라 고천리 방향으로 가다보면 고천4리 마을회관이 나오는데, 앞쪽으로 난 소로를 따라 약 1.2km 정도 올라가면 고려산 낙조봉(落照峰)의 8부 능선에 적석사가 위치하고 있다. 고구려 장수왕 4년 인도에서 온 천축조사의 오련설화와 관련있는 사찰로 조계사의 말사이다.

붉은색 연꽃이 떨어진 곳에 사찰을 지어 적련사(赤蓮寺)라 하였을 것이나, 언제 적석사로 개액(揭額)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속수증보 강도지』 등에 이미 적석사로 통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적석사는 1544년(중종 39)과 1574년(선조 7)에 중수하였으나, 임진왜란



적석사

때 소실되었다. 묘정(妙淨)이 1593년(선조 26)에 선당(禪堂)을 중건하였고, 1634년(인조 12)에 계현(戒賢)과 삼창(三昌)이 불전(佛殿)을 중수하였으며, 1639년(인조 17)에 영운(靈允)이 승당(僧堂)을 중건하였다. 1644년(인조 22)에 묘정이 누각을 중건하였고, 1705년(숙종 31)에 학균(學均)이 향로전(香爐殿)을 중건하였으며, 1707년(숙종 33)에 보익(普益)과 승감(勝鑑)이 누각을 중수하였다. 1905년(광무 9)에 참령(參領)을 지낸 이동휘(李東暉)가 절의 토지를 사립학교 소유로 편입시켜 적석사는 폐사의 위기에 놓였으나, 점차 사세를 회복하여 1919년에 주지 박남하(朴南夏)가 대법당(大法堂)을 헐어 요사채 1동을 수리하였다고 전한다.

사찰 안에는 대웅보전, 범종각, 용왕각, 요사채 등의 당우와 함께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제38호로 지정된 적석사 사적비(事蹟碑)가 남아 있다.

사찰의 서쪽에 있는 푸른 바다의 낙조가 매우 아름다운데, 적석낙조(積石落照)는 강도십경(江都十景)에 포함되는 매우 훌륭한 경치를 뽐낸다.

보문사(普門寺)

■시대 : 삼국시대 ■유형 : 불교유적 / 전통사찰 ■소재지 : 삼산면 삼산남로 828번길 44



보문사

강화도와 석모도를 연결하는 석모대교를 건너 섬 반대쪽으로 돌아가면 낙가산 남록에 보문사가 위치하고 있다. 우리나라 3대 관음영지(觀音靈地) 중의 한 곳인 보문사의 창건과 관련하여 두 가지 설화가 전해지고 있다.

『속수증보 강도지』에는 신라 때 회정선사(懷正先師)가 금강산 보덕굴에서 이 산으로 거처를 옮겨 절을 지을 때 산세가 서천(西天) 사자국(師子國) 보타낙가산(普陀洛迦山)과 같아서 낙가산이라 하였는데, 낙가는 곧 관세음보살이 현세에 나타난 곳으로 사찰의 이름을 보문(普門)이라 한다고 하였다. 또 다른 연기설화(緣起說話)는 635년(선덕여왕 4)에 삼산면에 살던 한 어부가 그물에 걸린 인형 비슷한 돌덩이 22개를 낙가산으로 옮겼는데, 석굴에 이르러 돌이 무거워 더 이상 움직이지 않자 굴 안에 단(壇)을 모아 모시게 되었다고 전한다.

그 후의 사찰의 기록은 자세히 전하지 않다가 1812년(순조 12)에 이 절의 승려들이 홍봉장(洪鳳章)의 도움을 받아 중건하였고, 1867년(고종 4)에 경산(京山)이 석굴 안에 처마를 이어 나한전을 건조하였으며, 1893년(고종 30)에 명성왕후의 전교로 요사와 객실을 중건하였다고 한다.

현재 사찰에는 대웅전, 관음전, 대방(大房), 종각, 석실(시유형문화재 제27호) 등의 당우와 함께 인천광역시유형문화재 제29호 마애석불좌상, 인천광역시민속문화재 제1호 맏돌, 인천광역시기념물 제17호 향나무 등이 전해지고 있다. 또한 바위 위에 1,000명이 앉아 법회가 가능하다고 하는 길이 40m, 폭 5m의 천인대(千人臺)가 있다.

정수사(淨水寺)

■시대 : 삼국시대 ■유형 : 불교유적 / 전통사찰 ■소재지 : 화도면 해안남로 1258번길 142



정수사

강화도 마니산 동쪽 사면에 639년(선덕여왕 8)에 회정대사가 창건하였다고 전해지는 정수사가 위치하고 있다. 회정이 마니산 참성단을 참배한 뒤 그 동쪽의 지형을 보고 불제자가 가히 삼매정수(三昧精修)할 수 있는 곳이

라 판단하고 절을 창건하였다고 전한다.

그 뒤의 기록은 많지 않으나 1426년(세종 8)에 함허(涵虛)가 중창하고 법당 서쪽에서 맑은 물을 발견하고 절 이름을 정수사로 바꾸었다고 한다. 1848년(헌종 14) 비구니 법진(法眞)과 만흥(萬興)이 법당을 증수하였고, 1878년(고종 15) 비구니 계흔(戒欣)이 그의 제자 성수(性修) 등과 불상을 개금한 뒤 칠성탱화(七星幀畵), 독성탱화(獨聖幀畵), 산신탱화(山神幀畵) 등을 봉안하였으며, 1883년에 비구니 근훈(根訓)이 증수하였다고 한다. 정일(淨一)이 연오(演悟)의 시주를 얻어 1888년에 관음상과 후불탱화를 조성하였고, 1903년에는 산령각(山靈閣)을 증건하였다. 1905년에 법당을 증수하였고, 1916년에 불상을 개금하고 각단의 탱화를 봉안하였다

사찰 안에는 대웅전(보물 제161호), 산신각, 요사채 등의 당우와 함께 조선시대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칠지장보살좌상(乾漆地藏菩薩坐像)과 1872년 조각된 목조삼존불좌상(木造三尊佛坐像) 등의 불상이 전하고 있다. 19세기에 봉안된 것으로 보이는 아미타회상도(阿彌陀會上圖), 지장시왕도(地藏十王圖), 칠성도(七星圖), 현왕도(賢王圖) 등 탱화 7점과 함께 『법화경(法華經)』, 『은중경(恩重經)』 등의 경전이 전하고 있다.

함허대사 부도(涵虛大師 浮屠)

■시대 : 삼국시대 ■유형 : 불교유적 / 전통사찰 ■소재지 : 화도면 해안남로 125번길 142

정수사 경내에서 동북쪽으로 약 100m 정도 떨어진 능선에 함허대사의 부도가 있다.

함허대사(1376~1433)는 조선초기의 승려로 충청북도 충주 출신으로 법명은 수이(守伊), 무준(無準), 기화(己和) 등인데 기화로 잘 알려져 있으며, 함허는 당호(堂號)이다. 함허대사는 배불정책이 조선 초기의 통치이념이 되었을 때에 불교의 정법(正法)과 그 이치를 밝힘으로써 유학의 불교 비판의

오류를 시정시키고자 노력하였다.

거의 정방형(가로 340cm, 세로 329cm)에 가까운 기단을 정남향으로 설치하고 부도를 안치하였다. 전체 높이가 157cm인 부도는 상륜부와 옥개석, 탑신부를



함허대사 부도

포함하여 하나의 돌로 만들어졌다. 탑신 괴임은 별석인데 기단부를 한 돌로 해서 전체 3개의 별석으로 조성하였다.

시대석은 한 변의 길이가 101cm, 높이 8cm이고, 기단부의 하대석은 폭 67cm, 높이 19cm, 상대석은 높이 18.5cm, 별석으로 된 탑신 괴임은 높이 38cm이다. 탑신석의 높이 16cm, 옥개석의 높이는 30cm, 폭은 53cm이다. 상륜부의 높이는 30.3cm이다. 상륜부 일부는 훼손되었다.

동관제묘(東關帝廟)

■시대 : 조선시대 ■유형 : 유교유적 / 사우 ■소재지 : 강화읍 신문리 467번지

동관제묘는 강화읍 신문리에 위치한 합일초등학교 뒤편에 위치하고 있다.

관제묘는 『삼국지연의(三國志演義)』에 등장하는 관우(關羽)를 모시는 사당으로 관왕묘(關王廟), 관성묘(關聖廟), 관우묘(關羽廟), 관운묘(關雲廟), 관묘(關廟) 등으로도 불린다. 또 동일 지역에 여러 개의 관제묘가 있는 경우에는 동서남북의 방위명을 붙여 부르기도 하는데 강화군에는 동관제묘 이외에 북관운묘(北關雲廟)와 남관운묘(南關雲廟)가 남아 있다.

관제묘의 주신(主神)은 관우로 관성제군(關聖帝君), 관제(關帝), 관운장



동관제묘

(關雲長, 關雲將), 관왕(關王), 성제(聖帝) 등으로 불리는 인물로 자는 운장(雲長), 시호(諡號)는 충의후(忠義侯)이다. 유비(劉備), 장비(張飛)와 함께 의형제를 맺고 무장(武將)으로 활약하였으며, 오나

라와의 전투에서 여몽(呂蒙)에게 패하고 죽었다.

관우를 신격화하여 신앙하는 종교적 행위를 관제신앙(關帝信仰)이라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임진왜란 당시 파병된 명나라 군사들에 의해 전래되었다고 한다. 관우의 음우(陰佑)로 왜군을 격퇴시킨 것이라는 믿음으로 도처에 관제묘를 짓고 국가 수호신으로 모시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1598년(선조 31)에 비로소 승례문 밖에 남관왕묘가 건립되었고, 이듬해에 동대문 밖 동관왕묘가 착공되어 3년 만에 준공되었다.

남산의 동쪽 능선에 세워진 동관제묘는 『속수증보 강도지』에는 사당이 없어진 지 오래되었으나, 1885년(고종 22)에 개성군의 독지가인 마씨(馬氏) 성을 가진 여인의 후원에 의해 중건되었다고 전하고 있다. 또한 매년 소용되는 제향비는 관에서 제공하는 쌀 2석 200전, 견사(絹絲) 200필로 충당하고 선비 김윤창이 근처의 땅 5두락을 기부하였다고 전한다.

동관제묘는 1983년부터 보수 또는 증축하여 현재 5개동으로 되어 있는데, 본채(전래), 칠성각, 요사채 두 개 그리고 정문 등이다. 현재 동관제묘는 인천광역시무형문화재 제8호 강화외포리곡창굿의 사무국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남관운묘(南關雲廟)

■시대 : 조선시대 ■유형 : 유교유적 / 사우 ■소재지 : 강화읍 신문리 532-1

신문리 합일초등학교에서 남서쪽으로 약 200m 가량 가면 유적을 확인할 수 있다

『속수증보 강도지』에 의하면 1884년(고종 21)에 판관(判官) 오상준(吳相準)이 창건하고



남관운묘(문화재청)

선전관(宣傳官) 서난경(徐蘭瓊)이 사당의 내외 액자와 주련을 썼다고 전한다. 또한 매년 지내는 제사비용으로 관청에서 300전과 견사(絹絲) 300필을 공급하였으며 건물과 전토(田土)는 강화향교의 소속 토지이며 세금을 면제 받았다고 하였다.

2002년 조사에서는 남관운묘의 입구에 높이 72cm, 폭 30cm, 두께 15cm의 금잡인(禁雜人) 표석이 서 있고, 뒤에 관제묘(關帝廟) 편액이 달린 삼문을 지나면 중심 제당인 현성전(顯聖殿)이 나온다고 하였다. 관운장을 모신 현성전은 1904년(광무 8)에 지어진 것이다.

그러나 현재 관운장을 모신 현성전은 개량형 기와를 덮고 있으며, 인근 주택의 변화로 접근이 어려운 상태이다.

북관운묘(北關雲廟)

■시대 : 조선시대 ■유형 : 유교유적 / 사우 ■소재지 : 내가면 오상리 구주머리 산 185-2

고려궁지에서 강화산성 북문으로 오르는 도로에서 좌측으로 약 100m 정도 들어가면 마을 안에 북관운묘가 위치하고 있다.



북관운모(문화재청)

『속수증보 강도지』에 의하면 1892년(고종 29)에 수문장(守門將) 윤희보(尹羲普)가 창건하였으며 삼문(三門)은 1906년(광무 10) 4월에 세웠다고 한다. 관제묘(關帝廟) 편액이 달린 삼문을 지나면 관

운장을 모신 정면 3칸, 측면 2칸의 사당이 나온다고 하였는데, 현재는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황대곤사당(黃大坤 祠堂)

■시대 : 조선시대 ■유형 : 유교유적 / 사우 ■소재지 : 내가면 오상리 구주머리 산 185-2



황대곤 사당

오상리 마을회관에서 좌측으로 난 소로를 따라 약 100여m 내려가면 황대곤의 사당이 위치하고 있다. 본래 정려각은 붕괴되어 1980년에 지금의 모습으로 보수한 것이다.

황대곤은 본관이 평해이며 평해군 황희석(黃希碩)의 7대손이다. 무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역임하였으며, 1636년(인조 14) 병자호란 당시 파총(把摠)으로 전투에 참전하여 갑곶진을 방어하다 이삼(李參), 안몽상(安夢祥)

과 함께 전사하였다.

1726년(영조 2)에 강화유수 박사익(朴師益)이 장계를 올리자 조정에서는 공조참의(工曹參議)에 증직하고 정려를 세웠으며, 충렬사에 배향하였다. 좌측의 정려에는 ‘충신 급제증통정대부공조참의 황대곤지문(忠臣 及第贈通政大夫工曹參議 黃大坤之門)’이라 쓰여 있고, 우측의 정려에는 ‘열녀 통덕랑황처 밀양최씨지문(烈女 通德郎黃妻 密陽崔氏之門)’라 쓰여 있다. 정면 측면 각 1칸의 건물은 슬레이트 지붕에 블록으로 벽을 둘렀는데 내부에는 황대곤 위패와 초상이 모셔져 있다.

차명세 정려(車命世 旌閭)

■시대 : 조선시대 ■유형 : 유교유적 / 사우 ■소재지 : 내가면 오상리 구주머리 515전

황대곤 사당의 바로 아래 소로 변에 위치하고 있다. 정문은 앞이 막힌 홍살문 안에 있다. 정문에는 ‘충신 증통훈대부사헌부감찰증가선대부병조판동지의금부사차명세지문(忠臣 贈通訓大夫司憲府監察 贈嘉善大夫兵曹判同知義禁府事車命世之門)’이라 쓰여 있다. 현판



차명세 정려

은 정면·측면 각각 1칸으로 된 건물에 있는데, 최근 입구를 적벽돌로 쌓고 출입문을 달아 출입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차명세는 1636년 병자호란 당시 정병(正兵)으로 삼충사(三忠士) 황선신(黃善身) 등과 같이 갑곶진에서 전사한 인물이다.

평해황씨 효부 정려(平海黃氏 孝婦 旌閭)

■시대 : 조선시대 ■유형 : 유교유적 / 사우 ■소재지 : 불은면 두운리 698-1



평해황씨 효부 정려

영모사 앞의 소로 끝에 평해황씨 효부 정려가 위치하고 있다.

한 칸으로 된 정려각 안의 현판에는 ‘효부 통정대부고계인처 숙부인평해황씨지묘(孝婦 通政大夫高啓寅妻

淑夫人平海黃氏之墓)’라고 쓰여 있다. 효부 평해황씨는 남편 고계인과 결혼 하였으나 집안이 빈한하여 삶바느질로 생활을 이어갔다고 한다. 황씨는 시 부모가 노환으로 앓아눕자 어려운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정성껏 공양하였으나 돌아가시자, 애통해 하며 가사를 팔아 3년 상을 지냈다. 강화의 유림(儒林)에서는 평해 황씨의 이와 같은 효행을 여러 번 추천하여 1928년 효부로 표창을 받게 하였고 효부 정려(孝婦 旌閭)를 세우게 되었다. 평해황씨의 묘소는 강화군 불은면 영모사 서쪽에 있으며 1989년 8월 퇴락한 정려각을 한식 맞배지붕인 정면 1칸, 측면 1칸 건물을 복원하였으며 직계장손인 고승수씨가 관리하고 있다.

황형사당(黃衡 祠堂)

■시대 : 조선시대 ■유형 : 유교유적 / 사우 ■소재지 : 강화읍 월곶리 산 72-1임

강화산업단지 북쪽에 연하여 장무공 황형의 묘와 함께 황형의 사당인 장무사(壯武祠)가 위치하고 있다. 사당은 근래에 지어진 것으로 출입문인 삼문을 지나면 정면 3칸, 측면 2칸의 목조가옥이 나온다. 사당의 좌측에는 높

이 270cm, 폭 80cm의 신도비가 있다.

황형(1459~1520)의 본관은 창원(昌原), 자는 언평(彦平)으로 선공감정을 지낸 황예현(黃禮軒)이다. 1480년(성종 11) 무과에 급제

하여 상서원(尙瑞院) 판관이 되어 내승(內乘)을 겸직하였다. 1486년 무과증시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역임하였다. 1510년(중종 5) 삼포왜란(三浦倭亂)이 일어나자 방어사가 되어 제포(濟浦)에서 왜적을 크게 무찌르고 경상도병마절도사(慶尙道兵馬節度使)가 되었다. 1511년에는 평안도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순변사(巡邊使)로 나가 이를 진압하였으며, 평안도와 함경도의 병마절도사를 거쳐 공조판서에 이르렀다. 시호는 장무(莊武)이다.



황형사당

문응규 사당(文應奎 祠堂)

■시대 : 조선시대 ■유형 : 유교유적 / 사우 ■소재지 : 양사면 인화리 384



문응규사당(문화재청)

인천광역시 학생교육원 서사체험학습장에서 인화리 방향으로 약 200m 정도 가다가 우측으로 난 소로를 따라 180m 정도 가면 문응규의 사당이 위치하고 있다. 사당은 정면

을 홍살로 막은 1칸의 정방형 건물이다. 정려에는 ‘정려충신증가선대부병조 참판겸동지의금부사행통정대부죽산부사겸영장일등녕사원원종공신문응규 지문 상지12년 5월일(旌閭忠臣贈嘉善大夫兵曹參判兼同知義禁府使行通政大夫竹山府使兼營長一等寧社員原從功臣文應奎之門 上之十二年 五月日)’라고 쓰여 있다.

문응규는 인조 때 무신으로 이괄(李适)의 난 등 여러 변란을 진압하였으며, 병자호란 당시 강화를 방어하다 강화성이 함락되자 자결하였다. 1885년 (고종 22)에 정문이 내려져 충청남도 홍성군 운산(雲山)에 세워졌던 것을 1895년 지금의 자리로 옮겨 세웠다고 한다.

황효원 사당(黃孝源 祠堂)

■시대 : 조선시대 ■유형 : 유교유적 / 사우 ■소재지: 양사면 인화리 저운동 673



황효원사당

하점면사무소에서 창후리 방향으로 가다 보면 인화교회가 나오는데 그 맞은편 소로로 400m 정도 내려가면 전들마을 아래에 황효원의 사당이 있다. 사당은 높이 100cm 내외

의 단을 쌓고 정면 3칸 측면 2칸의 장방형 건물로 지어졌다. 사당 앞에는 저운당(渚雲堂)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다.

무과에 급제한 황효원은 정묘호란 당시 인조를 호종하는 공을 인정받아 공신(功臣)으로 교동수사(喬桐水使)의 훈작을 받았으며, 후에 지의금부사(知義禁府事)에 올랐다.

영모사(永慕祠)

■시대 : 현대 ■유형 : 유교유적 / 사우

■소재지: 불은면 두은리 산 87-1임 · 3임 · 4임 · 696-1종 일대

영모사는 제주 고씨의 사당이다. 문충공(文忠公) 고득중(高得宗)을 주벽으로 모시고 조선 개국공신 고성군(高城君) 고여(高呂)을 비롯하여 봉상시정(奉



영모사

常寺正) 고태정(高台鼎), 판관 고태보(高台輔), 사간 고태익(高台翼), 군수 고계적(高繼跡), 지평(持平) 고선(高善) 등을 배향한 사당이다. 사당은 승덕문(崇德門)이라는 편액이 걸린 삼문을 들어서면 정면 5칸의 제각(祭閣)과 제실이 나온다. 사당 안에는 신도비가 세워져 있다.

광복 전에는 고득중의 묘가 있는 황해도 개풍군에서 매년 묘제를 봉향하였으나, 1969년 현재 위치에 사당을 짓고 매년 음력 10월 1일 제를 지내고 있다.

능내리 능안 당집

■시대 : 미상 ■유형 : 제의유적 ■소재지 : 양도면 능내리 능안 산57임

양도면사무소에서 길상면 방향으로 가다보면 능내리마을회관이 나오기 전 왼쪽 소로를 따라 350여m를 올라가면 능내리 당집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2002년 조사에서는 당집은 수차에 걸친 보수와 재건축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며 나무와 슬레이트로 되어 있었다고 하였으나, 현재는 찾을 수 없었다.

당집은 민간신앙에서 신을 모시는 장소나 건축물로 신당(神堂)이라고도

한다.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마을에서 요란한 굿판을 벌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민가에서 떨어진 산 속에 땅의 기운이 특별한 곳에 별도의 신당을 만들었는데, 굿당이라고도 부른다. 또한 마을 공동체의 수호신에게 제사를 모시는 곳으로 동제당(洞祭堂)이라고도 부르는데, 능안 당집은 동제를 모시던 곳으로 보인다.

당제는 매년 음력 2월 15일에 마을의 각 집에서 쌀을 각출하여 떡을 만들고 돼지머리, 막걸리 등과 함께 젓상을 마련하여 마을의 안녕을 빌었다고 한다. 제관은 마을회의에서 추대된 한 사람이 계속 연임한다고 한다.

매음리 어류정 당집

■시대 : 미상 ■유형 : 제의유적 ■소재지 : 삼산면 매음리 어류정 산370임

석모대교를 건너 민머루 해수욕장 방면으로 남쪽으로 내려오면 어류정마을이 나오는데, 해수욕장에 도착하기 300m 전 우측에 있는 밤나무 과수원 안에 당집이 위치하였다고 전한다. 1995년 조사에서는 초가집이라고 하였고 2002년 조사에서는 슬레이트 지붕의 장방형 건물의 모습이었다고 하였다. 당집의 창건연대는 정확하지 않으나 현재 위치에 고민제(高民濟)가 사비로 1928년 지었다고 하며 지금의 당집은 40여 년 전에 수리한 것이라 전한다. 그러나 현재는 현상이 변경되었고 당집을 찾을 수 없었다.

어류정 당집에서는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동제와 물고기가 많이 잡히기를 바라는 풍어제의 성격도 함께 갖고 있었다고 한다. 임경업을 신격으로 삼고 제관이 아닌 무녀가 축원을 하였다. 당집의 다른 이름은 긴대 성황당이라고 부르는데, 석모도 앞의 무인도에 사는 큰 구렁이가 일 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데 이 구렁이를 긴대라 불렀다고 한다. 제수는 돼지고기를 사용하지 않고 해산물로 꾸려졌으며, 여자들도 당제에 참여했다고 한다. 1980년대 후반부터 제사를 모시지 않는다고 한다.

볼음도리 당집

■시대 : 조선시대 ■유형 : 제의유적 ■소재지 : 서도면 볼음도리 산 104

서도면 볼음치안센터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에 민박집이 있는데, 민박집의 서쪽 구릉 위에 시멘트 블록으로 만든 정방형의 당집이 위치하고 있었다.

옛날에는 이성계, 임경업, 각시당 등 세 신격을 모시고 해마다 마을에서 굿을 지냈다고 전한다. 볼음도는 근대 서양으로부터 기독교가 전래되는 첨단에 위치하였기에 섬 주민 대부분이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에 이른 시기부터 민간신앙인 동제가 중단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상리 창말 당집

■시대 : 미상 ■유형 : 제의유적 ■소재지 : 삼산면 상리 창말 산154임

석모대교를 따라 북으로 올라가다 보면 하리보건진료소에 이르러 갈림길이 나오는데, 이곳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상2리 마을회관이 나온다. 마을회관에서 북쪽으로 200여 m 가다보면 산의 말단 부분에 시멘트 블록으로 만든 당집이 위치하고 있다.



창말 당집

1995년 조사에서는 서황부군과 임경업을 신격으로 모시고 마을의 수호를 위한 당제를 모셨다고 한다. 서황부군은 마을 당산의 신령님으로 부락민들의 길흉을 좌우하는 신이라 여겨졌으며, 임경업은 마을 주민을 괴롭히던 중을 죽여 주민들이 그 이후 잘 살게 되었기 때문에 서황부군과 임경업을

함께 모셨다고 한다.

당제의 제관은 가정이 화목하고 건전한 사람을 뽑아 가뭄 등의 우환이 있을 때 자주 남자들만 참석하는 제를 올렸는데, 수십 년 전부터 당제의 맥이 끊어졌다고 한다.

석모리 당집

■시대 : 조선시대 ■유형 : 제의유적 ■소재지 : 삼산면 석모리 201-2

석모리 승영중학교의 뒷 야산의 남동사면에 당집이 위치하고 있다. 당집은 슬레이트 지붕으로 덮은 현대식 건물로 3칸으로 구획하고 있다. 중앙에만 문을 설치하였고, 양쪽 칸에는 문을 개방하였으며 말을 닮은 석상이 놓여 있었다고 한다. 당집 옆에는 해골바위라 불리는 바위가 있는데, 부정한 짓을 하면 큰 벌을 내린다고 믿었다 한다. 매년 당제를 지냈으나, 현재는 중단되었다. 현재 당집은 그대로 있는데, 접근로가 막혀 내부를 조사할 수 없었다.

1995년 조사에서는 석모리에 삼신할머니 내외를 신격으로 모시는 당집과 산신을 신격으로 모시는 당집 2곳이 더 있었다고 하지만 정확한 위치는 확인할 수 없었다.

읍내리 부근당(邑內里 扶芹堂)

■시대 : 조선시대 ■유형 : 제의유적 ■소재지 : 교동면 읍내리 255

교동도 화개산 남쪽에 위치한 교동읍성(喬桐邑城) 안에 부근당이 위치하고 있다. 당집은 시멘트블록으로 지은 건물에 슬레이트 지붕을 덮었다. 내부에는 신상과 함께 남근목을 걸어 두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남자 신상을 연산군(燕山君)으로, 여자 신상을 연산군의 부인 신씨로 여기고 있다.

중종반정으로 폐위된 연산군이 교동으로 유배되어 거처하던 곳에 그의



부근당

원혼을 위로하기 위해 신상을 모셔놓고 매년 11월에 굿을 하였다고 전한다. 연산군 적거지로 알려진 곳이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는 당제를 지내지 않는다.

읍내리 사신당(邑內里 使臣堂)

■시대 : 조선시대 ■유형 : 제의유적 ■소재지 : 교동면 읍내리 571-2



사신당

부근당에서 남산포로 가다 보면 남산의 정상 동남쪽 사면에 사신당이 위치하고 있다. 조선시대에 세워진 당집은 한국전쟁 당시 없어지고, 지금의 건물은 1969년에 다시 세운 것이라고 한다. 당집

내부에는 임경업으로 여겨지는 화상(畫像)과 무당들이 사용하였던 무구(巫具) 등이 놓여 있다. 1년에 한 번씩 대동굿을 연다.

과거 송나라 사신들이 왕래할 때 교동도를 지나면서 배가 무사하기를 기원하던 것에서 사신당이라는 이름이 전해졌다고 전한다. 당시 중국 배들이 정박하던 곳에 사람들이 배에서 내릴 때 사용하였던 돌계단이 아직도 남아 있다고 한다.

인산리 인화성 당집

■시대 : 미상 ■유형 : 제의유적 ■소재지 : 양사면 인화리 인화성 산504-3임

인화돈대에서 산쪽으로 200m 정도 오르면 당집이 위치하고 있다. 2002년 조사에서는 당집은 시멘트 블록으로 세운 방형에 가까운 건물에 슬레이트 지붕으로 덮었다고 하였다. 현재는 산 정상으로 접근하는 길이 막혀 있어 당집의 유무를 확인할 수 없었다.

1995년 조사에서는 임경업 장군을 신격으로 모셨는데, 임장군을 잘 모셔야 선업(船業)이 잘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매년 정월 15일에 당제를 지냈다고 전한다. 제관(祭官)은 선주(船主) 중에서 고령자 가운데 한 명을 뽑았으며, 남녀노소가 모두 참여하여 제를 올렸다고 한다. 현재는 제사를 지내지 않고 있다.

비지정 종교와 제의 유적 현황

1	백련사	하점면 고려산로 61번길 270	삼국시대	전통사찰	비지정문화재
2	청련사	강화읍 고비고개로 188번길 112	삼국시대	전통사찰	비지정문화재
3	청련사 부도군	강화읍 고비고개로 188번길 112	조선시대	불교/석조유물	비지정문화재
4	적석사	내가면 연촌길 181	삼국시대	전통사찰	비지정문화재
5	보문사	삼산면 삼산남로 828번길 44	삼국시대	전통사찰	비지정문화재
6	정수사	화도면 해안남로 1258번길 142	삼국시대	전통사찰	비지정문화재
7	함해대사 부도	화도면 해안남로 1258번길 142	조선시대	불교/석조유물	비지정문화재

8	동관재묘	강화읍 신문리 467	조선시대	유교/사우	비지정문화재
9	남관운묘	강화읍 신문리 532-1	조선시대	유교/사우	비지정문화재
10	북관운묘	강화읍 관청리 706	조선시대	유교/사우	비지정문화재
11	황대곤사당	내가면 오상리 구주머리 산185-2	조선시대	유교/사우	비지정문화재
12	차명세 정려	내가면 오상리 구주머리 515전	조선시대	유교/사우	비지정문화재
13	평해황씨 효부 정려	불은면 두운리 698-1	1928년	유교/사우	비지정문화재
14	황형사당	강화읍 월곶리 산72-1	조선시대	유교/사우	비지정문화재
15	문응규사당	양사면 인화리 384	조선시대	유교/사우	비지정문화재
16	황효원사당	양사면 인화리 673	조선시대	유교/사우	비지정문화재
17	영모사	불은면 두운리 산87 일원	현대	유교/사우	비지정문화재
18	능내리 능안 당집	양도면 능내리 산57임	미상	제의유적/기타	비지정문화재
19	매음리 여유정 당집	삼산면 매음리 산370임	미상	제의유적/기타	비지정문화재
20	불음도리 당집	서도면 불음도리 산104	조선시대	제의유적/기타	비지정문화재
21	상리 창말 당집	삼산면 상리 산154임	미상	제의유적/기타	비지정문화재
22	석모리 당집	삼산면 석모리 201-2	조선시대	제의유적/기타	비지정문화재
23	읍내리 부근당	교동면 읍내리 255	조선시대	제의유적/기타	비지정문화재
24	읍내리 사신당	교동면 읍내리 571-2	조선시대	제의유적/기타	비지정문화재
25	인산리 인화성 당집	양사면 인화리 산504-3임	미상	제의유적/기타	비지정문화재

인천광역시 강화군 지정문화재

1. 선사분묘

유적명: 고천리 고인돌군1

지정사항: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46호

소재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고천리 산115

유적명: 대산리 고인돌

지정사항: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31호

소재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대산리 1189

유적명: 부근리 점골 고인돌

지정사항: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32호

소재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 743-4

유적명: 교산리 고인돌군

지정상황: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48호

소재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교산리 산108

유적명: 부근리 고인돌군

지정상황: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44호

소재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 317

유적명: 삼거리 고인돌군

지정상황: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45호

소재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삼거리 산120

유적명: 오상리 내가 고인돌

지정상황: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16호

소재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오상리 산125

유적명: 오상리고인돌군

지정상황: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47호

소재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오상리 산125

유적명: 강화 지석묘

지정상황: 사적 제137호

소재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 317

II. 왕릉 및 분묘, 고분군

유적명: 강화 홍릉

지정상황: 사적 제224호

소재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산 180

유적명: 강화 석릉

지정상황: 사적 제370호

소재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길정리 산 182

유적명: 강화 가릉

지정상황: 사적 제370호

소재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능내리 산 16-2

유적명: 강화 곤릉

지정상황: 사적 제370호

소재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길정리 산 75

유적명: 강화 능래리 석실분

지정상황: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27호

소재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능내리 16-1

유적명: 강화 인산리 석실분

지정상황: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27호

소재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인산리 산 77

유적명: 이규보 묘

지정상황: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15호

소재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길직리 산 115

유적명: 김취려 묘

지정상황: 인천광역시 문화재자료 제25호

소재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하일리 산 70

유적명: 정제두 묘

지정상황: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56호

소재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하일리 산 65

유적명: 이견창 묘

지정상황: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29호

소재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건평리 643

유적명: 황형 묘 및 신도비

지정상황: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65호

소재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월곡리 산 72-1

III. 국방 유적

유적명: 강화 삼랑성

지정상황: 사적 130호

소재지: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산42번지

유적명: 강화산성

지정상황: 사적 132호

소재지: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산3번지

유적명: 초지진

지정상황: 사적 225호

소재지: 강화군 길상면 해안동로 58

유적명: 덕진진

지정상황: 사적 226호

소재지: 강화군 불은면 덕성리 846

유적명: 광성보

지정상황: 사적 227호

소재지: 강화군 불은면 덕성리 833

유적명: 갑곶돈대

지정상황: 사적 306호

소재지: 강화군 강화읍 갑곶길 26

유적명: 강화외성

지정상황: 사적 452호

소재지: 강화군 동해안 일대

유적명: 후애돈대

지정상황: 인천시 유형문화재 33호

소재지: 강화군 길상면 선두리 954번지

유적명: 삼암돈대

지정상황: 인천시 유형문화재 35호

소재지: 강화군 내가면 외포리 산223-4

유적명: 분오리돈대

지정상황: 인천시 유형문화재 36호

소재지: 강화군 화도면 사기리 산185-1번지

유적명: 봉천대

지정상황: 인천시 기념물 18호

소재지: 강화군 하점면 신봉리 산63번지

유적명: 장곶돈대

지정상황: 인천시 기념물 19호

소재지: 강화군 화도면 장화리 113번지

유적명: 강화전성

지정상황: 인천시 기념물 20호

소재지: 강화군 불은면 오두리 563번지

유적명: 계룡돈대

지정상황: 인천시 기념물 22호

소재지: 강화군 내가면 황청리 282

유적명: 교동읍성

지정상황: 인천시 기념물 23호

소재지: 강화군 교동면 읍내리 577

유적명: 망양돈대

지정상황: 인천시 기념물 37호

소재지: 강화군 내가면 외포리 680번지

유적명: 건평돈대

지정상황: 인천시 기념물 38호

소재지: 강화군 양도면 건평리 산39번지

유적명: 굴암돈대

지정상황: 인천시 기념물 39호

소재지: 강화군 양도면 하일리 487

유적명: 미루지돈대

지정상황: 인천시 기념물 40호

소재지: 강화군 화도면 여차리 170-2

유적명: 북일곶돈대

지정상황: 인천시 기념물 41호

소재지: 강화군 화도면 장화리 361

유적명: 용진진

지정상황: 인천시 기념물 42호

소재지: 강화군 선원면 연리 215외9

유적명: 망산봉수

지정상황: 인천시 기념물 64호

소재지: 강화군 내가면 외포리 산131

유적명: 정족산성진지

지정상황: 인천시 기념물 66호

소재지: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644(온수리, 전등사)

유적명: 선수돈대

지정상황: 인천시 문화재자료 10호

소재지: 강화군 화도면 영흥로549번길

유적명: 망월돈대

지정상황: 인천시 문화재자료 11호

소재지: 강화군 하점면 망월3리 2107외

유적명: 화도돈대

지정상황: 인천시 문화재자료 17호

소재지: 강화군 선원면 연리54번지

유적명: 무태돈대

지정상황: 인천시 문화재자료 18호

소재지: 강화군 하점면 창후1리 151-1

유적명: 강화중성

지정상황: 강화군 향토유적 2호

소재지: 강화군 강화읍, 선원면 일대

유적명: 교동봉수대

지정상황: 강화군 향토유적 29호

소재지: 강화군 교동면 고구리 233

유적명: 고구리 산성지

지정상황: 강화군 향토유적 30호

소재지: 강화군 교동면 고구리 산145

IV. 비석·금석문 유적

유적명: 적석사사적비

지정상황: 인천시 유형문화재 38호

소재지: 강화군 내가면 연촌길 181(고천리)

유적명: 김상용순절비

지정상황: 인천시 기념물 35호

소재지: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416(관청리)

유적명: 양현수승전비

지정상황: 인천시 기념물 36호

소재지: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산42번지(온수리, 전등사)

유적명: 참성단중수비

지정상황: 인천시 문화재자료 13호

소재지: 강화군 화도면 해안남로 1826번길 14(흥왕리)

유적명: 경고비

지정상황: 강화군 향토유적 9호

소재지: 강화군 불은면 덕성리 836

유적명: 쌍충비각

지정상황: 강화군 향토유적 10호

소재지: 강화군 불은면 덕진로 31(덕성리)

유적명: 석주권필 유허비

지정상황: 강화군 향토유적 27호

소재지: 강화군 송해면 하도리 892

V. 근현대 유적

유적명: 성공회강화성당

지정상황: 사적 제424호

소재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250

유적명: 온수리성공회 사제관

지정상황: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제41호

소재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505-7

유적명: 온수리성공회성당
지정상황: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52호
소재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505-3

유적명: 서도중앙교회
지정상황: 인천광역시 문화재자료 제14호
소재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주문도리 718

VI. 강화지역 기타 유적

유적명: 용흥궁
지정상황: 인천시 유형문화재 20호
소재지: 강화군 강화읍 동문안길 21번길 16-1(관청리)

유적명: 강화유수부동헌
지정상황: 인천시 유형문화재 25호
소재지: 강화군 강화읍 북문길 42(관청리)

유적명: 강화유수부이방청
지정상황: 인천시 유형문화재 26호
소재지: 강화군 강화읍 북문길 42(관청리)

유적명: 강화석수문
지정상황: 인천시 유형문화재 30호
소재지: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883

유적명: 강화 솔정리 고씨 가옥
지정상황: 인천시 유형문화재 60호
소재지: 강화군 송해면 강화대로 674번길 23-4(솔정리)

유적명: 철종외가
지정상황: 인천시 문화재자료 8호
소재지: 강화군 선원면 철종외가길 46-1 (냉정리, 철종외가)

VII. 건물지

유적명: 강화 고려궁지
지정상황: 사적 제133호
소재지: 강화읍 북문길 42

유적명: 강화 선원사지
지정상황: 사적 제259호
소재지: 화도면 해안남로 1258번길 142

유적명: 천제암(궁)지
지정상황: 시기념물 제24호
소재지: 화도면 문산리 산64-2

유적명: 강화 통제영학당지
지정상황: 시기념물 제49호
소재지: 강화읍 갑곶리 1045-1번지

유적명: 강화 정족산성진지
지정상황: 시기념물 제66호
소재지: 길상면 전등사로 37-41

유적명: 강화 정족산사고지
지정상황: 시기념물 제67호
소재지: 길상면 전등사로 37-41

유적명: 원충사지
지정상황: 시문화재자료 제9호
소재지: 하점면 이강리 산171

유적명: 윤집택지
지정상황: 향토유적 제1호
소재지: 강화읍 월곶리 615-1

유적명: 황형택지
지정상황: 향토유적 제3호
소재지: 강화읍 월곶리 242

유적명: 보만정지
지정상황: 향토유적 제5호
소재지: 강화읍 국화리 282

유적명: 정족산가꺾지
지정상황: 향토유적 제11호
소재지: 길상면 온수리 639

유적명: 선원보각지
지정상황: 향토유적 제12호
소재지: 길상면 온수리 644

유적명: 고려이궁지
지정상황: 향토유적 제13호
소재지: 화도면 응왕리 404-1

유적명: 흥익한택지
지정상황: 향토유적 제17호
소재지: 화도면 흥왕리 산30-2

유적명: 분청사기 요지
지정상황: 향토유적 제18호
소재지: 화도면 해안남로 1114번길 28

유적명: 봉가지
지정상황: 향토유적 제25호
소재지: 하점면 신삼리 69

유적명: 연산군 적거지
지정상황: 향토유적 제28호
소재지: 교동면 읍내리 270

유적명: 고구리 산성지
지정상황: 향토유적 제30호
소재지: 교동면 고구리 산145

Ⅷ. 종교와 제의

유적명: 강화 장정리 오층석탑
지정상황: 보물 제10호
소재지: 하점면 장정리 산 193

유적명: 강화 정수사 법당
지정상황: 보물 제161호
소재지: 화도면 해안남로 1258번길 142

유적명: 강화 전등사 대웅전
지정상황: 보물 제178호
소재지: 길상면 전등사로 37-41

유적명: 강화 전등사 약사전
지정상황: 보물 제179호
소재지: 길상면 전등사로 37-41

유적명: 강화 전등사 철종
지정상황: 보물 제393호
소재지: 길상면 전등사로 37-41

유적명: 강화 참성단
지정상황: 사적 제136호
소재지: 화도면 흥왕리 산42-1

유적명: 대한성공회 강화성당
지정상황: 사적 424호
소재지: 강화읍 관청길 22

유적명: 총렬사
지정상황: 시유형문화재 제21호
소재지: 선원면 총렬사로 232

유적명: 보문사 석실
지정상황: 시유형문화재 제27호
소재지: 삼산면 삼산남로 828번길 44

유적명: 교동향교
지정상황: 시유형문화재 제28호
소재지: 교동면 교동남로 229-49

유적명: 강화향교
지정상황: 시유형문화재 제34호
소재지: 강화읍 향교길 58

유적명: 적석사 사적비

지정상황: 시유형문화재 제38호

소재지: 내가면 연촌길 181

유적명: 강화 온수리 성공회사제관

지정상황: 시유형문화재 제41호

소재지: 길상면 온수리 505-7

유적명: 전등사 업경대

지정상황: 시유형문화재 제47호

소재지: 길상면 전등사로 37-41

유적명: 전등사 대웅보전 수미단

지정상황: 시유형문화재 제48호

소재지: 길상면 전등사로 37-41

유적명: 강화 온수리 성공회성당

지정상황: 시유형문화재 제52호

소재지: 길상면 온수길 38번길 14

유적명: 천제암궁지

지정상황: 시기념물 제24호

소재지: 화도면 문산리 산64-2

유적명: 전등사 대조루

지정상황: 시문화재자료 제7호

소재지: 길상면 전등사로 37-41

유적명: 원충사지

지정상황: 시문화재자료 제9호

소재지: 하점면 이강리 산171

유적명: 참성단 중수비

지정상황: 시문화재자료 제13호

소재지: 화도면 흥왕리 산42-1

유적명: 강화 서도 중앙교회

지정상황: 시문화재자료 제14호

소재지: 서도면 주문도길 256-1



인천의 문화사적과 역사 터

용진군

용진군 역사 문화 유적

용진군

백령면

백령도 가을리 고분군

■시대: 고려 ■유형: 고분군 ■소재: 백령면 가을리 산283임 일대



백령도 가을리 고분군 위치도

백령면 가을리 산 281임, 산282임, 산 289임 일대 소로를 따라 능선 위로 약 150여 m를 올라간 지점에 고려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석곽묘 3기가 확인되었다. 2000년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조

사에 의해 처음 보고된 후 2003년 인천광역시립박물관에 의하여 재확인된 곳이다.¹⁾

국립문화재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뚜렷이 확인되는 것은 모두 3기로 서 개석을 갖추고 있으며 도굴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지대가 높은 서쪽의 것을 1호, 1호에서 동쪽으로 1m 아래의 것을 2호, 2호에서 남동쪽 12m 지점에 있는 것을 3호로 명명하였는데, 각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1호는 장축을 동-서로 하고 있으며 개석 3매가 일렬로 드러나 있다. 개석 3매 모두에 측면 치석흔이 보이는 산돌이다. 대체로 방형을 띠는 부정형 석재이다. 크기는 각각 75×70×23cm, 68×45×24cm, 85×73×27cm이다. 개석이 위치하는 지점은 주변보다 함몰되어 있으며, 현재 드러난 상태로 보아 크기는 동서 380cm, 남북 280cm이다. 추정 벽석재의 크기는 20~35×15~25cm이다. 석곽으로 보인다.



백령도 가을리 고분군 1호

② 2호는 1호에서 서쪽으로 1m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나 1호와 거의 붙어 있다. 장축을 동-서로 하며 2매의 개석이 기울어져 한 쪽을 땅에 묻은 채 비스듬히 노출되어 있다. 개석이 있는 부분은 도굴로 인해 구덩이를 이루며 벽석재로 보이는 석재가 불규칙하게 흩어져 있다. 개석 2매 가운데 북쪽의

것은 부정타원형의 판석이며, 다른 하나는 장방형의 절단면이 뚜렷하다. 현재 확인되는 규모는 동서 400cm, 남북 350cm로서 1호에 비해 규모가 크나 도굴로 훼손되면서 범위가 넓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개석은 북쪽의 것이 128×78×20cm, 남쪽의 것이 96×40×29cm이다. 주변에 흩어진 추정 벽석재 크기는 1호와 같다.



백령도 가을리 고분군 2호

③ 3호는 2호에서 남동쪽으로 12m 아래쪽에서 확인되었다. 개석으로 보이는 석재와 기타 석재가 확인되나 유구의 형태는 정확하지 않다. 가을 2리에 살고 있는 박승두씨는, 어릴 때 이곳에 나무하러 와서 이 석재를 일으켜 세워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 장난을 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원래 위치를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개석 크기는 133×38×35cm이다. 주변에 막돌이 흩



백령도 가을리 고분군 3호

어져 있으나 모두 교란되었다.

이들 고분은 나뭇잎과 잡목에 가려져 분포 상황이나 수량을 알 수 없으나 드문드문 보이는 석재로 보아 더 많은 고분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1. 『軍事保護區域 文化遺蹟 地表調査報告書(京畿道篇)』, 국립문화재연구소, 2000; 『西海島嶼 綜合學術調査報告書』, 인천광역시립박물관, 2003

진촌리(鎭村里) 백령진 터

■시대 : 조선 ■유형 : 군영/터 ■소재지 : 백령면 진촌리 807번지 일대



백령진 터 위치도

1609년(광해군 1)에 세워진 종3품 수군첨절제사(水軍僉節制使)의 진영(鎭營) 터는 진촌리 807번지에 위치한다. 현재 백령천주교회와 수녀관, 교육관, 유치원 및 백령병원 등의 건물이 조성되어 있

어 옛 건물지와 성곽지 등 정확한 유구의 확인이 어렵지만 북서-남동방향, 각 100m를 장축으로 하는 장방형의 판축토성이 둘러져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객사와 동헌, 창고 등 진영 건물들은 20세기 초 면사무소와 주재소 등을 건설하면서 모두 사라졌다고 한다. 다만 각지에 분산되어 있던 백령진 첨사의 선정비들은 진촌리 1184-1의 언덕에 함께 모아 놓았다.



백령진 터 전경 1



백령진 터 전경 2

첨사 박희덕 청백선정비(僉使 朴熙德 清白善政碑)

■시대 : 조선 후기 ■유형 : 비석 ■소재지 : 백령면 진촌리 671-1

백령진의 마지막 첨사로 알려진 박희덕의 청백선정비이다. 이 비석의 건립연대는 1893년(광서 19) 5월이다. 비신의 표면에 작은 구멍들이 나 있는 상태이고, 크기는 가로 45cm, 세로 102cm+α, 두께 16cm이다. 비석의 높이에 α를 표기한 것은 비석 밑부분이 땅속에 매몰되어 있어 정확한 크기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전면에 ‘행첨사박공희덕청백선정비(行僉使朴公熙德清白善政碑)’라는 명문이 있고 그 좌우로 작은 글자체가 있으나, 풍화로 마모가 심하여 판독하기가 불가능하다. 옛 동키부대 앞에 있다.

중화동 교회

■시대 : 19세기 말 ■유형 : 종교/교회 ■소재지 : 백령면 연화리 335

백령도는 서해 항로 요충지라는 지리적 조건으로 인해 일찍부터 서양 선교사나 천주교 신부들과의 접촉이 있었고, 19세기 말 갑오농민전쟁과 일제 침략이라는 혼란 속에서는

기독교를 자발적으로 수용하여 제반 사회적 모순을 극복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한국교회사와 그 맥을 같이 한다.

백령도에 기독교를 전파한 인물은 1895년 유배인의 신분으로 섬에 들어온 김성진(金成鎭)이었다. 김성진은 비록 신자가 아니었지만 문명개화를 주



중화동교회 위치도



중화동교회 전경

장하는 개화파로 기독교사상에 우호적인 인물이었던 것 같다. 그는 백령도의 중견인사인 허득(許得)에게 성경책 1권을 전하고, 허득과 함께 기독교를 통해 백령도를 문명개화

시키기로 결의하였다. 이윽고 장연군 대구면 송천리에 있는 소래교회(1884년에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에 도움을 청하여 1896년 백령도 최초의 교회인 중화동교회를 설립하였다. 현재의 교회 건물은 1968년에 중건한 건물이다.

선창 대감막(船倉大監幕)

■시대 : 근대 ■유형 : 민속/사당 ■소재지 : 백령면 용기포



선창 대감막



선창 대감막 위치도

백령면 용기포의 방파제에는 선창대감을 모신 대감막이라는 것이 있는데, 나무로 기둥을 세우고 짚으로 주저리를 튼 것이다. 정월 대보름 흥어잡이가 시작되기 전에 주저리를 덧씌우고, 메로 떡을 해서 고사를 지냈다. 화

성군, 강화도 등지에서 섬긴 터줏대감과 신체가 같으며, 주저리를 덧씌우는 것은 업과 같이 재물이 붙어나기를 바라는 것이다.

화동염전(華洞鹽田)

■시대 : 근대 ■유형 : 염전 ■소재지 : 백령면 남포2리



화동염전



화동염전 위치도

남포2리 232번지에 위치한다. 화동염전은 백령도 내 유일한 천일염전이다. 여기서 생산되는 맛 좋은 소금은 주로 까나리 액젓을 담그는 데 쓰인다.

당개 서낭당

■시대 : 근대 ■유형 : 민속/사당 ■소재지 : 백령면 진촌1리 당개

진촌리 산145번지에 위치한 당개 서낭당은 백령도를 대표하는 민속유적이다. 옛날 그 언젠가에 해상에서 북소리와 징소리를 울리며 왕대통[王竹



당개 서낭당



당개 서낭당 위치도

筒] 하나가 떠 내려와 섬사람들이 성황님으로 모시며 제사를 드렸다고 한다. 바다로 떠날 때에는 반드시 이 해신(海神)에게 제사를 지내야 하며, 만일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배가 전복될 수 있다고 한다. 서낭당 안에는 서낭, 애기씨, 관장군을 모시는데, 신체를 나타내는 옷을 햇대에 걸어 놓았다.

용기포 서낭당(龍機浦 城隍堂)

■시대 : 근대 ■유형 : 민속/사당 ■소재지 : 백령면 용기포



용기포 서낭당

백령면 용기포 서낭당에서는 마을 전체의 안녕을 기원하는 제의를 거행하고, 대감막에 서는 선주나 선원 등 배를 타는 사람들이 풍어와 무사태평을 기원한다. 서낭당과 대감막

의 제의는 음력 9월 9일 거행하는데, 무당이 주관하는 경우도 있고 마을의 이장이 주관하는 경우가 있다. 2006년에는 이장이 주관을 하였다. 선원들이 첫 고기를 잡으러 갈 때나 가정에 우환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대감막을 찾아 소주를 따르고 비손을 하기도 한다.

성황이 대감보다 우월한 신임을 알 수 있다. 제의하는 순서도 먼저 서낭당에서 제를 지낸 후 대감막에 가서 제사를 지낸다. 그리고 서낭당이 마을의 신이라면 대감막은 어업과 관련된 생업신임을 알 수 있다.



용기포 서낭당 위치도

또한 제당에 차려진 제물의 양에서도 알 수 있다. 서낭당에는 갓은 제물들이 놓이는 반면 대감막에는 술만 따른다. 서낭당에는 갓과 흰 도포가 선반에 걸려 있다. 대감막에도 본래 도포가 걸려 있었다고 하나 현재는 없어졌다.

백령도 사곶 사빈 천연비행장

■시대 : 현대 ■유형 : 교통/비행장 ■소재지 : 백령면 진촌3리



백령도 사곶 사빈 천연비행장



백령도 사곶 사빈 천연비행장 위치도

사곶(沙串)해변은 썰물 때면 그 규모가 길이 2km, 폭 200m에 이른다. 언뜻 보면 모래로 이루어진 듯하지만, 사실은 규암가루가 두껍게 쌓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 콘크리트 바닥처럼 단단한 이 해변은 자동차의 통로는 물론 한국전쟁 당시에는 UN군의 천연비행장으로 활용되었다.

백령도 사곶해변은 이탈리아 나폴리에 있는 것과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단 두 곳에서만 볼 수 있는 특수한 지형·지질상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형성 과정에 대한 학술적 가치가 높아 천연기념물 제391호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진촌리 첨사선정비군(鎭村里 僉使善政碑群)

■시대 : 조선 ■유형 : 비석군 ■소재지 : 백령면 진촌2리 1184

백령진을 거쳐간 첨사들의 선정비군이다. 여기에는 1972년에 세운 비석



첨사선정비군 전경

1기(최경림)를 포함하여 모두 8기의 비가 있다. 이곳은 원래 1961년 8월 15일 '반공유적전적비'를 건립하고 주변을 휴식장소로 조성한 곳이다. 그러다가 1978년 12월 1일 백령도에 흩어져 있던 비석을 이곳으로 옮겨 세웠다고 한다.

조만영(1776~1846)은 1813년 문과로 출사하여 지평·정언·이조판서·금위대장·암행어사 등을 역임하였다. 그런데 영세불망비가 백령도에 세워진 연유는 자세히 알 수 없다. 다만 조만영이 암행어사로 백령도에 와서 세금과 역(役)을 감면해 준 까닭에 이곳 백성들이 그 뜻을 기리기 위해 세웠다고 전한다.

임원석은 근대의 인물로 공이 있어 1907년 백령도민이 그 뜻을 기려 비를 세우게 되었



진촌리 첨사선정비군 위치도

다. 각각의 비를 보면 다음과 같다(비석의 크기는 가로×세로×두께이고, 단위는 cm이다).



권흥준 애민선정비



조만영 영세불망비



이명석 애민선정비



이보헌 청백선정비



정수현 애민선정비



임원석 영세불망비



박래명 영세불망비

- 권흥준 애민선정비(行僉節制使權公興駿愛民善政碑, 1733, 54×128×22)
- 조만영 영세불망비(提調趙公萬永永世不忘碑, 1827, 43×106×17)
- 이명석 애민선정비(行水軍僉節制使李公明錫愛民善政碑, 1848, 44×106×17)
- 이보헌 청백선정비(行僉使李公普憲清白善政碑, 1872, 48.4×107×18)
- 정수현 애민선정비(行僉使鄭公秀鉉愛民善政碑, 1874, 42.3×100×13)
- 임원석 영세불망비(行島長林公元錫永世不忘碑, 1907, 40.3×83×16)
- 박래명 영세불망비(行水軍僉節制使朴公來命永世不忘碑, 1866, 44×84×18)

대청면

원 순제 궁궐터

■시대 : 고려(후기) ■유형 : 궁궐/터 ■소재지 : 대청면 대청리 1085(대청초등학교)



원 순제 궁궐터 추정지(현 대청초등학교)

1999년, 인천문화원에서는 구전채록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대청초등학교 주변에서 다수의 와편 수집하였다. 대청도 노인층들이 과거 『신황전』이라는 소설책을 거

의 한번씩은 읽었다고 하며 ‘서내동과 사탄동 넘어가는 바른쪽 산 속’에 분포되어 있는 묘지를 ‘호인(胡人)의 공동묘지’라고 부르고 있어 원 순제 일행의 묘가 아닌가 하는 말들이 전한다고 하였다. 이 조사에서 대청초등학교를 원 순제 궁궐터로 보았고, 그 외에 대청도의 옥죽포와 고주동, 소청도의 분바위, 웅진반도의 교정면(交井面) 국사봉과 요래동(堯來洞) 등을 원 순제와 관계된 장소로 파악하였다.²⁾

2000년, 국립문화재연구소는 대청초등학교 운동장 북쪽 주변을 ‘대청도 대청초등학교 가마터’로 처음 보고³⁾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유구 상부는 운동장을 조성하면서 깎여 없어지고 벽체 선만 뚜렷이 남아 있었다고 한다.

2006년 인하대학교박물관은 국립문화재연구소가 보고한 ‘대청도 대청7

리 유물산포지’를 ‘대청도 유물산포지 1’로 명명하고, 유적 분포지를 웅진군 대청면 대청7리 1085·1084·1139·1138·1083학 일대로 설정하였으며 교사 신축 등 형질 변경으로 인해 유적의 존재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어골문이 시문된 기와편을 수습하여 고려시대 건물지로 추정⁴⁾하였다.

그러나 대청도의 주민들은 오래 전부터 대청초등학교를 원 순제의 궁궐터로 믿고 있으며, 그 외에 대청도의 옥죽포와 고주동, 소청도의 분바위, 웅진반도 교정면의 국사봉과 요래동 등을 원 순제와 관련된 장소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 순제는 누구인가. 그의 몽골 이름은 토곤 테무르(1320~1370)이다. 한자로는 기록에 따라 타환첩목이(妥懽帖睦爾)/타환첩목이



원 순제 초상화 1



원 순제 초상화 2

2. 인천문화원, 1999, 『향토사료조사보고』(웅진군일원).

3. 국립문화재연구소, 2000, 『군사보호구역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경기도편)』.

4. 인하대학교박물관·인천광역시, 2006, 『문화유적분포지도』(인천광역시 계양구·부평구·서구·웅진군).

(妥懽帖睦爾)/타환첩목아(妥懽帖木兒)/도우첩목아(陶于帖木兒) 등으로 상이하다. 1320년 원 명종(明宗)과 팔불사(八不沙) 황후 사이에서 큰 아들로 태어나 1370년에 사망하였다. 원(元)의 제11대 칸으로 재위기간은 중원에서 1341~1368년간이고 명나라 태조 주원장에 의해 북쪽으로 이주한 후 1368~1370년 동안이다. 원래의 묘호는 혜종(惠宗)이지만 명(明)의 주원장(朱元璋)이 천명에 순응하여 대도(大都: 북경)에서 물러났다고 하여 순제(順帝)라는 호를 덧붙여 주었다.

그는 원 명종의 장자이나 황위 계승을 둘러싼 권력 싸움으로 1330년 11세의 나이로 대청도에 유배되었다. 이듬해 유배지가 광서(廣西)의 정강(靜江)으로 옮겨지고, 1332년 순제의 동생 영종(寧宗)이 재위에 올랐으나 그 해에 사망하자, 1333년 순제가 등극하게 되었다. 첫 번째 황후는 태평왕(太平王) 옌티무르(燕鐵木兒)의 딸이고, 두 번째 황후는 육덕왕(毓德王) 패라티무르(悖羅鐵木兒)의 딸이며, 마지막 황후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고려인 기황후(奇皇后)이다. 과거취사제(科擧取士制)를 부활시키고, 법전인 『지정조격(至正條格)』을 반포하였으며, 요(遼)·금(金)·송(宋)의 사서를 편찬토록 하는 등의 업적을 이루기도 하였으나 주원장이 대규모 북벌을 개시하자 수도인 대도(大都)에서 피신하여 몽골 고원에 있는 상도(上都)로 천도하였다. 그리고 1369년 명이 상도마저 점령하자 상도 북쪽에 있는 응창부(應昌府)로 다시 천도하였다. 1370년 응창부에서 사망하였다.

원 순제의 대청도 유배 관련 자료는 사서에 여럿 보인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⁵⁾

- 원 순제(‘타환첩목이’로 기록)는 궁중의 권력 다툼으로 1330년(충숙왕

17) 대청도로 유배되었다가 1331년(충혜왕 1)에 원 광서(廣西)로 유배지를 옮겼다.

순제의 이름은 탁환특목이(托歡特穆爾)로, 명종(明宗)의 큰 아들이다. …… 지순 원년(1330) 4월 신축일 명종 후비 반포이실(班布爾實)에게 참소를 당해 재난을 만나 황제(순제)를 고려에 귀양보내기에 이르렀다. (순제는) 대청도에 기거하는 동안 사람과 더불어 지내지 아니하였다. 한 해가 지나, 다시금 세상에 조서가 반포되었는데, “명종이 북방의 사막에 있을 때, 본디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고 이르렀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순제의 유배지를) 광서(廣西)의 정강(靜江)으로 옮겼다.⁶⁾

- 원 순제(‘타환첩목이’로 기록)는 1330년(충숙왕 17) 원에서 대청도로 유배보내어졌는데, 당시 태자의 나이가 11세였다.

충숙왕 17년(1330) 가을 7월 정사일에 원나라에서 명종의 태자 타환첩목이(妥懽帖睦爾)를 우리 나라 대청도(大靑島)로 귀양보냈는데 태자의 연령이 11세였다.⁷⁾

- 원 순제(‘타환첩목이’로 기록)를 1330년(충숙왕 17) 7월 대청도로 귀양보냈는데, 그의 신분이 명종의 태자였다고 기록되었다.

6. 順帝名托歡特穆爾, 明宗之長子. …… 至順元年四月辛丑, 明宗后班布爾實, 被讒遇害, 遂徙帝高麗, 居大靑島中, 不與人接. 閱一載, 復詔天下, 言明宗在朔漠之時, 素謂非其己子, 移于廣西之靜江(『원사(元史)』 권38).

7. 忠肅王十七年秋七月丁巳, 元流明宗太子妥懽帖睦爾于我大靑島, 年十一歲(『고려사(高麗史)』 권36).

5. 인하대학교박물관, 『백령·대청도 대중국 등 관광객 유치 역사 발굴·고증 연구용역』, 2013을 참고하였다.

충숙왕 17년(1330) 가을 7월에 원 나라에서 명종(明宗)의 태자(太子) 타환첩목이(妥懽帖睦爾)를 대청도(大靑島)로 귀양보내었다.⁸⁾

■ 원 순제(‘도우첩목아’ 태자로 기록)는 1330년(충숙왕 17)에 대청도에 유배 보내어졌다가 이듬해 소환되었다.

대청도(大靑島)(충숙왕 4년에 원나라에서 직왕(稷王) 아목가(阿木哥)를 이곳에 귀양보냈다가 10년에 소환하였다. 11년에 발라 태자(孛剌太子)를 이곳에 귀양보냈다가 16년에 소환하였다. 17년에는 도우첩목아 태자(陶于帖木兒太子)를 이곳에 귀양 보냈다가 동왕 후원년(後元年)에 소환하였다)⁹⁾

■ 원 순제(‘도우첩목아’ 태자로 기록)를 1330년(충숙왕 17) 대청도로 유배 보냈는데, 그가 거처하던 집터가 『신증동국여지승람』(1530) 편찬 당시까지 남아있었다.

대청도(大靑島) 충숙왕(忠肅王) 17년 도우첩목아(陶于帖木兒)를 여기에 귀양 보냈다가 후원년(後元年)에 소환했는데 그들의 거처하던 집터가 아직도 있으며, 목장이 있다.¹⁰⁾

■ 원 순제(‘타환첩목이’ 태자로 기록)를 1331년(충혜왕 1) 원에서 소환하였는데, 이에 충혜왕이 호군을 보내어 태자를 맞이하였다.

충혜왕 원년 12월 갑인일에 원나라에서 추밀원사 윤수곤(尹受困)과 중승(中丞) 궐간(厥干) 등을 보내 타환첩목이(妥懽帖睦爾) 태자를 소환하였는데 왕이 호군 조익청(曹益淸)을 대청도(大靑島)에 보내 태자를 맞아 오게 하였다.¹¹⁾

■ 원 순제(‘도우첩목아’로 기록)는 1330년(충숙왕 17)에 대청도에 유배되었다가, 1332년 12월에 소환되었다고 기록되었는데, 다른 기록과는 달리 소환 시기가 1331년이 아닌 1332년으로 기록되어 있다.

대청도(大靑島)(고려 충숙왕 17년(1330)에 선제(先帝)의 태자(太子) 도우첩목아(陶于帖木兒)를 이 섬에 귀양 보냈다가, 1332년 12월에 소환하였다)¹²⁾

이처럼 사서에서 확인되듯 원 순제가 대청도로 유배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비록 유배자의 신분이었으나 그 대우는 일반적인 유배자의 그것과는 달랐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가 머물던 곳도 ‘궐’이라 칭할 만큼 상징적이었으며 조선시대까지도 흔적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각종 구전과 자료들에서 대청도에 원 순제가 머물던 집터가 있었다고 전하고 있으나 규모와 건립 형태 등에 관한 정보는 많지 않다. 사료를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8. 忠肅王庚午十七年秋七月, 元流明宗太子妥懽帖睦爾于大靑島(『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권24).

9. 忠肅王十七年秋七月丁巳, 元流明宗太子妥懽帖睦爾于我大靑島, 年十一歲(『고려사(高麗史)』 권36).

10. 忠肅王十七年秋七月丁巳, 元流明宗太子妥懽帖睦爾于我大靑島, 年十一歲(『고려사(高麗史)』 권36).

11. 忠肅王十七年秋七月丁巳, 元流明宗太子妥懽帖睦爾于我大靑島, 年十一歲(『고려사(高麗史)』 권36).

12. 忠肅王十七年秋七月丁巳, 元流明宗太子妥懽帖睦爾于我大靑島, 年十一歲(『고려사(高麗史)』 권36).

먼저 규모가 가장 자세한 『세종실록』 지리지의 기록이다. 고궁 3칸과 뒷간 1칸과 담의 옛 터가 있다고 하였다. 이 규모는 1454년, 『세종실록』 지리지를 편찬할 당시의 규모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원 순제가 대청도에서 본국으로 떠난 지 약 120년 후의 일이다. 이 기간동안 얼마나 궁궐이 멸실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대청도(大靑島)(현의 서쪽에 있는데, 물길이 75리이며, 고궁 3칸, 뒷간[溷室] 1칸과 담의 옛터가 있다. … (충숙왕) 17년에 선제(先帝)의 태자(太子) 도우첩목아(陶于帖木兒, 토곤 테무르)를 이 섬에 귀양보냈다가, 충숙왕 복위 원년(1332) 12월에 소환하였다.)¹³⁾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그들이 거처하던 집터가 아직도 있다’고 하여 『신증동국여지승람』 편찬 당시(1530)까지 궁궐터가 남아 있었다고 한다. 이 기록에서는 규모에 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집터’로 기록한 것으로 보아 이미 궁궐은 멸실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기록에서도 마찬가지로 ‘집터’로 언급하고 있다.

대청도(大靑島) 고려조 충숙왕(忠肅王) 4년에, 원 나라에서 발라태자(孛剌太子)를 여기에 귀양보냈다가 10년 소환하고, 11년에 발라태자를 여기에 귀양보냈다가 16년에 소환하였으며, 17년에는 도우첩목아(陶于帖木兒, 토곤 테무르)를 여기에 귀양보냈다가 후원년(後元年)에 소환했는데 거처하던 집터가 아직

도 있으며, 목장이 있다.¹⁴⁾

이중환의 『택리지』(1714)에 의하면 원 순제가 ‘집을 짓고 살았는데(順帝築室以居)’, ‘궁실의 섬돌과 주춧자리가 지금도 완연하다(宮室階礎遺址宛然)’고 하였다.

원나라 문종이 순제를 대청도로 귀양 보낸 일이 있었다. 순제는 집을 짓고 살면서 순금 부처 하나를 봉안하고 매일 해돋을 때마다 고궁에 돌아가게 되기를 기도하였는데, 얼마 후 돌아가서 등극하였다. … 지금은 섬에 사람이 없고 수목이 하늘을 가렸다. 순제가 심었던 뽕나무·옻나무·쑥·꼭두서니 따위가 덩불 속에 멋대로 자라다가 저절로 말라 비틀어지고, 궁실의 섬돌과 주춧자리가 지금도 완연하다.¹⁵⁾

김정호의 『대동지지(大東地志)』(1864)에도 원의 ‘타환첩목이’를 대청도에 유배보냈다는 내용과 함께 집터가 남아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충숙왕 17년 원에서 명종의 태자인 타환첩목이(妥懽帖睦爾, 토곤 테무르)(즉 원 순제)를 대청도에 유배 보냈다가 충혜왕 원년 소환하였다. (섬에는 거처하던 집터가 아직도 있다)¹⁶⁾

14. 忠肅王十七年秋七月丁巳, 元流明宗太子妥懽帖睦爾于我大靑島, 年十一歲(『고려사(高麗史)』 권36).

15. 忠肅王十七年秋七月丁巳, 元流明宗太子妥懽帖睦爾于我大靑島, 年十一歲(『고려사(高麗史)』 권36).

16. 忠肅王十七年秋七月丁巳, 元流明宗太子妥懽帖睦爾于我大靑島, 年十一歲(『고려사(高麗史)』 권36).

13. 忠肅王十七年秋七月丁巳, 元流明宗太子妥懽帖睦爾于我大靑島, 年十一歲(『고려사(高麗史)』 권36).

원 순제의 궁궐 터 관련 기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세종실록지리지』에 의하면 대청도에는 “고궁(古宮) 3칸, 뒷간 1칸과 담의 옛 터가 있다”라고 하여 대청도에 유배 온 원 순제 집터의 구체적인 규모를 알려주고 있다. 또한 『신증동국여지승람』(1530년)과 『택리지』(1714년), 『대동지지』(1864)에도 당시까지 그 흔적이 남아 있음을 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정확한 원 순제의 궁궐 터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원 순제의 궁궐 터의 규모가 컸을 것으로 짐작되는 대목이 하나 있다. 작자미상의 『유산유수 유수유어 지격(有山有水 有水有魚 之格)』이라는 글에 원 순제를 ‘신황’이라고 칭하고, 유배 당시 100여 호 600~700여 명의 사람들이 따라왔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몽고인 흘필열 후손 원 순제 태자 신황이 계모의 모함에 의해 암도(岩島)로 멀리 유배될 때 고관 및 친족 친근 서민 등 100여 호가 함께 바다를 건너 암도에 도착하여 자리를 정하였을 때 왕도에는 필히 삼각이 있을 것이라 하여 현 고주동 큰 산이 삼각으로 되어 있어 이를 삼각산으로 정하였으니 현재도 그때 이름이 그대로 존속되어 전해지고 있어 마치 그때를 방불케 하고 있다. 옥죽포는 그 지명이 없어지지 않고 있다.¹⁷⁾

유배자의 신분임에도 원 순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100여 호 600~700여 명의 사람들이 수행하였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원 순제는 물론 원 순제를 수행해야 하는 많은 사람들이 머물 공간이 있어야 했을 것이다. 구전에 따르면, 원 순제 궁궐터는 대청도 내동(內洞)에 있었으며 원 순제가 내동



1999년 수습 기와편



2006년 수습 기와편

을 장안(長安)이라고 고치고, 산 이름을 삼각산(三角山)으로 고치는 등 자신의 도읍(都邑)으로 여겼다고 전한다. 마치 대청도를 자신의 소국(小國)처럼 여겼던 것으로 보아 궁궐 역시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그런데 원 순제의 궁궐 터로 전해지는 자리에 1932년 대청공립보통학교(현 대청초등학교)가 설립¹⁸⁾되며 궁궐 터가 훼손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1999년 인천문화원 조사와 2006년 문화유적분포지도 제작을 위한 인하대학교박물관 조사 당시까지도 대청초등학교 주변에서 기와편이 수습되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관련 유구 및 유물을 확인할 수 없었음. 운동장 조성 후 인조잔디 설치 및 기타의 건축행위들로 인해 남아 있던 유적이 훼손된 것으로



대청초등학교 전경 1

17. 忠肅王十七年秋七月丁巳, 元流明宗太子妥懽帖睦爾于我大靑島, 年十一歲(『고려사(高麗史)』 권36).

18. 대청초등학교는 1921년 김학선이 선진동에 건립한 대청사숙(大靑私塾)을 모태로 한다(웅진군지편찬위원회, 2010, 『웅진군지』 하, 322쪽).

판단된다. 현재까지도 운동장 설치 및 기타 건축 행위들이 빈번히 이루어져 유적이 크게 훼손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 순제가 대청도에 귀양을 왔다는 사실은 대청도의 민담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원 순제의 대청도 귀양살이 이야기는 인근의 여러 섬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만치 유명한 전설로서 주민들은 이를 가리켜 신행이 얘기라고 한다. 원나라 시절 이야기다. 순제가 아직 왕위에 오르기 전의 일이다. 순제에게는 일찍이 계모가 있었는데 그의 몸에선 왕자가 하나 태어났다. 순제는 비록 이복동생일망정 이 계모의 아들을 지극히 귀여워하건만 계모의 눈치는 나날이 달라져만 갔다.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자기가 낳은 아들을 왕위에 앉혀 보려는 엄청난 음모가 싹트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자인 순제가 엄연히 살아있는데 현실에 실현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어 계모는 변민의 날을 보내게 되었다. 그는 가만히 앉아 있을 여자가 아니었다. 순제의 그릇된 행동을 조작 밀고하여 그로 하여금 절해고도인 대청도로 유배를 보내는 묘안을 생각해내어 마침내는 성공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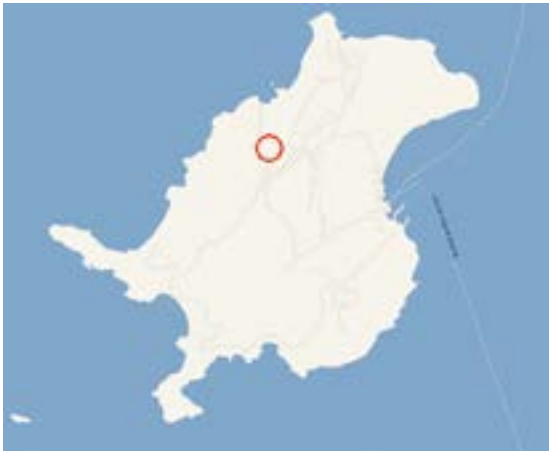
그러나 죄를 진 늙은 다리를 못 펴고 잔다는 말은 예나 지금이나 진리인 것이다. 비록 절해고도로 내쫓기는 했으나 혹시 훗날이라도 복수하지 않을까 싶어 간사한 계모의 마음은 하루도 편치를 못했다. 이때 자기 밑에서 심부름하고 있는 계집 앵무(鸚鵡)를 시켜 몰래 대청도에 가서 순제의 생활 상태를 은밀히 조사하도록 명하였다. 명을 받은 앵무가 대청도에 이르러 보니 산림이 울창하여 하늘을 가리고 양 계곡 사이로는 향기를 자랑하는 해당화가 수북하게 피어 있어 그대로仙境(仙境)을 이루고 깊숙이 마을 안으로 들어가 보니 높다랗게 집을 짓고 같이 귀양 온 부인과 그 밑에 따라온 종들을 데리고 단란하게 사는 품이 꼭 별천지의 모습이었다. 비록 영원히 고국을 등진 외로움에 젖어 눈물 짓는 정경이 애처로운 바도 있지만 인간이 인간을

믿고 이해하고 아끼며 살아가는 모습이란 지상천국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화기만 분위기에 정신이 나간 앵무는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 자기 본 대로를 황후에게 아뢰었다. 놀란 것은 황후였다. 당황하여 정신을 못 차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다시 순제를 없애 버릴 계획을 꾸미기를 잊지 않았다. 황후의 밀사가 다녀간 지도 모르고 단란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순제는 얼마 후 뜻밖의 편지를 받았다. 부왕의 편지였다. “잘못이 있어 내가 너를 멀리 떠나보냈으나 부자의 정을 어이 저버릴 수가 있겠느냐? 보고 싶은 마음 금할 길 없어 우울한 나날을 보내던 중 이제 급한 병을 얻어 죽음이 눈 앞에 있다. 명이란 명의를 다 불렀으나 도리가 없다는구나. 다만 한 가지 신표한 약이 있기는 하다는데 이 신표이란 다른 약이 아니고 태자의 눈알을 하나 먹는 것이라 하니 이로써 천년을 산다 한들 어찌 내가 너의 눈을 먹을 수 있겠느냐? 애비는 너를 한 번 못 본 채 속절없이 죽게 되었구나. 늙은 몸이 이제 죽은들 무슨 여한이 있으랴마는 멀리 나라를 떠나보낸 너를 생각할 때 눈이 감길 것 같지가 않구나.”

이와 같은 부왕의 글을 읽고 난 순제의 두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한없이 흘렀다. ‘비록 계모의 음모를 깨닫지 못하고 나를 이곳에 귀양 보낸 부왕이지만 나에게는 둘도 없는 아버지가 아니냐? 이제 생사가 경각에 있다 하니 내 어이 한 눈을 아껴 부왕의 생명을 건지지 못하는 천고의 불효를 끼칠까 보냐?’ 그에게는 조금의 주저도 있을 수 없었다. 한쪽 눈을 빼어 나라에 보낸 순제는 부왕의 완치만은 빌며 다시 전대로의 단란한 생활을 계속하였다.

불구의 슬픔 위에는 더 한층 깊은 인정이 오고가는 것이다. 순제의 한 쪽 눈을 받은 황후는 기쁨을 참지 못하는 한편 필연코 순제가 비관 자살이라도 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다시 사람을 보내어 가끔 소식을 알아 오라고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계속되는 순제의 단란한 생활에 더욱 겁이 난 황후는



원 순제 궁궐터 위치도

다시 편지 한 장을 썼다. “너의 눈을 하나 먹었더니 약간의 차도가 있어 기쁘나 마저 하나를 더 먹어야 완쾌되겠다.”는 내용의 편지가 곧 순제에게 전해졌다. 본래 순제는 효성이 지극한 사람이었다. 부왕을 위해서는 남은 한

쪽 눈마저 안 줄 수 없었다. 계모의 음모인 줄은 꿈에도 모르는 순제는 기어코 두 눈을 다 빼내고야 말았다. 두 눈을 잃은 순제는 그야말로 앞이 캄캄하였다.

답답한 심정을 억제할 길 없어서 정처 없이 길을 떠난 것이 해주 수양산 고주북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기진맥진한 순제는 바위에 엎드려 앞에 있는 큰 미륵을 어루만지며 잠이 들었다. 그런데 꿈속에서 미륵이 말을 걸었다. “나는 밤낮없이 이곳에 서서 모진 비와 역센 바람에 영 견디어낼 수가 없어 힘들어 죽겠다. 그러니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지어 준다면 내 너로 하여금 대국천자에게 보내어 왕위를 잇도록 해 줄 것이니 그리 알아라.”

꿈속에서 깨어난 순제는 꿈속의 일을 생각하고 이상히 여겨 미륵을 위한 집을 짓고 싶으나 앞을 못 보는 몸이 다른 도리가 없어 한숨을 짓고 있는데 문득 강풍이 일어 순제를 중국으로 싣고 갔다. 그리하여 순제는 그곳에서 집 지을 재목 일체를 빌려 가지고 해수에 돌아와 미륵이 선 자리에 큰 집을 지으니 이것이 유명한 신평사이다. 그 후 순제는 미륵의 힘을 입어 드디어는 대국천자의 자리를 차지하였음은 물론이다. 이 원 순제의 전설은 무대가

꽤나 넓다. 대청도에는 지금도 원 순제가 궁궐을 짓고 살았다는 곳이 내동현 초등학교 터였다고 하며 고주동(庫柱洞)은 그가 창고를 지어 곡식을 쌓아 두었다는 곳인 바 동명도 여기에서 유래되어 본래 고주동으로 부른다.

원 순제 신평당

■시대 : 고려(후기) ■유형 : 궁궐/터 ■소재지 : 대청면 대청리 산88-2임 일대



1928년 원 순제 신평당 모습



2013년 원 순제 신평당



2013년 원 순제 신평당 주변



2013년 원 순제 신평당 내부 축대

1920~30년대 『동아일보』에서는 백령도와 관련된 기행문이 13회 연재되었다.¹⁹⁾ 이중 1928년 8월 25일자 기사에 의하면 내동 뒷산 밑에 원 순제를

19. 『동아일보』, 『백령도방면(一) 絶島에 林慶業將軍祠, 回天雄圖도 泡影, 룡당포 지내니 비참한 심회, 朝陽에 붉은 黃海(金東進)』(1928. 08. 19) 외 1928년 8월 31일까지 모두 13회에 걸쳐 기행문 수록.



원 순제 신황당 위치도

모신 초가 신황당이 있었으며, 백목으로 만든 상 위에 나무 촛대가 좌우로 있었고 촛대 중앙에 순종황제신위(順宗皇帝神位)라는 위패가 놓여 있었다고 하였다. 이 기사에서는 원 순제의 집터에 신황당을

지었다고 한다²⁰⁾.

2013년 인하대학교박물관의 조사²¹⁾에 의하면 신황당은 1928년의 모습과는 상이하며 주변 돌을 쌓아 장방형으로 지었고 상단은 함석 지붕으로 개조되어 있었다. 내부에 위패는 없고 금속 촛대 한 쌍이 놓여져 있었다. 신황당은 군부대 내에 위치하고 있어 일반인의 접근이 금지되어 있었다. 당시 조사팀 방문시 신황당 북서쪽 사면에 군부대 진입로 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며, 신황당이 속해 있는 소속 부대 장교의 통제를 받아 이동하였는데, 도로부터 신황당까지는 통행로가 조성되지 않아 잡목 사이를 헤치고 들어가야 하였다. 당시 인술을 도와준 부대 장교의 말에 의하면, 신황당에 간혹 사람들이 들어와 제사를 지내고 간다고 하였다.

신황당은 종래의 보고서 등에 의하면 ‘동내동 서낭당’ 등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까지만 하여도 동내동 서낭당은 삼각산의 산신을 모시는 대청도의 대표적 무속신앙이었다는 점, 원 순제의 설화가 ‘신향이’ 설화

로 각색되어 대청도에서 지금까지도 전승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어도 해방 전까지는 신황당이 원 순제를 모셨던 사당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그 위치와 규모 등을 고려할 때, 1928년 『동아일보』의 기사처럼 원 순제의 집터라고까지는 생각되지 않는다.

현재 원 순제의 신황당은 멸실되어 흔적을 찾을 수 없다.

대청도 대청리 고려 고분군

■시대 : 고려(후기) ■유형 : 궁궐/터 ■소재지 : 대청면 대청리 산88-2임 일대

2000년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의해 처음으로 보고된 유적으로 대청도의 서쪽 대청1리 서내동에 위치하며 마을에서 석장골로 알려져 있다. 서내동 상여집의 우측 소로를 따라 50m 정도 올라가면 우측으로 ‘밀양손공상일지묘(密陽孫公相一之墓)’가 보이는데, 고분군은 이 묘의 북쪽 능선에 위치한다. 이 일대는 15~30년생 소나무를 비롯하여 각종 잡목이 빼곡하게 자라고



대청리 고려 고분군



대청리 고려 고분군 위치도

20. 하지만 신황당의 위치와 원 순제의 집터의 위치는 상이하다.

21. 인하대학교박물관, 『백령·대청도 대중국 등 관광객 유치 역사 발굴·고증 연구용역』, 2013.

있어 통행이 어렵고 바닥에 낙엽이 두껍게 깔려 있어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주민의 전언에 의하면 그동안 이곳에서 많은 도굴이 이루어졌고, 2000년도에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새마을사업 때 마을 공사를 하면서 돌이 필요할 때 이곳에서 무분별하게 돌을 캐냈다고 한다.

조사 당시 길 안내를 도와준 주민 김상철씨 말에 따르면, 자신의 조부 때인 일제강점기 말에 일본인들이 이곳에서 도굴을 했고 그때 김상철씨 조부가 그 일을 돕게 되었다고 한다. 도굴로 출토된 유물은 주로 도자기였는데 석경(石鏡)도 있었다고 한다. 도굴 후 일인들은 유물 몇 점을 김상철씨 조부에게 선물했고, 이 유물은 그 뒤 대청초등학교 교사의 요청으로 학교 교육자료로 제공되었으며, 그 교사가 육지로 전근된 후 행방을 잃어버렸다.

이곳은 좌우가 얇은 골짜기로 구분되는 구릉지대로서 기복이 거의 없고 경사가 완만하다. 주변에는 크기가 일정하지 않은 산돌이 낙엽에 묻힌 채 조밀하게 드러난다. 그러나 확인되는 막돌은 일정한 형태를 갖춘 것은 찾을 수 없었고, 8~10cm 가량 덮힌 낙엽과 그 아래 나타나는 검은색 부식토에서도 유구로 볼 수 있는 것은 없었다. 새마을사업 때 마을 공사를 하면서 돌이 필요할 때마다 이곳에서 무분별하게 돌을 캐냈다고 하는데 그때 유구 대부분이 훼손된 듯하다.

조사 결과 지표상 유구의 흔적을 찾을 수 없고 유물도 확인할 수 없이 오직 위에서 말한 과거 사실만이 전할 뿐이다. 그러나 이곳과 인접한 대청 1, 7리가 고려 때 원순제의 태자시절 귀양왔던 곳으로서 당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와 머물렀다는 전설 등을 통해 볼 때 이와 관련한 유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²²⁾

22. 『軍事保護區域 文化遺蹟 地表調査報告書(京畿道篇)』, 국립문화재연구소, 2000, 610쪽
(『문화유적분포지도 : 인천광역시 계양구, 부평구, 남구, 옹진군』, 인천광역시·인하대학교박물관, 2006에서 재인용).

조사결과 대략 10여기의 고분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유적의 규모는 정밀조사가 요구된다.

대청초등학교 가마 터(大靑初等學校 窯址)

■시대 : 고려(추정) ■유형 : 요업/터

■소재지 : 대청면 대청리 1085, 1084, 1139, 1138, 1083 일대



대청초등학교 가마 터



대청초등학교 가마 터

대청면 대청리 대청초등학교 운동장 북쪽에 위치한 가마터는 고려시대 것으로 추정되는데 유구 상부는 운동장을 조성하면서 깎여 없어지고 벽체 선만 뚜렷하게 남아 있다. 가마는 북서-남동 방향으로 길쭉하며, 북쪽이 넓고 끝이 원형이나 남쪽은 좁고 방형으로 전체 형태는 홀 모양이다. 2000년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조사에 의해 처음으로 보고 된 유적이다.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유구 크기는 장축 길이 454cm, 장축(위) 167cm, 장축(아래) 114cm이다. 벽체 선은 6~12cm 두께로 안쪽부터 얇게 숯, 적갈색 소토의 순이다. 가마 내부에는 황색과 흑색, 회갈색 등 탄흙(燒土)이 서로 섞여 있고, 기와 조각도 발견된다고 한다. 벽체를 경계로 바깥으로는 불의 영향이 적고 벽체 내부에 유리질이 형성되지 않는 등 높은 온도를 얻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며, 여러 번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기와가마로 보이며 내부에 박혀 있는 기와편도 초등학교 주변에 흩어져 있는 기와편과 같은 종류의 것이다.²³⁾

대청진 터

■시대 : 조선 ■유형 : 군영/터 ■소재지 : 대청면 동내동



대청진 터

1793년(정조 17) 대청도, 소청도 양 섬에 주민을 들여보내 섬을 개간 하자는 좌참찬 정민시(鄭民始)의 건 의가 받아들여져 둔전(屯田)을 설치 하고 임시 별장을 파견하였다. 1799 년(정조 23)에는 새로 신설된 화성 유수부에 소속하게 하고 양 섬에 각

진을 설치하고 진장은 화성부의 장교 가운데 1년씩 번갈아 가며 임명하였다.

그런데 왜 대청진이 지금의 수원인 화성유수부에 소속된 것이었을까? 수원성[華城] 착공 1년 전에 대청도에 모민(募民)하여 개간한 일과 1796년(정조 20) 수원성 완공과 더불어 3년 후 대청진을 화성유수부에 소속한 일은 대청진이 해방(海防)의 목적뿐 아니라 새로 건설된 화성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함께 있었다. 대청진에서는 해마다 정철(正鐵) 500근을 화성에 세(稅)로 납부하였다.

대청진은 1894년 도장(島長)제도의 신설로 폐진될 때까지 약 100여 년을 지속하였으나 그 둔전을 둘러싸고서는 끊임없는 잡음이 일었다. 백령진의

이속들이 갖은 명분을 걸어 수탈을 한 것이다(『승정원일기』 고종30년 2월 1일). 따라서 1893년(고종 30) 대·소청의 주민의 장적(帳籍)을 모두 수원유수영으로 이속시키는 조치를 취한다. 1910년 백령면이 신설될 때까지 대·소청도는 수원부의 소속이었음을 대한제국기의 광무호적 자료들을 통해 알 수 있다.



대청진 터 위치도

1914년 행정조직 개편으로 백령면 대청리가 되고 대청도의 중심지가 선진동으로 옮겨지면서 대청진청은 빈 집으로 남아 있다가 1921년 김학선(金學善)에 의해 진청사에 사숙(私塾)이 건립되었다. 1923년 대청사립보통학교로 인가되었다가 1929년 학교가 선진동 논골[畝洞]로 이전한 후 진청사 건물은 철거되고 함석지붕의 목조 공회당이 되었다가 근래에 보건소가 건립되었다.

옥죽동 서낭당(玉竹洞 城隍堂)

■시대 : 근대 ■유형 : 민속/무속 ■소재지 : 대청면 옥죽동



옥죽동 서낭당



옥죽동 서낭당 위치도

23. 『軍事保護區域 文化遺蹟 地表調査報告書(京畿道篇)』, 국립문화재연구소, 2000, 613쪽
(『문화유적분포지도 : 인천광역시 계양구, 부평구, 남구, 옹진군』, 인천광역시·인하대학교박물관, 2006에서 재인용).

현재 대청면 옥죽동 서낭당에는 몇 사람만이 제사를 지내고 있다. 옥죽동에서 마을사람 전체가 제사를 지낸 것은 1985년 9월 9일으로써, 이때 선원들이 주체가 되어 제사를 지냈다. 서낭당 건물도 시멘트로 새로 단장하였다.

동내동 서낭당(東內洞 城隍堂)

■시대 : 근대 ■유형 : 민속/무속 ■소재지 : 대청면 동내동



동내동 서낭당



동내동 서낭당 위치도

대청면 동내동 서낭당은 예전에 음력 9월 9일이나, 1월 15일에 여러 명의 외지 무당들이 와서 임경업장군을 모셨으며, 주로 뱃사람들이 중심이다. 현재에는 없지만 철마조각이나 목마조각들이 장식되어 있었다.

사탄동 장군당(沙灘洞 將軍堂)

■시대 : 근대 ■유형 : 종교/무속 ■소재지 : 대청면 사탄동

서낭당 제사가 끝나면 사탄동 장군당에서 제를 지내는데, 장군은 임경업 장군이라고 한다. 장군당에는 장군의 영정과 도포와 갓, 한지가 햇대에 걸려 있다. 제를 지내는 방법은 서낭당고사와 같다. 장군당 한쪽 아래에는 부군당이 있다. 부군당은 장군당을 보좌하는 역으로써 특정한 건물이 없고, 땅을 파서 그 안에 가로목을 대어 한지를 걸어 두었다. 평상시에는 함석으로 구멍을 가려 두었다.



사탄동 장군당



사탄동 장군당 내부



사탄동 장군당 위치도

사탄동 서낭당(沙灘洞 城隍堂)

■시대 : 근대 ■유형 : 종교/무속 ■소재지 : 대청면 사탄동



사탄동 서낭당



사탄동 서낭당 위치도

사탄동에는 서낭당과 장군당, 부군당이 마을 신앙물로 존재하고 있다. 이곳은 4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3년마다 소를 잡는 큰 굿을 벌였다고 한다. 또한 동네가 좋지 않은 경우에도 만신무당을 불러 굿판을 벌였다. 소는 백령도에서 가져왔다. 현재 마을공동단위의 고사는 사라지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세 집에 의해 모셔지고 있다.

선진동 서낭당(先津洞 城隍堂)

■시대 : 근대 ■유형 : 종교/무속 ■소재지 : 대청면 선진동



선진동 서낭당



선진동 서낭당 내부



선진동 서낭당 위치도

이외에 장군당과 부군당이 같이 모여져 있다. 당집 가운데에는 장군의 영정이 있고, 영정을 바라보고 좌측에는 부군당, 우측에는 서낭당이 있다.

소청도 영감당(小青島 靈鑑堂)

■시대 : 근대 ■유형 : 종교/무속 ■소재지 :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소청리



소청도 영감당



소청도 영감당 내부

대청면 선진동에는 서낭당이 있는데, 뱃고사를 하는 날이면 먼저 서낭당에 와서 비손을 하고 한지를 올린 후 배에서 고사를 지낸다. 곳을 해도 서낭당에서 부터 시작한다. 음력 9월 9일이면 사람들은 서낭당에 찾아와서 음식과 술을 가지고 당제를 지내고, 당제가 끝나면 가족의 수대로 한지를 햇대에 건다. 현재 서낭당 안에는 서낭

때 지내는데, 대략 오후 12시 정도이다. 영감당 가운데에는 임경업장군의 영정이 있고, 좌우에는 도포와 한지들이 햇대에 걸려 있다. 선주들은 제사가 끝나면 한지를 햇대에 건다. 소청도는 백령도, 대청도와 달리 오랫동안 영감당 신앙이 지켜지고 있다.



소청도 영감당 위치도

소청도 큰당(小青島 大堂)

■시대 : 근대 ■유형 : 종교/무속 ■소재지 : 대청면 소청리



소청도 큰당 위치도



소청도 큰당



소청도 큰당 내부 장군도

대청면 소청리 마을 뒷산에 위치하고 있는 큰당 제사는 1년 중 날을 잡아서 지낸다. 마을에서 생기복덕을 보고 깨끗한 사람을 제관으로 선정하여 제사를 지낸다. 큰당에서 제사를 지낼 때는 소나 돼지를 잡았다. 각 가정에서 일정액을 수렴하여 백령도 등지에서 소나 돼지를 구입하는 것

이다. 제사가 끝나면 각 가정에 공평하게 고기를 나누어주고, 마을잔치를 벌였다.

소청도 등대

■시대 : 1908년 ■유형 : 교통/등대 ■소재지 : 대청면 소청리 산 307번지



소청도 등대



소청도 등대 위치도

1908년 소청도 서쪽 끝 83m 고지에 설치된 등대로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설치되었다. 개설 이후 약 100여 년 간 서북해 일대와 중국 산둥반도, 만주 대련지방을 향해하는 각종 선박들의 길잡이 역할을 해 왔다. 2006년 옛 등대를 허물고 새로운 등탑을 건설하였다.

선진항 포경회사 터

■시대 : 근대 ■유형 : 교통/등대 ■소재지 : 대청면 대청리

대청면사무소가 소재한 대청도의 선진포(船津浦)는 원래 4~5가구에 불과한 한촌(寒村)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곳을 천혜의 양항(良港)으로 판단한 일제는 1918년 동양포경주식회사(東洋捕鯨株式會社)의 포경기지를 설치함으로써 급속히 인구가 증가하였고, 이후 대청도의 중심지가 되었다.

당시 포경선은 고래를 선상에서 해체하는 시설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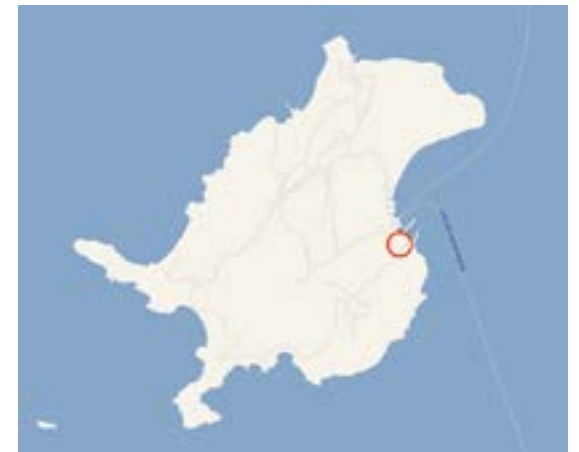
고래를 해체할 수 있는 중간기착지, 즉 경제(鯨體)처리장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경제처리장은 1913년부터 울산, 거제도, 장전 등 주로 동해안에 설치되었으나, 1916년부터는 서해안으로도 진출하여 대흑산도에 사업장이 설치되었고, 1918년에는 대청도, 1926년에는 제주도까지 확장되었다.

1920년대부터 30년대 초까지 서해안의 포

경업은 동해안의 포경업을 압도하였다. 특히 대청도는 1930년대 초까지 매년 30~60마리의 고래를 포획하는 조선 최대의 포경장이었다. 번성기 당시 대청도에는 서양인 포수(砲手)를 고용한 3척의 포경선과 약 60여 명의 작업부가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매년 11월~4월까지의 포경기에는 120~130명의 일본인 상인들이 들어오고, 샤미센[三味線]을 연주하는 게이샤들까지 함께 왔다고 전한다. 그러나 1934년 이후 남획으로 인해 포획수가 급격히 감소하였고, 1945년 해방 이후에는 남북분단으로 더 이상 포경업을 지속할 수 없어서 대청도의 포경업은 막을 내리고 말았다.



대청도 포경회사 사업장(대청면지면찬위원회, 『대청면지』, 1995)



선진항 포경회사 터 위치도

김학선 송덕비

■시대 : 근대 ■유형 : 비석 ■소재지 : 대청면 대청리 산 60-1



김학선 송덕비



김학선 송덕비 위치도

김학선(金學善, 1864~?)은 일제강점기 대청도의 유지로, 농어촌계몽운동과 교육운동에 힘쓴 인물이다. 황해도 서패곶(西貝關) 출신으로 중년 이후에 대청도로 들어왔다. 1908년 일제 통감부가 “어업법”을 제정하여 어업을 면허 및 허가어업으로 단속할 당시 대·소청도의 포패채조전용어업권(捕貝採藻專用漁業權)을 취득(1909년)하여 도민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였다. 1913년 총독부의 토지조사사업으로 대·소청도의 산야가 국유지로 편입될 당시에는 대청도 대표로 당국에 진정하여 1919년 민유지로 환원되는데 크게 공헌하였고, 1921년에는 사재를 출원하여 대청사숙(大靑私塾, 1932년 대청공립보통학교로 승격)을 설립하고 숙장(塾長)에 취임하기도 하였다. 1923년에는 대청도어업조합을 설립하여 초대 조합장에 취임하였고, 도민들의 음주와 도박을 금지하는 동규(洞規)를 만드는 등 계몽운동에 힘썼다. 현재 대청도 선진동 언덕(면사무소 뒤편)에 1933년 도민들이 세운 <김학선 송덕비>가 남아 있다.

연평면

충민사(忠愍祠)

■시대 : 조선 후기 ■유형 : 사당 ■소재지 : 연평면 연평리 산9-1

충민사(忠愍祠)는 정면 3칸, 측면 1칸의 맞배지붕 목조건물이다. 본래 임경업 장군을 모시는 곳당이었으나 충민사라는 현판을 달고 유교식 제당으로 바꾸었다. 현재 연평도에서는 매년 봄마다 이곳 충민사에서 풍어를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고 있다. 과거 연평도의 풍어제는 민속 의례로 크게 지냈지만, 현재는 1년에 한 번 꽃게잡이가 시작하는 즈음에 약식으로 행하는 정도이다. 과거 연평도에서는 풍어제를 크게 올렸지만, 현재의 풍어제는 10년 전에 새로 시작한 것이다. 그것도 당시 우연히 풍어제를 올렸는데, 그 해 꽃게가 엄청나게 잡혔다. 그래서 사람들은 매해 풍어제를 올리기 시작



충민사 내 임경업 영정



충민사 위치도

하게 되었다고 한다. 풍어제는 매년 2월 보름께 어민회장이 선주회의를 통해 배 나갈 기일을 잡으면, 배 나가는 전날 풍어제를 올린다. 선주 집에서 음식을 준비하여 사당 앞에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고 북, 팽과리 등을 치면서 논다. 풍어제에는 선주와 선장, 선원, 마을기관장, 군간부 등이 참여한다. 현



충민사

재 제사는 유교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풍어제와 상관없이 무속인들이 사당을 찾아 개인적으로 제사를 지내곤 한다. 마을에서는 그들이 오는 것을 반대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둔다. 무당들은 제사가 끝나면 사당 앞의 팽나무에 오색천을 매달아 둔다. 팽나무에 깨끗한 오색천이 걸려 있는 것으로 보아 2006년에도 무당들이 찾아갔음을 알 수 있다.

과거 연평도는 조기철이 되면 파시로 유명했었는데, 이 때 연평도 주민들은 배의 선장이나 선원 등을 대상으로 물과 음식 등을 내다 팔았다. 연평도를 찾은 외지의 조기잡이배 선장들은 임장군 사당을 찾아 풍어와 배의 안전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기도 하였다. 그러면 임장군이 나타나 “너희는 xx에 그물을 치면 고기가 잘 잡는다”, “너희는 xx에서 사고를 만나겠다”식으로 알려주었다고 한다. 임장군이 어부들의 신으로서 섬겨지고 있었던 것이다.²⁴⁾

연평 파시촌

■시대 : 근대~현대 ■유형 : 시장 ■소재지 : 연평면 연평리

파시(波市)란 글자 그대로 물결[波]을 타고 바다에서 열리는 시장[市]을



연평 파시촌(1948년)

일컫는 말이다. 매년 11월부터 2월까지 동중국해에서 월동한 조기들은 우리나라 서해안으로 북상하여 2~3월에 흑산도, 3~4월에 안마도와 위도를 지나 5~6월에 연평도에 어장을 이루는데, 회유하는 수십 억 마리의 조기를 따라 형성되는 시장이 곧 파시인 것이다. 중선배, 안강망배 할 것 없이 갑판 위까지 가득 조기를 싣고 섬으로 들어오면 마포, 개성, 인천, 군산 등 각지의 상고선(商賈船)·운반선들과 뒤섞여 곧바로 판매가 이루어진다.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았던 조기 파시는 1960년대 말이 되자 조기 어획량이 급격히 떨어지며 막을 내린다. 유자망·기선저인망 등의 어구를 갖춘 대형화된 동력선들의 마구잡이 어획으로 참조기의 씨가 말라 버린 것이다. 조기 파시가 사라지자 연평도의 인구 또한 1967년 3,055명에서 1970년 2,592명으로 3년 만에 436명이나 줄어들었다. 조기가 떠난 섬은 적막함만이 남아 서해의 낙도로 전락하고 말았다.



연평 파시촌 위치도

24. 『문화유적분포지도 : 인천광역시 계양구, 부평구, 남구, 옹진군』, 인천광역시·인하대학교박물관, 2006.

북도면

장봉도 봉화산 봉수 터(長峰島 烽火山 烽燧址)

■시대 : 조선 ■유형 : 교통/터 ■소재지 : 북도면 장봉4리 산237 봉화산 정상



봉화산 봉수 터 위치도

북도면 장봉4리 산 237 해발 130 m의 봉화산 정상에는 서해 연안의 주요 봉수 가운데 하나였던 봉화산 봉수대의 연대(煙臺)였을 것으로 생각되는 일부 석축이 남아 있다. 봉

수는 할석을 이용해 원형으로 쌓은 화구부가 남아 있는데, 화구부 바닥에는 기단석으로 보이는 석렬도 일부 남아 있다. 기단 석렬은 50~70cm의 할석을 이용해 쌓았는데 화구부의 규모는 벽면 높이 150cm, 하부 두께 100cm, 상부 두께 50cm이고 내부지름은 170~180cm이다.

장봉도에 봉수대가 설치된 시기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은데, 다만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숙종 10년 8월 6일의 기록을 통해 장봉진의 설치와 관련한 논의를 거쳐 숙종 연간에 설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봉화산 봉수 터

좌참찬 윤지완(尹趾完)이 아뢰기를 “장봉과 위문(位文) 두 섬은 지형으로 논하자면 진보를 설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만 다만 염려되는 것은 군병을 적게

배치하면 힘이 될 수 없고 군병을 많이 두려면 형편이 닿지 않는 점입니다.

-『비변사등록』, 숙종 10년 8월 6일

장봉진 터(長峰鎭址)

■시대 : 조선 후기 ■유형 : 군영/터 ■소재지 : 북도면 장봉3리(진촌)

장봉 3리 진촌(鎭村) 일대는 1717년(숙종 43)에 설치된 장봉수군이 위치하였던 곳으로 추정된다. 장봉진의 설치에 강화수로의 방비를 강화하는 숙종대의 국방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장봉진의 설치 문제는 1678년(숙종 4) 김석주의 건의 이후 그 유효성 문제로 상당한 논란을 겪으며 설치가 지체되었다.



장봉진 터 위치도

병조 판서 김석주와 부사직 이원정이 강도(江都)를 순심(巡審)하고 돌아와서 곧 지도(地圖)와 서계(書啓)를 봉진(奉進)하였는데……장봉도와 자연도는 해문을 분치하여 남쪽으로 조운하는 입구가 되고 매음도는 교동과 몇 리 정도 떨어져 있으므로 강도 사람과 물을 격(隔)하여 서로 말할 수 있으며, 그 섬은 또 매우 넓어 소금을 만드는 호구와 고기잡는 사람이 모여 살고 있으니, 비록 목장이 있더라도 진(鎭)을 설치하기에 족하고, 장봉도는 토지가 심히 비옥하고 사람이 모두 들어가기를 원하며, 또 포곡(浦曲)이 있어 수십 척의 배를 정박시킬 만한 곳이니, 또한 1보(堡)를 설치할 만합니다.

-숙종실록 4년 10월 23일 기사



장봉진 터

이후 1683년(숙종 9)에 강화 유수 이민서(李敏弼)의 건의로 본격적으로 설진이 추진되었고, 1717년(숙종 43)에 이르러 진의 설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장봉진에는 수군만호가 배치되어 감목관(監牧官)을 겸하였으며, 『여지도서(輿地圖書)』에 따르면 장봉진에는 전선(戰船) 5척과 수군 470명을 비롯하여 705명에 이르는 군병이 배치되었다.

조선 말에는 이양선의 출몰과 양요 등으로 말미암아 진의 전력이 증강되기도 하였으나, 갑오개혁 때 혁파되었다.

사료에 나타는 지형 등의 언급을 종합해 보면 장봉도에서 전해지는 것처럼 진의 위치는 진촌 일대로 여겨지지만 그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다만 이번 조사 때 만난 그 지역 주민은, 어렸을 때 마을 어른들에게서 들었다며 장봉진이 있던 곳을 알려주었고, 또한 20여 년 무렵 밭을 만드는 중 다량의 무기가 땅속에서 나왔다고 제보하였다. 또 그 근처까지 바닷물이 들어왔고, 밭 주변에 여러 가지 토기조각들이 흩어져 있는 것으로 볼 때 이 일대가 장봉진이 위치하였던 곳으로 추정할 수 있다.²⁵⁾

장봉도 형옥 터(長峰島 刑獄址)

■시대 : 조선 후기 ■유형 : 감옥/터 ■소재지 : 북도면 장봉2리 산75



장봉도 형옥 터



장봉도 형옥 터 위치도

북도면 장봉 2리 산75, 장봉도 형옥터는 공동묘지 동남쪽의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는 구릉에 위치한다. 아직까지도 ‘옥당머리’라고 부르는 이곳에는 조선시대 형옥이 자리했었다고 전해진다.

국립문화재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곳을 끼고 농업용 도로가 지나가며 주위는 논과 포도밭으로 경작하고 있다. 조사 당시 감옥이라고 할만한 유구나 유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옥당머리 중앙에 이장한 듯한 구멍이가 하나 있는데 주민들 이야기로는 도굴꾼이 파놓은 것이라고 한다.²⁶⁾

최준창 묘갈 및 묘역(崔俊昌 墓碣 및 墓域)

■시대 : 조선 후기 ■유형 : 분묘/비석 ■소재지 : 북도면 장봉2리 산 90-1

북도면 장봉2리 산90-1 지점에 최준창 묘역이 있다. 최준창은 1682년(숙종 8)에 장봉도에서 출생하였으며, 가선대부·한성부좌윤 겸 오위도총부 부총관을 지냈다. 묘비는 1779년(정조 9)에 세워졌다.

묘역은 3단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최준창의 봉분은 묘역 가장 상단(1단)에 위치하며 앞에는 혼유석, 상석, 향로석, 문인석이 있다. 2단에는 봉분 4기

26. 『軍事保護區域 文化遺蹟 地表調査報告書(京畿道篇)』, 국립문화재연구소, 2000, 595~596쪽.

25. 『서해도서 종합학술조사Ⅱ - 영흥·자월·북도면-』, 인천광역시립박물관, 2005.



최준창 묘갈



최준창 묘갈 위치도

와 망주석 2기가 있으며, 3단에는 봉분 1기가 있다.

비의 전면에는 ‘유명조선국증가선대부한성부좌윤겸오위도총부부총관최공준창지묘(有明朝鮮國贈嘉善大夫漢城府左尹兼五衛都總府副總管崔公俊昌之墓)’라 쓰여 있으며, 규모는 55×174×25cm이다.

장봉목장 마성 터(長峰牧場 馬城址)

■시대 : 조선 ■유형 : 목장/터 ■소재지 : 북도면 장봉1리 독바위(웅암)일대



장봉목장 마성 터 위치도

장봉1리 주변은 1265년(고려 원종 5) 삼별초의 난으로 장봉도에 신궁을 건립한 뒤 왕이 신궁에 환어하여 현재 절골터로 불리는 지명과 함께 고려조와 조선시대에 걸쳐 강화

도와 서울을 방어하는 전방기지로 군사시설 용도로서의 역할과 군마 양성

의 적지로 말을 사육하여 육지의 군영에 군마를 제공하다가 1895년 경 폐장되었다.

말을 방목하던 목장구역은 국사봉 동쪽 말문고개를 경계로 한 동쪽 전역으로, 독바위(웅암) 일대이었다. 이때에 목장 안에 사람이 함부로 드나들지 못하게 하고, 말들을 능률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선 숙종 때에 말문고개를 중심으로 산 중턱과 골짜기와 남북해변까지 돌로 성을 쌓았다. 그리고 문을 만들어 관리하는 사람들만 드나들게 했었다. 그 말문이 지금 말문고개이다. 석축들은 도로 확장 때 석재로 사용되거나 산을 깎아내리면서 남쪽이 흩터미에 묻히고 말았다. 현재는 대부분의 유적이 사라지고, 북쪽의 일부 성지가 남아 있으나 경사가 급하고 나무들이 우거져 접근이 어렵다.



장봉목장 마성 터

암행어사 이견창 영세불망비(暗行御史 李建昌 永世不忘碑)

■시대 : 조선 후기 ■유형 : 비석 ■소재지 : 북도면 모도리 158번지



이견창 영세불망비 위치도

조선말기 모도 주민들의 생활상을 살피고 돌아간 암행어사 이견창의 영세불망비이다. 비석은 북도면 모도리 158번지에 위치해 있다. 이견창은 1852(철종 3)~1898. 조선말기

의 문신·대문장가로 본관은 전주(全州), 소명(小名)은 송열(松悅), 자는 봉조(鳳朝, 鳳藻), 호는 영재(寧齋)이다. 이조판서 시원(是遠)의 손자로, 증이조참판 상학(象學)의 아들이다.

할아버지가 개성유수로 재직할 때 유수관아에서 태어나 출생지는 개성이나 선대부터 강화에 살았다. 할아버지로부터 충의와 문학을 바탕으로 한 가학(家學)의 가르침을 받았으며, 5세에 문장을 구사할 만큼 재주가 뛰어나 신동이라는 말을 들었다. 장성한 뒤에는 모든 공사(公私)생활에서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았다.

강위(姜瑋)·김택영(金澤榮)·황현(黃玑) 등과 교분이 두터웠다. 용모가 청수(淸秀)하였으며, 천성이 강직하여 부정·불의를 보면 추호도 용납하지 않고 친척·지구(知舊)나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처단하였다. 일반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의례적인 의식이나 양보가 없이 소신대로 피력하는 성격이므로 인심포섭에는 도리어 결점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정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나친 충간(忠諫)과 냉철일변도의 자세는 벼슬길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이건창은 경기도 암행어사로 나와 모도 주민들의 생활상을 목격하고, 조세 및 부역을 면제케 해 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이때 이곳 주민들은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영세불망비를 세우게 되었다. 비는 시·모도 연육교를 건너 모도마을로 직진하다 보면 마을 중간길 오른쪽에 ‘모도쉼터’라 되어 있는 곳에 위치한다. 비는 두 동강 난 것을 최근 보수하고 바로 옆에 새로운 비석을 조성해 둔 상태다.

옛 비석의 비문

전면 ‘암행어사이공건창(暗行御史李公建昌)/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 후면 ‘을유유월(乙酉六月)’(‘/’는 비석이 절단된 면을 표시함).



절단되어 쓰러진 비신



남은 비신

신도목장 마성 터(信島牧場 馬城址)

■시대 : 조선 ■유형 : 목장/터 ■소재지 : 북도면 신도3리



신도목장 마성 터



신도목장 마성터 위치도

북도면 신도리에 조성되었던 신도목장의 설치에 대한 연대는 상세한 기록이 없어 명확하게 알기 어렵다. 하지만 1434년(세종 16) 사복시에서 흑오명(黑五明)이라 불리는 암수 흑마와 주둥이, 눈, 어깨, 말굽 등 네 곳은 새가 땅고 나머지 부위는 순백색인 암수 색마를 신도에 방목하였는데, 그 수가 적어 번식률이 낮기 때문에 전국 각도 목장에서 위 두 가지 색마를 뽑아 신도로 보낼 것을 청하자 국왕이 허락하였다는 기록 등으로 미루어 보아 그 이전에 설치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세종실록』지리지에 의하면 신도목장에는 국마 36필이 방목되고 있었고, 후대에 작성된 『목장도(牧場圖)』에

는 90필이 방목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한편 서해의 다른 섬들과는 달리 국영목장이면서도 이색적인 특수마를 방목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숙종~정조 연간에 강화 일대의 목장에 대한 통폐합 논의가 이어졌는데, 1785년(정조 9) 강화의 길상목장을 폐장하고 그 목마를 신도목장으로 옮겼던 것으로 보아 신도목장은 조선후기에도 변함없이 중요한 목장으로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도목장은 강화군이 민간기지결(民間基址結) 등을 원총(元總) 예산에서 감해 달라는 『각사등록』의 1896년(건양 1) 3월 27일 문서에 “...신승총결내(新陞總結內)에 소속(所屬)케한 제도중신도구목마장결 7결80부2속(諸島中信島舊牧馬場結七結八十負二束)...”라 하여 이미 ‘구 목마장’이라 언급된 것을 보면 1896년 무렵까지 유지되다 폐장된 것으로 보인다.

신도목장의 관리는 사복사에서 직접 담당하였는데, 당시 목장의 위치는 구봉산 북록으로 황새부리 동쪽인 선창구미 쪽으로부터 숙개지역과 마장 지역 일대, 그리고 수천내 마골재, 배주개 북쪽으로부터 왕봉산 북록을 경계로 한 넓은 지역이었다. 구봉산줄기 중턱부터 경사가 대체로 완만하고 밑으로는 넓은 평지 습지대가 있어 수량이 풍부하고 초지가 무성하여 목장으로서는 적지였던 것이다. 현재의 ‘마장’이라는 지역은 목마장의 출입구 부분에 해당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구봉산 남쪽으로 말들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쌓았던 마성석성이 현재에도 여러 곳에 남아 있어 과거의 모습을 추측케 해준다. 남아 있는 마성의 석축은 주로 구봉산 북서록의 신·시도 연육교 인접구릉에서 확인되는데 대개는 기저부의 석축만 남아 있다. 원래 마성의 일부였을 것으로 생각되는 수많은 석재들이 주변 과수원과 경작지, 주택의 축대로 사용되고 있다.

장봉주민 구황비(長峰住民救荒碑)

■시대 : 1901년 ■유형 : 비석 ■소재지 : 북도면 장봉2리



장봉주민 구황비

장봉주민 구황비 위치도

1901년의 대홍년 당시 기아에 허덕이던 장봉주민들을 구제한 참봉 조용교(趙鏞敎)와 진사 이정훈(李鼎薰)의 은덕을 기념하는 비석이다.

조용교는 구한말인 고종 초에 과거에 응시해서 참봉이 되었으나, 어지러운 시국을 당하여 관직의 뜻을 단념하고 장봉도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이주해 와서 살았다. 진사 이정훈과 함께 장봉도 주민들의 교화와 지역 봉사를 위해 기여했다. 특히, 신축년(辛丑年 : 1901년) 대홍작 때 굶주림에 허덕이는 주민을 구제하는 데 많은 공헌을 하였다. 그리하여 뒤에 주민들이 뜻을 모아 불망비를 세웠다.

비의 전면에는 ‘전참봉조공용교구황시혜불망비진사이공정훈구황시혜불망비(前參奉趙公鏞敎救荒施惠不忘碑進士李公鼎薰救荒施惠不忘碑)’, 후면에는 ‘광무6년3월일립(光武六年三月日立)’이라 쓰여 있으며, 비의 규모는 37×104×19cm이다.

덕적면

덕적도 진리 석비군(德積島 鎮里 石碑群)

■시대 : 조선 ■유형 : 비석군 ■소재지 : 덕적면 진리 삼거리 솔밭

덕적진지에서 바다쪽으로 200m 정도 거리의 진리 삼거리 솔밭도로 옆 소나무 밑에 위치하고 있으며, 비석 3기를 모아 놓았다.

- 절제사김공학성영세불망비(節制使金公鶴聲永世不忘碑), 乙巳 8월, 113×52×24cm
- 절제사이공□□애민선정비(節制使李公□□愛民善政碑), 丙辰 8월, 135×54×30cm
- 순국열사임용우선생영세불망비(殉國烈士林容雨先生永世不忘碑), 1946년 8월 15일, 122×46×21cm,
뒷면 :三一革命 含淚冤死 義重泰山 死輕鴻毛 守節死義 萬古丹忠 立石頌功 永世難忘



진리 석비군 전경



진리 석비군 위치도

덕적진 터(德積鎮址)

■시대 : 조선 ■유형 : 군영/터 ■소재지 : 덕적면 진리 361 일원

마을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진리(鎭里)는 옛 수군첨절제사영이 있던 곳이다. 지금도 진리 부근의 산기슭에는 진성(鎭城)으로 쌓은 석축의 흔적



덕적진 터



덕적진 축성 흔적



덕적진 터 위치도

이 남아 있다. 다만 진사(鎭舍)가 있던 곳은 확실치가 않은데, 어느 덕적진장이 쓴 글로 보이는 연대미상의 기록인 『덕적서(德積序)』에는 “진의 터는 중봉(中峰) 아래에서 동쪽 들을 향하고 있다”고 하였다.

중봉을 지금의 비조봉이나 운주봉으로 본다면 동쪽 들을 바라보

고 있는 진의 터는 진리의 서쪽 편이 될 것이다. 진리성당에서 약 50m 아래에 커다란 노거수 한 그루가 보인다. 전통시대 관아 건물에는 보통 큰 나무들을 식재하였으므로, 추측하기에 진리성당 일대가 덕적진이 위치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북리 파시촌

■시대 : 근대 ■유형 : 시장 ■소재지 : 덕적면 북리

덕적도 주산(主山)인 국수봉(314m)의 동남쪽에 바다가 U자형으로 깊이 만입(灣入)한 북리는 과거 ‘쑥개’로 불려지던 한적한 시골 어항(漁港)이었다.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동쪽만 바다로 뚫려 있어서 과거부터 서해를 향해하던 선박들의 피난처로 알려져 있던 곳이다. 덕적도는 1920년대 당시 인구가 3,600여 명에 달했지만 경작지가 적어 어업으로 근근이 살아가던 궁



북리항 전경(『덕적도, 굴업도 민어파시』, 『인천』, 2014년, 8월 22일)



북리 파시촌 위치도

벽한 섬이었다. 이 섬이 1924년부터 굴업도를 대신하는 새로운 어업기지로 탈바꿈한 것이다. 매해 성어기가 되면 어선과 운반선 등 수천 척의 배들이 몰려와 파시가 열렸다.

한편 1937년부터는 일제 당국이 구상한 소위 ‘서해의 호수화’ 사업의 일환으로 연평도와 함께 이곳에 대규모 어항의 건설이 추진되었다. 1939년부터 시작된 방파제 공사는 총공사비만 해도 33만 엔에 달했다. 그러나 작은 쑥개의 파락금이 동편에 200m의 서방파제를 세우고, 어름실산 동편에 150m의 동방파제를 세우는 북리의 축항공사는 뜻하지 않게 전쟁이라는 난관에 부딪치면서 공사 중단 위기를 맞이한다. 1941년 태평양전쟁의 발발로 예정대로 공사를 진행시키지 못하다가 서방파제의 건립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8.15광복과 6.25전쟁을 맞는다. 이후 2~3차례 공사가 중단되는 등 지지부진한 끝에 공유수면 매립공사, 호안(護岸)공사, 무전(無電)시설 및 물양장(物揚場) 시설공사 등의 제반공사와 함께 1972년 서방파제의 증축공사를 완료하고, 1973년에는 동방파제도 준공되었다.

북리항은 과거 수천 명의 어업 종사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던 곳이다. 지금은 북리 전체 가옥이 49호, 인구는 960여 명에 지나지 않으나, 당시의 파시 풍경을 보여주는 주택과 창고, 목욕탕, 선구점, 공장 등의 건물이 아직 남아 있다.

덕적도 서낭당 터

■시대 : 근대 ■유형 : 민속/사당 ■소재지 : 덕적면 북리 산490



덕적도 서낭당 터



덕적도 서낭당 터 위치도

덕적면 북리 산490에 위치한 서낭당 터에는 옛 서낭당나무와 돌무더기 등은 흔적이 없어졌다. 진2리와 북리의 경계지점이기도 하다. 서낭당은 고기잡는 어부들이 풍어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개별적으로 치성을 드렸고, 마을 전체가 고사를 지내지는 않았다.

자월면

자월도 국사봉 봉수 터(紫月島 國思峰 烽燧址)

■시대 : 조선 ■유형 : 교통/터 ■소재지 : 자월면 자월2리

봉수터는 자월도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인 국사봉 정상에 위치하고 있다. 국사봉 정상 부근에 이르면 산 아래에서도 보이지 않는 화강암 바위가 보이며, 이 화강암을 이용하여 봉수대를 쌓은 것으로 보인다. 봉수대는 장축 150cm, 단축 830cm의 타원형 기단석 위에 장축 280cm, 단축 250cm의 원형으로 축조되었다. 봉수대 벽면에는 높이 90cm 정도에 50×50cm의 ‘총안’으로 보



국사봉 봉수 터



국사봉 봉수 터 위치도

이는 구멍이 세 군데 있으며, 봉수 입구에서 남서벽은 $240 \times 240\text{cm}$ 정도 방형으로 돌을 쌓아 원형에 방형을 붙여 놓은 형태를 띠고 있다. 또한 방형으로 돌을 쌓은 곳에서 북서쪽으로 $200(\text{북서방향}) \times 330\text{cm}$ 의 기단을 한 단 더 쌓은 것으로 보아 일반적인 봉수의 형태는 아니며, 봉수 이외 다른 기능까지도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이작도 부아산 봉수 터(大伊作島 負兒山 烽燧址)

■시대 : 조선 ■유형 : 교통/터 ■소재지 : 자월면 이작1리 부아산



부아산 봉수 터 위치도

대이작도 부아산 봉수터는 자월면 이작1리 산201 일원에 있으며, 대이작도의 주봉인 부아산에 있는 봉수터이다. 서쪽으로는 섬의 서쪽 지역과 소이작도가 보인다. 이곳은 부

아산 봉수지와 달리 아무런 시설도 남아 있지 않다. 봉수터는 팔각정이 위치하는 평평한 지역으로서 일부를 돋우어 약간 봉긋한 곳에 할석을 서로 엮

물려 둥글게 쌓았는데, 이곳이 불을 피우는 화구이다. 이곳 봉수는 다른 시설이 없이 화구만 시설하였는데, 화구 주위 바닥에 묻혀있는 돌로 보아 돌을 깔아 기초를 삼고 흙을 덮은 다음 석축을 쌓은 것으로 보인다. 크기는 직경 120cm , 최대높이 30cm 로서 최고 3단까지 쌓았다.



부아산 봉수 터

현재 남아 있는 시설은 후대에 새로 쌓거나 보수한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형태라고 하며 광복 이후 얼마동안 사용했다고 한다. 이곳 봉수는 내륙에서 조사되는 장거리 연락체계로서의 봉수와는 다른 듯하다. 주민들의 설명처럼 어선의 출입과 해적선의 감시 및 출현을 알리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영흥면

영흥진 터

■시대 : 조선 ■유형 : 군영/터 ■소재지 : 영흥면 외2리 업벌마을

영흥진 설치의 배경이나 내용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고종실록』 고종 9년 5월 14일조에 의하면 “화랑진 진영을 영흥도로 옮기고 강화의 어구를 지키게 하라고 지시하였다. 수원유수 신석희(申錫禧)의 제의를 따른 것이다”라고 하여 1872년 5월에 화랑진을 남양에서 영흥도로 옮겼음을 알 수 있다. 같은 해 7월 ‘영흥진첨사’로 정식 명명되어 영흥진은 1894



영흥진 터 전경



영흥진 터 위치도

년까지 존속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처럼 간략한 문헌기록 외에는 영흥진 터로 추정되는 업벌에 과거 진과 관련된 흔적이 남아 있지 않아 그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과거 영흥진의 터를 비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영흥화력발전소의 건설과 관련하여 인하대학교 박물관이 수행한 1996년의 지표조사에서 업벌마을 일대 추정지에 대한 시굴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진의 유구를 확인하기 위하여 2001년 한양대학교 박물관에서 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지표에서 자기편 몇 점을 수습하고 교란층에서 몇 점의 조선시대 기와편과 자기편을 수습하는 외에 직접적으로 영흥진과 관련된 유구는 확인하지 못하였다.²⁷⁾

시굴조사 이후 이미 추정지 일대에는 영흥도 화력발전소와 관련된 각종 시설이 건축되는 등 형질변경이 이루어져 관련 유적을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업벌마을 일대는 문헌기록과 지형적인 여건으로 미루어 현재까지도 과거 영흥진이 위치하였을 가장 유력한 곳으로 추정되고 있다.²⁸⁾

임현규 효자 정문

■시대 : 조선 ■유형 : 정려 ■소재지 : 영흥면 내1리 701



임현규 정문



임현규 정문 위치도

내리의 가갓골은 평택 임씨(林氏)의 오랜 세거지이다. 이곳에는 한때 천석꾼 소리를 들던 오래된 기와집이 있다. 1930년대 영흥도 일원의 간척사업으로 치부하고, 섬에서 권력을 휘두른 영흥면장 임원배(林元培)의 집이기도 하였다.

이 기와집 정문에는 1885년(고종 22) 임현규(林顯圭)에게 내려진 효자정문(孝子旌門)이 남아 있다. 정문에는 “효자학생 현규지 문 광서 11년 을유 6월 명정(孝子學生顯圭之門 光緒十一乙酉年六月命旌)”이라 새겨 있고, “남보다 훨씬 뛰어난 효행을 하여 그 본보기로 정문을 내린다. 탁절지효행명사 정려지전표기문(卓絕之孝行命賜旌閭之典表其門)”고 하여 그 효행의 내용을 적고 있다.

임세재 묘(林世載 墓)

■시대 : 조선 ■유형 : 분묘 ■소재지 : 영흥면 내4리 산38-12

영흥도의 내4리 산38-12 버드니마을에 임세재의 무덤이 위치해 있다.

묘역에는 3기의 묘와 석물이 있는데, 근래에 새로 단장하여 원래의 모습

27. 인하대학교박물관, 『영흥도 화력건설사업지구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1996.

한양대학교박물관, 『(전) 영흥진 시굴조사 보고서』, 2001.

28.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서해도서 종합학술조사 II』, 2005년, 135~136쪽.



임세재 묘



임세재 묘 위치도

을 찾아보기 어렵다. 새로 조성한 묘비에는 “정일품평택임공세재 배정정부 인김해김씨지묘(正一品平澤林公世載 配貞敬夫人金海金氏之墓)”라고 각자 되어 있다. 임세재는 원래 영흥도에 설치된 국영 말목장의 목마군(牧馬軍) 출신이었으나, 영조 때 별군직(別軍職)에 차임되는 것을 계기로 1747년(영조 23) 무과에 급제하였고, 이후 보성군수·울진현령·언양현감·낙안군수 등의 수령직을 역임한 인물이다. 낙안군수 재임시 사망하자, 고향인 영흥도에 묘소를 마련하였다.

내리 큰우물

■시대 : 조선 ■유형 : 우물 ■소재지 : 영흥면 내4리 700 일대

영흥면 내4리 700지점에 마을 전체가 식수로 사용했던 자연 우물이 있다.



내리 큰우물



내리 큰우물 위치도

마을 처녀들이 더운 여름에 이 우물에서 목욕을 즐기기도 했다 하여 ‘처녀물’이라 부르다가 마을사람들이 처녀물이란 말이 좋지 않다 하여 조선 중엽 ‘큰우물’로 개칭하고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고 한다.

통일사 석불(通一寺 石佛)

■시대 : 현대 ■유형 : 종교/불상 ■소재지 : 영흥면 내6리 201-1번지



통일사 석불



통일사 석불 위치도

영흥도 국사봉 밑에 위치한 통일사는 1983년 여승 최선규(법명: 최명수) 보살이 6·25전쟁 때 전사한 남편의 넋을 기리기 위하여 창건한 사찰이다. 전몰군경 미망인이 된 최보살은 일제시대를 살면서 나라 없는 설움과 조국분단의 한을 풀기 위해 이곳 국사봉 중턱에 사찰을 건립하고, 조국통일 기원 염불을 계속 해오고 있다. 통일사 경내에는 남서 어장에서 어부가 그물로 건져올린 것이라고 전해지는 시대 미상의 석불이 있다. 원래 이 석불은 어부가 건져낸 후 양로봉 북동쪽 골짜기의 은자암에 모셔져 있던 것인데, 이 암자에 있던 현 통일사의 주지가 통

일사를 신축하면서 현재의 위치로 옮긴 것이라 한다. 불상은 머리가 없는 입상으로 풍화되어 정확한 시대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형태로 보아 삼국시대의 것으로 추정된다.

통일사는 대지 6,600㎡에 대웅전, 미륵전, 지장전, 5층석탑, 종각 등이 있으며, 승려 3명에 300여 명의 신도들이 모여 법회를 보고 있다.

평택 임씨 묘역(平澤 林氏 墓域)

■시대 : 현대 ■유형 : 분묘/묘역 ■소재지 : 영흥면 내4리 버드니



평택 임씨 묘역



평택 임씨 묘역 위치도

영흥면 내4리 영은사 주변에 평택임씨 일가의 묘역이 있다. 묘역은 사당의 북쪽에 있는데, 4기의 묘와 석물이 있다. 묘지관리인의 전언에 의하면 북쪽 묘역은 선대묘역이고, 서쪽 묘역은 임세재의 묘역이라 한다. 묘역에는 묘표와 문인석, 상석 등 조선중기의 것으로 보이는 석물들이 남아 있어 묘역의 연혁을 파악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해 주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북쪽 가장 위쪽 묘의 묘표는 마모가 심하여 탁본을 통하지 않고는 정확한 판독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비는 폭 46cm, 높이 117cm, 두께 17cm의 양면비인데, 전면에는 “절충장군 증 가선대부 ○○성 임공지묘 숙부인 김해김씨지묘(折衝將軍 贈 嘉善大夫 ○○城 林公之墓 淑夫人 金海金氏之墓)”라고 각자되어 있고, 후면에는 “율산후인임귀○행훈련원판관○○○…(蔚山後人林貴○行訓練院判官○○○)”라 각자되어 있다. 묘역에 있는 4기의 동자석은 작은 규모와 표현기법으로 미루어 조선 중기의 것으로 보인다.

삼신우물

■시대 : 근대~현대 ■유형 : 우물 ■소재지 : 영흥면 외2리 업벌마을



삼신우물



삼신우물 위치도

영흥면 외2리 업벌마을에는 당고사 때 쓰던 우물이 있다. 새마을사업 때 우물물을 펌프로 끌어 올리게 되면서 이웃마을 사람들도 삼신우물의 물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 무당들은 삼신우물이 영험하다고 믿어 그 근처에서 굿을 하기도 했다.

인천광역시 옹진군 지정문화재

유적명: 백령도 남포리 콩돌해안

지정상황: 천연기념물 제392호

소재지: 옹진군 백령면 남포리 해안 일원

유적명: 백령도 사곶해변(천연비행장)

지정상황: 천연기념물 제391호

소재지: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해안 일원

유적명: 대청도 동백나무 자생복한지

지정상황: 천연기념물 제66호

소재지: 옹진군 대청면 대청리 43-1

유적명: 소청도 스트로마톨라이트 및 분바위

지정상황: 천연기념물 제508호

소재지: 옹진군 대청면 소청리 산55-3 일원

유적명: 백령도 남포리 습곡구조

지정상황: 천연기념물 제507호

소재지: 옹진군 백령면 남포리 산282-1번지 일원

유적명: 백령 연화리 무궁화

지정상황: 천연기념물 제521호

소재지: 옹진군 백령면 중화길 230-7 일원 (연화리)

유적명: 감람암 포획 현무암 분포지

지정상황: 천연기념물 제393호

소재지: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154-2

유적명: 신도노랑부리백로와 꿩이갈매기 번식지

지정상황: 천연기념물 제360호

소재지: 옹진군 북도면 신도 및 장봉리 일원

유적명: 백령도 패총

지정상황: 향토유적 제2호

소재지: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154-1

유적명: 백령도 두무진

지정상황: 명승 제8호

소재지: 옹진군 백령면 연화리 255-1 외 1

유적명: 연평도 충민사

지정상황: 향토유적 제1호

소재지: 옹진군 연평면 연평중앙로 34-1 (연평리, 충민사)

『인천의 문화사적과 역사 터』(상,하) 집필위원

상권

○ 중구 · 동구 역사문화 유적

- 김윤식 전)인천문화재단 대표
- 최진식 정석고등학교 교사
- 오정윤 전)동구사편찬위원회 상임위원

○ 남동구 · 연수구 · 미추홀구 역사문화 유적

- 남달우 인하역사문화연구소 소장
- 황은수 미추홀구 실무관
- 우석훈 인천시립박물관 학예사

하권

○ 부평구 · 서구 · 계양구 역사문화 유적

- 견수찬 계양구청 학예사
- 김정아 부평역사박물관 학예사
- 김정훈 전)부평역사박물관 학예사
- 최병훈 전)서구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연구원

○ 강화군 역사문화 유적

- 김상렬 인천시립박물관 학예관
- 김춘식 소래역사박물관 학예사
- 정민섭 전)인하대박물관 연구원

○ 옹진군 역사문화 유적

- 임학성 인하대학교 사학과 교수
- 안정현 동구사편찬위원회 상임위원
- 손민환 부평역사박물관 학예사

■ 기획 총괄 및 교정 교열

- 강덕우 전)시사편찬위원회 전문위원
- 강옥엽 시사편찬위원회 전문위원
- 오정윤 시사편찬위원회 연구원

인천광역시사 ㉠

인천의 문화사적과 역사 터하

발행일 2018. 11

발 행 인천광역시

발행처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 39번길 74(송학동 1가 2-2번지)

Tel. 032)440-8382, 8383

ISBN : 979-11-87854-14-2 93900

인 쇄 제일디자인(032-1661-4604)

※ 본 출판물의 저작권은 인천광역시에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사 9

인천의 문화사적과 역사 터하

비매품 / 무료



ISBN 979-11-87854-14-2